

民族戰亂史 11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發 刊 辭

당연구소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은 국난(國難)의 기록을 통하여 선인(先人)들이 외침(外侵)에 대처하였던 사실(史實)의 전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교훈(敎訓)을 얻기 위해 군사사적(軍事史的) 관점의 「민족전란사(民族戰亂史)」(제1집~제10집)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민족전란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전쟁들만을 선정하여 각 전쟁의 배경 및 원인,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및 영향을 상술함으로써 단위 전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익히고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11집으로 『나당 전쟁사(羅唐戰爭史)』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당 전쟁사』는 신라가 한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면서 삼국 중에서 후발 주자로 출발해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게 되는 발전의 과정을 군사사의 측면에서 연구·분석하여 집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복 국가(征服國家)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제반 요인을 대당(對唐) 전쟁 승리의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의 원인과 전개 과정·전쟁의 결과 및 전쟁의 영향을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즉 나당 전쟁의 본말(本末)을 사실(史實)에 의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전쟁의 흐름과 전투 상황의 실상을 사실에 가깝게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당 전쟁사』에는 신라인들이 일치 단결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오히려 삼국 통일과 대당 전쟁의 승리로 승화시킨 끈질긴 노력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당(唐)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용하고 이를 민족 의식(民族意識) 형성의 계기로 삼은 것은 한민족(韓民族)의 단결을 공고히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후 통일신라(統一新羅)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발해(渤海)와 남북국(南北國)을 형성하였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가 나당 전쟁을 통하여 무력으로 당군을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이룩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재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선인들이 민족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그 지혜와 용기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를 새로운 역사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고대사 분야의 제한된 자료로 인한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담당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2월 일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朴 淳 贊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

절 : 1, 2, 3, …

항 : (1), (2), (3), …

목 : 1), 2), 3), …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서술하였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안에 넣었다. 그리고 보충적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 안의 : 부호 다음에 뜻을 해설하여 보충하였다.

3. 한자로 표기하는 인명·지명·관직·연호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만 () 안에 원어를 표기하였다.

(2) 한국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지명·인명·부족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표기하였다.

- 중국의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한자를 넣었다. 그리고 () 안에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 > 표시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예] 설인귀(薛仁貴) 농우(隴右 : 감숙성 선주 <鄯州>)

- 기타 민족의 부족명·인명도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안에 한자를 넣었다.

[예] 말갈족(靺鞨族) 돌궐(突厥) 이근행(李謹行)

-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 주기(註記)는 제한된 해설주(解說註)를 제외하고는, 활용한 연구성과물과 인용된 원문의 출처(出處)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이 책의 끝에 실었다.
-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 제왕의 재위년을 () 안에 표시하였다. 그러나 월·일은 음력으로 표기하였다.
-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부족명·숙어 등의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 저술이나 서명의 표시
-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목 차

발 간 사
일러두기

서 론

1. 나당 전쟁의 특성	1
2. 나당 전쟁의 개관	7

제 1 장 나당 전쟁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신라의 정치·외교적 발전	10
(1) 국왕 전제권의 확립	10
1) 왕권의 안정	10
2) 왕권의 신장	13
3) 왕권의 전제화	17
(2) 관제의 정비와 발전	20
1) 관제의 정비	20
2) 관제 정비의 영향	22

(3) 지방통치 조직의 정비·강화	23
1) 지방관의 파견	23
2) 지방 제도의 정비	24
3) 지방관의 역할	27
(4) 대당 외교의 강화	28
1) 대중 외교의 수립	28
2) 청병 외교의 전개	30
3) 청병 외교의 성과	34
2. 신라의 경제적 번영	36
(1) 농업 생산성의 증가	36
1) 철제 농기구의 확산	36
2) 농업 기술의 발달	38
3) 농업 생산성의 향상	40
(2) 산업의 발달	41
1) 산업의 세분화	41
2) 유통 체계의 정비	42
(3) 수취 체제의 정비	43
1) 조세 제도의 정비	43
2) 수취 기관의 발달	44

제 2 장 나당 전쟁의 군사·외교적 배경

1. 신라의 군사적 발전	46
(1) 군사 조직의 정비	46
1) 군사력의 기반	46
2) 전투 장비의 발전	48
3) 전투 부대의 구성	49
(2) 대외 항쟁력의 강화	53
1) 삼국의 대립 양상	53
2) 백제의 전력 소모	55
3) 신라의 항전 역량 제고	57
(3) 불교 사상의 전력화	60
1) 불교 수용의 배경	60
2) 국민 통합의 실현	62
3) 불교 승려의 역할	64
2. 당의 국내정세 변화	67
(1) 정치 상황의 변화	67
1) 당조정의 내분	67
2) 집권 세력의 교체	69
(2) 군사력의 강화	72
1) 부병제의 발전	72
2) 군사동원 능력의 우세	73

(3) 대외 인식의 변화	75
1) 대외 정책의 강화	75
2) 이민족과의 충돌	76

제 3 장 나당 전쟁의 원인

1. 신라의 영토확장 정책	80
(1) 나 · 당 연합군의 결성	80
(2) 나 · 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	82
(3) 나 · 당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	85
1) 고 · 당 전쟁의 전개	85
2) 고구려의 내분과 멸망	89
2. 당의 패권주의 정책	91
(1) 백제 영토에 대한 지배 야욕	91
1) 백제 부흥군에 대한 탄압	91
2) 부흥군의 소멸과 나 · 당 대립	95
(2) 당의 고구려 영역 장악	99
1) 당의 지배 정책	99
2) 신라의 부흥군 지원	102
(3) 당의 신라 지배 야욕	105

3. 신라의 대당인식의 변화	107
(1) 양면 외교의 전개	107
1) 강경 외교의 추진	107
2) 온건 외교의 추진	109
(2) 군사 활동의 강화	112
1) 백제 영역 장악	112
2) 고구려 부흥군과의 제휴	116

제 4 장 나당 전쟁의 경과

1. 백제 지역의 당군 축출	119
(1) 백제 유민 및 일본과의 제휴	119
(2) 나·제 국경 일대의 전투	122
(3) 금강 중류 지역의 전투	125
2. 고구려 지역의 당군 축출	128
(1) 대방 지역의 당군 축출 전투	128
(2) 임진강·한강 지역의 공방전	133
(3) 예성강·임진강 지역의 공방전	138

3. 당군의 전력 약화	147
(1) 서해안 지역 전투의 실패	147
1) 예성강구의 전투	147
2) 기벌포 전투	150
(2) 당의 주변정세 혼란	152
1) 대외 정책의 혼선	152
2) 북방 이민족의 침입	154

제 5 장 나당 전쟁의 결과

1. 중국대륙의 영향력 약화	157
(1) 당의 국내정세 변화	157
(2) 유민 정책의 완화	165
(3) 소고구려국의 탄생	168
2. 통일왕조의 성립	171
(1) 백제 영토의 지배	171
(2) 고구려 영토의 지배	176
3. 통일왕조의 민족의식 형성	182
(1) 자주의식의 성장	182
(2) 동족의식의 성장	185

제 6 장 나당 전쟁의 영향

1. 신라의 정치 · 군사에 미친 영향	187
(1) 국왕 전제권의 강화	187
1) 왕권 강화의 배경	187
2) 왕권 강화의 방향	189
(2) 군사력의 재편성	195
1) 중앙 군제의 재편성	195
2) 지방 군제의 재편성	198
3) 해양 군사력의 제고	201
2. 신라의 사회 · 문화에 미친 영향	203
(1) 신분 질서의 재편	203
1) 신분 질서 재편의 배경	203
2) 신분 질서의 재편성	205
(2) 신라 문화의 번성	208
1) 불교 사상의 발달	208
2) 과학 기술의 발달	213
3) 예술의 발달	215

3.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성	218
(1) 신라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	218
(2) 발해 왕조의 탄생	219
(3) 발해와 당의 관계 정립	222
(4) 남북국 시대의 전개	225

결 론

1. 나당 전쟁의 승리 요인	228
(1) 정치·외교적 요인	228
(2) 군사적 요인	231
2. 나당 전쟁의 역사적 의의	233
(1) 민족사적 의의	233
(2) 문화사적 의의	238
 □ 주 기	242
□ 연 표	273
□ 관계 자료 목록	307

서론

1. 나당 전쟁의 특성

나당 전쟁은 신라가 당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660년과 668년에 백제 및 고구려를 각각 멸망시킨 후로 한반도를 통째로 지배하려는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670년부터 676년까지 7년여 기간동안 민족의 생존을 걸고 벌인 전쟁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나당 전쟁의 서전(緒戰)이 된 삼국 통일 전쟁을 전개하기 이전까지는 삼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진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상에 위치하면서 강력한 정복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고구려는 물론 같은 한반도 내륙의 서해안에 접하고 있는 백제보다도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신라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고구려와 대립하던 나제 동맹(羅濟同盟) 시기 이후로는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커다란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데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였다. 비록 수많은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나 부족국가 시대(部族國家時代) 이래의 전통적 체질을 쉽사리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즉 화백제도(和百制度)나 골품제도(骨品制度)와 같은 신라만의 개성이 강한 특수한 사회제도를 성립시켜 이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도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내재적 발전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고구려

나 백제의 군사적 압박에도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로부터 유입되는 선진 문화의 압력에 대항하면서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저력을 갖추기도 하였다.¹⁾

따라서 신라가 한반도 동남부의 낙후된 국가로 머물지 아니하고 삼국 통일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나당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당군과 전쟁을 전개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항상 국익에 우선권을 둔 실리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신라는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당군과 전투를 벌이면서도 당 제국과는 외교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조정의 대신이나 저명 인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실리 외교를 전개한 것이다.

또한 신라는 당의 선진 불교(佛敎)와 유학(儒學)을 배우기 위해 다수의 유학생들을 파견하였다. 이들 유학생들은 당의 고승(高僧)이나 저명한 유학자들과 사제간(師弟間)의 인연을 맺거나 동문(同門) 관계로서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데 가교(架橋)가 되었다. 이 중에는 당의 과거 시험(科擧試驗)에 합격하여 벼슬아치로 활약한 경우도 있어 신라의 친당적 외교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멸망한 왕조의 유민 집단과 제휴하여 반당세력을 구축하고 이들을 당군 축출 전쟁에 이용하였다.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에 치소를 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안동도호에 임명된 설인귀(薛仁貴)는 2만명의 당군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모두 장악할 수는 없었다. 특히 압록강 이북의 여러 성에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군사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제압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고구려를 재건하려는 부흥군은 여

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여 대당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고구려 부흥군은 백제 부흥군의 투쟁 양상과는 달리 신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때로는 연합 전선을 형성한 특징이 있었다.

예컨대 고구려 태대형(太太兄) 고연무(高延武)가 신라의 지원을 받아 신라 사찬(沙漣)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670년 3월에 각각 1만 명씩 2만명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대당작전을 전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서북진하여 4월에 개둔양(皆敦壤) 부근에서 당군에 소속된 말갈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백제 유민들과는 달리 고구려 유민들은 스스로 신라의 지원을 요청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신라가 당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자 부흥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던 것이다. 신라가 문무왕 명의의 책명문(冊命文)을 670년 8월에 보장왕의 서왕자인 고안승(高安承)에게 보내어 고구려 국왕에 책봉하고, 군량미 2천 석과 비단 등을 예물로 전달하여 각별히 예우한 것도 유민 세력을 대당 전쟁에 이용하려는 전략의 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셋째, 나당 전쟁은 대백제 전쟁과 대고구려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삼국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이며, 나당 연합군을 결성할 초기부터 예견되는 전쟁이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당군이 군사를 잔류시킨 것은 백제 고토를 지배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648년 2월에 김인문(金仁問)이 당에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 ‘평양 이남과 백제의 토지는 모두 신라의 영토에 귀속시킨다’고 한 약속의 위반이었다. 이때부터 신라는 이미 전후 처리 문제로 인하여 양국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부흥군과의 전

투를 주도하면서 명분을 축적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계획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특히 당이 664년 2월과 이듬해 8월에 문무왕과 부여 용이 회맹하도록 강요한 것은 신라에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신라로 하여금 당의 야욕을 재확인하고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다지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패망한 후에 9개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한 행위는 패권주의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인귀(薛仁貴)가 2만명의 병력으로 주요 지역을 장악한 것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계산된 조치였다.

특히 평양(平壤)의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는 옛 고구려 지역에 설치된 도독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백제 고토 및 신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당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 통치 기관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신라도 고구려 부흥군에게 정착지를 제공하고 각종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항전 역량을 제고시켜 주었다. 이 같은 지원은 국가 존망을 좌우할 당군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으며, 새로운 반당세력(反唐勢力)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다.

고구려 부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라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의 야욕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신라는 당과의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의 야욕 앞에 오히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넷째, 이질성이 강한 당과의 전쟁을 통하여 삼국민의 동족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 국가로의 형성 시기가 각기 다른 삼국은 지리적인 환경 등으로 인하여 7세기 중반까지는 같은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동질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나당 전쟁은 민족적 동질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당의 군대를 상대로 한 전쟁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동족(同族)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군 축출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당군을 무력으로 축출하고 대동강과 원산만을 연하는 선의 이남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여 이 지역에 대한 자주적 지배권을 확보한 것은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당의 주변정세 변화를 적절히 이용하여 강온(強穩) 양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하였다.

당의 서쪽 변경 지역에서 토번족(吐蕃族)이 군사를 일으켜 670년 4월에 백주(白州) 등 18개 주를 점령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서돌궐(西突厥)도 참전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당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국내정세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대신라 정책도 유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강온 양면 정책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신라 국왕이 실질적인 총사령관으로서 전국민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진두 지휘하였다.

백제 왕조가 항복한 직후로 유민들의 저항은 초기의 소극적 양상과는 달리 선제 공격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대담하고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660년 9월에는 유인원의 당군이 사비성에서 포위당하여 고전하기도 하였다. 이때 무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원하여

부흥군의 포위망을 깨트리고 당군을 구출하였다.

임존성의 흑치상지(黑齒常之)와 주류성의 부여복신(扶餘福信)이 이끄는 백제 부흥군은 부여풍(扶餘豐) 왕자가 662년에 일본에서 귀국하자 그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663년의 전투에서는 즉위한지 불과 2년여가 지난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참전하여 두릉윤성(豆陵尹城: 청양군 정산)과 주류성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국왕이 총사령관이 되어 부흥군과의 전투를 진두 지휘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의 영토욕에 대항하여 신라의 기득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요지부동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것이다.

나당 전쟁은 신라가 추진한 삼국 통일 전쟁의 마지막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고구려가 중국 대륙의 강대국인 수·당(隋唐)을 상대로 하여 투쟁하다가 멸망한 후로는 이를 신라가 계승한 의미를 가지는 한민족(韓民族)의 대이민족(對異民族) 전쟁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 통일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어진 전리품이며,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대가를 지불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²⁾

신라의 당에 대한 이른바 청병 외교(請兵外交)는 사대 외교(事大外交)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단순히 당의 위압에 굴종하는 종주국에 대한 사대로 단정할 수만 없는 측면이 있다. 삼국 중에서 서해안을 접하고 있어 당과의 해상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백제와 육상 교통로상에 위치한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를 적대국으로 따돌림에 따라 육상과 해상 교통로가 모두 차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는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여 국가의 존망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같은 신라의 위기 상황은 태종 무열왕대에 이르러 대외관계를 공세적으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³⁾ 한반도의 동해안에 치우친 경주 분지(慶州盆地)에서 고립이 된 신라는 실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같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당에 접근하여 당의 군사력을 빌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의 군사력이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송두리째 지배하려는 야욕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신라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대당 투쟁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의 생존이 걸린 대당 투쟁은 고구려 왕조가 멸망한 후로 무려 7~8년간 지속되었고, 심지어 멸망한 왕조의 유민 세력들과 제휴하여 대당 전쟁을 전개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2. 나당 전쟁의 개관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고조선(古朝鮮 : 조선)이 이민족(異民族)인 연(燕)과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4세기 말부터 기원전 3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였다. 그후로 고구려가 동북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자 주로 중국의 한족(漢族)과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고구려는 6세기 말부터 중국의 혼란을 종식시킨 통일왕조인 수(隋)와 대립하여 4차에 걸친 대규모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패전을 거듭한 수는 결국 정치·군사·경제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

하자 당(唐)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를 계승한 당의 침공에 또다시 시달리게 되었다. 645년에 첫 침공을 안시성(安市城)에서 물리친 이래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침공을 받았으며, 그후로도 국력을 대당 투쟁에 집중하고 있었다. 649년 5월에 당 태종이 침공을 중지하라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비로소 소강상태를 맞아 한숨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당 외교를 강화하자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대립 정국이 형성되었다. 즉 신라와 당이 동서로 연합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남북으로 연합하여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신라는 당과 연합군을 편성하였고 660년 7월에는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어 668년 9월에는 수도 평양성을 함락함으로써 고구려 왕조마저 멸망시켰다. 그후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는 물론 본래 신라가 가지고 있던 고유 영토마저도 송두리째 지배하려는 야욕을 노출시켰다. 이에 신라가 당이 한민족을 지배하려는 저의를 무력으로 분쇄하기 위해 당군과의 충돌도 불가피함으로써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즉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의 출병 부대를 그대로 잔류시켜 한민족 모두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야욕을 신라가 무력으로 압박하여 몰아낸 과정이 나당 전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민족의 자존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국력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적대 관계에 있던 고구려 부흥군과의 제휴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민족인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있어서 고구려 부흥군과는 당군에 대한 상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관계를 개선하였던 것이다. 즉 고구려 부흥군이 대당 투쟁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집단

으로 이주시켜 근거지를 제공하고 무기 및 군량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항전 역량을 크게 제고시켜 주었다.

신라군은 특히 매소성(買肖城) 전투(674)나 기벌포(伎伐浦) 전투(676) 등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당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군사적인 압박을 가중시켰다. 10여 년 간 이민족의 지배 정책에 대항하는 민족적 차원의 대당 전쟁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로 당군을 북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신라는 백제의 전토와 고구려 영토의 일부를 새로운 영토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즉 서쪽의 대동강(大同江)에서 동해의 원산만(元山灣)에 이르는 선의 이남 지역을 영토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민족적 동질성으로 결속시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다시 대당 적개심으로 승화시켜 강력한 무력 투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유화 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강은 양면 정책의 성과로 나타난 결과가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었던 것이다.

제 1 장 나당 전쟁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신라의 정치·외교적 발전

(1) 국왕 전제권의 확립

1) 왕권의 안정

신라는 내물왕(奈勿王)이 죽은 후로 그 뒤를 이어 5세기 초에 실성왕(實聖王 : 402~416)이 즉위하였으나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실성왕은 고구려에 인질(人質)로 있다가 귀국한 후 내물왕의 장자를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였으며, 재위 중에 내물왕의 장자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그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따라서 신라는 실성왕을 타도하고 즉위한 눌지왕(訥祗王 : 417~458)의 시대인 5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국의 혼란이 국정 전반에 걸친 혼란으로 확대되자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당시 왕위 계승에 주도권을 장악하여 이를 정권 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 집단간의 정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정치적 혼미를 거듭하다가 비로소 돌과구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눌지왕대를 거치면서 북방의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의 남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로소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즉 외침에 대비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고구려가 압록강(鴨綠江) 이북 국내성(國內城)에 있던 수도를 버리고 남하하여 427년에 대동강(大同江) 유역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본격적인 남하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이 같은 남하 정책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가 천연의 장애물인 압록강을 넘은 상황에서 고구려의 무게 중심도 자연히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결국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영토확장 정책에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국가 존망의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눌지왕은 433년에 같은 처지에 놓인 백제와 군사 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단계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왕위를 장자(長子)에게 물려주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이른바 부자 상속 제도(父子相續制度)를 확립하여 그 동안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야기되었던 분쟁들을 종식시켰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눌지왕을 이어서 즉위한 자비왕(慈悲王 : 458~479)과 소지왕(炤知王 : 479~500)의 재위 기간을 거치면서 종래의 전통적 6부(六部) 체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부족(部族) 체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6부의 부족적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그 기능들을 중앙 정부가 장악하도록 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5세기 중반에 들어서자 신라 국왕의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따라서

강력한 왕권이 세력 집단 사이에 야기된 정쟁을 잠재우게 되자 국내 정국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증왕(智證王 : 500~514) 시대인 6세기부터 신라는 비로소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貴族國家)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인 502년에 신라는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농업(農業)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그 대책의 일부가 바로 소의 힘을 이용하는 농법인 우경제(牛耕制)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인력(人力)에 의존하던 원시적 농법에서 탈피하여 인력에 비해 월등한 힘을 발휘하는 소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즉 농가에서 소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무려 2.4배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기간 산업인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신라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곧 전반적인 국력과 군사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순장 제도(殉葬制度)를 폐지하도록 공포한 것은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파격적인 조치였다. 순장이 금지됨으로써 주인의 주검과 함께 매장되던 가족이나 노비(奴婢) 등의 노동 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절대적인 노동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증가한 노동력이 당시 확산일로에 있던 벼농사에 동원되면서 농업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던 대소규모의 수리 시설(水利施設)도 물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단행됨으로써 신라의 전반적인 경제력은 크게

신장되어 갔고,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결국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²⁾

2) 왕권의 신장

국가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자 선진 문화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어 갔다. 따라서 국외로 시야를 돌려 당시 최고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 있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그 문화를 수용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호를 ‘신라(新羅)’로 확정하고, 국가 최고 권력자의 명칭도 ‘마립간(麻立干)’에서 ‘왕(王)’으로 고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화(中國化)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502년과 508년에 북조(北朝)의 북위(北魏)에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382년이래 120년 간 중지되었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중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선진 문물을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적 발전을 다져 왔으므로 지증왕을 계승한 법흥왕(法興王 : 514~540)의 통치기를 거치면서 신라의 발전은 실로 비약적인 것이었다. 법흥왕은 즉위 직후에 새로운 관부인 ‘병부(兵部)’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520년에는 백관(百官)의 관복(官服) 및 관등(官等), 골품제도(骨品制度) 등에 관하여 규정한 율령(律令)을 공포함으로써 이로부터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³⁾

그리고 521년에는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 나라에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외교 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선진 문화를 수

융합으로써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때 양나라에서 사신으로 입국한 승려가 귀국하면서 불교(佛敎)를 전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라의 전통적 사상 체계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불교가 도입되던 초기에 진골(眞骨) 귀족들은 불교가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려고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흥왕은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535년경에 불교를 국교(國敎)로 공인함으로써⁴⁾ 귀족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왕권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신라를 통치하게 된 법흥왕은 동시에 정복군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가야(加耶)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특히 정치·외교·군사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킨 것이다. 그 결과 영토 확장의 예비 단계로서 특수한 관계로 유대를 강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522년에 고령(高靈) 지역의 대가야(大加耶)에서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요청해 오자 이를 받아들여 이찬(伊漣)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시집보내어 결혼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대가야를 친신라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532년에는 김해(金海)의 금관가야(金官加耶, 本加耶)를 공격하여 합병함으로써 낙동강 이서의 평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⁵⁾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무력으로 정복한 것은 신라 국왕의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제고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신라는 이같이 고조된 분위기를 이용하여 개국한 이후 처음으로 '건원(建元)'이라는 중국식 연호(年號)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⁶⁾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권을 더한층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

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⁷⁾ 대내적으로 확고한 왕권의 존엄성을 표방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비교해서도 대등한 위상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⁸⁾

이 같은 법흥왕의 재위 26년간을 거치면서 축적된 대내외적 업적은 진흥왕(眞興王: 540~575)에게 계승되어 더욱 발전해 갔다. 진흥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으므로 장기간 동안 어머니의 섭정(攝政)을 받았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경과한 551년에 비로소 친정(親政)을 시작하였고, 이때 연호를 ‘개국(開國)’으로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는 법흥왕 대에 건원을 연호로 사용한 이래 진흥왕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그후 진흥왕은 568년에 재위 29년을 맞이하여 연호를 ‘대창(大昌)’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그 동안 강성해진 국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고 572년에 다시 ‘홍제(鴻濟)’로 연호를 개칭한 것도 역시 강력하게 다져진 왕권과 신장된 국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상징적인 조치였다.⁹⁾

한편 진흥왕이 모후(母后)로부터 정권을 인수하여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던 551년에 신라는 백제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즉 한강(漢江) 유역으로 밀고 내려온 고구려군을 양국이 연합하여 무력으로 축출하고 이 지역을 함께 차지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리하여 고구려군을 몰아내자 신라는 한강 유역을 백제와 분할하여 상류의 죽령(竹嶺)이북과 고현(高峴: 철령)이남 지역의 10개 군(郡)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계획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즉 553년에는 백제가 분할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백제군을 몰아내고 한강 유역의 중요 지역을 독점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구려군을 몰아낸 후 백제군이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모조리 점령한 신라는 이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왕족인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임명하고 그 휘하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다. 따라서 백제군의 침공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강 유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은 더한층 확고해지게 되었다.

신라는 진흥왕의 강력한 대외 팽창 정책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을 통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통로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어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동안 고구려에 의존해 오던 대중 외교(對中外交)의 통로를 고구려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새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신라의 사활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신라의 한강 유역 독점은 새로운 대중 교통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활로를 개척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적대 세력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신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신라는 양국의 부단한 침공에 시달리면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중 외교를 더한층 강화하는데 국력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서해안의 남양만(南陽灣)에 당항성(黨項城)을 축조하여 요새화한 다음 이를 대중국(對中國) 해상 통로의 교두보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564년 이래로 거의 매년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진(陳)이나 북제(北齊)와도 유대를

강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3) 왕권의 전제화

한편 진흥왕은 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낙동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가야(加耶)를 압박하는 영토 확장 전쟁을 주도해 나갔다. 함안(咸安)의 아라가야(阿羅加耶)와 창녕(昌寧)의 비화가야(非火加耶)를 차례로 합병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고령의 대가야(大加耶)에 압박을 가한 결과 562년에 역시 합병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신라는 그 동안 가야가 차지하고 있던 낙동강 유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드디어는 백제의 남동부 지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30여 세의 젊은 패기로 신라의 정복 군주로 등장한 진흥왕은 장차 필연적으로 전개될 백제와의 생존을 건 전쟁에 대비하여 치밀한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565년 9월에 합천(陝川)에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여 그 동안 새로이 확보한 가야 지역을 통치하는 중심 거점으로 삼는 한편 백제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 도시로서 이 지역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을 따라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556년에는 안변(安邊)에 비열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하고 다시 이를 발판으로 삼아 함흥 평야를 장악하고 이원(利原)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당시 국왕은 전쟁이 끝난 후에 군사들의 노고를 위무하고 국민적 결속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점령지나 전쟁 피해 지역을 순수(巡狩)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⁰⁾

특히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이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따라서 진흥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의 결과로 편입된 새 영토를 둘러보기 위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변방 지역을 순행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가야 땅을 점령한 후에 이 지역을 돌아보고는 창녕(昌寧)에 순수비(巡狩碑)를 세워 업적을 과시한 것은 대표적 사례였다. 그리고 한강 유역을 둘러본 후에는 북한산(北漢山) 봉우리에 기념비를 세웠으며, 동해안 쪽으로는 황초령(黃草嶺)과 마운령(摩雲嶺)에 각각 비석을 세웠다. 이 당시 뻗어 가는 신라의 국력과 진흥왕의 위업은 이들 비석에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진흥왕은 재위 36년 중에서 모후가 섭정한 10여 년을 제외하고 25년 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최고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로서 왕권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적 단결을 주도하는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국왕의 전제권을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¹¹⁾

이러한 위업을 남긴 진흥왕과는 달리 둘째 아들로써 부왕의 뒤를 계승한 진지왕(眞智王 : 576~579)은 품행이 좋지 않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국에는 진골 귀족의 화백 회의(和白會議) 결정에 따라 재위 4년만에 왕위에서 축출되기도 하였다. 법흥왕에서 진흥왕대에 이르는 강력한 정복 활동에 힘입어 신장 일로에 있던 국왕의 전제권이 진지왕의 실정(失政)으로 말미암아 귀족들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지왕이 재위 4년 만에 물러나고 조카인 진평왕(眞平王 : 579~632)이 즉위한 후로는 다시 왕권이 신장되면서 동시에 전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¹²⁾ 진평왕은 즉위 초부터 번잡한 관제(官制)를 정비하는데 착수하여 정부 조직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갔다. 581년에 위화부(位和府)를 설치하여 인사(人事)를 전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584년에는 공부(貢賦)를 전담

하는 조부(調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586년에는 의례(儀禮)와 교육(敎育)을 관장하는 예부(禮部)를 차례로 설치함으로써 통치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³⁾ 이러한 관제의 정비는 법흥왕과 진흥왕의 장기간에 걸친 대외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 방만해지고 번잡해진 정부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왕권의 전제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진평왕 재위 53년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던 제도적인 발전은 그의 딸인 선덕여왕(善德女王 : 632~647)이 유사이래 여자 군주로 등장하게 되면서 시련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부단한 침공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강화되어 오던 국왕의 전제권이 귀족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642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고구려와 백제 연합군의 침공으로 서해안의 당항성(黨項城)이 함락 직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가야 지역을 점령한 후에 백제와의 국경 지역에 설치한 대야주(大耶州)의 중심 거점인 합천의 대야성(大耶城)이 백제 윤충(允忠)의 군사에 의해 함락되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의 국경을 경산(慶山) 방면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라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제3국 당(唐)의 영향력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당을 움직여서 고구려와 백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고구려와 백제가 당의 요청을 묵살하였으므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오히려 백제와 고구려를 자극하여 이들의 침공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가 처한 위기 상황이 여왕(女王)의 통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당 태종(唐太宗)의 주장이 제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출현하여 한바탕 정쟁(政爭)에 휘말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에 파견된 김춘추(金春秋)의 외교 활동도 당시 고구려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 실력자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반대에 부딪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신덕여왕이 내란의 와중에 죽고 국내의 반란을 평정한 진골 출신의 김춘추와 김유신(金庾信)이 중심이 된 진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권을 잡은 김춘추 일파는 진덕여왕(眞德女王 : 647~654)을 옹립하고 651년(진덕여왕 5)에 당의 선진 정치 제도를 도입하여 과감한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성골인 진덕여왕이 죽은 후에는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국왕으로 즉위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이로부터 신라는 진골 국왕 시대를 맞이하였고, 그에 따라 강력하게 전개되는 전제 왕권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 관제의 정비와 발전

1) 관제의 정비

신라는 516년(법흥왕 3)경에 새로운 관부로 병부(兵部)를 설치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군사(軍事) 문제만을 전담하는 관서로 설치한 것이었다.¹⁶⁾ 이 시기는 신라의 관제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동시에 정비되어 가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신라가 정복 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대규모 군대의 동원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병부의 최고 우두머리인 병부령(兵部令)은 1인 내지 3인으로 구

성되며, 조정의 최고위 관직인 상대등(上大等)이나 시중(侍中) 등을 겸임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재상(宰相)이었다. 따라서 병부령은 전군을 통솔하는 병마권(兵馬權)을 가진 무장(武將)으로서 크고 작은 대외 전쟁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사령탑으로 활약하였다.¹⁷⁾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편승하여 중앙 귀족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44년(진흥왕 5)에는 사정부(司正府)를 설치하여 귀족 관료층의 제반 움직임을 규찰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정부의 설치에 점차 신라의 관제가 분화되고, 중앙 귀족들의 관료적 역할이 확산되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이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고 그 규모도 점차로 확대되자 이를 전문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565년(진흥왕 26)에는 품주(稟主)라는 새로운 관직을 설치하였다. 그후로 581년(진평왕 3)에 인사(人事) 문제를 전담하는 위화부(位和府)를 설치하고, 584년(진평왕 6)에는 조부(調府)를 설치하여 그 동안 품주가 관장하고 있던 공부(貢賦)에 관한 재정 업무를 이관시켰다. 따라서 품주는 왕명을 받아 국가의 공적인 수취물을 분배하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¹⁸⁾ 그후로 신라는 651년(진덕왕 5)에 품주의 성격을 양분하여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신라는 7세기 중반에 이르러 국가의 중요한 양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방(國防)과 재정(財政)을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독립된 관서를 각각 설치하고 동시에 이 양대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력을 조직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부를 설치하여 공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한 2년 후인 586년(진평왕 8)에는 예부(禮部)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는

국민 대중에게 의례(儀禮)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 관서로 설치한 것이다. 예부의 예절 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결을 공고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관제 정비의 결과로 얻은 중요한 성과였다.¹⁹⁾

2) 관제 정비의 영향

이와 같이 신라는 지증왕과 법흥왕대의 체제 정비기(整備期)를 거치면서 국가 운용에 필수적인 각종 관제들을 신설하거나 개편하였다. 이러한 정비기에 다듬어진 각종 제도는 신라가 내실을 다지면서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신라는 내재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축적된 국력을 가야 지역으로 분출시켰다. 그리고 가야 지역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후에는 이를 다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이용하였다. 진흥왕대에 이르러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성과 중에 하나였다.

한강 유역을 장악하여 서해안의 해상 교두보를 확보한 신라는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564년(진흥왕 25)에는 중국 북제(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양국간에 국교가 개설되자 신라의 진흥왕은 565년에 북제로부터 ‘사지절동이교위 낙랑군공 신라왕(使指節東夷校尉樂浪君公新羅王)’이라는 상징적인 작위를 받기도 하였다. 즉 신라는 중국 대륙의 북제와 책봉관계(冊封關係)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이 신라는 먼저 관제의 정비를 통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는 중국 대륙의

선진 문물을 유입하면서 뛰어난 외교 역량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대륙에 통일 제국인 당이 건국되자 대당 외교(對唐外交)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삼국을 통합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¹⁾

(3) 지방통치 조직의 정비·강화

1) 지방관의 파견

신라가 국가로서 출범하던 건국 초기에는 국왕(國王)의 위상이 여러 부족장의 수장(首長)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왕은 해당 부족(部族)의 족장(族長)이나 촌장(村長)을 통하여 그 휘하에 예속된 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즉 국가나 국왕이 일반 주민을 직접 지배하기보다는 중간 지배층인 족장이나 촌장을 통하여 지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주민의 지배자에 대한 의무도 국가나 국왕에 대한 것과 자신들을 직접 지배하는 소속 족장 내지 촌장에 대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²²⁾ 이때문에 국가나 국왕이 일반 주민을 지배하는데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서 강력하지 못하였다. 많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해야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직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5세기 후반부터 신라는 중앙에서 새로운 지방관을 임명하여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종래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다. 이는 상황 변화는 조정에서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도사(道使)를 파견하여 지방 주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확

대되어 나가면서 동시에 도사의 파견도 또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갔다.

특히 6세기에 들어와서 저습지(低濕地)를 개발하여 농경지로 만드는 농지 확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군사력에 의한 영토 확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절대 농지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제도 정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농지와 영토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 정부는 이를 적절히 소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의 관리를 지방에 증파하였다.²³⁾

이러한 가운데 도사(道使)의 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6세기 초반에 도사가 지배하는 지역은 비교적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도사의 파견 지역이 여러 곳으로 증가하자 도사 1명이 관할하는 면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지방 통치는 도사 개개인이 소규모 지역을 통제하게 되면서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6세기 초인 법흥왕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52개 지역에 도사를 파견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으며, 영토가 확장되면서 도사 파견 지역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6세기 중엽부터 확장된 새 영토에 도사를 파견하자 중앙에서 파견한 도사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는 촌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6세기 후반에는 도사가 파견하여 지배하는 지역을 150여 개로 확대함으로써 지방 통치 체제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⁴⁾

2) 지방 제도의 정비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국왕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영토의 확장 및 대외 관계의 변화와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서쪽의 백제와 남쪽의 가야, 그리고 북쪽 고구려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쪽으로 백제와의 무력대결을 통하여 법흥왕(525)-진흥왕(557)-진평왕(614)대에 걸쳐 사벌(沙伐)-감문(甘文)-일선(一善)으로 연결되는 지역을 확보한 후에는 이 지역에 상주(上州)를 설치하였다.

남쪽으로는 남강(南江)을 경계로 하여 강남과 강북으로 각각 뻗어 나갔다. 강남으로는 밀양-김해-양산-합안-사천 일대로 진출하여 금관가야·아라가야·고령가야를 복속하였으며, 강북으로는 창녕-초계-합천-거창 일대와 낙동강 본류 이서를 연결하는 대가야·성산가야 등을 복속하여 합천에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였다.²⁵⁾

그리고 북쪽으로는 진출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내륙으로는 영천-대구-선산-상주-점촌-문경을 거쳐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로 이어지는 서로(西路)와 동해안으로는 영천-의성-안동-영주-풍기를 거쳐 죽령(竹嶺)을 넘어가는 동로(東路)를 따라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505년(지증왕 6)에 삼척을 거점으로 하는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한 것이다.²⁶⁾ 신라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최초로 실직주를 설치하자 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여 통치하게 하였다.²⁷⁾

또한 같은 북쪽 진출로 중에서도 내륙 방면인 상주(尙州)에 설치한 상주(上州：沙伐州)는 두 번째로 525년(법흥왕 12)에 설치되었다. 이곳은 그후로 북쪽으로는 영토 확장에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²⁸⁾ 세 번째는 북쪽의 신주(新州)로서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을 깨트리고 한강 유역을 독점한 후인 553년(진흥왕 14)에 설치한 것이다.

한편 남쪽의 가야 지방으로는 555년(진흥왕 16)에 창녕에 하주(下

州：完山州)를 네 번째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진흥왕 17)에는 북쪽 동해안으로 안변에 비열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함으로써 지방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그리하여 진흥왕 때에는 5개 주에 각각 군주(軍主)를 임명하여 지방 통치 조직의 상층부를 형성함으로써 군현제(郡縣制)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군현제는 중국의 군현제와는 달리 주변 국가와의 부단한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토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신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서자 종래의 성주(城主)나 군주(郡主)와 같은 토착적인 씨족 단위와 원시적인 지배 체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지배 질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주(軍主)가 중앙과 지방을 연계시키는 최고의 외직(外職)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조(州助)·장사(長史)·외사정(外司正)·소수(少守) 등의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²⁹⁾ 명령 계통상 군주의 지휘를 받는 군(郡)의 당주(幢主)와 촌(村：城)의 도사(道使)를 파견함으로써 지방 통치 조직을 확립해 나갔다. 즉 주에 군주, 군에 당주, 촌에 도사가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3단계의 지방 행정 조직 체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성격은 행정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띤 것에 특징이 있었다.³⁰⁾

지방 조직은 대체로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 행정조직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6세기 초의 지증왕대를 시작으로 법흥왕대와 진흥왕대를 거치면서 군사 조직이 발전적으로 정비되자 이와 함께 지방 조직도 정비되어 갔다. 그리고는 점차 중앙 왕실의 강력한 지배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그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³¹⁾

3) 지방관의 역할

중앙에서 지방의 하급 행정 단위인 촌(村)에 파견된 도사는 점차 현령(縣令)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지방 세력을 억제하고 그 위에 중앙 정부의 통치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강화해 나갔다. 지방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지방민의 조세(租稅)를 중앙 정부에 조달하는 임무를 비롯하여 역력(力役)과 군역(軍役)을 동원하는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상급 지방관인 군주(軍主)나 당주(幢主)를 보좌하였던 것이다. 즉 군주-당주-도사로 연결되는 지방 통치 체계의 기초 단위 지방관으로서 관할 지방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³²⁾

한편 신라는 505년(지증왕 6)에 실직주에 최초로 군주를 파견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군사 지휘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525년(법흥왕 12)에 상주의 사벌주(沙伐州)에 대아찬(大阿飡) 이등(伊登)을 군주로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지방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층 강화시켰다. 552년(진흥왕 13)에 상주정(上州停),³³⁾ 553년에 한강 유역의 신주(新州), 555년(진흥왕 16)에 비사벌(比斯伐 : 창녕)에 하주정(下州停), 556년에 동해안의 비열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함으로써 4주(州)를 성립시켜 이른바 4방 군주제(四方軍主制)를 확립하였는데,³⁴⁾ 이들에게도 역시 지방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군주는 1천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상급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휘하에 1백여 명을 거느리는 당주를 중급 지방관으로 두었다. 그리고 당주 아래에는 도사를 하급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정치·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州)-군(郡)-현(縣)의 지방 통치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특히 군주는 17관등 중에서 제2관등인 이찬(伊潸)에서 제9관등인 급찬(給潸)에 해당하며, 그 휘하에는 제6관등 6두품의 아찬(阿潸)에서 마지막 4두품의 제17관등 조위(造位)이르는 주조(州助：州輔)·태수(太守)·장사(長史：司馬)·사대사(仕太舍：少尹)·외사정(外司正)·소수(少守·制守)·현령(縣令) 등의 하급 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³⁵⁾

이와 같이 신라는 주로 왕족 중에서 군주(軍主)를 선발하여 국방상 주요 요충에 파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방위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편 군사적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군주는 임기를 끝내고 내직(內職)으로 들어온 후에는 병부령(兵部令)·상대등(上大等)과 같은 고위직으로 승진하여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³⁶⁾

(4) 대당 외교의 강화

1) 대중 외교의 수립

신라는 삼국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직접 수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은 진흥왕 대에 들어와서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완전히 개선되어 신라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즉 남양만의 당항성(黨項城)을 통하여 서해상으로 중국의 여러 왕조와 독자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는 종래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고구려나 백제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³⁷⁾

이로부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대중 외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교 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갔다. 사신을 빈번히 파견하여 중국 제왕조(諸王朝)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국력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았다. 564년(진흥왕 25)에 북제(北齊)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하여 이듬해(565)에는 진흥왕이 북제에서 보내 온 작위를 수용함으로써 양국간의 유대가 더한층 돈독해졌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571년(진흥왕 32)까지 거의 매년 남조의 진(陳)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외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교류가 진지왕과 진평왕 대에도 계속됨으로써 신라는 중국 남조와 북조의 선진 문물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중국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로 등장한 수(隋)·당(唐)과 신라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³⁸⁾

신라는 6세기 말의 진평왕대에 들어서면서 수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점차 군사적인 유대를 심화시켜 나갔다. 수와 제휴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수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배제시키는데 성공한 7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수군(隋軍)의 파병을 요청함으로써 이른바 청병외교를 실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³⁹⁾ 이때 신라의 계획은 남북으로 결속한 백제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신라와 수가 동서로 결합한 세력을 형성하여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있었다. 이 같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신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수를 끌어들이어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라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을 빈번히 파견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선진 불교를 공부하려는 구법승(求法僧)들을 많이 파견하여 민간 차원에서 긴밀한 유대를 맺도록

함으로써 양국간의 외교 관계를 더한층 심화시키려고 하였다.⁴⁰⁾

2) 청병 외교의 전개

고구려와 수의 무력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신라에서는 김용춘(金龍春)과 김서현(金舒玄)으로 대표되는 신흥 세력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관제 개혁을 통하여 종래의 구세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고착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수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이에 개입하기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집권 세력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⁴¹⁾ 신흥 세력이 집권한 신라는 수를 계승한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대중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삼국의 정세를 관망하려는 당의 대외 정책을 친신라 정책으로 점차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백제가 대당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고구려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兩面外交)를 전개한 반면, 신라는 오로지 대당 외교(對唐外交)에 주력하여 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627년에 당이 백제에 서신을 보내어 더 이상 신라를 침공하지 말도록 종용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일 것이다. 백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신라의 외교는 632년에 일본(日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국제 사회에서 백제를 고립시키려는 신라의 장기적인 통일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당의 삼국에 대한 견제 외교(牽制外交)와 삼국의 실리 외교(實利外交)가 상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신라의 대당 외교가 한층 적극성을 띠게 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642년에 고

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로 대당 외교를 강경하게 전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백제가 의자왕(義慈王)이 즉위한 후로 종래의 양면 외교를 지양하고 친고구려 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결국에는 당과 삼국간의 외교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⁴²⁾

신라는 김춘추가 고구려 실력자 연개소문과의 협상에 실패한 이듬해(643·선덕여왕 12) 9월에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삼국간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당에 원병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였다.⁴³⁾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개 성이 공격을 받았다. 양국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기필코 우리 나라를 점령하기 위하여 오는 9월에 대병(大兵)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살아 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사신을 보내니 귀국이 원병을 보내어 구원해 주기 바란다.”

이듬해(644) 정월에도 신라는 이른바 진하사(進賀使)를 파견하여 신라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 태종(太宗: 627~649)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와 함께 신라를 침공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신라는 645년에 제1차 고·당 전쟁(高唐戰爭)이 발발하자 고·수 전쟁(高隋戰爭) 때와는 달리 3만의 지상군을 출동시켜 당군의 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함으로써 당군 파병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 나갔다.⁴⁴⁾ 이처럼 신라는 당 태종이 직접 지휘한 고구려 침공 전쟁에 이들을 지원하는 군사를 파견함으로써 대당(對唐) ‘청병 외교(請兵外交)’가 조속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⁴⁵⁾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의 정세를 정탐하고 돌아온 후 647년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수개월간 체류하면서 양국간에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귀국하는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 친당적(親唐的) 성향이 강한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회로 적극적인 대일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백제를 고립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가 결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에 맞서 신라는 당과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이므로써 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를 남북 세력(南北勢力)과 동서 세력(東西勢力)이 양립하는 대결 구도로 심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활약하였다.⁴⁶⁾

647년 1월에 선덕여왕(善德女王)이 죽고 진덕여왕(眞德女王 : 647~653)이 즉위하던 무렵에도 백제와 신라는 무력 충돌을 일으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648)에 신라 진덕여왕은 이찬(伊漣) 김춘추와 그 아들 김문왕(金文王)을 당에 파견하여 더한층 적극적인 대당 외교를 전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서해상으로 항해하여 당에 도착한 후 태종(太宗)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당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청병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김춘추는 태종에게 당군이 출병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신라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⁴⁷⁾

“우리 나라가 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친교를 맺어온지는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백제가 빈번히 침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는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여 우리의 수십 개성을 점령함으로써 우리의 대당 교통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제 당이 대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신라인은 모두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며, 당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당 태종은 신라의 청병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나·당 동맹(羅唐同盟)을 체결하고 당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김춘추를 비롯한 신라 사절단 일행은 나·당 동맹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태종으로부터 당의 높은 작위(爵位)를 받기도 하였다.

그후로 신라는 649년(진덕여왕 3) 정월부터 중국식 의관(衣冠)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과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가시적인 친당정책(親唐政策)을 추진해 나갔다.⁴⁸⁾ 당 태종이 죽고 그 아들 고종(高宗 : 650~683)이 즉위하자 650년부터는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신라 고유의 연호인 ‘태화(太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당의 연호(年號)인 ‘영휘(永徽)’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해 6월에는 진덕여왕이 당의 위업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언시(五言詩)인 ‘태평송(太平頌)’을 지어 이를 비단에 수놓아 김춘추의 아들 김법민(金法敏)을 통해 고종에게 선물하여 양국 군주간에 각별한 우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대당 외교를 꾸준히 추진하던 진덕여왕이 654년에 죽고, 그 동안 대당 외교의 실무를 주관해 오던 진골(眞骨)출신의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太宗武烈王 : 654~660)으로 즉위하자 더한층 적극적인 대당 외교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무열왕은 진골 계열에서 나온 최초의 국왕으로서 전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체제를 정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숙위(宿衛)와 조공(朝貢)으로 대당 외교의 내실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는 이미 648년에 자신의 아들 김문왕을 당에 잔류시켜 숙위하도록 조치한 이후로 아들 김인문을 파견하여 교대하게 함으로써 숙위 외교의 지속성을 유지하지 하였다.

그리하여 당에서 신뢰를 구축한 김인문은 당으로부터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의 벼슬을 받고 당군을 지휘하여 백제 침공의

선봉장이 되어 출전하였다. 세 번째로 당에 숙위하였던 김유신의 아들 김삼광(金三光)도 좌무위부중랑장(左武衛府中郎將)의 벼슬을 받고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에 참전할 수 있게 되었다.⁴⁹⁾

3) 청병 외교의 성과

신라의 적극적인 대당 청병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결과로 당은 655년 초에 고구려군과 백제·말갈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자 비로소 그해 3월에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였다. 영주 도독(營州都督) 정명진(程名振)과 좌우위중랑장(左右衛中郎將) 소정방(蘇定方)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서북 변경을 공격하도록 한 것이다.⁵⁰⁾ 그리고 658년 6월에 영주 도독 정명진은 우령군 중랑장(右領軍中郎將) 설인귀(薛仁貴)를 파견하여 적봉진(赤烽鎮: 해성 <海城>)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659년 3월에도 좌효위 대장군(左驍衛大將軍) 설필하력(契苾何力)이 당군을 이끌고 요동 지역의 고구려군을 공격하였다.⁵¹⁾

그러면서도 당은 659년 10월까지도 고구려에 대해 대규모의 전면 공격을 감행할 의도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대규모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견하고 극도의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조야(朝野)의 사기는 크게 위축되었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전국이 긴장하였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이듬해(660) 3월에 당 고종이 나·당(羅唐) 연합군을 편성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신라는 비로소 대당 청병 외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당이 신라의 원병 파병 요청을 수락한 것은 신라가 추진한 청병 외교의 성과에 의존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는 당의 전통적

외교 노선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 입각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는데 신라의 세력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신라를 이용하여 고구려의 날개에 해당하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를 고립시키고 전쟁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신라는 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삼국간의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당은 신라를 그들의 이이제정책에 이용하려고 획책함으로써 양국 상호간의 국가 이익이 일치하여 군사 동맹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즉 신라와 당의 이익이 합치되는 시점에서 양국은 자국의 국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군사적 동맹 관계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⁵²⁾

그 동안 신라는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두절된 대당 조공로(朝貢路)를 개통해야 한다는 명분은 당을 설득하는데 주요 논리로 이용되었다.⁵³⁾ 이같이 신라가 대당 조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의 기미정책(羈縻政策)과 맞물려 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⁴⁾ 즉 당의 기미정책에 착안하여 외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당군을 이룬바 삼국 통일 전쟁에 끌어들인 것은 곧 신라의 외교적 성과이기도 한 것이다.⁵⁵⁾

결국 당은 신라의 요청에 따라 대당 조공로를 확보해 준다는 명분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었다. 신라는 삼국간의 전쟁 상황을 수시로 통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당이 삼국의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라는 삼국간의 항쟁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의 군사를 삼국간의 전쟁에 끌어들인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⁵⁶⁾

신라는 고구려와 수의 전쟁에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나·당 동맹 체제에 입각하여 당을 측면으로 지원하였다. 그래서 신라군이 무력으로 고구려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여 고구려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분리시키려는 전략적 성과도 얻어낼 수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라는 먼저 백제를 압도한 후 한반도 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당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신라의 경제적 번영

(1) 농업 생산성의 증가

1) 철제 농기구의 확산

신라는 백제·고구려에 비하여 불리한 자연 조건들이 많았으므로 국력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들을 하나씩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정예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가 단독 혹은 연합군을 편성하여 쳐들어올 때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이면에는 특히 울산을 비롯한 경주·영천·영일·안동·함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철(鐵)의 개발과 그 활용이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이 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변진(弁辰：변한·진한)의 철’로 잘 알려진 것이었다. 신라의 철은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대내외

에 알려져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였다.⁵⁷⁾ 이같이 우수한 품질의 철을 이용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철기 제작 기술도 함께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금속 제품으로는 불교 의식용품을 비롯한 장식 및 장신구류, 기타 생활 필수품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철제 무기류인 도끼·철촉·철질려 등과 농기구인 철낫·철손칼 등이 우수한 제작 기술로 대량 생산되어 보급이 확산되면서 또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⁵⁸⁾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신라는 그 이전에 비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세기 초기부터 철기를 다루는 제철 기술이 더욱 발달하자 많은 농기구들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기까지 소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즉 낫·삽·괭이·쇠스랑·가래·보습 등과 같은 제품들이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되어 보급되었던 것이다.⁵⁹⁾ 제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1200도 정도의 고열로 처리한 강도 높은 철제 공구들이 생산되자 이들 공구들로 다듬은 각종 목재 농기구들도 더한층 정교하고 실용성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단단한 나무로 제작된 나무 보습 등이 철제 농구와 함께 사용되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⁶⁰⁾

특히 농작물의 수확에 필수적인 도구인 낫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작업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수확기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 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⁶¹⁾ 품질이 우수한 변진 지역의 철로 제작된 낫은 다른 지역의 철제 낫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하여 생산성의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수확 작업에 낫의 보급이 확대되고 동시에 농지(農地)를 굴착하는 작업에 철제 보습을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갔다.⁶²⁾ 철제 보습을 장착한 쟁기는 땅을 깊게 갈아서 지력(地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시켜 수확량을 크게 증가시켜 주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쟁기를 소의 힘으로 끄는 우경 제도(牛耕制度)를 도입함으로써 광범위한 농경지를 짧은 기간에 깊게 갈고 작업량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종래 인간의 힘으로 굴착하던 경작법에 비해 월등히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층을 급격히 분화시키는 또다른 파급효과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경제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새로운 신분 계층의 분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사회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⁶³⁾

신라에서는 우수한 철을 생산하였으므로 철제 농기구는 물론 각종 철제 도구를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농업에 이용하면서 동시에 관개 시설(灌溉施設)을 축조하는 작업에도 이를 활용하였다. 토목 기술(土木技術)을 향상시킨 도끼류를 비롯하여 톱이나 끌 등의 철제 도구는 신라에서 특히 발달하였다. 이를 이용한 토목 기술의 발달은 곧 관개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관개 시설이 요소 요소에 설치되었고, 물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수전(水田) 농사의 생산력은 급격히 향상되어 갔다.⁶⁴⁾

2) 농업 기술의 발달

신라는 429년(눌지왕 13)에 총 연장 2,170보(步 : 약 2.6km)에 이르는 수리 시설을 축조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크고 작은 제방을 쌓아서 농수를 저장하였다가 논농사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

다.⁶⁵⁾ 그리고 531년(법흥왕 18)에는 왕명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수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담수 기능을 크게 제고시켰다.⁶⁶⁾ 이 작업은 기존의 지방 행정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 정부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전국적 대규모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즉 중앙에서 제방 축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력을 대거 파견하여 공사 현장에서 진두 지휘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⁶⁷⁾

이러한 단계를 거쳐 6세기 후반에 이르자 지방에도 제방 축조 기술이 축적되어 독자적인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중앙에서 파견되는 작업 감독 및 관리자를 제외한 제방 축조 전문 토목 기술자 집단이 이미 지역사회에 구성되어 이들에 의해 공사가 주도될 수 있었다.⁶⁸⁾ 따라서 지방에 형성된 토목 기술 집단을 손쉽게 동원하여 제방을 축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6세기 이후로 신라의 수전 농업에 필요한 제방 여건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신라는 철제 농기구의 발달에 따른 농산물의 대량 생산, 철제 농기구의 보급 및 확산, 우경제(牛耕制)의 도입, 그리고 제방 축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⁶⁹⁾ 특히 관개 시설이 확충되면서 벼농사가 크게 발달하였다. 종래로 신라의 주요 농작물은 콩과 보리·조·기장 등이었다. 그러나 수리 시설이 발달하면서 수전에 의한 벼농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을에 보리를 심고 봄에 벼를 심는 연작 재배도 가능하게 되었다.⁷⁰⁾ 벼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도 증가함에 따라 재배 기술의 개발과 품종의 개량도 함께 추진되면서 벼농사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어 나갔다.

이러한 농업의 발달은 신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농기구의 발달과 재배 기술의 향상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켜서 이들의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생산 활동에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잉여 농산물과 잉여 노동력은 상업과 수공업으로 전이되어 그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발달과 함께 경제력을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⁷¹⁾

3) 농업 생산성의 향상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산재한 저습지(低濕地)를 농경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⁷²⁾ 그 밖에도 각지의 황무지를 농토로 개간하여 농경지를 넓혀 나갔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가래나 쇠스랑과 같은 철제 농기구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⁷³⁾ 그리고 중앙의 행정력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광범위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수리 시설을 확충하여 뒷받침하게 되자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앙 정부가 수리 시설의 확충과 경지 면적의 확대를 주도해 나감으로써 지방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⁷⁴⁾

이같이 신라는 저습지를 개발하여 절대 농지를 확대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우수한 철제 농기구를 활용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으므로 6세기 중반까지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잉여 농산물도 축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많은 군대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

과 신라는 새로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규모 군대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잉여 농산물을 적절히 분배하여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되었다.⁷⁵⁾

(2) 산업의 발달

1) 산업의 세분화

신라는 농업 및 농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자 잉여 농산물을 축적하는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형성되는 등 경제력에 의한 사회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어 갔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잉여 농산물이 이동하는데 따르는 상업 활동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즉 잉여 농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화를 추구하게 되자 그에 호응하여 잉여 노동력이 상업 활동 및 수공업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이다.

수공업 제품은 궁중이나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궁중 및 관영 수공업이 있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 수공업도 존재하였다. 이 민영 수공업은 다시 지방의 부족장급들이 운영하는 사영 수공업과 중앙에 공물로 조달하기 위한 포(布) 등을 생산하는 농민 수공업으로 대별되었다. 부족장급의 지방 귀족들에 의한 사영 수공업은 중앙의 궁중 수공업과 유사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농민 수공업의 경우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가내 분업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 경제적 성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자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교역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생산자와 수요

자를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기 위한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라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⁷⁶⁾

따라서 신라는 농업 생산물과 각종 수공업 제품들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90년(소지왕 12)에 수도인 경주에 시장(市事<市肆>)을 개설하고 상품의 유통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509년(지증왕 10) 1월부터 동시(東市)를 개설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한편 이들 시장을 관리하는 시전(市典)을 설치함으로써 유통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⁷⁷⁾ 특히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발전하기 시작한 수공업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자, 제작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분야도 세분화하여 전문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철제 무기류와 기마(騎馬)장비 등을 비롯한 전투 장비는 물론 상류층이 사용하는 귀금속이나 공예품류들을 제작하는 정교한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산업의 육성과 생산물의 체계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단을 직조하는 조하방(朝霞房)과 금전(錦典), 염색 전문의 염궁(染宮), 칠기를 제작하는 칠전(漆典), 피혁 제품을 제작하는 피전(皮典) 및 화전(靴典), 갑옷을 제작하는 흑개감(黑鎧監) 등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갔던 것이다.⁷⁸⁾

2) 유통 체계의 정비

신라는 눌지왕대인 438년에 우마(牛馬)의 힘을 이용한 수레인 우거(牛車)의 사용을 장려하고,⁷⁹⁾ 소지왕대인 487년에는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4방으로 통하는 우역제(郵驛制)를 도입하고, 관용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각종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통

로를 확충하였다.⁸⁰⁾ 그리고 지증왕대인 505년에는 해상과 하천(河川)을 통해 선박으로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수상 교통 체계를 정비하였다.⁸¹⁾ 이로써 수륙 양면의 교통망이 편리하게 개선되었고, 유통 체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6세기를 거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각종 생산물의 교류가 더한층 활발해지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어 국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⁸²⁾ 각 지방의 장인들이 생산한 각종 물품은 관제를 정비하면서 설치한 창부(倉部)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과 해당 지방의 창고에 비축되었다가⁸³⁾ 필요에 따라 육로나 수로 및 해상 교통망을 통하여 전국으로 신속하게 수송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3) 수취 체제의 정비

1) 조세 제도의 정비

신라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철제 농기구를 개발하여 폭넓게 사용하면서 농업에 필수적인 관개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에도 국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당으로부터 선진화된 세제(稅制)를 도입하여 수취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즉 토지세(土地稅)인 조(租), 인두세(人頭稅)인 용(庸), 호구세(戶口稅)인 조(調)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3년을 단위로 하여 전통적으로 실시하던 호구조사(戶口

調査)를 이용하여 신라의 특수성에 알맞게 개선하기도 하였다.⁸⁴⁾ 그 결과 신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수(稅收)를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세 수입을 증가시킨 신라는 국고(國庫)를 확충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국가 경제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 계층인 농민들의 위상도 종전에 비하여 더한층 상승하게 되었다.⁸⁵⁾

2) 수취 기관의 발달

삼국간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크고 작은 주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그에 따른 전쟁 비용도 증대하였다. 막대한 전쟁 비용은 대부분 농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위상이 상승되어 갔다. 특히 신라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전쟁에 필요한 국가의 경제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수취 기관을 더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신라의 군주(軍主)·당주(幢主) 등 군사 지휘관의 성격을 강하게 띤 지방관이나 도사(道使)와 같은 행정 관료적 성격을 띤 지방관을 막론하고 이들에게는 관할 지역의 부세(賦稅) 수입을 중앙에 조달하는 중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앙 정부는 이들에 의한 수취 업무가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자 징수 과정에서의 중간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등의 체계적인 조세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⁸⁶⁾ 그리하여 565년(진흥왕 26)에 품주(稟主)라는 전문 관직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적(公的)인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을 함께 관장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어 584년(진평왕 6)에는 조부(調府)를 설치하여 그 동안 품주에서 관장하던 주현(州縣)으로부터의 수입 업무중에 중요한 일부인 공부(貢賦)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취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였다.⁸⁷⁾

그후 수취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을 조부에 넘겨준 품주를 651년(진덕왕 5)에는 다시 창부(倉部)와 집사부(執事部)로 기능을 양분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켰다. 창부는 국가의 수취 체제를 통하여 획득된 전조(田租)를 저장하거나 전쟁을 통하여 노획한 전리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적절히 분배해 주는 기능을 전담하는 관부로 발전하였다.⁸⁸⁾ 따라서 신라는 7세기 중반 이후로는 전문 수취 기관인 조부(調府)와 수취물의 저장·보관 및 분배를 전담하는 창부(倉部)로 수입과 지출을 분리시킴으로써 이로부터 발전적 관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제 2 장 나당 전쟁의 군사·외교적 배경

1. 신라의 군사적 발전

(1) 군사 조직의 정비

1) 군사력의 기반

신라를 형성하였던 소규모 부족의 족장(族長)이나 촌장(村長) 등은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로 강화되면서 중앙 및 지방의 지배 귀족으로 성장해 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소속된 노예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관할하에 있던 일반 주민들까지도 통제하여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간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이 일반 농민들에게 부과되자 농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전쟁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농민층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 농민들은 점차 독립성이 약화되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귀족 세력에게 예속이 심화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귀족 세력들은 농민들의 경제적 예속성을 심화시키면서 이들을 더한층 손쉽게 전쟁 등에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귀족 세력들은 광범위한 규모의 농장과 목장(牧場)을 소유하고 말과 소를 대량으로 사육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면서 말을 이용하여 강력한 사병(私兵) 집단을 거느릴 수도 있게 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경제력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됨으로써 신라 군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들은 우수한 철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공업 기술자인 야장(冶匠)들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이들을 통하여 도검류(刀劍類)나 궁시류(弓矢類)를 비롯한 각종 전쟁 무기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¹⁾

신라는 5세기까지 유지해 오던 종래의 군사 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6세기에 들어서자 이를 새로운 제도로 개편해 갔다. 즉 6세기 초에 접어들자 수도인 왕경(王京)을 중심으로 하여 소경(小京)과 군(郡)·성(城)·촌(村)에 법당 군단(法幢軍團)을 편성하고, 544년(진흥왕 5)부터 보병 군단 6정과 기병 군단 10정(停)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보기(步騎) 협동으로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²⁾

신라 중고기에는 지방민을 주축으로 하여 군사 조직은 편성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 결과적으로 이른바 삼국 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신라는 이들의 군사 활동을 장려하여 군공(軍功)이 있는 자에게는 과감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방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신라는 이러한 정책을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즉 지방민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중앙 정부의 군공자 우대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적시 적절하게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신라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동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동

남부에 치우쳐 후발 주자로 나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통일 전쟁에 뛰어들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국의 유민들을 대당 전쟁(對唐戰爭)에 동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군 세력을 몰아내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또 한번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³⁾

2) 전투 장비의 발전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든 이후로도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리면서 주요 지역에 축성된 견고한 산성(山城)을 거점으로 하는 방어 체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공성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성 장비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6세기 이후로 신라가 축적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대외 전략을 수세 위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공세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공성 무기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법흥왕 대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장척당(大匠尺幢)은 병장기를 제조하는 기술자인 장인(匠人)들로 편성된 부대 조직으로 보인다. 신라는 정복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를 제작하는 군단인 대장척당의 군관인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와 대장척감(大匠尺監)은 다른 당주(幢主)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운제(雲梯)·충차(衝車)·투석기(投石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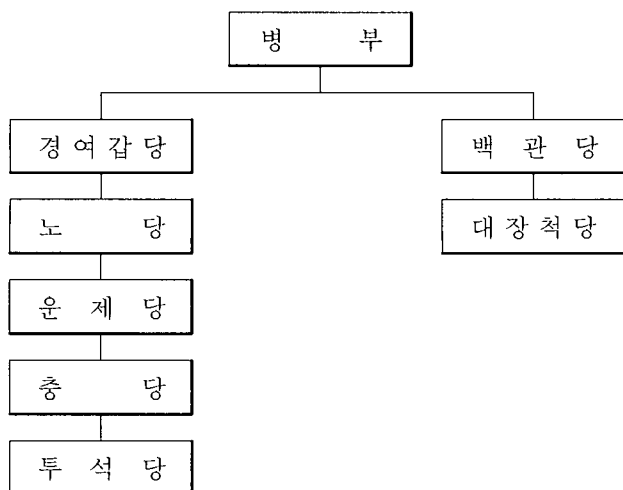
등과 같은 공성 무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투석당(投石幢) 등의 공성 부대를 편성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공성 부대의 전투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던 기존의 노당(弩幢)도 공성 무기와 전문 운용 부대의 개편에 편승하여 확대 개편됨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백관들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백관당(百官幢)의 경우도 관리들을 비록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편성시킨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특수부대로 조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민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크게 강화된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조치였다.⁴⁾

3) 전투 부대의 구성

법흥왕대의 대표적인 중앙 군단인 경여갑당(京餘甲幢)은 특수부대인 사설당(四設幢)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백관당과 대장척당의 경우도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라도 법흥왕 3년에 설치된 병부령(兵部令)과 이듬해에 설치된 병부(兵部)의 휘하에 소속되어 그 통제를 받았다. 법흥왕 대에 편성된 중앙군의 조직은 다음과 같았다.⁵⁾

주력부대인 경여갑당은 사설당인 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투석당(投石幢)의 지원을 받아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고, 백관당과 대장척당은 후방에서 간접적으로 이들의 전투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전투부대인 경여갑당과 사설당은 법당주(法幢主)-법당감(法幢監)-법당화척(法幢火尺)의 세 군관으로 구성된 3단계 지휘 계통을 각각 유지하였다. 그리고 대장척당은 대장척당주-대장척감으로, 백관당은 법당주-법당감의 두 군관으로 구성된 2단계 지휘 체

계를 가지고 있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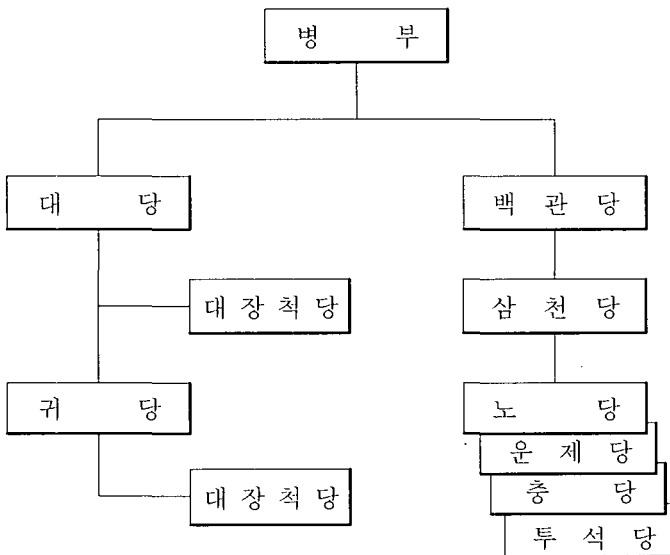
신라는 법흥왕대인 6세기에 지방의 기존 군사 조직인 외법당(外法幢)을 확대 개편하여 외여갑당(外餘甲幢)을 조직하였다. 외여갑당은 각 군(郡)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조직이며, 경여갑당이나 사설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당주-법당감-법당화척의 3단계로 구성되는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실직주(悉直州)와 상주(上州)·하주(下州) 등에 파견된 군주(君主)에게 예속되었으므로 군주가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군사 조직과 지휘 체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가 된 것은 대외적으로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정복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진흥왕(眞興王)대에 이르러서였다. 진흥왕대의 신라는 중앙과 지방에 새로운 군사 조직을 설치한 후 이들을 동원하여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544년(진흥왕 5)에는 수도에 대당(大幢)을 설치하고, 6정 군단과 10정 군단을 설치하기 시작

하였다.

552년(진흥왕 13)에는 지방 군단인 상주정(上州停)과 신주정(新州停)을 설치하였다. 16년에는 비자벌정(比子伐停), 이듬해에는 비열홀정(比列忽停)을 차례로 설치하였다.⁷⁾

진흥왕대에는 법흥왕대의 기존 군단을 근간으로 하면서 대당(大幢)·귀당(貴幢)·삼천당(三千幢) 등의 부대들을 설치하여 공격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⁸⁾ 따라서진흥왕대의 중앙군 조직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진흥왕대의 대장척당은 새로운 군단의 설치에 따라 법흥대의 경우와는 달리 임무와 기능이 확대되어 새로이 설치된 군단에 배속되었을 것이다. 귀당의 경우도 이와 동일할 것이다.

신라는 진흥왕대 중앙군의 지휘 체계를 대당과 귀당의 경우는 각각 장군(將軍)-대관대감(大官大監)-제감(弟監)-감사지(監舍知)-소감(少監)-화척(火尺)의 다단계로 운영하였다. 이때 대당이 주력부대가 되었다. 대당척당은 대당척당주(大匠尺幢主)-대장척감(大匠尺監)의 2단계 지휘 체계로 운영하였으며, 특별 부대로서 다른 군단에 배속시켜 그 휘하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⁹⁾ 지방군은 진흥왕대에 기존의 군단 외에 상주정·신주정·비자벌정·비열홀정이 설치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진평왕(眞平王)대에는 백제 및 고구려와의 무력 충돌이 빈번해지자 많은 군단들을 증설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583년(진평왕 5)에 서당(誓幢), 591년(진평왕 13)에 사천당(四千幢), 604년(진평왕 26)에 군사당(軍師幢), 605년에 급당(急幢), 625년(진평왕 47)에 낭당(郎幢)을 각각 설치하여 중앙군의 전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¹⁰⁾

그밖에 지방 군단으로 604년(진평왕 26)에 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을 설치하였는데, 652년(진덕여왕 6)에 설치하는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과 함께 이궁(二弓) 또는 외궁(外弓)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장거리 무기인 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부대로서 하서주와 한산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다.

한편 진흥왕대인 544년부터 이미 창설되기 시작한 보병 부대인 6정(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군사당(軍師幢)·대장척당(大匠尺幢)·보기당(步騎幢)·흑의장창말보당(黑衣長槍末步幢) 등을 지원부대로 신설하고, 이를 지방군단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군사당은 각 주의 직할 성(城)과 촌(村)에서 징발된 농민으로 구성된 부대였으며, 대장척당은 지방의 축성 전문 기술자를 부대원으로 구성하였다. 보기당은 특히 6정의 기동력을 지원하여

보완하는 부대이며, 흑의장창말보당은 승려들을 부대원으로 하여 장창(長槍)으로 무장한 특수 보병 부대로 설치되었다.¹¹⁾

지방 군단도 중앙의 영향을 받아 대당(大幢)과 유사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결국 지방군의 지휘 체계도 대당의 지휘 체계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진평왕대에 이르러 중앙군의 지휘 체계를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부대의 규모나 임무에 적합하게 조정함으로써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장군의 지휘하에 각각 대판대감(大官大監)-제감(弟監)-소감(少監)-화척(火尺)으로 5개 단계로 전달되는 부대와 대소감(隊大監)-소감(少監)-화척(火尺)의 3개 단계, 당주(幢主)-감(監)으로 단순화된 2단계 전달 체계를 갖춘 부대로 개편하였던 것이다.¹²⁾

(2) 대외 항쟁력의 강화

1) 삼국의 대립 양상

백제는 남진 정책(南進政策)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고구려의 위세에 눌려 수도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475년에 한강 유역의 수도인 위례성(慰禮城)을 빼앗기는 등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자 동성왕(東城王 : 479~500)은 485년에 신라의 소지왕(炤知王 : 479~499)에게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의하였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역시 위협을 느끼고 있던 신라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백제와 신라는 493년에 나·제 동맹(羅濟同盟)을 체결하고 고구려의 남침에 공동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양국은 왕실간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하여 공격과

수비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한 공수 동맹(攻守同盟)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후 백제는 6세기 초반인 무령왕(武寧王 : 501~522)의 통치기를 거치면서 수도를 옮긴 이후의 내부 혼란을 정비하고 새로운 중흥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무령왕을 계승한 아들 성왕(聖王 : 523~553)대에 이르러서는 551년에 신라 진흥왕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한강 유역(漢江流域) 일대를 탈환하기 위하여 출병하였다. 그리하여 나·제 연합군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이때 양국은 점령지를 분할하였는데, 그 중 백제는 기림진 농경지가 많은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비교적 농경지가 적고 주로 산악 지역인 한강 상류의 10군(郡)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는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하류의 주요 지역을 회복하였으나 신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고구려와 적대 관계가 됨으로써 그 동안 고구려에 의존해 오던 대중 외교(對中外交)의 통로(通路)를 상실하여 선진 문화를 접촉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때문이었다. 이에 신라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아예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중국과 통교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2년 후인 553년 7월에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송두리째 점령하고 서둘러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당시 신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중앙에서 군주(軍主)나 장군(將軍)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게 하였다. 군대를 주둔시켜 이들로 하여금¹³⁾ 강력한 군정(軍政)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막강한 방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한강 유역에 설치한 신주가 장차 신라의 사활을 좌우할 최대의

요충지로 인식되었으므로 중앙의 유력 귀족인 김무력(金武力)이 군주(軍主)로 임명되었다. 김무력이 신주에 파견되어 군정을 실시하자 남의 백제와 북의 고구려를 적대 세력으로 둔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수비 태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신라는 비록 양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고구려나 백제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상 교통로의 교두보(橋頭堡)를 한강 하류의 서해안에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나·제 동맹이 파기되어 백제와 대립하게 되자, 북쪽의 고구려로부터 남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서쪽의 백제로부터는 부단한 침공에 시달리게 되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점함에 따라 백제와 고구려는 그 간의 대결 관계를 청산하여 우호적 관계로 개선하고, 신라를 양국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여 압박하였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종전보다 더한층 적극적인 대중국 외교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세력에 비해 열세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세력의 군사력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양국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우위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균형 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청병외교(請兵外交)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백제의 전력 소모

신라는 백제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하류의 요지를 기습 공격으로 빼앗은 후인 554년에 성왕(聖王)이 직접 지휘하는 백제 대군의 보복 공격을 받게 되었다. 신라에 보복하기 위하여 출병한 백제군은

옥천(沃川)의 관산성(管山城)에서 신라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투를 진두 지휘하던 성왕이 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퇴각하였다. 성왕을 이어서 즉위한 위덕왕(威德王 : 554~597)도 561년 7월과 577년 10월에 신라의 서쪽 변경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신라군의 수성 작전을 깨트리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당시 신라는 6세기 후반의 36년간을 재위하면서 정복 군주로 활약하던 진흥왕의 군사력 강화 정책에 힘입어 수차레나 백제군의 보복적인 대규모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백제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대치 상황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후 30여 년 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하던 양국의 관계는 무왕(武王 : 600~640)이 즉위한 직후부터 다시 백제군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백제는 30여 년 간 신라 침공을 자제하면서 군사력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무왕은 602년 8월에 신라의 아막산성(阿莫山城 : 운봉 <雲峰>)을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신라 침공을 재개하여 재위하던 40여 년 동안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대소 규모의 무력 침공을 단행하였던 것이다.¹⁴⁾ 이 무렵 고구려도 신라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압박 효과를 가중시키려고 하였다. 603년 8월에 고구려군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자 신라의 진평왕(眞平王 : 579~631)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빈번한 침공에 시달리면서 국력을 기울여 군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다. 예컨대 보병 부대 군사들의 신분이 3두품인 것에 비해 기병 부대를 우대하여 4두품의 품계를 부여하고¹⁵⁾ 보병에 대한 중장기병(重裝騎兵) 부대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

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신라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무력 침공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신라는 중국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수(隋)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방침을 세우고, 사신을 보내어 궁지에 몰린 신라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 병력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수가 598년부터 614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4차례의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으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3) 신라의 항전 역량 제고

신라는 진평왕 대의 발전기를 이어서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한 선덕왕(善德王 : 632~646)의 시대를 맞이한지 10여년이 경과하던 7세기 중반에 이르자 다시 백제의 대대적인 침공에 시달리게 되었다. 642년 7월에 무왕을 이어 즉위한 의자왕(義慈王 : 641~660)은 집요하게 국경을 침공하면서 신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중국 대륙은 이미 수(隋)가 멸망하고 618년에 새로운 통일 국가로 등장한 당(唐)이 태종(太宗)의 통치기를 맞이하여 안정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해동 증자(海東僧子)로 불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던 의자왕이 즉위하자 부왕의 뜻을 계승한 그의 진두 지휘로 신라에 보복적인 공격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백제군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는 중과부적으로 패퇴를 거듭하여 국경 지역의 일대의 크고 작은 40여 성을 빼앗기는 위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백제군 1만여 명의 공격을 받고 나제(羅濟) 국경 지역의 전략적 거점 도시인 합천(陝川)의 대야성(大耶城)을 점령당하는 타격을 입었다. 이때 대야성에는 김춘추(金春秋)의 사위인 품석(品釋)이 성주(城主)로 임명되어 일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일가족이 전투 과정에서 모두 전사하고 주민 1천여 명이 포로가 되는 참패를 당하자 신라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신라는 백제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단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42년 11월에 김춘추를 고구려에 급파하였다. 당시 김춘추는 자신의 사위가 대야성에서 백제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연결시킨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대야성을 상실함으로써 야기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김춘추 자신의 실추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고구려의 최고 실력자 연개소문(淵蓋蘇文)과의 평양성 회담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 김춘추는 평양에서 연개소문과 담판하면서 신라에 구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돌려주는 조건부로 승낙을 제의하였으므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춘추가 구금당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신라로서는 아예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⁸⁾

그런가 하면 백제는 643년 정월에 당에 진하사(進賀使)를 파견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우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는 그해 11월에 고구려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돈독히 하였다.¹⁹⁾ 이어 신라의 대당(對唐) 청병 외교(請兵外交) 활동을 차단하려는 백제군의 공격이 대당외교의 해상 교두보인 남양만의 당항

성(黨項城)에 집중되자 신라군은 방어력을 증강하여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항성을 백제에 빼앗길 경우는 당과의 교통이 두절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 명약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의자왕은 649년까지 매년 신라를 침공하였으며, 신라도 보복적인 공격으로 적극 대응하였으므로 국경 지역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방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651년에는 당에 파견되었던 사신이 돌아오면서 당 태종이 의자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 서신에서 당 태종은 백제군의 신라에 대한 침략 행위를 중지하고 빼앗은 성을 모두 돌려줄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라로 하여금 결전하도록 용인할 것이며, 고구려로 하여금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최후 통첩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라는 계속적으로 백제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면서 생존을 위한 항전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655년 8월에도 백제는 고구려 및 말갈군(靺鞨軍)과 함께 연합하여 신라 북쪽 국경 지대에 위치한 30여 성을 점령하였다. 이때도 역시 신라는 당에 사신을 급파하여 이 같은 사실을 통고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였다.²¹⁾

백제는 빈번하게 신라와의 국경 지역을 침공하여 크고 작은 여러 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단기간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남용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특히 무왕과 의자왕대에 이르는 50여 년 동안 끊임없는 신라 침공과 의자왕의 정치력 상실로 말미암아 백제의 국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갔고, 그에 따라 군사력도 신속히 복원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적대 관계에 있는 신라에 대해 오히려 군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낳

게 되었다. 즉 신라는 백제가 국경 지역 여러 성을 장악하기 위한 대소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여 자만에 빠진 틈을 타서 국민적 단결을 더한층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군사력을 신속히 확충하는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신라 공략에 군사력을 집중시키지는 못하였다. 중국 대륙의 강력한 통일 국가로 등장한 수(隋)와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세기에 들어와 수(隋)와의 전쟁이 일단락되자 이때부터 비로소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신라는 한강 유역을 독점하던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부단한 침공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력을 기울여 군사력을 확충하였으나 그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중국의 제3세력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수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당(唐)에 급사(急使)를 수차례 파견하여 긴박한 상황을 전하면서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나당 연합에 의한 군사력의 우위를 모색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대응 전략도 수립해 나갔다.²²⁾

(3) 불교 사상의 전력화

1) 불교 수용의 배경

신라에 유입되기 이전에 인도(印度)에서 생성될 당시의 불교(佛敎)는 세속의 정치적 군주이며 상징적 존재이기도 한 이른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주도하는 무력 정복 사업을 정당화하는 이념 체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전륜성왕은 금륜왕(金輪王)·은륜왕(銀輪王)·동륜왕(銅輪王)·철륜왕(鐵輪王)으로 세분되기도 하는데, 무력으로 인접 국가를 정복하고 이곳에 불교의 통치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복 군주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등급의 철륜왕은 세속의 정복 군주로 상징되었으며, 동시에 군륜왕(軍輪王)으로 관념되어 군국적(軍國的) 성향의 불교를 탄생시키는 요체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공인을 받은 초기의 불교는 군국적 성향을 더욱 강하게 노출시키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러한 성향의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국왕이 전제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교를 선택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에 있어서 불교는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貴族國家)로 성립-발전-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래되어 수용된 것이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귀족들은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 형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불교를 수용하려고 하였다. 초인적인 불법(佛法)의 위엄을 국왕(國王)의 위엄과 동일시하여 이를 국가(國家)의 위엄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⁴⁾

당시 국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움이 되는 사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교(佛敎)는 물론 유교(儒敎)나 도교(道敎)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교를 정신적 측면에서 국민적 통화(統和)에 이바지하는 사상 체계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왕권 강화의 이념적 배경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²⁵⁾

그리하여 신라는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인 법흥왕대에 이르러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곧 전륜성왕의 이념을 부흥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흥륜사(興輪寺)를 천경림(天鏡林)에 창건하는 계획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흥륜사 창건 작업은 초기 단계부터 귀족 집단의 회의 기구인

화백 회의(和白會議)에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결국 창건 책임자인 이차돈(異次頓)을 법흥왕 14년(527)에 처형한 후에야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²⁶⁾ 그로부터 8년이나 경과한 22년(535)에 비로소 신라는 불교를 수용하여 국교로 확정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⁷⁾

이와 같이 신라의 불교는 이를 수용하려는 왕실과 수용을 반대하는 귀족 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공인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불교는 양대 세력 모두에게 화합과 조화를 가져다주는 사상으로 자리잡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정복 군주로 상징되는 전륜성왕이 사병(四兵)을 거느리고 인접국을 정복하면 이곳에 미륵(彌勒)이 화생하여 교화를 펼침으로써 풍요롭고 안락한 불국토(佛國土)를 건설한다는 사상이 전파되면서 미륵 사상은 귀족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법흥왕대의 진통을 거친 후에 즉위한 진흥왕(眞興王)은 귀족 세력의 자제들로 구성된 청소년 집단을 화랑도(花郎徒)로 개칭하여 미륵선화(彌勒仙花)로 받들게 함으로써 귀족 집단을 정복 사업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국왕인 진흥왕은 왕실을 대표하는 전륜성왕으로서 정복 사업을 추진하며,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그 자제들인 화랑은 전륜성왕의 치세(治世)를 돕기 위해 출현한 미륵으로 비견되면서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그리하여 진흥왕은 귀족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2) 국민 통합의 실현

신라는 비록 백제에 비하여 1세기 이상이나 늦게 불교를 국교로 수용하였으나 백제와는 달리 불교 사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즉 정치 세계와 종교 세계를 조화시켜 왕실과 귀족 집단이 함께 불교적 이상 국가의 건설을 염원하는 국가적 이념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진골(眞骨) 귀족 세력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차돈이 처형당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국왕의 의도대로 불교를 국교로 정착시켰다. 당시 중국 북부 불교의 전통은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시켜 주는 사상적 배경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즉 왕권의 절대화를 고취함으로써 정권과 밀착된 왕권 강화의 이념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²⁹⁾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씨족과 혈연의 차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대립적 감정을 불교를 통하여 동일한 신도(信徒)라는 새로운 일체감으로 포용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빈번한 정복 전쟁은 씨족적 요소를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불교의 호국적인 성향은 정복 전쟁 과정에서 불교의 초인간적 힘에 의존하려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었으므로 왕실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⁰⁾

신라의 지배 세력인 진골 귀족(眞骨貴族)들은 불교가 수용될 당시에 강력히 반대했던 상황과는 달리 윤회 전생 사상(輪廻轉生思想)에 대하여는 크게 호응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즉 윤회 전생 사상이 신라의 전통적 신분제도인 골품제도(骨品制度)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골품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6두품 귀족과 평민 및 천민은 전생 윤회 사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하층민인 피지배층은 불교의 정토 신앙(淨土信仰)을 받아들임으로써 윤회 전생 사상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³¹⁾

불교를 수용한 후로 더욱 전제화된 왕권과 지배 귀족들은 정도 신앙으로 피지배층의 민심(불만세력)을 수습하였다. 그 결과 정도 신앙은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전제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³²⁾

이러한 사회적 기능으로 인하여 불교는 신라의 대외 팽창 정책에 신앙적인 힘의 배경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의 불교는 동시에 충(忠)·효(孝)·신(信)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률로서 기능하였다.³³⁾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은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과 《금광명경(金光明經)》,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신의는 《아함경(阿含經)》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었다.

이와 같은 불교 경전의 사상을 폭넓게 보급하여 국민의 정신세계를 충효신(忠孝信)으로 무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국민적 단결을 배경으로 하여 불교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이념이 되었다. 이는 곧 불법을 지키는 호법(護法)과 나라를 지키는 호국(護國)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³⁴⁾ 따라서 왕실은 호국의 한 방편으로써 불교를 진흥시키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불교를 신앙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던 것이다.³⁵⁾

3) 불교 승려의 역할

삼국간의 정쟁에서 승려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구려 승려 도림(道琳)은 장수왕의 밀명을 띠고 백제에 파견되어 첩자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신성(信誠)은 고구려가 대당전쟁을 벌일 때 연남건(淵男建)으로부터 군사 지휘권을

이양받아 활약하였고, 백제가 멸망한 후 도침(道琛)은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신라의 승려인 법장(法藏)과 혜인(慧忍)은 진흥왕이 무력으로 정복한 변경 지역을 순수할 때 호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거칠부(居柒夫)는 승려의 신분으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대당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⁶⁾

그리고 승려들은 정치에도 깊이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은 원광(圓光)과 자장(慈藏)으로서, 이들은 당에 유학하여 불교를 연구하고 돌아온 이른바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특히 원광은 당시 신라의 정신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가로 활약하였다.³⁷⁾ 원광은 608년(진평왕 30)에 왕명에 따라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한 수(隋)의 지원군 파견을 요청하는 이른바 절사표(乞師表)를 지어 수에 보냈으며, 화랑인 귀산(貴山)과 취항(籌項)에게 준 세속오계(世俗五戒)는 화랑도의 근본 사상으로 자리잡아 화랑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³⁸⁾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신라의 청년 전사(戰士) 집단인 화랑(花郎)들에게 세속오계를 가르쳤던 것은 화랑으로 하여금 불교적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건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⁹⁾ 원광법사가 내려 준 세속오계는 많은 화랑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가 하면 승려들이 직접 화랑도의 일원이 되어 소속 화랑도의 정신적 지주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⁴⁰⁾

한편 신라의 화랑도는 신라 사회의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랑들은 산천(山川)을 유람하면서 국토를 순례함으로써 자신들의 심신을 수양할 뿐만 아니라 호국 의지를 함양함으로써

써 귀족 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⁴¹⁾

선덕왕 대에는 왕법(王法)과 불법(佛法)이 다르지 않으며, 일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왕(國王)은 이타 정신(利他精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불교의 보살(菩薩)과 같다는 사상을 도입하였다. 즉 국왕이 보살계(菩薩戒)를 수행함으로써 국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보살과 불교 신자(佛教信者)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당에서 돌아온 자장(慈藏)은 643년(선덕여왕 12)에 궁중에서 불교의 대승 사상(大乘思想)을 강론하고 황룡사에서 7일간에 걸쳐 보살계를 내리는 대규모 수계 의식(受戒儀式)을 주재하였던 것이다. 호법(護法)과 호국(護國)과의 관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국왕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호국 사상(護國思想)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⁴²⁾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 승려인 자장(慈藏)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 황룡사에 9층의 탑을 건립함으로써 주변국가로부터 조공(朝貢)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가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국통(大國統)의 지위에 올라 조야의 존경을 받기도 한 그의 건의에 따라 목탑으로 세워진 황룡사 9층탑은 그후로 국민의 대외 정복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⁴³⁾

이와 같이 자장은 왕법과 불법을 일치시킨 이론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조정에 중국식 의관(衣冠)을 사용하고 당의 연호(年號)를 사용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자장의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짐으로써 당제국의 선진 정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신라와 당의 유대 관계는 더한층 돈독하게 되었으며, 신라는 중국의 수많은 주변 국가 중에

서도 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어 각별한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승려들은 국가의 호국 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회(八關會) 등을 주관하며, 주술가로서 전략가(戰略家) 및 전사(戰士, 武士)로서도 활약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⁴⁴⁾

이러한 입당(入唐) 구법승(求法僧)들의 호국적 활동은 의상(義湘)과 명랑(明朗)에게 계승되었다.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나당 연합군으로 멸망시킨 후에 당이 신라마저 멸망시키기 위해 대규모 침공군을 출동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즉시 귀국하여 이를 문무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때 문무왕은 자장의 조카이며 국교대덕(國敎大德)과 의안대덕(義安大德)의 동생으로서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던 명랑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유림(神遊林)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불력(佛力)으로 당의 침공을 분쇄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⁴⁵⁾

2. 당의 국내정세 변화

(1) 정치 상황의 변화

1) 당조정의 내분

중국 대륙에 당(唐)이라는 통일 제국을 세운 개국 공신들 중에는 뿌리깊은 세력 기반을 가진 전통적 귀족들이 많았다. 따라서 당 왕조가 출범할 초기의 형세는 이들 귀족 집단과의 연합정권적 성격이

농후하였다. 그후 당이 동북아의 강국 고구려와 장기간 전쟁을 계속하면서 국력을 소모하게 되자 전쟁을 주도한 집권 귀족 세력들의 정치적 기반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국력을 기울여 수차례나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그때마다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한 귀족 집단은 결국 자신들이 거느린 수많은 예속민(隸屬民)을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 인력이 크게 감소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된 대토지(大土地) 경영마저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경제적 특권도 향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당은 7세기 중반에 즉위한 고종(高宗)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수많은 격변의 외형적인 원인은 태종(太宗)의 아들로서 즉위한 고종이 태종의 후궁(後宮)이었던 무조(武照)를 환속시킨 다음 궁궐로 대려와 자신의 후궁으로 삼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의 애첩인 무씨는 태종이 죽은 후 전통적 관례에 따라 여승(女僧)이 되어 지정된 사찰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고종에 의해 입궐하여 애첩으로 총애를 받으면서 궁중에서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당 고종은 무씨를 극도로 총애하여 소의(昭儀)에 책봉하고, 급기야는 황후(皇后)인 왕씨(王氏)를 폐위시킨 후에 무소의(武昭儀)를 황후로 삼으려고 획책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의 조정은 고종과 무소의를 지지하는 찬성과와 명분론에 입각하여 황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반대파로 양분되어 극렬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고종과 무소의는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의 반대여론을 제압하기 위해 중서사인(中書舍人) 이의부(李義府)를 중서시랑(中書侍郎)에 발탁하고 위위경(衛尉卿) 허경종(許敬宗), 어사대부(御史大夫) 최의현(崔義玄), 어사중승(御史中丞) 원공유(袁公瑜) 등을 포섭하여 지지 세력으로 이용하였다.

황후의 폐위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라진 양대 세력이 대립한 결과 폐위를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인물인 저수량(褚遂良)은 담주 도독(潭州都督)으로 좌천되었고, 결국 655년(영휘 6) 11월에 무소의는 고종의 황후로 책봉되었다. 이로부터 조정 내부의 정쟁은 더욱 심화되어 무소의와 그 반대 세력의 대결 구도로 고착되어 갔다. 산둥(山東)지방 출신인 무후(武后)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관료 세력 집단인 이른바 무후파(武后派)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노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태종(太宗)의 사후로 불과 30여 년이 경과한 7세기 후반에 이르러 황족과 귀족 집단 및 관료들은 신흥 세력 집단인 무후파의 정치적 탄압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고·당 전쟁을 주도하였던 관료귀족집단(關隴貴族集團)은 반무후파(反武后派)의 중심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고종대인 7세기 후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하고 있었다.⁴⁶⁾

2) 집권 세력의 교체

무소의(武昭儀)를 황후로 옹립한 이의부, 허경중, 최의현, 원공유 등은 무황후 지지파로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무후파의 중심인물인 이의부는 657년(현경 2)에 중서령(中書令)을 겸임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반대파를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따라서 이들과 대립하였던 장손무기 등 반무후파의 원로 중신들은 외직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무후파의 조직적인 모함 공작에 말려든 한원(韓瑗)은 진주자사(振州刺史), 내제(來濟)는 태주자사(台州刺史), 유석(柳奭)은 상주자사(象州刺史)에 보임되어 외직으로 축출되었다.

무후는 원로 중신으로 내외의 신망이 두터운 장손무기를 정점으로

로 하는 관룡귀족집단을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예부상서 허경종을 중서령으로 발탁하였다. 무후파의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 조정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허경종은 고종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장손무기가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모함하면서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건의하여 고종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장손무기는 북위(北魏)·서위(西魏)·북주(北周)·수(隋)를 거치면서 명문으로 명성을 날린 가문의 출신이며, 태종대에는 그의 누이동생이 황후가 되었으므로 조정 내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손무기가 반대 세력에 의해 축출되는 것은 곧 무후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⁴⁷⁾

이에 고종은 장손무기의 관직(官職)과 관작(官爵), 봉읍(封邑)을 모두 삭탈하고 양주도독(揚州都督)으로 삼아 검주(黔州)에 안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에 연루된 것으로 누명을 쓴 저수량(褚遂良), 유석(柳奭), 한원, 우지령(于志寧), 장손충(長孫沖) 등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 이 모함 사건의 여파는 659년(현경 4)까지 계속되어 반무후파 자신은 물론 그 가족과 친지들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정쟁의 결과로 산동문벌귀족(山東門閥貴族)과 그 지지 세력, 그리고 일부 서민 지주층으로 형성된 무후파는 반대파인 관룡군사귀족(關隴軍事貴族)을 대부분 제거하였다.⁴⁸⁾ 따라서 당 조정은 무후파의 핵심 인물인 이의부와 허경종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에 의해 과거제(科擧制)를 통한 관위우위(官位優位)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므로 전통적인 문벌귀족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⁴⁹⁾

이 같은 대립 구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무후파에 가담한 서민(庶民)들로서 전국의 중소 지주층(地主層)과 상인(商人)들이었다. 무후파는 반무후파를 압박하기

위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중소 지주들을 끌어들이지 세력 이용하였다. 즉 무황후가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정권에 참여시키면서 신흥 서민 관료층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하층부의 대규모 관료층을 형성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무후파에 편승하여 정계에 대거 진출한 중소 지주들은 자신들도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면서 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⁵⁰⁾

한편 관료집단을 관계에서 축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의부는 고종과 무황후의 신망을 받아 657년(현경 2)에 중서령(中書令) 겸 검교어사대부(檢校御史大夫) 감수국사(監修國史)의 지위에 오르게 되자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면서 같은 무후파의 일원인 두정륜(杜正倫)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암투를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당 조정은 무기력한 고종을 대신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무후와 그 지지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고, 점차 다시 상호간의 내부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어 갔다.

결국 당은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쟁을 치른 이후로 전통적 귀족 세력인 관료군사집단이 무후를 중심으로 한 산동문벌귀족, 그리고 중소 지주 및 상인 세력 등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 기존의 실권을 모두 상실하는 집권 세력의 교체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고종대(高宗代)의 당 조정은 무후를 중심으로 한 무후파 일당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전통적인 대이민족 정책인 이른바 기미정책(羈縻政策)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었다.

(2) 군사력의 강화

1) 부병제의 발전

당제국을 건국한 고조(高祖) 이연(李淵)은 수(隋)가 채택하였던 부병제(府兵制)를 계승하여 당의 군제로 삼았다. 이 부병제는 10여 년 간의 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태종(太宗) 대인 7세기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완비되었다. 이 무렵에 완비된 부병제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들을 3년마다 거주 지역의 절충부(折衝府)에 소속시켜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부병제는 이른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제였으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차례에 따라 번상(番上)하여 수도 경비 임무를 수행하거나 변방 요새에 파견되어 국경 수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⁵¹⁾ 그러나 부병의 의무는 균전(均田) 농민에게 부과되는 부담 중에서도 매우 과중한 것이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피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였다.⁵²⁾

부병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비교적 우수한 체력을 갖춘 장정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므로 전투부대의 주력이 되었다. 농한기에 절충도위(折衝都尉)의 지휘하에 군사 훈련을 받았으므로 항상 일정한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병은 우수한 전투력을 갖춘 정예부대였으므로 고구려 침공과 같은 대규모 원정시에 필요에 의해 급속히 모병된 일반 군사들과 혼성부대로 편성되었으나 항상 주력부대로 활약하였다.⁵³⁾

이러한 부병 중에서도 기마(騎馬)와 궁시(弓矢) 사격에 능숙한 기병인 월기(越騎)는 북방 민족이 기병을 위주로 하여 침공 부대를 편성하는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최정예부대였다. 따라서 월

기는 북방 민족의 기병 일변도의 전술과는 달리 보병 부대의 협조를 받는 보기 합동(步騎合同)의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항상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여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⁵⁴⁾

2) 군사동원 능력의 우세

당 태종은 부병의 강력한 전력으로 630년(정관 4)에 북방 민족인 돌궐(突厥)과 접전하여 이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그 위력을 실전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646년(정관 20)에는 돌궐을 대신하여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설연타(薛延陀)마저 정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종래로 설연타의 지배를 받고 있던 기타 중소 부족들까지도 쉽사리 지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 중소 부족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당제국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미정책(羈縻政策)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정책에 따라 각 부족을 다스릴 도독부(都督府)가 설치되고 해당 부족의 우두머리는 도독(都督)이나 자사(刺史)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연연도독부(燕然都督府)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도호(都護)를 파견함으로써 부족장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전담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기미정책에 따라 당의 고종(高宗)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지배할 야심을 가지고 이른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당제국의 본토를 중심으로 주변 외곽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비롯하여 안북(安北)·안서(安西)·안남(安南)·선우(單于)·북정(北庭)의 6도호부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7세기 후반의 당제국은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토 국가로 성장하였다.⁵⁵⁾

당은 동북 아시아 대륙의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고구려를 침공함에 있어서 국가의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대륙을 무력으로 통일하였던 통일 제국 수(隋)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굴복시키지 못하고 장기전에 말려들어 고전하다가 국가 경제가 파탄하고 민심이 이반하여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제국으로서는 정예 군사를 동원하여 개전과 동시에 군사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당은 수제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신라와의 협조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구려를 양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나당 연합군으로 660년에 백제를 양면에서 협공하여 멸망시킨 성공적 경험을 축적한 후로는 더한층 철저한 준비와 강화된 협조 체제로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668년에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왕조를 멸망시킴으로써 통일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백제 및 고구려와의 10여 년에 걸친 전쟁 과정에서 축적된 전투 경험은 당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특히 한반도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으므로 작전 수행 능력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할 10여년 전에 비하여 월등히 향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신라는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한 이른바 당군 축출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전투 손실을 대가로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당제국이 7세기 후반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와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하북지방(河北地方)의 군사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양국간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하북지방에서 군사를 차출하여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하북지방에서 대신라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

사는 정예부대인 부병을 포함하여 1백여만 명이었으나 신라의 동원 능력에 비하여는 막강한 군사력이 아닐 수 없었다.

(3) 대외 인식의 변화

1) 대외 정책의 강화

당 태종(太宗)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장기간 국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즉위 과정에서 장자이며 황태자인 이견성(李建成)과 막내 이원길(李元吉)을 살해한 이른바 현무문(玄武門) 사건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정통성 문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친형인 이견성을 죽이고 차자로서 황태자가 되었다가 아버지 이연(李淵)을 퇴위시키고 626년에 즉위하였으므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동시에 황제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민적 관심을 국외로 돌리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특히 돌궐의 무력에 굴복하였던 건국 초기의 치욕적인 종속관계를 무력으로 청산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후로는 고구려와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입각한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⁵⁶⁾

이는 전 왕조인 수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중대한 과제중에 하나였다. 고구려와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피폐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수제국을 계승한 당으로서는 이민족 고구려에 대해 남다른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은 건국 직후에 고구려와 포로 교환을 협의하기 위한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도 고구려가 세운 전승기념물을 훼손하여 고구려에 대한 적대 의식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태종은 자신의 재위 기간동안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년의 친정(親征)에도 불구하고 645년의 안시성(安市城) 전투에서 실패하였으므로 고종(高宗)에게 국가적 과제로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당 고종이 즉위한 649년으로부터 무려 19년이 경과한 668년에 나당 연합군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하여 기미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즉 고구려 전역을 9도독부(都督府) 42주(州)로 분할하고 이를 총괄하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설치함으로써 이른바 기미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당의 기미정책은 본래 태종이 동돌궐 세력을 궤멸시키고 이어서 646년에 설연타(薛延陀)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설연타의 지배를 받고 있던 회흘(回紇, 위구르) 등의 철록(鐵勒, 투르크) 부족이 투항해 오자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었다. 즉 각 부족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주를 설치한 후, 도독부의 도독과 주의 자사(刺史)를 해당 부족의 추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부족의 추장이자 당제국의 관리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후로 당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미정책을 추진하였는데,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이를 지배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⁵⁷⁾

2) 이민족과의 충돌

당제국의 광범위한 판도는 대부분 태종이 재위하던 시대에 활발한 정복 전쟁의 산물로 넓혀진 것들이었다. 그리고 고종대에 들어

서 더욱 확대됨으로써 대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종의 말기에 이르러서 영토의 일부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태종과 고종대의 당의 판도는 안서(安西)·안북(安北)·선우(單于)·안동(安東)·곤릉(崑陵)·몽지(濛池)·안남(安南)의 7도호부로 분리되어 기미정책(羈縻政策)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영토 확장 정책의 성공으로 인하여 현종(玄宗) 시대의 당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⁵⁸⁾

이러한 당이 건국할 당시에 최대의 적대 세력으로 대립하게 된 이민족 세력은 동돌궐(東突厥)이었다. 따라서 동돌궐과의 관계는 다른 이민족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돌궐은 627년(정관 원년) 이래로 계속되는 내우외환과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당의 이간 정책에 말려들어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630년(정관 4)에는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투항을 받아들이고 그들 지도자를 도독으로 임명함으로써 최대의 적대 세력인 동돌궐과의 관계를 일단락 지었다.⁵⁹⁾ 그리고 고종대인 650년(영희 원년)에 동돌궐의 마지막 저항 세력을 토벌하고 선우(單于)도호부와 한해(瀚海, 安北)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30여 년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동돌궐에 비해서 서돌궐의 경우는 당에 커다란 위협 세력이 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태종대인 642년(정관 16)에 당의 변경 지역을 침공하였다가 실패하여 크게 타격을 입은 후로는 당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고종대인 657년(현경 2)에 소정방(蘇定方)의 군대로 하여금 서돌궐의 사발라칸(沙鉢羅可汗)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였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하여 서돌궐 지역에 몽지(濛池)도호부와 곤릉(崑陵)도호부를 설치하였다.⁶⁰⁾

이와 동시에 당은 서돌궐의 지배를 받고 있던 크고 작은 서역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들을 하나 둘 복속하자 안서(安西)도호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서역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정적 지배 체제도 오랫동안 계속되지는 못하였다. 서쪽 고원 지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던 토번(吐蕃)이 고종 말기에 재기하여 반기를 들고 서돌궐과 연합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대식국(大食國)이 서역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토번의 침공은 무후(武后)가 집정하던 시기에 더욱 치열하였으므로 당은 군사력은 물론 외교력을 동시에 동원하여 화전(和戰) 양면 정책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¹⁾

이러한 동서 돌궐족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접한 부족으로는 철록(鐵勒)부족이 있었다. 이들은 15개 부족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설연타(薛延陀)가 가장 강성한 세력 집단으로서 당과 대립하였다. 그러나 태종대인 646년(정관 20)에 같은 철록계열인 회흘(回紇)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당군이 침공하여 멸망시켰다. 이로 인하여 기타 철록 부족들도 당에 투항해 오자 당은 그 지배층 인사들을 도독이나 자사(刺史)에 임명하고 647년부터 연연(燕然)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정책을 추진하였다.

그후 고종대인 661년(용삭 원년)에 철록 부족이 세력을 양성하여 변경 지역으로 쳐들어왔으나, 이듬해 당군이 출동하여 이들을 대파하고 663년에는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평정하였다. 이때 연연도호부도 회흘 지역으로 옮겨 한해(瀚海)도호부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동돌궐 지역에 설치되었던 한해도호부는 운중(雲中)도호부로 이름을 바꾸어 이동 배치하였다. 그러나 철록 부족들은 무후(武后)의 집

권 시기에 이르러 돌궐의 세력이 다시 강성해지자 돌궐의 휘하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당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변경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켰다.⁶²⁾

그리고 철록 부족의 남쪽 고원 지대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던 토번(吐蕃)은 고종 말기인 680년에 당을 침공한 이래로 무후(武后)의 집정기에는 더욱 치열하게 변경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당은 토번과의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신라와의 무력 대결에도 전력을 기울일 수 없게 되었다. 당이 이민족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아 변경 지역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 신라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라는 당의 이 같은 상황을 역이용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함으로써 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저력을 길러 나갔던 것이다.⁶³⁾

제 3 장 나당 전쟁의 원인

1. 신라의 영토확장 정책

(1) 나·당 연합군의 결성

신라는 백제와 함께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후 다시 이 지역을 백제로부터 빼앗아 독점함으로써 고구려·백제 양국을 적대 세력으로 만들었던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무려 1백여 년 동안 이들의 보복적인 공격에 시달려 왔다. 특히 백제는 동진 정책(東進政策)으로 신라의 서쪽 변경을 자주 침공하여 영토를 넓혀 나갔다. 점령지의 생산력과 세원(稅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로 신라 공격에 주력하였으므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구려에 비해 더한층 위협적으로 신라를 압박하였다.¹⁾ 특히 백제와 고구려가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신라를 협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위기 상황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제국 수(隋)의 침공을 받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고·수 전쟁에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수가 멸망한 후로는 당(唐)의 침공에 대비하는 등 대중국 관계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므로 백제와 신라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가 주로 신라에 공격을 집중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 의해 포위되는 형세에 놓여 국가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신라의 대당 청병 외교(對唐請兵外交)는 국

가의 사활(死活)을 좌우할 지상 과제로서 국력을 기울여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청병(淸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당시 고구려를 굴복시켜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고구려를 침공하였다가 실패하여 이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수제국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동시에 노리고 있던 당제국의 야망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즉 당은 고구려를 침공하여 무력으로 굴복시킴으로써 주변 이민족(異民族)에 대한 대제국 당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수제국의 멸망을 설욕하려는 야심을 노출시키게 된 것이었다.²⁾

그러나 당은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단독 침공으로는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러 차례 대규모 침공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전략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후방에 위치한 신라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군사 협조를 요청해 오자 당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당은 당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고구려의 배후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한편으로 당군에 식량 등과 같은 주요 군수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신라와 제휴함으로써 고구려의 전력을 분산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세 분석에 따라 당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신라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³⁾

고구려를 먼저 침공하여 굴복시키려던 당의 계획은 일단 보류되고, 그 동안 신라 침공에 주력하여 국력이 극도로 피폐된 백제를 먼저 침공하기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즉 고구려와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신라를 침공하는 백제를 먼저 공략하여 배후 공격의 위협 요

소를 제거한 후에 고립된 고구려를 신라와 함께 공격하기로 침공 계획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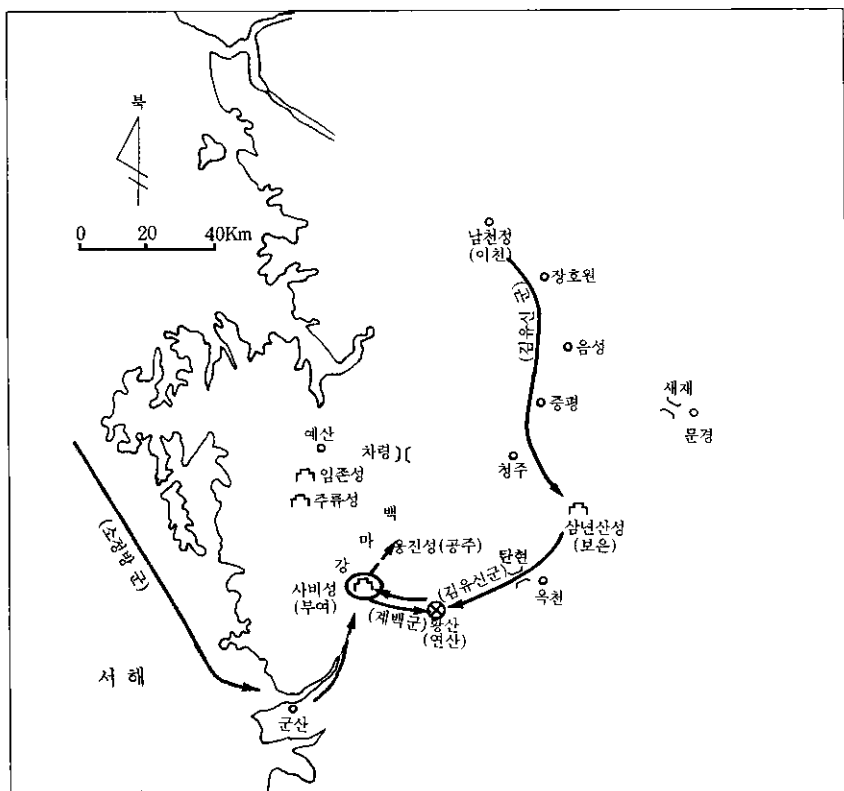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신라와 당의 이해가 일치하자 비로소 나·당 연합군이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신라는 김유신의 지휘하에 5만 대군을 백제 수도 사비성으로 출동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 고종(高宗)은 660년 3월에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 행군대총관(神丘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하여 총사령관으로 삼고, 청병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당에 체류하고 있던 신라의 왕자 김인문(金仁問)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총병력 13만 대군을 동원하기로 하였다.⁵⁾

(2) 나·당 연합군의 백제 침공

당군이 660년 6월에 산둥반도의 내주항(萊州港)에서 바다를 건너 서해안으로 상륙하자 신라에서는 태자(太子)인 김법민(金法敏)이 군선 100척을 이끌고 서해상의 덕물도(德物島 : 덕적도 <德積島>)로 진출하여 당군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당군이 서해안으로 진입하고 또 신라군이 해상에서 이들 당군을 맞이하여 작전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찍이 신라가 한강 하류를 백제로부터 탈취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백제의 수도 사비성(泗沘城)을 7월 10일에 공격하기로 최종 결정을 보게 되자 신라에서도 대장군(大將軍) 김유신(金庾信)을 주축으로 하여 장군 김품일(金品日), 김흠춘(金欽春) 등이 5만 대군을 이끌고 당군과 연합작전의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당군은 백강(白江 : 금강 <錦江>) 입구로 진입하여 상륙을 하자 이때부터는 육로로 이동하여 백제 수도 사비성으로 진격하였다. 나당 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사태가 급박해진 백제 의자왕(義慈王)

나 · 당 연합군의 사비성 침공 상황(660. 7)



은 귀양지에 있던 대신 흥수(興首)에게 대응 전략을 신속히 건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흥수는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므로 가능한한 평야 지대에서 접전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리고 백강에서 당군의 상륙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탄현(炭峴)에서 신라군의 진입을 차단한 후, 장기 항전 체제를 유지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의자왕에게는 이 건의를 수용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 의자왕과 불화

하여 유배중인 홍수가 고의로 왜곡된 대안을 제시하였을 것이므로 결코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였다. 결국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홍수의 건의는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백제 국왕과 조정이 가닥을 잡지 못하여 신속한 대응 기회를 놓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라군은 이미 홍수가 지적한 탄현을 넘어서 황산(黃山 : 연산(燕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당군은 백강으로 진입하여 상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백제는 장군 계백(階伯)으로 하여금 5천명의 결사대를 편성하여 황산에서 신라군을 저지하게 하는 정도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계백의 결사대 5천명은 신라군 5만명을 맞이하여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황산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12일에는 수도 사비성(泗沘城 : 부여)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의자왕은 태자 부여 효(扶餘孝)를 대동하고 사비성을 빠져나가 웅진성(熊津城 : 공주)으로 탈출하였다. 그러자 차자인 부여 태(扶餘泰)가 국왕을 자처하면서 잔류한 군사와 주민들을 수습하여 사비성을 사수하기로 결의하고 방어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국왕과 태자가 탈출한 상황에서 사비성은 나당 연합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7월 18일에 투항하고 말았다. 곧 이어 의자왕과 태자도 수도가 함락되자 저항을 포기하고 사비성으로 돌아와 투항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678년 동안 31왕이 지배한 왕조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후 그해(660) 9월에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이 지휘하는 1만여 명의 군사만 남겨 두고 당군이 철군할 때 백제의 왕족 및 귀족 관료 90여 명과 주민 1만 2천여 명도 당으로 끌려갔다.⁶⁾

이로부터 당군은 나당 연합군의 주력부대로서 백제 고토에 주둔하게 되었다.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王文度)를 웅진도독(熊津

都督)으로 임명하고 점령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한 채 점령군으로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⁷⁾ 신라는 이 같은 당군의 야욕을 간파하고 이들 점령군을 백제 고토에서 무력으로 몰아내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고구려를 침공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군과의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있었으므로 백제 고토에서의 무력 충돌은 불씨를 내재한 채 일단 잠복하게 되었다.

(3)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

1) 고·당 전쟁의 전개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를 고립시킨다는 당 초의 전략대로 일단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자 다음 단계로 제2목표인 고구려에 대한 침공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나·당 연합군의 주력이 된 당은 그들의 앞 왕조인 수제국과도 숙적(宿敵)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기본 목표이기도 했다. 동북아시아로의 진출에 최대 걸림돌인 강국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침략전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세웠다.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배후 세력으로 이용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수 있게 된 당으로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당은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직후에 고조된 승전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고구려 침공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고구려에 대한 대소규모 침공을 단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백제를 점령한 그해(660) 12월에는 고구려 침공군의 지휘 부서를 편성하고 이듬해(661)부터 본격적인 공격 준

비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그해 4월에 편성된 지휘부는 임아상(任雅相)을 패강도 행군총관(溟江道行軍總管), 설필하력(契苾何力)을 요동도 행군총관(遼東道行軍總管), 소정방(蘇定方)을 평양도 행군총관(平壤道行軍總管)으로 하여 재편성되었다. 이때 당 고종(高宗)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친정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고구려 침공전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울주자사(蔚州刺史) 이군구(李君救)와 무후(武后)가 극력 만류하고 나섬에 따라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다.⁸⁾ 이들의 지휘하에 35군 약 17만 5천여 명으로 편성된 침공군은 수륙으로 병진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⁹⁾

한편 신라도 당이 그들의 작전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그해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에 임명하고 김인문, 김진주(金眞珠), 김흠돌(金欽突)을 대당장군(大幢將軍)에 임명하여 침공군의 지휘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당과는 달리 문무왕이 직접 신라군 침공 부대를 지휘하여 북진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 주었다.¹⁰⁾ 이듬해 1월에는 김유신 등 9명의 장수가 지휘하는 2천여 량(輛)의 수레에 쌀 4천석(石)과 버 2만 2천여 석을 적재하고 평양성(平壤城)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2월 6일에 평양성 외곽에서 포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던 당군 진영에 군량을 전달하고 북귀함으로써 1단계 지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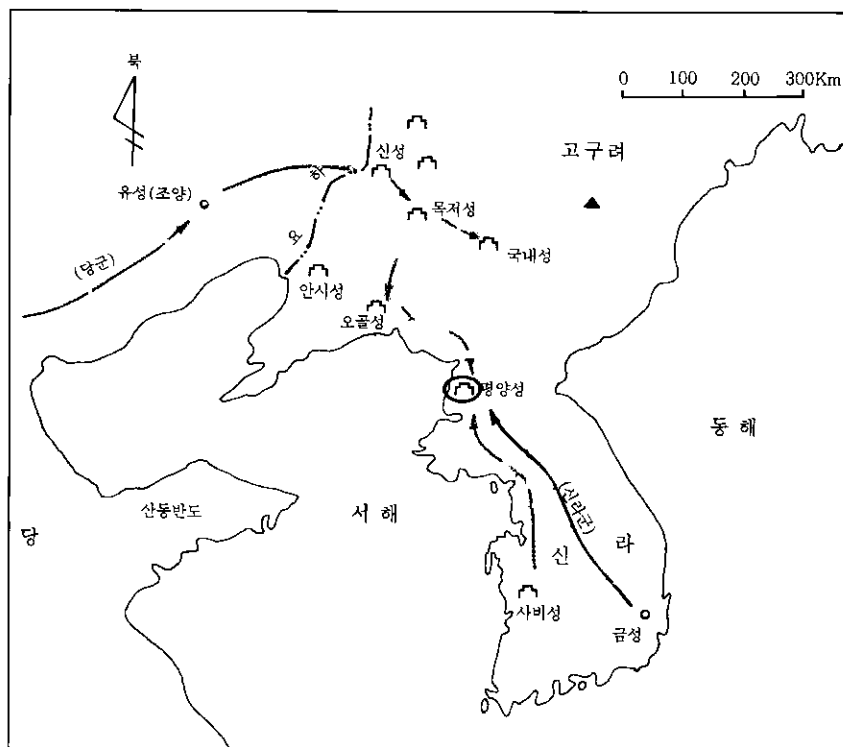
당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아 전열을 정비하자 8월부터 비로소 군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정방은 8월에 평양성 외곽의 대동강(大同江)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며 기세를 올렸다.¹¹⁾ 그러나 고구려군은 대막리지(大莫離支)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지휘 아래 수성전술(守城戰術)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당군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9월부터는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淵南生)이 정예병 수만을 이끌고 압록강의 도하 지점을 모조리 차단함으로

써 당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설필하력 군은 결빙한 압록강을 도하하다가 연남생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당군은 고구려군 3만 여명을 살상하고 나머지를 포로로 하는 타격을 입혔다.¹²⁾

이 무렵인 661년에 중국 대륙 서북지역에서 철록(鐵勒, 투르크) 부족의 일원인 회홀(回紇, 위구르)이 당의 군사력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은 좌무위 대장군(左武衛大將軍) 정인태(鄭仁泰)와 설인귀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토벌군을 편성하여 급파하였다. 당군은 철록의 다른 부족들까지 합세하여 10만 대군으로 증가한 침공군을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잔적을 추적하여 적진 깊숙히 들어간 설인귀의 추격부대 1만 4천여 명이 지형과 기상의 악조건을 견디지 못하여 자멸하고 겨우 8백여 명이 살아 돌아온 타격을 입었다.¹³⁾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당은 부득이 고구려 침공 부대에서 병력의 일부를 차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은 감소된 병력으로 대고구려 전쟁을 계속하여 662년 1월에 좌효위장군백주자사(左驍衛將軍白州刺史) 옥저도 총관(沃沮道總管) 방효태(龐孝泰)가 지휘하는 대군이 연개소문의 고구려군과 사수(蛇水)에 접전하여 대패하고 방효태의 아들 13명도 모두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한편 패강도 행군총관 임아상(任雅相)이 그해(662) 2월에 진중에서 병사(病死)하였기 때문에 전열이 와해되어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나머지 소정방의 부대만이 겨우 공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소정방의 부대마저 겨울철의 혹한으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전하다가 신라군의 도움을 받아 반년이 경과한 662년 3월에 고구려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 상황(668. 8~9)



이로써 고구려군은 또다시 당군의 대규모 침공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고, 원정군의 패전에 크게 충격을 받은 고종(高宗)도 663년 1월에 철륵부족의 침공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동안 기미정책의 일환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연연도호부(燕然都護府)를 한해도호부(瀚海都護府)로 개칭하면서 한해도호부는 운중도호부(雲中都護府)로 개칭하여 북방 이민족에 대한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¹⁵⁾ 따라서 당은 무모하게 서둘러 재출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당 양국간의 전

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고구려의 내분과 멸망

그런데 666년(보장왕 24) 5월에 고구려의 실권자인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장자인 연남생이 대막리지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연개소문의 강압적 통치로 내연되고 있던 불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남생의 세력 집단과 그 아우인 남건(男建)·남산(男産)이 합세한 세력 집단이 양분되어 대립하는 내분이 발생하자 급기야는 고구려 수뇌부 전체로 파급되어 단결이 와해되었다.¹⁶⁾ 고구려 내부의 이 같은 분열 사태는 연개소문의 사망과 함께 야기된 돌발 상황으로서 4년여 기간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던 당의 침공 야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특히 연남생이 아우들에게 축출된 후로 옛 수도 국내성(國內城)에 머물면서 평양성으로 쳐들어가서 설욕할 수 있도록 당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당 고종은 6월에 우효위대장군 설필하력(契苾何力)을 요동도안무대사(遼東道安撫大使)로 임명하여 연남생을 적극 지원하게 하였던 것이다.¹⁷⁾

이 무렵인 666년 12월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淵淨土)가 심복 부하 24명과 12개 읍성에 그 소속민 763호(戶)의 3,543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내분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¹⁸⁾ 그러한 반면 신라인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사기가 크게 고양되어 고구려와의 전쟁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당 고종은 이 같은 고구려의 내분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666년 12월에 이세적(李世勣)을 요동도 행군대총관(遼東道行

軍大總管)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침공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고구려 침공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66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요동지역에서 당의 침공군과 이를 저지하는 고구려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고구려군은 2차에 걸친 당군의 초기 공세에 신성(新城)을 빼앗기면서 이때부터 전전선에 걸쳐 당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당군은 특히 신성을 고구려 서쪽 변경의 중요한 요새로 인식하여 신성의 탈취 여부가 대고구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세적의 진두 지휘로 전력 투구한 결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성을 점령한 후에는 요동도 행군부대총관(遼東道行軍副大總管) 설필하력 군을 주둔시켜 고구려군의 탈환작전에 철저히 대비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계속되는 이세적 군의 공격에 밀리면서 무려 16개의 요충지들을 차례로 빼앗기는 열세에 처하였다. 그리고 대고구려 전쟁에 다시 투입된 설인귀(薛仁貴) 군과의 전투에서도 대패하여 남소성(南蘇城)·목저성(木底城)·창암성(蒼巖城)을 차례로 빼앗기고 말았다. 668년 2월에 부여성(扶餘城) 전투에서 실패한 후로는 부여성을 중심으로 대행성(大行城) 등 40여 성을 차례로 빼앗기면서 각 전투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자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의 고구려군 전력은 더욱 약화되었다.¹⁹⁾

결국 나·당 연합군의 주력인 당군은 668년 9월부터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平壤城)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평양성에 고립된 채 1개월 정도 항전하던 보장왕(寶藏王)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연남산(淵男產)을 당군 진영에 보내어 항복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28왕 70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후 보장왕과 왕자인 고복남(高福男)·고덕남(高德男)을 비롯하여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건·연남산 등 주요 인물들이 20여만 명의 포로와 함께 당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당은 고구려의 5부(部) 176성(城) 69만여 호(戶)를 분리하여 9도독부(都督府) 42주(州) 100현(縣)을 설치하였다. 이 같은 행정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옛 수도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우위위대장군(右威衛大將軍) 설인귀(薛仁貴)를 검교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에 임명하여 2만 병력을 이끌고 주둔하게 하였다.²⁰⁾

2. 당의 패권주의 정책

(1) 백제 영토에 대한 지배 야욕

1) 백제 부흥군에 대한 탄압

백제와 고구려가 당의 위협성 권고를 묵살하고 신라에 대한 침공을 계속한 것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이른바 당제국의 책봉질서(冊封秩序)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적대적 행위였다.²¹⁾ 당은 특히 대막리지 연개소문(淵蓋蘇文)이 고구려의 전권을 장악하여 강경 정책으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를 좌시할 수 없었다. 고구려가 당에 굴복하지 않고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곧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당의 세력 확산이 봉쇄당하는 위험한 사태로 간주되었다. 이는 당의 변경 지대에서 외형적으로는 복속하면서 내면으로는 항상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에게 반당 투쟁 의지를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당의 대제국 건설의 야망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제국 이래의 숙원인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업을 완수하려는 야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신라와 제휴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된 것이었다. 이같이 고구려를 장악하려는 당제국과 백제를 장악하려는 신라의 국가 이익이 일치하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그 결과 백제가 일차 공격 목표가 되어 660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660년에 멸망한 백제는 그 당시에 5부(部) 37개 군(郡)에 2백여 개의 크고 작은 성(城)과 76만여 호(戶)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²²⁾ 그러므로 비록 국왕과 그 측근 세력들이 항복하였다고는 하나 중요한 군사 거점에 배치되어 있던 세력들도 항복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항복에 따르지 않고 지역 또는 성(城)을 단위로 하여 나·당 연합군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따라서 당군은 백제의 저항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침공군의 일부를 잔류시켰다. 이는 백제 고토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당의 영토로 편입하여 영구 지배하려는 저의를 내포한 계획적인 군사 행동이었다.

당은 660년 9월에 소정방의 백제 침공 부대를 본국으로 철수시키면서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을 잔류 대장으로 삼아 1만여 명의 군사를 사비성(泗沘城)에 주둔시켰다.²³⁾ 그리고 백제 지역의 5방(方)인 웅진(熊津: 공주 <公州>)·마한(馬韓: 익산 <益山>)·동명(東明: 불명)·금련(金蓮: 불명)·덕안(德安: 은진 <恩津>) 등 지역에 각각 도독부(都督部)를 설치하고 5도독부 휘하에 37주(州) 250개 현(縣)을 개편하였다.²⁴⁾ 즉 당의 국내 행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하부조직을 편성함으로써 백제의 영역을 송두리째 장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특히 웅진도독부에는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王文道)를 도독으로 임명하여 나머지 4개 도독부까지 장악하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왕문도가 병사(病死)하자 유인궤(劉仁

軌)가 후임으로 부임하여 백제 영토를 당의 영토로 접수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다.

웅진도독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도독부의 도독은 현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 백제 유민(遺民) 중에서 친당적(親唐的) 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선별하여 임명하였다. 그리고 각 도독부 휘하의 주(州)의 자사(刺史)와 현(縣)의 현령(縣令: 현장 <縣長>) 등도 역시 친당적인 성향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현지 주민들의 당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키면서 반발을 무마하고, 그러한 가운데 당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이민족 지배정책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러나 부흥군(復興軍)이 주민들과 연계하여 백제 재건을 부르짖으면서 조직적으로 봉기하자 곧바로 개편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웅진도독부를 제외한 4개 도독부를 곧바로 폐지하고 웅진도독부 휘하에 7개 주(州) 52현(縣)으로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²⁵⁾

당군 주력부대가 철수한 660년 9월 하순 이후로 사비성과 웅진성 부근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제 부흥군이 봉기하여 독자적인 군사력으로 나·당 연합군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당의 도독부는 설치 초기부터 백제 부흥군의 강력한 저항 투쟁으로 말미암아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점차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백제 고토를 지배하려는 당의 야욕은 과거 648년 2월에 김인문(金仁問)이 원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당하였을 때 당 태종이 ‘양국이 평정되면 평양 이남 백제의 영토는 모두 신라에 주어 영원토록 편안하게 하려 한다’라고 약속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²⁷⁾ 신라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백제의 부흥군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백제 고토에 주둔하기 시작한 당군은

나·당 연합군에 대한 백제 부흥군의 저항 투쟁을 신라를 견제하는 방편으로 역이용하려고 하였다. 즉 부흥군의 백제 재건을 위한 저항 투쟁이 강력하면 할수록 이를 빌미로 삼아 주둔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백제 영토에 대한 그들의 지배권을 더한층 강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군은 점령지에서 백제 장정들이 부흥군에 가담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대량으로 살해하는 등의 만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백제 유민들의 당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켜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백제 유민들의 저항 투쟁의 양상은 초기에는 수성(守城) 위주의 소극적 저항이었으나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면서는 출성하여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다.²⁸⁾

660년 9월에는 유인원이 지휘하는 당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운제(雲梯)나 지도(地道) 등과 같은 각종 공성기구를 동원하여 공격함으로써 공방전의 주도권을 잡고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²⁹⁾ 그러나 신라 무열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사비성의 당군을 지원하였으므로 사비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흥군의 강력한 세력에 동조하여 가담한 성이 20여 개로 늘어났다.³⁰⁾ 특히 임존성(任存城 : 홍성군 대흥)과 주류성(周留城 : 홍성군 장곡)에 주둔한 백제 부흥군은 공격 위주의 적극적 투쟁으로 많은 성을 회복하여 재무장하였다.³¹⁾

임존성에는 백제의 장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군사들을 모으면서 신라군과 당군에 대항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류성에는 복신(福信)이 군사들을 모아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무왕(武王)의 조카로서 무인(武人)으로서의 기량도 갖춘 인물이었으므로 승려인 도침(道琛)과 함께 백제 재건을 위

한 저항군을 양성하면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복신은 전열을 정비하여 661년 2월부터는 사비성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던 유인원의 당군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신라군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라군의 출병으로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밀려 백제 부흥군은 퇴각하였으나 접전 과정에서 신라군도 많은 전투 손실을 입었다.³²⁾

특히 일본(日本)에 머물고 있던 의자왕의 왕자인 부여풍(扶餘豐)을 662년 5월에 귀국시켜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면서부터 더욱 기세를 올렸다. 당시 부여풍은 일본 장수가 지휘하는 선박 170여 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귀국하였으므로 백제 재건의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³³⁾ 따라서 백제 부흥군의 저항 투쟁은 부여풍을 구심점으로 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주류성의 부흥군은 사비성 공격이 여의치 못하자 임존성으로 물러나 흑치상지의 부흥군과 통합하여 부여풍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2) 부흥군의 소멸과 나·당 대립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던 부흥군도 내분이 발생하여 주요 지도자들이 살해되거나 흑치상지와 같은 유력한 장수들이 당군에 투항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이러한 내분 상황을 이용하여 당은 좌위위장군(左威衛將軍) 손인사(孫仁師)의 증원군 7천명을 해상으로 급파하여 지원하게 함으로써 부흥군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³⁴⁾ 내분이 심화되는 가운데 증파된 당군과 신라군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자 부흥군의 전열은 와해되어 지리멸렬하였다.

신라에서는 분무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들을 이끌고 참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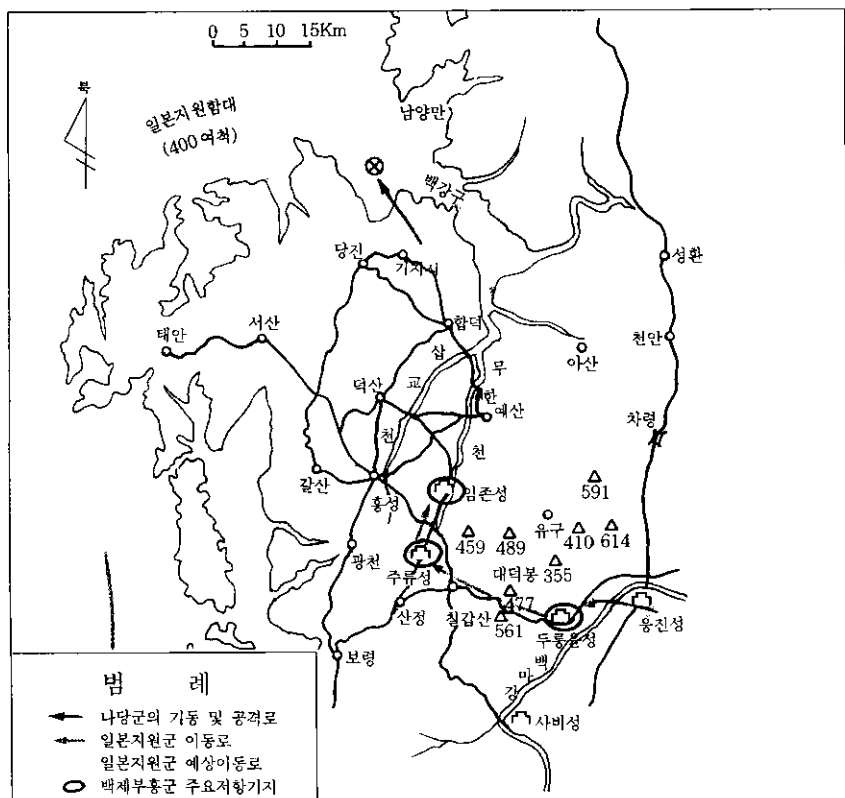
여 당군과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660년에 백제를 침공한 나·당 연합군의 주력군은 당군이었으나 실제로 백제의 주력군과 결전을 벌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것은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이었다.³⁵⁾ 그후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에서도 신라군이 선봉에 서서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전과를 크게 올릴 수 있었다.³⁶⁾

특히 663년 8월의 전투에서는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참전하여 두릉윤성(豆陵尹城 : 청양군 정산)과 주류성 등을 공격한 결과 이를 점령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부여풍이 주류성에서 탈출하여 고구려로 망명하고 부여충승(扶餘忠勝)·부여충지(扶餘忠志) 등의 왕자는 일족들을 거느리고 신라군에 투항함으로써 백제 부흥군의 주력은 와해되었다.³⁷⁾ 그리고 해상에서는 나·당 연합군이 백제 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2만 7천여 명의 군사를 태우고 건너온 4백여 척의 전선을 백강구(白江口) 전투에서 격파하여 섬멸시켰던 것이다.³⁸⁾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신라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이끌어 나간 것은 장차 백제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산된 군사 행동이었다. 당의 영토욕에 대항하여 신라의 기득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이다.

주류성이 함락된 후에도 백제 부흥군의 항전은 임존성의 지수신(遲受信)이 지휘하는 군사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³⁹⁾ 이때 당군은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에 적극 개입하여 부흥군 장수로 활약하다가 투항해 온 흑치상지(黑齒常之)와 사타상여(沙吒相如)를 당군의 지휘관으로 삼아 공격 대열의 선봉에 세웠다.⁴⁰⁾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항거하다가 당군에 투항하였으므로 임존산성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물론 부흥군의 취약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

일본지원 함대 및 백제 부흥세력의 소멸(662~663)



다.41)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청상에 석성으로 축조된 임존산성(任存山城)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흑치상지가 이끄는 당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663년 11월에 함락되었다. 이때 임존산성을 고수하던 지수신은 부여풍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로 망명하였다.⁴²⁾

이로부터 백제 부흥군의 전투력은 더욱 약화되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664년에 소멸되었으므로 부흥군의 투쟁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⁴³⁾ 이 무렵인 664년 2월에 당은 앞서 663년에 손인사(孫仁

帥)의 증원 부대를 따라 웅진에 와 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 용(扶餘隆)과 신라가 화친하도록 서맹(誓盟)할 것을 종용하였다. 칙사인 유인원을 파견하여 회맹을 주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신라측에도 사신을 보내어 대표인 김인문(金仁問) 등과 웅진에서 화친할 것을 회맹(會盟)하도록 강요한 것이다.⁴⁴⁾ 이어 10월에는 부여 용을 웅진도위(熊津都尉)로 임명하여 당을 대신하여 백제 유민들을 위무하고 치안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라와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⁴⁵⁾ 이는 당의 저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되었으며, 신라의 대당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유인원은 그 이듬해(665) 7월에 웅진도위 부여 용과 신라 국왕이 웅진성에서 회맹하도록 주선하였다.⁴⁶⁾ 이때 문무왕은 당과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당에 대한 불만을 억제한 채 이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문무왕은 8월에 웅진의 취리산(就利山)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유인제가 작성한 서맹문에 따라 부여용과 대등한 지위에서 장차 평화롭게 지낼 것을 재차 서약하게 되었다. 즉 ‘부여 용을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아 그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옛 영토를 보존케 한다’고 하면서 ‘양측이 화친하여 차후로는 무력으로 변경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⁴⁷⁾ 결국 신라는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후로 5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영토의 극히 일부와 그 영토에 소속된 주민들을 차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 고토의 대부분과 그 주민들 대다수는 당군의 주둔으로 인해 당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⁴⁸⁾

당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형적으로는 백제 유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듯이 위장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휘하에 철저히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신라를 견제하도록 하

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일환으로 취한 정치적 술책이었다. 이에 신라는 당이 옛 백제의 영토를 신라에 편입시키기는커녕 백제 유민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신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이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⁴⁹⁾ 신라가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당은 신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백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는 나당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의 영향력이 그대로 고착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심화되는 당의 세력 침투를 무력으로라도 축출하여 백제의 영토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하게 되었다.⁵⁰⁾ 백제의 고토를 당의 영토로 편입시켜 영구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이용하려는 당의 패권주의(霸權主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대당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추진하지 않고 강온(強穩) 양면으로 신축성을 유지하면서 은밀히 군비(軍備)를 강화해 나갔다. 이는 장차 나·당 연합군을 다시 형성하여 고구려와의 전쟁을 전개해야 하는 실리 위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⁵¹⁾

(2) 당의 고구려 영역 장악

1) 당의 지배 정책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북쪽의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었으나 국내의 어지러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를 틈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668년 9월에 패망하고 말았다.⁵²⁾ 이 당시 고구려는 전국적으로 5부(部)에 걸쳐 176

개의 크고 작은 성(城)과 69만 7천여 호(戶)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장왕(寶藏王)이 나당 연합군에 항복한 이후로도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 주요 지역에 축성된 수많은 성곽들을 중심으로 항복을 거부하면서 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고구려를 장악하려는 당의 패권주의 정책은 변함없이 전개되었다. 즉 육상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어 해상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백제에 비해 지배가 용이하였으므로 이를 송두리째 장악하여 직할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야욕은 갈수록 노골화되었다.⁵³⁾

그리하여 당은 고구려의 옛 영토인 신성주(新城州)·요성주(遼城州)·가물주(哥勿州)·위락주(衛樂州)·사리주(舍利州)·거소주(居素州)·월희주(越喜州)·거단주(去旦州)·건안주(建安州) 등 9개 지역에 각각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그 휘하에 42개 주(州)와 1백개의 현(縣)을 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고구려의 옛 영역을 당제국의 영토에 편입시켜 통치하려는 야욕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검교 안동도호(檢校安東都護)로 임명된 우위위 대장군(右威衛大將軍) 설인귀(薛仁貴)가 휘하에 2만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주요 지역을 장악한 것은 당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조치였다.⁵⁴⁾

당제국이 고구려에 설치한 도호부는 변경 지역의 이민족(異民族)을 지배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한 최고의 통치기관이었다. 이러한 도호부는 일반적으로 대도호(大都護) 1명(종2품)과 부대도호(副大都護) 2명(종2품) 그리고 부도호(副都護) 2명(정4품) 등 모두 5명으로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도독부(都督府)는 도호부보다 하급 행정기관이었으므로 휘하에 설치된 여러 개의 도독부를 통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양(平壤)에 설치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는 고구

려의 옛 영역에 설치된 도독부 뿐만 아니라 백제 영역 및 신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국 지역 전체를 지배하에 두려는 당의 야심을 실현시키는 통치 기관이었다.

그리고 도호부의 영향력을 아래로 파급시키는 하위 행정단위로 지방에는 부(府)·주(州)·현(縣)을 설치하고 여기에 도독(都督)·자사(刺史)·현령(縣令) 등의 관리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이들 관리는 현지 고구려 유민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민층에서도 친당적(親唐的) 성향이 강한 유력 인사가 임명되었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영토가 대단히 광범위한 관계로 당의 통치력이 골고루 미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의 통치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고구려를 재건하려는 이른바 고구려 부흥 세력이 여러 지역에서 봉기하여 당의 주둔군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⁵⁶⁾

당은 이러한 고구려 유민(遺民)들의 재건 투쟁을 고구려 영토에 대한 지배 야욕에 비례하여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부흥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당적(反唐的) 성격이 특히 강하거나 부흥군(復興軍)과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구려 유민들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은 2만 8천여 호의 고구려 유민들을 669년 5월에 당의 영주(營州)와 내주(萊州) 등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후에는 이곳에서 다시 고구려의 옛 영토와 더욱 멀리 떨어진 중국 대륙의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하였다.⁵⁷⁾

뿐만 아니라 당은 안동도호부가 위치한 행정 중심지인 평양(平壤) 부근의 주민 중에서도 반당적 경향이 농후하다고 의심이 가거나 부흥군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젊고 건장한 장정들을 선별하여 당의 내륙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는 고구려 부흥군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유민들을 사전에 격리시키려는 적

극적인 분리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농기구를 비롯하여 우마(牛馬)나 수레에 이르기까지 부흥군의 전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들을 모조리 징발해 감으로써 강력한 저항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시키려고 하였다. 당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백제에서의 경우와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고구려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 신라의 부흥군 지원

당의 주도 면밀한 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은 도처에서 빈발하였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고구려의 대형(大兄)이었던 검모잠(劍牟岑)은 고구려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유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는 대당 저항세력을 결집하여 강력한 부흥군을 조직한 다음 안동도호부의 치소(治所)인 평양성을 압박하였다. 이에 당은 부흥군의 공격을 피하여 670년 후반기에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성(遼東城: 요양〈遼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⁸⁾ 따라서 검모잠이 이끄는 부흥군은 한때 평양성을 점령하여 고구려 재건의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흥군은 중과부적으로 평양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퇴각하여 유민 4천여 호를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족인 고안승(高安勝)을 국왕으로 추대하여 그를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고 부흥군의 항전 태세를 재정비하였다. 신라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신라는 백제가 멸망한 후로 당의 야욕을 이미 확인하였으나 가급적 당군과의 충돌을 자제하면서 고구

려와의 전쟁에 대비해 왔었다. 그러나 고구려를 멸망시킨 상황에서는 이미 확인된 당의 영토 지배욕을 분쇄하는 대당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는 당군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 부흥군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당군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부흥군에게 금마저(金馬渚: 익산) 지역을 집단 정착지로 제공하고 기타 군량 및 장비들도 지원함으로써 항전 역량을 제고시켜 주었던 것이다. 신라는 금마저 지역의 고구려 부흥군을 당군에 대한 항전 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반신라(反新羅) 세력에 대항하는 친신라(親新羅) 세력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같은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지원은 국가 존망을 좌우할 당군과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반당세력(反唐勢力)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부흥군의 전력은 신라가 기대한 만큼 강화되지는 못하였다. 백제 부흥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70년에 내분이 일어나 고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부흥군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이들 잔존 세력들은 신라군에 흡수되어 대당투쟁을 전개하는 정도로 활약하였을 뿐, 독자적인 부흥 투쟁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말았다.

한편 신라에 망명 중이던 고구려의 태대형(太太兄) 고연무(高延武)가 670년 3월에 신라의 사찬(沙湊)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각각 1만명씩 2만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봉황성(鳳凰城)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당시 고구려 부흥군을 공격하기 위해 봉황성 일대에 출동해 있던 당의 이근행(李謹行)이 지휘하는 말갈(靺鞨) 군사를 공격하였다. 이는 현지에서 활약하는 고구려 부

홍군을 지원하고 동시에 당군의 한반도 진입을 압록강 이북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병한 것이었다. 즉 이근행의 토벌군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홍군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면서 고구려 유민들의 봉기를 촉발시켜 당군의 활동을 압록강 이북에 묶어 두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다.⁵⁹⁾ 이때 신라군은 그해 4월 4일에 당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의 지원군이 계속해서 밀려오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예봉을 피하기 위해 백성(白城)으로 퇴각하였다.⁶⁰⁾

신라군의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의 출병에는 고구려 부홍군을 지원한다는 직접적인 출병 목적 이외에도 백제 고토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둬으로써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안동도호부가 평양에서 요동 지역으로 치소를 이동한 후 평양 지역의 당군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는 평양 지역의 약화된 당군 세력을 공략하면서 압록강 이북으로 밀고 올라가 요동 지역에 당군의 주력을 고착시킴으로써 웅진도독부를 고립시켜 백제 고토를 장악하려는 신라군의 작전이 용이하도록 할 목적이었던 것이다.⁶¹⁾

이 무렵인 671년에 안시성(安市城)의 고구려 부홍군도 당군의 공격을 받았다. 안시성은 645년에 당 태종(太宗)이 직접 지휘하는 정예 대군의 수개월간에 걸친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고구려의 기상을 대내외에 크게 떨쳤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가 멸망한 후 부홍군이 장악하고 있던 안시성은 고간(高侃)이 지휘하는 당군의 공격을 받고 671년 7월에 함락되고 말았다.⁶²⁾ 그 후로 주요 성곽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대당 항전을 전개하던 대소 규모의 고구려 부홍군 세력들은 당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압록강 이남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신라는 남하하는 고구려 부홍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군을 파견하고, 도중에 부홍군을 맞아 대

열을 수습함으로써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672년 12월에 백빙산(白氷山 혹은 白水山) 전투에서 실패하여 2천여 명이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게 되자 큰 타격을 받아 활동도 위축되었다.⁶³⁾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끈질긴 항전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영토를 장악하려는 당의 야욕은 꺾이지 않았다. 당의 영토욕은 나당 전쟁의 불씨로 남게 되었다. 당은 부흥 세력을 무력으로 토벌하면서 한편으로는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적개심을 약화시킴으로써 고구려 고토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갔다. 677년 2월에 당은 억류하고 있던 고구려의 보장왕(寶藏王) 고장(高藏)을 요동도독(遼東都督)으로 임명하여 조선왕(朝鮮王)에 책봉하고 요동(遼東)에 주재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위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의 국내로 이주시켰던 고구려 유민들도 요동으로 되돌려 보내어 함께 거주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인 676년에 당은 요동성에 치소를 두고 있던 안동도호부를 신성(新城)으로 이동시켜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들의 자치를 보장해 주었다.⁶⁴⁾ 당은 신성의 안동도호부를 통하여 이들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당 적대감을 약화시켜 신라와의 완충 지대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백제를 멸망시킨 후로 추진하였던 전통적 이민족 지배 정책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3) 당의 신라 지배 야욕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661) 6월에 신라측에 고구려 침공군의 편성에 신라군을 적극 참전시키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신라

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해 7월에 대장군 김유신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신라군을 파견하여 나·당 연합군의 편성에 참여하였다.⁶⁵⁾ 그런데 그해 12월에 당 고종(高宗)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침공 도중에 고립된 당군의 군량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듬해(662) 정월에는 문무왕을 ‘개부의동삼사 상주국낙랑군왕신라왕(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으로 책봉하였다.⁶⁶⁾ 이는 당과 신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조치로서 신라가 당의 종속국임을 분명히 해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은 신라에 도독부를 신설하고 문무왕을 그 도독으로 임명하여 신라에 대한 영토욕을 노출시켰다. 즉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후로 옛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 고토를 장악하려고 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신라에도 취하여 663년 4월에 신라를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로 명명하고 문무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⁶⁷⁾

신라는 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신라의 국가적 위상(位相)을 고의로 격하시켜 백제 고토는 물론 신라 영토마저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고구려 침공을 앞두고 당과의 무력 충돌을 회피하였으므로 일단 당의 요구에 따라 회맹의 형식을 수용하였던 것이다.⁶⁸⁾

그후 당 고종은 667년 7월에 칙령을 내려 문무왕의 아우인 김지경(金智鏡)과 김개원(金愷元)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고구려 정벌전에 참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같은 당의 요청에 따라 문무왕은 그해 8월에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30명의 장수와 그 휘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9월에 한성정(漢城停)에 도착한 신라군은 이세적(李世勣 혹은 李勣)의 당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평양 북방 2백리 되는 곳에 도착한 이세적의 요청

에 따라 북상하여 11월 11일에 장새(獐塞 : 황해도 수안)에 이르렀으나 이세적 군이 철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당 고종은 이해(667) 12월에 유인원(劉仁願)을 통하여 당군의 고구려 정벌에 적극 협조하라는 요지의 칙령과 함께 문무왕에게 대장군(大將軍)의 깃발인 정절(旌節)을 전달하기도 하였다.⁶⁹⁾ 이는 신라의 국왕을 당의 한 장수(將帥)로 인정하는 것이나 같은 조치였다. 즉 당과 연합군을 편성하였던 신라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때 신라도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당이 신라를 고구려 침공에 이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당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속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당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영토를 확장하기는커녕 당의 야욕 앞에서 종묘사직(宗廟社稷)의 보존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신라의 대당인식의 변화

(1) 양면 외교의 전개

1) 강경 외교의 추진

당이 신라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한 것은 그들의 영토 확장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이어서 고구려마저 멸망시킨 후에는 신라까지도 장악하기 위한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소정방(蘇定方)의 당군은 백제에 출병하기 이전부터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신라로 쳐들어간다는 침공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점령한 직후인 660년 7월에 소정방은 연합군으로 참전한 신라의 장수들을 회유하여 자신의 휘하에 끌어들이므로써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켜 신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소정방은 신라군의 최고 사령관인 김유신(金庾信)을 비롯하여 김인문(金仁問)·김양도(金良圖)에게 “내가 황제로부터 일을 적절히 처리하라는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이제 이 백제 땅을 공들의 식읍(食邑)으로 나누어주어 공로에 보답하려고 한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제의하면서 이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소정방의 제의를 정중히 사양하여 물리침으로써 당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시켰다.⁷⁰⁾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라는 당의 흉계를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태종 무열왕은 중신회의(重臣會議)를 소집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미공(多美公)에 의해 신라군을 백제인으로 변장시켜 공격할 기세를 보이도록 하면 당군이 먼저 공격해 올 것이므로 일제히 반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유신도 이 의견에 찬성하면서 국왕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당의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당군과 접전을 벌이는 것은 대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반대함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였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므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으나, 실제로는 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다.

이때 원로 대신인 김유신은 당이 신라를 쳐들어온다면 결코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여,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하는

확고한 자구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결국 대장군 김유신을 주축으로 하여 당군의 침공에 일전 불사를 주장하는 강경 여론이 채택되어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신라의 이 같은 강경 대책 수립의 움직임은 소정방에게 탐지되어 당군의 대신라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총사령관인 소정방은 신라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자세에 오히려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⁷¹⁾

이와 같이 신라는 군신(君臣)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당군의 야욕을 사전에 위축시켜 신라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신라의 대당 외교 정책은 종래의 온건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강경 대응을 적절히 배합하는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전략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2) 온건 외교의 추진

신라는 당의 직접적인 무력 침공의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국익을 위하여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고구려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당과 마찰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구려 침공에 당군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하거나 군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군사적인 유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당의 제도를 도입하여 친밀감을 고조시키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664년 1월에 부녀자들에게도 중국식 복장(服裝)을 착용하게 하여 당의 복식과 동일하게 하였다.⁷²⁾ 즉 신라는 조야(朝野)의 복식을 당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친당적(親唐的) 일체감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한 당의 우호적 분위기

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두고 이 같은 가시적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당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비교적 순조롭게 유지해 나갔다. 백제 지역과 고구려 지역에 주둔한 당군을 위해 웅진(熊津)과 평양(平壤)으로 군량이나 군복 등과 같은 각종 군수품을 수년 동안 차질 없이 공급하였다. 양 지역에 주둔한 당군 진영에서 필요로 하는 엄청난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라 국내에서는 무리한 징발이 강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군은 오히려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신라의 경제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어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갔다. 당군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당군 진영으로 군량을 운반하던 수송대가 도중에 폭설을 만나 인마(人馬)가 모두 얼어죽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당군에 대한 국민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⁷³⁾

신라의 당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자 그 동안 비밀리에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는 등의 소극적인 투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급기야는 당군과 무력대결을 불사하는 적극적인 대당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대당 정책의 기본은 당과의 유대 관계를 와해시키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군을 축출하기 위한 전투를 치열하게 전개하면서도 당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당 선린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신라의 입장을 당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였던 것이다.⁷⁴⁾

나·당 연합군을 편성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부터 양국은 당의 전통적인 대이민족 정책인 기미정책(羈縻政策)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점차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의 영토적 야욕이 노골화되자 다시 당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국운을 걸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신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은 통하여 전쟁에 공로가 있는 피지배 계층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귀화인(歸化人)과 투항인(投降人)들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까지도 폭넓게 흡수하여 민족적(民族的) 일체감에 입각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대당전쟁(對唐戰爭)에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⁷⁵⁾

신라는 고구려 왕조가 멸망한 후로 당군을 상대로 675년에 18회, 676년에 22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전개하였다.⁷⁶⁾ 즉 영토 문제로 인하여 당군과 무력 충돌을 벌이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668년부터 676년까지의 대당투쟁을 통하여 당의 군사력을 대동강(大同江) 이북으로 몰아내었으나, 당이 이때부터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다. 735년(성덕왕 3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당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당이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신라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통고한 배경에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발해(渤海)와의 관계가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발해가 당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등주(登州)로 쳐들어왔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해 신라가 응원군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⁷⁷⁾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면에는 신라의 당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켜 우방으로 확보함으로써 발해를 견제하는 제3의 군사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2) 군사 활동의 강화

1) 백제 영역 장악

신라는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로 그 고토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우선 백제 부흥군의 군사력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열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부흥군과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른 일도 있었다. 그러나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 부흥군을 공격할 때는 오히려 당군이 많은 타격을 입고 군사력이 약화되도록 은밀히 작전을 구사하는 등의 비밀 계획을 추진하기도 하였다.⁷⁸⁾ 이는 당군을 곤경에 빠지게 하여 급기야는 영토욕을 포기한 채 자발적으로 퇴각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백제의 고토를 차지한다는 복안에서 비롯된 전략이었다.

당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 신라는 백제의 부흥군과 접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백제 고토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 그것은 백제의 부흥 세력을 신라가 주도적으로 공략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당군에 비해 우월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백제의 항복을 받은 그해(660) 10월 9일부터 국왕이 태자와 함께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례성(爾禮城: 연산〈連山〉)으로 진출하여 10여 일 간 공격 작전을 진두 지휘하는 적극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 결과 18일에 함락시키고 군사를 주둔시킴으로써 백제 지역에서의 신라군의 위상이 크게 고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⁷⁹⁾

이에 주변의 20여 성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례성으로 투항해 오자 신라군은 그 여세를 몰아 30일에는 사비성 남령에 위치한 백제 부흥군의 강력한 책성(柵城)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은 치열한 공

방전을 벌인 끝에 이를 점령하고 백제 부흥군 1천5백여 명을 참수하였다.⁸⁰⁾ 다음달 5일에도 무열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여 계탄(鷄灘：부여강)을 도하한 후 왕흥사(王興寺) 잠성(岑城：부여 울성산성<蔚城山城>)을 공격한 결과 7일 만에 함락시키고 7백여 명을 참수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무려 2천2백여 명에 달하는 저항 병력을 참수함으로써 부흥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국왕의 친정(親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태종 무열왕은 그해 11월 22일에 전과(戰果)에 따른 논공 행상을 실시하여 포상하고, 이와 동시에 투항해 온 백제의 관원(官員)들에게도 회유책의 일환으로 신라의 벼슬을 주어 정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⁸¹⁾

그러나 신라군은 661년 2월에 다시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 탈환을 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출동을 감행하였다. 이 증원부대 중에서 3월 5일에 두량윤성(豆良尹城・豆陵尹城：청양 정산) 남쪽에 이르러 숙영지를 물색하던 한 부대는 백제 부흥군의 기습적인 출성공격을 받고 패주하였다. 그리고 12일에도 신라의 대군이 고사비성(古沙比城：임피<臨陂>)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고 있다가 두량윤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⁸²⁾

신라군은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백제 부흥군의 저항이 너무 완강하여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철군하였다. 또한 신라군은 퇴각 도중인 4월 19일에 빈골양(賓骨壤：고부<古阜>동쪽)에서 백제군의 매복 작전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의 인적 손실은 적었으나 다수의 병기 및 장비들을 전장에 유기한 채 퇴각하였으므로 부흥군에게 노획되어 전력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가 된 경우도 있었다.⁸³⁾

이러한 일부 작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라군이 백제 부흥군의 향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신속하게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자 당의 신라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당은 고구려 침공 작전시 신라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지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백제 고토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⁸⁴⁾ 뿐만 아니라 당 고종은 백제의 고토와 유민에 대해 신라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669년 5월에 각간(角干)인 김흠순(金欽純)과 파진찬(波珍飡)인 김양도(金良圖)를 당에 보내어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당의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신은 구금되었다. 그 이듬해(670) 1월에 김흠순은 석방되었으나 김양도는 억류된 채 그곳에서 병사(病死)하고 말았다.⁸⁵⁾

신라는 당의 영토욕이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미 당과 약속한바 있는 백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킨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인 백제 영토에 대한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쟁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국력을 기울인 전쟁을 치르고 전승국이 되었으나 신라가 명실공히 점령한 영토는 없었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국가 경제마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⁸⁶⁾ 당의 배신으로 야기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신라가 선택한 최고의 방안은 당군이 고구려 부흥군과의 전투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백제 고토를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는 백제 고토를 강점하기 위한 작전을 670년 7월부터 3개 지역에서 매우 전격적으로 전개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

다. 제1지역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는데, 무려 63개의 주요 성곽을 점령하고 소속 주민들을 신라 내륙의 안전지대로 이주시켰다. 제2지역에서는 7개의 성곽과 부흥군 2천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고, 나머지 한 지역에서도 많은 전리품과 함께 12개 성곽을 점령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⁸⁷⁾ 670년 7월부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 작전의 결과로 신라는 무려 82개의 대소 성곽을 점령함으로써 백제 고토의 남부 내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671)에는 신라의 이 같은 전격적인 군사 행동에 대항하는 당군과의 전투를 통해 백제 고토의 북부 지역에 대한 수복 작전을 전개해 나갔다. 671년 봄에 당군의 지휘를 받는 말갈병과 접전을 벌여 3백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하여 6월부터는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였다. 즉 6월에 가림성(加林城: 부여 林川) 일대에서 수확을 앞둔 벼농사를 훼손하여 군량 조달에 차질이 생기도록 압박하였다.⁸⁸⁾ 그리고 가림성 북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석성(石城)에서는 정면 대결로 맞서 무려 5천3백여 명을 살상하고 백제 장수 2명과 당의 장수 6명을 사로잡아 섬멸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⁸⁹⁾

신라군의 671년 6월 공세는 670년에 백제 고토의 내륙 지역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이북 지역의 석성 전투도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 고토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으며,⁹⁰⁾ 7월에 당의 행군총관 설인귀로부터 강력한 항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서한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백제 고토를 장악한 신라는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여 그 치소를 부여(扶餘)에 두고 통치력을 확산시킴으로

써 영토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즉 648년(진덕여왕 2)에 당의 태종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후 평양 이남과 백제의 영토를 모두 신라에 주겠다고 김춘추를 통해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투쟁한 결과였다. 신라는 자주적인 노력으로 제1단계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2) 고구려 부흥군과의 제휴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에 치소를 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도호에 임명된 설인귀(薛仁貴)는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는 물론 신라마저도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지휘하는 2만 명의 당군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모두 장악할 수는 없었다. 특히 압록강 이북의 안시성(安市城)과 환도성(丸都城)을 비롯한 11개 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었으므로 군사력을 나당 전쟁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었다.⁹¹⁾

이와 같이 당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여러 지역에서는 요새(要塞)와 같은 성곽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재건을 도모하는 부흥군이 봉기하여 대당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런데 고구려 부흥군의 당군에 대한 투쟁은 앞서 백제 유민들이 백제 재건을 위해 투쟁했던 경우와는 달리 신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670년 3월에 고구려 태대형(太代兄) 고연무(高延武)는 신라의 지원을 받아 사찬(沙飡)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각각 1만 명씩 거느리고 출병하여 대당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2만명 규모의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압록강을 건너 서북진한 다음 그해 4월에 개돈양(皆敦壤) 부근에서 당군에 소속된 말갈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

두었다. 그러나 말갈군을 지원하는 당군의 본대가 뒤따라 쳐들어오자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여 백성(白城)에 주둔하면서 전황의 추이를 관망하게 되었다.⁹²⁾

이와 같은 시기인 670년 4월에 고구려의 대형(大兄)이던 검모잠(劍牟岑)도 수림성(水臨城)을 근거지로 삼아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하여 부흥군을 일으켰다.⁹³⁾ 검모잠의 부흥군은 전력을 강화하여 그해 6월에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점령하고 당의 관인들을 처형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고간·이근행 등이 지휘하는 당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결국 평양성을 내어 주고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당은 비록 평양성을 무력으로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고구려 부흥세력의 위협 아래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遼東)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⁹⁴⁾ 한편 부흥군은 당군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전력을 재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대동강 이남의 비교적 안전한 근거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궁모성(窮牟城)을 떠나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마지막왕인 보장왕(寶藏王)의 서자(庶子) 고안승(高安勝)이 일단의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남하하다가 검모잠과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 유민들은 한성(漢城)에서 고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부흥군의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한편으로 신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부흥군의 활동 사실을 상세히 알리면서 신라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신라가 장차 예상되는 당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흥군이 전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금마저(金馬渚: 익산 <益山>) 일대에 고구려 유민들을 위한 집단 이주지가 마련되고 그해 8월부터 고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 집단이 안착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문무왕의 명의로 된 책명문(冊命文)을 670년 8월 1일부로 고안승에게 보내어 정식으로 고구려 국왕에 책봉하고 군량미 2천석과 비단 등을 예물로 전달하여 각별한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⁹⁵⁾

신라의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조치는 당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결과 문무왕은 당의 행군총관 설인귀(薛仁貴)로부터 671년 7월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던 것이다. 이 서한에서 설인귀는 전년 4월에 개돈양에서 신라군이 당군의 말갈(靺鞨) 부대를 공격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당군에 대한 신라군의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⁹⁶⁾ 이를 계기로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어 무력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670년의 적극적 공세로 백제 고토의 내륙지역 대부분을 장악하여 영향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671년(문무왕 11)부터 대당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 4 장 나당 전쟁의 경과

1. 백제 지역의 당군 축출

(1) 백제 유민 및 일본과의 제휴

신라는 660년에 당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후로 당의 배신적 태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이미 멸망한 백제의 왕족과 신라 국왕이 대등한 관계에서 화친(和親)의 회맹(會盟)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이 모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라는 당의 저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으나, 장차 있을 고구려 침공 전쟁에 대비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였다.

이같이 나·당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 상황은 다시 결성된 나·당 연합군으로 668년에 고구려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후부터 급격히 심화되어 갔다. 당의 야욕이 노골화되면서 신라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할 자세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당이 고구려의 영토를 비롯하여 삼국의 모든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영구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킨 제1단계 통일 전쟁에 이어 제2단계 통일 전쟁으로 당군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벌이게 된

신라는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제 고토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을 축출하는 것을 제2단계 통일 전쟁의 서전으로 설정하였다. 고구려 지역보다도 신라와 근거리에 인접한 백제 지역의 당군을 먼저 축출하여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재편성하여 다시 고구려 고토마저 수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백제 유민들의 당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항전 역량을 전력화함으로써 대당 전쟁에 이용하려는 신라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옛 백제 왕족들을 후원함으로써 신라와 이간시키려는 당군의 이이제이(以夷制夷) 공작에도 불구하고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여 이들의 지원 아래 제2단계 통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¹⁾

한편 신라는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다. 과거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663년에 해상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가 백강 전투(白江戰鬪)에서 패하고 돌아갔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곧 사전에 후방의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는 백제 유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후방을 위협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긴요한 작업이기도 한 때문이었다.

신라는 657년에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한 이래 663년에 백강 전투에서 무력 대결을 벌여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였으므로 여전히 교류를 재개하지 않고 있었다.²⁾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먼저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관심을 자극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당군은 664년 4월에 웅진도독부의 관리 30여 명과 백제 유민 100여 명으로 편성된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665년 7월에 당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사신과 백제 유민으로 구성된 250여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통과하여 접촉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 결과 양국이 선린 관계를 복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과 일본은 사신을 교환하는 정상적인 관계로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의 웅진도독부는 일본이 백제 유민의 부흥 세력과 제휴하거나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국교를 재개하는 것을 저지하여 신라의 후방을 위협하는 견제 세력으로 일본을 활용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이러한 다목적 외교 활동이 성사됨으로써 신라는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고립되어 또다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이에 문무왕은 663년의 백강 전투 이후로 단절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일 외교(對日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668년 9월에 문무왕은 일본에 공식 사절을 파견하였고, 일본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³⁾ 이때 일본은 신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된 후로 품고 있던 신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무왕과 김유신에게 각각 선박 1척씩을 예물로 보내는 각별한 우의를 나타내었다. 이어 11월에는 일본의 답례 사절이 신라에 파견됨으로써 657년 이래 10여 년 간 단절되었던 국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⁴⁾

신라는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 이후로 선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신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와는 별도로 고안승(高安勝)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과 교류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금마저에 안착하여 신라의 지원을

받고 있던 고안승은 671년 1월부터 683년 6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 가운데 674년 이후의 일곱 차례에 걸친 도일이 신라측의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는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 세력까지 끌어들여 대일 외교를 더한층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신라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본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후방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일본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당 전쟁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

(2) 나·제 국경 일대의 전투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 후로 지원을 요청해 온 고구려 부흥군을 670년 6월에 금마저(金馬渚 : 익산 <益山>)지역으로 이주시켜 그들의 희망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⁶⁾ 이 지역은 당이 설치한 웅진도독부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 인후부(咽喉部)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에 안착한 부흥군 집단은 고구려의 대형(大兄) 검모잠(劍牟岑)이 보장왕의 서왕자(庶王子)인 고안승(高安勝)을 왕으로 추대하여 그를 구심체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부흥군은 당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군민(軍民) 집단으로서 웅진도독부로 대표되는 당의 영향력이 금강(錦江) 이남 지역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대당 전선의 최첨단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의 단결력과 강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유사시에 대당 전투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즉 신라의 치밀한 대당 전략의 일환으로 고도의 정치·군사적 복선을 깔고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⁷⁾

그런데 이 무렵인 7월에 당은 친당적인 일부 백제 유민 집단을 조종하여 신라의 대당 적대 정책을 무력으로 분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신라는 당군의 지원을 받는 반신라적(反新羅的) 성격이 강한 백제 유민 집단이 대신라 투쟁을 대규모로 전개하려는 기미를 탐지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여 당의 야욕을 확인하였으나 곧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지는 않았다.⁸⁾

신라는 대아찬(大阿飡) 김유돈(金儒敦)을 웅진도독부에 급파하여 화의(和議)를 요청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유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웅진도독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성사되지 않았다. 이때 웅진도독부는 오히려 밀정(密偵)을 침투시켜 신라군의 동태를 감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에 적대감을 가진 백제 유민 집단을 앞세운 당의 군사력과 이들 연합 세력을 분쇄하려는 신라의 군사력이 팽팽히 대립하여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신라에 유리하도록 반전시키기 위해 문무왕은 신라군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백제 유민의 밀정들을 일제히 색출하여 감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밀정들을 모두 제거하고 군사 정보의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신라군은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제1단계로 규모가 작은 주요 거점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나갔다. 이들 거점들이 비록 규모는 적으나 신라군이 장차 대규모 작전을 전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점령하고 있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백제의 고토에서 당군을 무력으로 축출하고 실질적인 영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점령을 목표로 한 선행 단계의 작전이었다.

당군과의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하여 교두보로 이용할 주요 거점

들에 대한 공격 명령은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이 제2단계 통일 전쟁에도 지난 10여 년 간의 제1단계 통일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름을 날렸던 장수들이 대거 참전하였다. 이들이 지휘하는 신라군이 당군의 조종을 받는 백제 유민들의 주요 거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자 크게 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전이 전개되었고 신라군은 모두 대승을 거두었다.

제1지역을 담당하였던 김품일(金品日)과 김문충(金文忠) 등은 크고 작은 63개의 성곽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이 지역의 백제 유민들을 모두 신라 내륙의 정착지로 옮기고 철저한 감시 체제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제2지역의 책임을 맡은 김천존(金天存) 등은 7개의 주요 성곽을 점령하고 2천여 명의 대항 세력들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제3지역의 김문영(金文穎) 등은 12개 성곽을 점령하여 7천여 명의 대항 세력들을 살상하고 그에 따른 군마(軍馬)와 무기들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⁹⁾ 이것은 대규모 출정은 장차 신라의 국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었으므로 문무왕이 직접 참전하여 작전 전반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당군과 그 조정을 받는 반신라 세력들은 신라에 파견한 첩자가 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뜻밖의 기습 공격을 받고 대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군에 소속된 거란(契丹)·말갈병(靺鞨兵) 등을 포함하여 9천여 명의 반신라 세력 집단이 전사하는 섬멸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다. 그 반면 신라는 대승을 거두어 과거 백제와의 국경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무려 82개의 크고 작은 성곽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군마와 무기들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어 신라군의 전력을 보강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반신라적 성향의 백제 유민들을 신라 내륙 지역으로 소개(疏開)하여

분산시키는 사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대 세력으로 성장할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 같은 대규모 출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신라는 웅진도호부의 치소(治所)인 웅진성(熊津城)과 옛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泗沘城) 근교에까지 진출하여 부근 지역을 모조리 장악하였다. 따라서 웅진성과 사비성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범위한 지역을 장악하고 당의 세력이 잔류하고 있던 웅진도호부를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웅진도호부를 무력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

(3) 금강 중류 지역의 전투

신라는 옛 백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구축되자 이들 거점을 발판으로 하여 다음 단계의 작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671년 1월에 웅진도독부의 치소인 웅진(熊津 : 공주 <公州>)을 압박해 들어가다가 남쪽 근교에서 일대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작전에서는 신라군이 실패하여 당주(幢主)인 김부과(金夫果)가 전사하는 등의 손실을 입고 패퇴하게 되었다.

그후 설구성(舌口城)의 공방전에서는 수세에 몰린 신라군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적의 예봉을 둔화시키는 전술이기도 하였다. 성곽을 포위한 채 공격하던 말갈군(靺鞨軍)은 신라군이 출성(出城)하여 정면 대결을 벌이지 않고 시간만 끌게 되자 수차례의 공격에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공성작전에 지쳐 버린 말갈군이 포위를 풀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말갈병이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하자 설구성의 신라군 수뇌부는

정예병으로 추격대를 편성하여 말갈 부대의 후미에 기습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말갈병 3백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¹¹⁾

이어 6월에는 웅진도독부의 식량난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장수 김죽지(金竹旨) 등이 병력을 동원하여 웅진성 근교에 위치한 가림성(加林城: 부여 임천<林川>) 일대의 들판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곡식에 불을 질러 모조리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고 출동한 당군과 석성(石城: 임천 동쪽) 일대에서 대규모 접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군을 비롯하여 5천3백여 명의 적을 살상하는 섬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대승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당군에 가담한 백제 출신의 장수 2명과 당군의 과의(果毅) 6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백제 부흥군은 물론 당군 진영의 전력과 사기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직후인 7월 26일에 당의 행군 총관(行軍總管) 설인귀가 신라 문무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강력히 항의한 것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던 것이다.¹²⁾

이에 문무왕은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논리로 먼저 신라와 당의 관계를 밝히면서, 신라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백제 고토를 점령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답서를 설인귀에게 보내었다. 특히 문무왕은 과거에 당 태종(太宗)이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平壤) 이남과 백제 영토는 모두 신라에 주어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였던 역사적인 합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약속이 태종이 죽고 고종(高宗)이 즉위한 상황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배신적 처사를 지적함으로써 당의 기만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라는 이미 곤란을 겪고 있던 당군 진영의 식량난을 더한층 악화시키면서 군사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와 같이 당군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어 유명무실해 지자 신라는 사비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이 지역을 소부리주(所夫里州)로 명명하고, 아찬(阿飡) 김진왕(金眞王)을 도독(都督)으로 임명하여 행정적으로 장악하였다. 따라서 백제가 멸망한 후로 1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옛 백제 영토의 일부가 신라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제 고토로 신라의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자 신라에 대항하던 반신라적인 세력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671년 11월에는 웅진도독부에 파견되어 있던 당의 관원과 백제 유민들을 포함한 2천여 명이 47척의 선박에 분승하여 일본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¹³⁾ 이를 계기로 하여 옛 백제 지역에서의 반신라 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듬해(672)부터는 과감하게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당군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포위 섬멸 작전이 전개되었다.

672년 1월부터 신라군은 사비성 외곽의 고성성(古省城)을 공격하여 승리하자 그 여세를 몰아 2월에는 가림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가림성의 저항이 매우 완강하였으므로 신라군은 무리한 작전으로 인명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퇴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고토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신라군에 의해 장악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몇몇 지역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소규모의 반신라 세력들도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문무왕은 672년 9월에 급찬(給飡) 김원산(金原山)과 나마(奈麻) 김변산(金邊山) 등을 당에 파견하여 대당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였다. 사신을 통해 그 동안 백제 고토에서 발생한 양국군 사이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에 대하여 경위를 자세히

해명하고 이에 대한 고종(高宗)의 양해를 구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백제 고토에서 벌어졌던 나·당군 사이의 전투 과정에서 포로가 된 내주사마(萊州司馬) 왕예본(王藝本), 열주장사(烈州長史) 왕익(王益), 웅주도독부사마 예군(禰軍), 증산사마(曾山司馬) 법충(法聰) 등을 비롯하여 군사 170명을 함께 돌려보냈다.¹⁴⁾ 백제 고토의 당군에 대하여 강력한 무력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이와 같이 당과 선린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화전(和戰) 양면의 실리 외교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러한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갔다.

이로써 신라는 당군과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반신라적(反新羅의) 백제 유민 집단을 무력으로 축출한 672년 후반기부터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자주적인 지배권을 비로소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들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고구려 지역에서의 당군 축출 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2. 고구려 지역의 당군 축출

(1) 대방 지역의 당군 축출 전투

신라는 이미 670년 3월에 사찬(沙飡) 설오유(薛烏儒)가 앞서 신라로 망명한 고구려의 장수 고연무(高延武)와 함께 각각 1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가 그해 4월 4일에 개둔양(皆敦壤)에서 말갈(靺鞨) 군사와 접전하여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그후로 당은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70년 5월에 좌감

문대장군(左監門大將軍) 고간(高侃)을 동주도행군총관(東州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고구려 고토에서의 제반 작전을 총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¹⁵⁾

검모잠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수습하여 부흥군을 편성하고 보덕왕의 서왕자(庶王子)인 고안승(高安勝)을 부흥군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신라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항전 태세를 강화하자 고간의 당군 진영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안승과 검모잠을 주축으로 한 고구려 부흥군은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당군과 정면 대결을 벌일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대군과 접전할 경우 부흥군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신라측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670년 후반부터는 금마저 지역의 임시 거류지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신라가 웅진도독부의 당군 세력과 백제 부흥군 세력을 소탕하고 백제 고토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672년부터 관심을 고구려 고토로 옮겨가자 이 지역의 당군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동주도 행군총관인 고간은 당의 한족(漢族) 기병 1만명을 이끌고 이근행(李謹行)이 지휘하는 거란(契丹) 및 말갈병 3만명과 함께 672년 7월에 평양에 이르자 8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주둔하였다. 이들은 주둔지를 요새화하여 방어력을 증강하고 전열을 정비하면서 고구려 부흥군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¹⁶⁾

당군은 약 1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군은 8월부터 당군과 말갈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먼저 평양성 서남쪽 근교에 위치한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이 1차 공격대상이 되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고구려 부흥군은 이 두 성에서 끈질기게 저항하였으나 후방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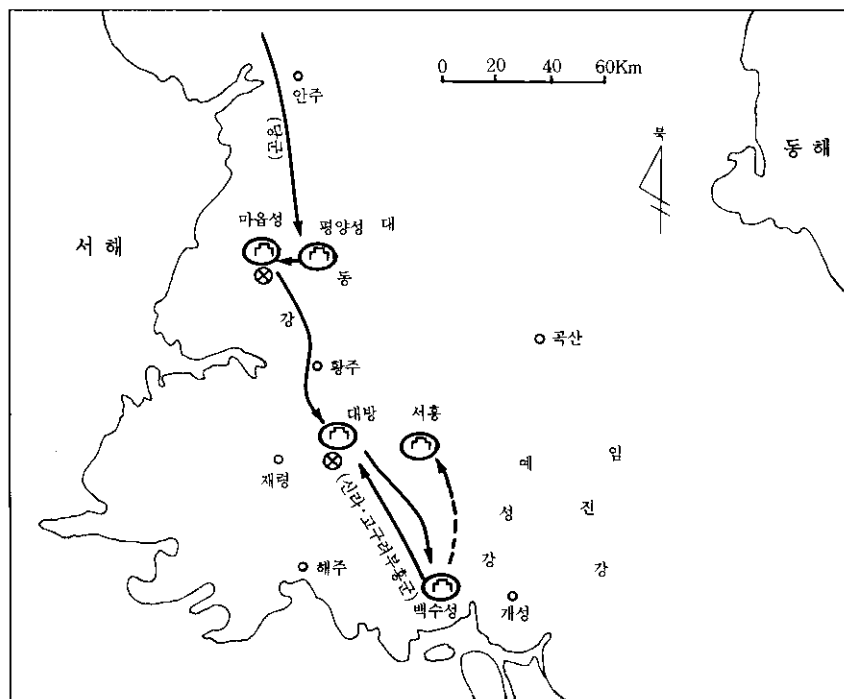
의 지원이 차단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과부적으로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다.¹⁷⁾

이어서 당군은 승기(勝氣)를 타고 백수성(白水城 : 배천 <白川>)을 공격하기로 하고 그 근교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포위 태세를 강화해 나갔다. 백수성의 고구려 부흥군은 사면이 포위된 상태에서 한시성이나 마읍성의 경우와 동일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라군이 먼저 당군의 후방을 급습함으로써 상황은 반전되었다. 즉 성안의 고구려 부흥군이 신라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형세가 되면서 오히려 당군을 포위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것이다.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은 이 전투에서 수천명의 적을 살상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백수성 공방전에서 패퇴한 고간의 당군은 석문산(石門山 : 서흥 목감 <木甘>)에 이르러 산세(山勢)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영을 설치하고 비로소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 신라군과 부흥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당군을 추격하다가 석문에서 당군과 접전을 벌였다. 미리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던 당군을 공격한 신라군과 부흥군은 상대적으로 전투 태세가 부실하였으므로 고전하게 되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격전을 벌였으나 신라군은 결국 대패하고 무려 2천여 명이 당군의 포위망을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포로가 되는 커다란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 전투에는 대장군 김유신의 아들인 김원술(金元述)도 비장(裨將)으로 참전하였다. 그는 주요 지휘관들이 전사하자 자신도 적진으로 달려가 함께 최후를 마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를 보좌하던 담릉(淡陵)은 “대장부(大丈夫)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만일 죽어서 성취하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살아서 후에 공(功)을 세울 기회를 노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신라 · 고구려 부흥군의 대방 지역 당군 축출 상황(672.8)



하면서 만류하였다. 이에 대해 김원술은 “남아(男兒)는 구차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만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만류를 뿌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담릉이 끝내 말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퇴각하게 되었다.

신라군은 상장군 김의복(金義福)과 김춘장(金春長)의 지휘하에 일단 전장을 빠져 나오기는 하였으나 무이령(蕪荑嶺)에 이르러서는 당군 추격대와 접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거열주(居烈州) 대감(大監)이며 일길찬(一吉漣)인 아진함(阿珍含)이 상장군에게 “공(公)들은 신속히 탈출하라. 내 나이 70인데 얼마를

더 살겠는가. 오늘이야말로 내가 죽을 날이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창을 고쳐 잡고 적진으로 돌진해 갔다. 그의 아들도 뒤를 따라 적진으로 달려가 부자가 함께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 신라군은 이 틈을 타서 당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겨우 퇴각하여 극비리에 국왕께 복명하였다.

이와 같이 석문 전투에서 대패한 신라군은 대아찬(大阿湊) 김효천(金曉川), 사찬(沙湊) 김의문(金義文)·김산세(金山世), 아찬(阿湊) 김능신(金能申)·김두선(金豆善), 일길찬(一吉湊) 김양신(金良臣) 등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전력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일단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⁸⁾ 이 같은 패전 사실을 보고 받은 문무왕은 즉시 중신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김유신은 당군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병들을 모두 동원하여 주요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김원술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므로 참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은 김원술이 주장(主將)이 아닌 비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처벌할 만한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¹⁹⁾

신라는 당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8월에 한산주(漢山州 : 광주 <廣州>)의 주장성(畫長城 : 남한산성 <南漢山城>)을 축조하였다. 주위의 둘레가 무려 4천3백60보에 이르는 주장성을 축조함으로써 강북(江北)의 북한산성(北漢山城)과 함께 강남(江南)의 주요 방어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강 하류 지역을 천연 장애물로 하는 방어선을 전담할 강남의 새로운 요새로 확보하였던 것이다.²⁰⁾ 이로부터 신라는 한강 이남 지역을 군사적으로 더한층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문무왕은 신라군이 앞서 백제 지역에서 당군을 크게 격파한 사실로 인하여 당 고종과 중신들의 신라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였다. 이러한 당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그해(672) 9월에 급찬(紇漣) 김원천(金原川)과 내마(奈麻) 김변산(金邊山)을 당에 파견하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들은 신라를 출발하면서 문무왕이 고종에게 보내는 서신을 휴대하고 그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내주 사마(萊州司馬) 왕예본(王藝本)과 열주장사(烈州長史) 왕익(王益)을 비롯한 1백 70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떠났다. 뿐만 아니라 당의 조정 요인들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공할 다양한 예물도 준비해 갔다. 금(金) 1백20푼(分), 은(銀) 3만 3천5백푼, 동(銅) 3만 3천푼, 침(針 : 바늘) 4백매(枚), 우황(牛黃) 1백20푼, 40승포(升布) 6필(匹), 30승포 60필을 예물로 보냈다.²¹⁾ 이들은 준비해 간 예물을 요로에 뿌리며 치밀하게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시 불가피했던 신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당과의 대립 상황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신라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 임진강·한강 지역의 공방전

672년 9월에 문무왕이 당에 급파한 사과(謝過) 사절단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의 성과로 인하여 그 동안 당이 신라에 대해 품고 있던 나쁜 감정은 크게 순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지원을 받는 고구려 부흥군과 직접 대립하고 있던 전투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군은 673년 5월에 이르

자 고구려 부흥군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임진강 중류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 부흥군은 말갈족(靺鞨族) 출신의 연산도 총관(燕山道總管) 이근행(李謹行)이 지휘하는 당군의 침공을 받고 임진강의 요지인 호로하(瓠蘆河: 적성 <積城>)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 지역은 임진강 중류 중에서도 비교적 수심이 얕아 도섭(徒涉)이 가능하며, 남쪽의 개활 지역으로 연결되는 일명 호로탄(瓠蘆灘)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였다. 표주박 모양으로 곡선을 그리며 굽이쳐 흐르는 호로하를 사이에 두고 북안에는 삼각형의 소규모 성지가 구축되어 강의 남안에 형성된 개활지를 감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안 개활지의 동쪽 고지에 구축된 타원형의 진지는 서쪽으로 심한 곡선을 이루며 흘러가는 임진강의 서북 지역을 폭넓게 감제할 수 있었다. 북안의 삼각형을 이루는 진지와 남안의 타원형 진지는 모두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구축되어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기 때문에 이잔미성(二殘眉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섭이 가능한 이 호로하를 도하하려는 세력을 감시하고 양안의 성곽이 상호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소수의 군사로도 다수의 적을 격퇴하기 용이한 곳이었다.²²⁾ 이러한 지형적 이점 때문에 호로하는 삼국의 군사력이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고구려 부흥군과 당군과의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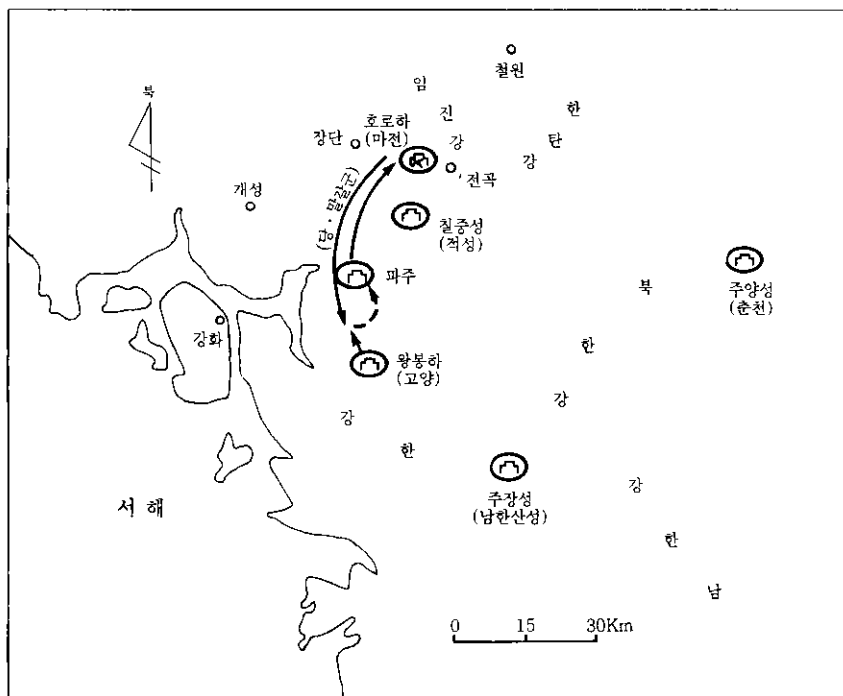
이 호로탄 일대에서 격돌한 양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대접전을 벌였다. 고구려 부흥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당군의 대규모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

러나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당의 대군에 의해 포위되고 있었다. 그 결과 후방 지원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 부흥군은 수천명이 포로가 되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와해되었다. 전장을 빠져 나온 나머지 부흥군 세력은 대부분 신라 내륙으로 이동하여 신라군에 편입되었다.²³⁾

한편 신라는 그해(673) 7월에 김유신이 79세를 일기로 사망하자 이를 대외 향전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무왕은 김유신이 부왕인 무열왕과 함께 대백제 및 대고구려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크게 현양하였다. 김유신이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채백(彩帛) 1천필(匹), 조(9租 : 세곡 <稅穀>) 1천석(石)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군악대(軍樂隊) 1백명을 파견하여 융숭한 장례를 치르도록 배려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공(戰功)을 비석(碑石)에 새겨서 영원히 전하게 하고, 묘소를 관리할 민호(民戶)를 지정해 줌으로써 아직 전장(戰場)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많은 군사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는 당군이 고구려 부흥군과의 전투에 주력하고 있는 공백기와 대장군 김유신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내부적으로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대외 방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673년 9월에 이르기까지 내륙 및 변방 지역의 중요 거점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성곽을 증축하거나 새로 축조하였다. 8월에 사열산성(沙熱山城)을 증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9월에 국원성(國原城 : 충주) · 북형산성(北兄山城 : 경주) · 소문성(召文城 : 의성) · 이산성(耳山城 : 고령) · 주잠성(主岑城) · 거열주(居

나당군의 임진강·한강 유역 전투 상황(673. 9)



烈州: 거창)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삼량주(歙良州: 양산)의 골쟁현성(骨爭峴城) 등을 쌓았다. 특히 수약주(首若州: 춘천)의 주양성(走壤城: 봉산 <鳳山>)을 축조하여 요새화함으로써 한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방위력을 크게 강화하고, 동북방으로 세력을 뻗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해상으로 당군이 대거 상륙하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서해안의 해상 경계 태세를 강화하였다. 대아찬(大阿飡) 김철천(金徹川) 등은 병선 1백척을 거느리고 당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해상에 대한 초계(哨戍)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⁴⁾ 즉 당의 대규모

모 지원 병력이 상륙하거나 해상으로 신속한 보급(補給)이 추진되는 것을 해상에서 차단함으로써 이미 한반도 깊숙히 진입해 있는 당군을 고립시켜 궤멸시킨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진강 중하류 지역 일대에서는 673년 9월에 무려 9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당군은 말갈과 거란병으로 혼합 편성된 강력한 기병 부대를 선두에 내세워 신라의 북쪽 변경 지역을 공격하였다. 당군은 그해 5월에 고구려 부흥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승리한 결과로 확보하였던 호로탄(瓠瀾灘) 일대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다시 남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신라군은 이미 임진강을 넘어선 당군의 군사 행동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즉각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다.

신라군은 당군이 고구려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도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남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항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주로 임진강 남안의 주요 성곽에 군사를 증강 배치하거나 성곽의 자체 방어력을 증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예측한 대로 당군이 남하하자 신라군은 당군의 이동로상에 설치된 주요 거점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당군을 저지하였다. 이에 당군은 고구려 부흥군과는 달리 정예화된 신라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의외로 고전하게 되었다. 신라군의 전력을 알잡아 보고 있었으므로 접전 때마다 패전하여 타격을 입게 되자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신라군은 호로탄과 왕봉하(王逢河) 등지에서 연전연승한 결과로 당군과 말갈군 2천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빼앗겼던 임진강 일대의 주요 거점들도 수복하였다.²⁵⁾ 이로써 신라

는 임진강을 넘어 그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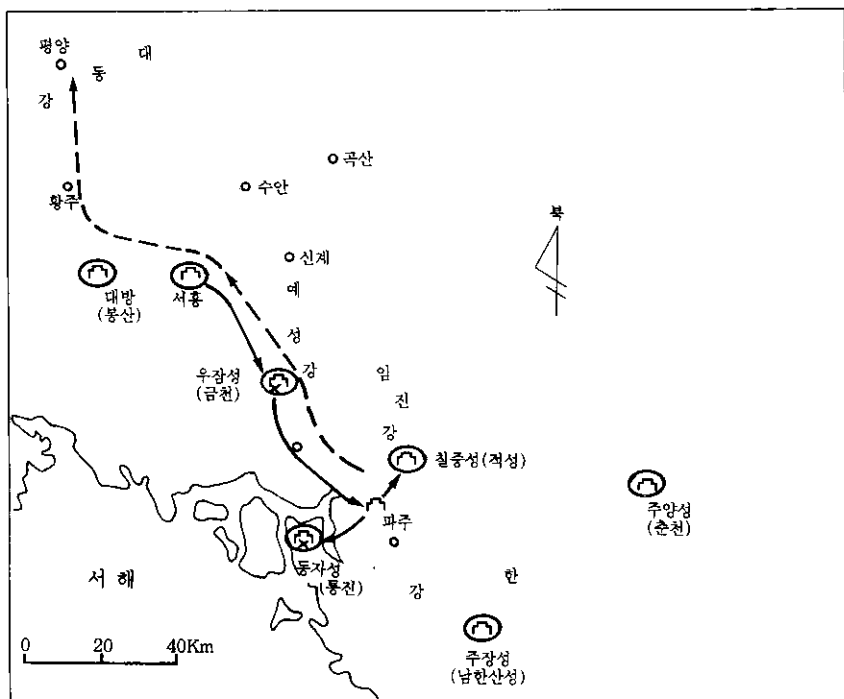
(3) 예성강·임진강 지역의 공방전

당군은 673년 겨울이 되자 예성강(禮成江) 중하류 지역에 위치한 우잠성(牛岑城 : 금천 <金川>)을 공격하였다. 당시 우잠성에는 일단의 고구려 부흥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일기의 불순으로 후방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군량마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여건에 처한 고구려 부흥군은 당군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자 고립된 상황에서 분전하다가 결국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파로 대양성(大楊城)·동자성(童子城 : 통진 <通津>) 등 서해안에서 가까운 평야 지대의 여러 성곽들도 거란과 말갈군의 공격을 받고 함께 와해되었다.²⁶⁾

따라서 임진강과 한강 그리고 예성강 하류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여러 성곽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부흥군들은 673년 겨울에 이르기까지 주요 거점의 대부분을 당군에 빼앗김으로써 전력에 심대한 손실을 입고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신라군이 단독으로 당군 축출 전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 및 고구려 부흥군의 공격을 받아 당군이 고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당 고종과 조정의 중신은 크게 분개하였다.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고 특히 고구려의 유민들을 받아들이거나 부흥군을 지원하면서 당군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신라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고종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그는 당에서 문무왕에게 주었던 관작(官爵)을 취소하고 신라 국왕의 지위마저 박

나당군의 임진강·예성강 유역 전투 상황(673. 겨울)



탈한다는 교서(敎書)를 674년 1월에 일방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당시 당에 머물고 있던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金仁問)을 신라의 새로운 국왕으로 임명하여 귀국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귀국하는 김인문을 호위하고 갈 신라 침공 부대의 지휘부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²⁷⁾

총사령관	계림도대총관(鷄林道大總管)	유인궤(劉仁軌)
부사령관	위위경(衛尉卿)	이필(李弼)
	우령군대장군(右領軍大將軍)	이근행(李謹行)

이는 당이 신라 조정 내부에 정치적 분열을 야기시켜 신라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책략이었다. 즉 당의 고종이 공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국왕을 추종하려는 친당적 세력 집단이 결성되도록 조장함으로써 문무왕 중심의 반당세력을 제압하려는 이이제이 정책의 일종이었던 것이다.

당의 이 같은 저의를 간파한 문무왕은 우선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대책을 세웠다. 국왕의 강력한 대당 투쟁 의지와 신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하였다. 문무왕은 그해(674) 8월에 서형산(西兄山) 산록에서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그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겪으면서 축적된 신라의 군사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국왕이 주재하는 대규모 기동 훈련을 통하여 신라군의 투지를 과시하고 전열을 새롭게 정비한 문무왕은 당군의 강력한 견제 세력인 고구려 부흥군을 보다 조직적인 세력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674년 9월에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고안승(高安勝)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임명하여 고구려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유지하도록 배려하였다. 독립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워 줌으로써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적개심과 항전 의지를 크게 강화시켜 주려는 정책이었다.²⁸⁾

그리고 8월에 이어 9월에도 국왕이 참관한 가운데 영묘사(靈廟寺)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여 신라군의 기상을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찬(阿飡) 설수진(薛秀眞)이 지휘하는 육진병법(六陣兵法 : 육화진법 <六花陣法>)의 시범을 실시함으로써 민과 군으로 하여금 당군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²⁹⁾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해서는 신라군이 대당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고 이를 훈련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계기로 삼았다.

신라가 이와 같이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대당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 고종의 명령을 받은 침공 부대는 신라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 당의 계림도 대총관으로 임명되어 김인문을 호위하도록 명령을 받은 유인케는 당군을 이끌고 남하한 후 임진강에 이르러 도하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이듬해(675) 2월에는 칠중성(七重城 : 파주 적성)의 신라군을 공격하여 점전을 벌이게 되었다.

신라군이 점거하고 있는 칠중성은 해발 고도가 낮은 중성산(重城山 △149)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축조된 소규모 산성이었다. 그러나 서쪽의 호로탄 내지 호로하로 불리는 골짜기 십한 강의 양안에 축조된 호로고루성(瓠蘆古嶺城)과 서북쪽 전방에 위치한 육계토성(六溪土城)을 장악하여 이를 전초기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대규모 군사의 임진강 도하도 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칠중하(七重河) 일대의 광활한 평야 지대를 한눈에 감제하면서 뒤로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감악산(紺岳山 △675)과 연결되어 있어서 감악산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전략적 요지였다.³⁰⁾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을 따라서 그 이남 지역에 나란하게 형성된 도로의 요지를 장악할 수 있어서 동북쪽의 상류 지역인 전곡(全谷)과 연천(漣川) 일대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한반도의 동북쪽에서 서북쪽으로 통하는 교통의 분기점이며 동시에 남진(南進) 통로의 합류점이 되어 한강 하류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칠중성은 당시 신라 북방 변경 지역의 최대 군사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 칠중성을 중심으로 하는 감악산 일대에 정예부대를

배치하여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하는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군도 칠중성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여 유인케의 지휘하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이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신라군은 칠중성을 중심으로 한 그 외곽의 주요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당군이 접근하자 유리한 위치에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당의 대군 앞에 중과부적인 신라군은 일단 성안으로 퇴각하여 농성하기 시작하였다.³¹⁾ 그 이후로 당군도 더 이상 칠중성을 공격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주변 일대의 주요 지역 요소 요소에 일부 군사를 주둔시켜 신라군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였다.

신라군과 당군이 대치하여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아달성(阿達城) 안에 피신해 있던 일반 주민들은 675년 봄이 되자 씨앗을 뿌리기 위해 성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 출입하는 것을 탐지한 말갈 군사들이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성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쳐들어왔다. 이때 주민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으나 소나(素那)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들을 물리치기도 하였다.³²⁾

이 무렵 당군은 침공 부대를 크게 양분하여 잔류부대(殘留部隊)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을 귀국 부대(歸國部隊)로 재편성하였다. 그후 귀국 부대는 유인케의 인솔하에 압록강을 넘어 당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당군의 수는 크게 감축되었고, 잔류한 당군의 지휘권은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임명된 말갈족 출신의 이근행에게 넘겨졌다. 이근행은 부부가 함께 참전한 말갈족의 장수로서, 과거 고구려의 전성기에는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말갈 부족을 이끌고 당군의 일부로 참전함으로써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에는 많은 부담을 안겨 주기도 했다.³³⁾ 당이

말갈족과 거란족을 당군의 일부로 편성하여 신라 및 고구려 부흥군과의 전쟁에 투입한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대이민족 정책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의 다른 한 측면이었다.

신라군과 당군이 한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치하면서 무력충돌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당과 신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군사적 대립으로 악화된 양국의 관계를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칠중성 전투가 벌어진 직후인 2월에 신라는 경직된 양국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당에 사신을 급파하였다. 문무왕은 사신을 통해 당 고종과 조정의 충신들에게 여러 가지 진귀한 예물을 보내면서 양국간의 무력충돌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신라의 부득이한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신라의 이러한 노력은 당의 신라에 대한 감정을 크게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즉 당 고종이 문무왕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선언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한지 1년여 만인 675년 초에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이 가장 큰 가시적 효과였다. 따라서 당에서 준 문무왕의 관작(官爵)은 원상태로 회복되었으며, 신라의 새 국왕으로 임명되어 귀국길에 올랐던 김인문은 도중에 당으로 돌아가 다시 임해군공(臨海郡公)의 작위를 받았다.³⁴⁾

이러한 화전(和戰) 양면의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신라의 영토 확장을 위한 북진 정책은 한때도 중지되지 않았다. 신라는 국익의 최우선 순위를 영토 확장 정책에 두었으므로 당군과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불사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미 무력으로 장악한 지역에는 신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그리하여 675년 초에는 옛 고구려의 남쪽 변경 지역까지 주(州)와 군(郡)을 설치하여 점령지에 신라의 행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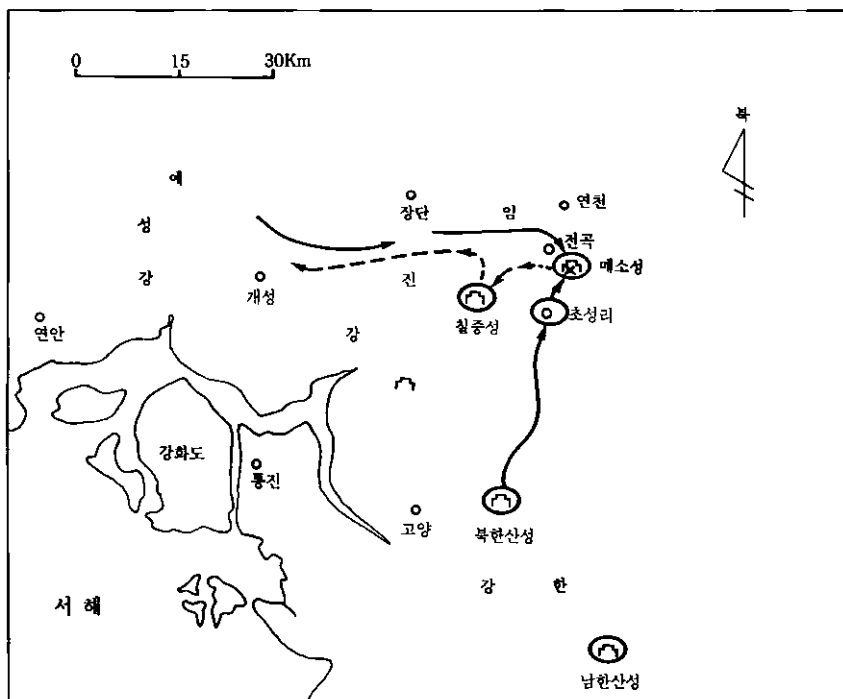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라는 당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

는 첩보에 따라 요소에 병력을 배치하여 대비하였으나 당군의 대대적인 공격은 없었다. 그러나 설인귀는 당에 숙위(宿衛) 중이던 신라 유학생 김풍훈(金風訓)의 부친인 김진주(金眞珠)가 662년 8월에 백제 부흥군 토벌전을 수행하다가 임무를 태만히 한 죄목으로 처형된 사실을 알고 김풍훈의 복수심을 자극하여 그를 이용하려고 충동질하였다.³⁵⁾ 당시 설인귀는 670년에 토번족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이른바 대비천(大非川) 전투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입는 참패를 당한 후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에 설인귀는 다시 침공군을 이끌고 김풍훈을 길잡이로 삼아 675년 9월에 대방(帶方) 지역의 백수성(白水城 : 배천〈白川〉)을 공격하였다.³⁶⁾

다시 입국한 설인귀의 당군과 접전한 신라군은 김문훈(金文訓)의 지휘 아래 적극적인 반격 작전을 전개하여 당군 1천4백여 명을 살상시키는 선전을 하였다. 그리고 서해안으로 들어와 예성강(禮成江) 입구에 정박 중이던 병선 40척을 공격하여 남포함으로써 해상으로 추진한 보급을 차단하였다. 당군은 심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동시에 해상으로의 보급도 차단당한 상황이었으므로 백수성에 대한 포위를 풀지 않을 수 없었다. 당군이 포위를 풀고 퇴각하자 신라군은 당군의 후미를 추격하여 전마(戰馬) 1천필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³⁷⁾

674년 초에 계림도 대총관 유인궤(劉仁軌)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편성된 당군은 675년 2월에 유인궤가 일부 병력을 이끌고 귀국하자 부사령관 이근행이 안동진무대사로서 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당군 잔류부대들을 점차 칠중하(임진강)를 우회하여 도섭이 가능한 상류지역으로 이동하여 한탄강에서 안전하게 도하한 후에 매소성(買肖城 : 연천 전곡〈金谷〉)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매소성 및 칠중성 전투 상황(675. 9)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이곳의 요충이기도 한 매소성을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후퇴하였다가 전력을 증강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신라군은 그들이 숙지하고 있던 매소성의 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습적인 공격으로 쉽사리 매소성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에 당군은 다시 매소성을 빼앗기 위한 공격을 재개하였고 신라군은 강력한 방어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하순까지 매소성을 중심으로 하여 부근 일대에 집결한 당의 대군과 신라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므로³⁸⁾ 양군 사이에 대규모 접전이 벌어

지게 되었던 것이다.³⁹⁾

신라는 당의 대군이 집결한 이 기회를 틈타 주력부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신라군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사전에 매소성 일대의 요지를 선점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완벽한 포위 태세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신라군은 치열한 접전을 벌여 외곽 부대의 저항력을 크게 약화시킨 후인 675년 9월 29일에 매소성의 당군 주력부대와 격돌하였다.⁴⁰⁾

그러나 신라군은 효과적인 후방 지원과 인근 지역과의 협조된 공격으로 당군의 마지막 공격을 물리치고 매소성을 고수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신라군은 당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리품들을 노획하였는데, 특히 이때 신라군이 노획한 전마(戰馬)는 무려 3만 4백여 필이나 되었다.⁴¹⁾

한편, 거란과 말갈병이 혼합 편성된 당군은 매초성 공방전에서 실패한 후로 진로를 바꾸어 칠중성의 신라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⁴²⁾ 칠중성의 신라군은 앞서 그해 2월에 유인궤군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치렀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효과적인 방어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제2차 칠중성 공방전에서 신라군은 처음부터 출성공격을 자제하면서 농성 위주로 대응하였다. 지방관원인 소수(小守) 김유동(金儒冬) 등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당의 혼성부대를 물리치고 성을 고수함으로써 당군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밖에 적목성(赤木城)에서는 말갈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현령(縣令)인 탈기(脫起)가 주민들과 함께 싸우다가 대패하여 모두 전사하기도 하였다. 석현성(石峴城)에서도 현령인 선백(仙伯)·실모(悉毛) 등이 당군의 공격을 받고 대항해 싸우다가 함께 전사하였다. 이 같은 대표적인 몇몇 전투를 비롯하여 신라는 675년 말을 전후하기까

지 모두 18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당군과 치렀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신라군은 승리를 거두어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당군을 포함하여 함께 참전한 거란 말갈군의 수급 6천40여 급을 빼고, 전마 2백필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⁴³⁾ 따라서 이 무렵 당군의 전력은 크게 약화되어 거의 무력화된 지경에 있었다.

3. 당군의 전력 약화

(1) 서해안 지역 전투의 실패

1) 예성강구의 전투

당군은 671년 10월에 산둥 반도의 내주(萊州)에서 보급품을 적재하고 서해안을 통해 예성강 어귀로 진입하던 보급선을 신라군에게 습격당하여 70여 척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 수송 선단을 이끌던 지휘관인 병선낭장(兵船郎將)인 겸이대후(鉗耳大侯)와 내주사마 왕예본(王藝本), 열주장사 왕익(王益) 등이 포함된 군사 1백여 명이 사로잡히는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다수의 당군이 물에 빠져 익사하였으며 신라의 급찬(級飡) 김당천(金當千)은 전공을 인정받아 사찬(沙飡)으로 승진하는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⁴⁴⁾

그 동안 당군이 필요로 하는 보급품의 대부분은 신라에서 육로로 수송하여 충분히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라는 당군의 야욕을 확인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부터 보급품 조달을 중지하였다. 따라서 당군은 주둔지를 중심으로 한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극히 제한적인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주로 해상 수송을 통해 본국에서 조

달할 수밖에 없었다. 즉 산둥 반도의 내주항(萊州港)에서 군수품을 적재하여 서해를 건너 예성강구의 항구에 하역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히 보급할 수가 있었다. 예성강 어귀의 항구인 벽란도(碧瀾渡)는 그후로도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기여한 중심 항구로 발전하였다.

해상에서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보급품을 모두 빼앗긴 당군은 필요한 보급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전투력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자 현상을 유지하는 것마저 어렵게 되어 결국 전력이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군을 이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은 신라의 적대적 행위에 대하여 당 고종과 조정 중신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당 조정의 신라에 대한 감정 악화는 결국 신라의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게 되었다. 즉 문무왕은 이듬해(672) 9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시 신라군이 당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을 정중한 문투로 해명하면서 신라의 입장을 당당히 밝혔다. 이때 사신은 이 같은 요지의 국서(國書)와 함께 그 동안 신라가 억류하고 있던 보급선 수송 책임 장병들을 인솔하여 돌려보내 주었다. 그리고 은 3만 3천5백푼(分)을 비롯하여 엄청난 분량의 예물도 준비해 갔다. 왕예본(王藝本)과 왕익(王益) 등을 비롯하여 군사 1백70명을 당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당과의 선린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⁵⁾

이와 같이 정치·외교적으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당군의 대규모 침공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673년 9월을 전후하여 전국에 걸쳐 전술적으로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 성곽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요새화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방어력을 크게

제고시켰다. 한편 당이 해상으로 보급품을 수송하거나 군대를 침투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아찬(大阿飡) 김철천(金徹川) 등으로 하여금 군선(軍船) 1백척을 거느리고 서해안을 초계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당군은 말갈병과 거란병을 포함하는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아홉 차례에 걸쳐 임진강의 호로하 일대에 주둔한 신라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여 2천여 명이 살상되고, 강물에 빠져 실종된 군사들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당군이 입은 전력 손실은 막대한 것이었다.

당군의 전투 손실이 커지자 당 조정의 신라에 대한 감정은 다시 악화되었다. 이미 672년에 포로를 돌려보내고 양국군의 무력 충돌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국서를 보냄으로써 선린 관계로 개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당군이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는 일련의 사태가 재발하자 당 고종이 분노하는 가운데 중신들의 감정도 매우 악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674년 1월에 문무왕을 폐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김인문(金仁問)을 신라의 새 국왕으로 임명하여 귀국하도록 한 것은 신라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저의가 내포된 정치·외교적 압박 술책이었다. 이때도 신라의 외교적 노력으로 당 고조의 조치는 김인문이 귀국하는 도중에 철회되었다.

675년에 접어들어 당의 유인궤 군은 칠중성(七重城)을 침공하고 9월에는 설인궤 군이 백수성(白水城)을 침공하여 신라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때 당군 수뇌부는 수군(水軍)을 예성강구로 진출시켜 신라군의 후방을 함께 공략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신라군에 패전하여 병력 1천4백여 명이 살상당하고 전마 1천필을 빼앗기는 손실을 입었다. 동시에 수로군도 예성강 어귀에서 포위 공격을 시도하다가 전선 40여 척을 신라에 빼앗김으로써 수륙 양면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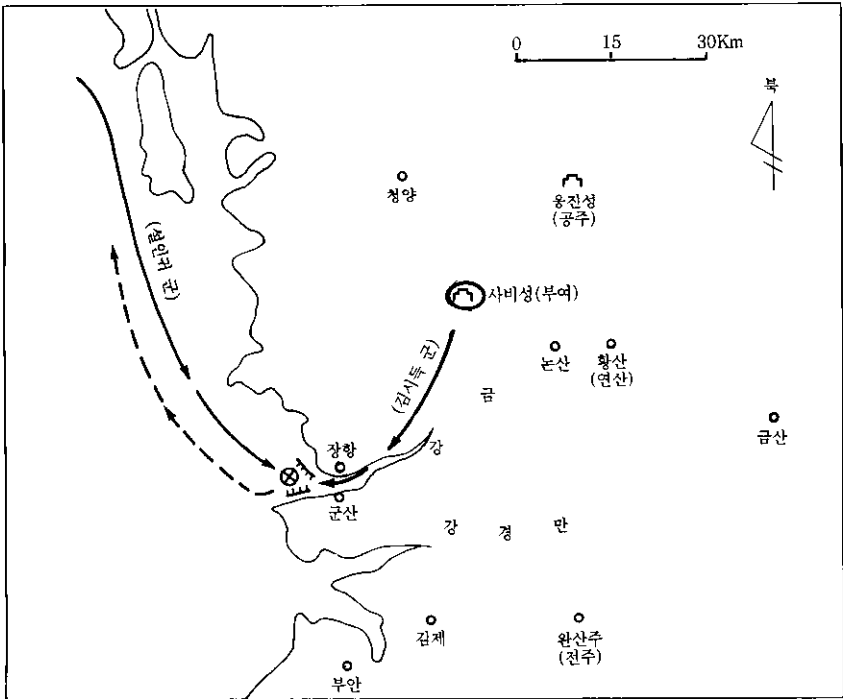
2) 기벌포 전투

신라군은 675년 9월에 이군행 군과의 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가하여 당군의 전반적인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호로하 남안의 칠중성과 그 부근에서의 크고 작은 빈번한 일련의 전투에서도 당군이 패전하였으므로 인력 손실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갔다.

이에 당군은 지상전에서의 빈번한 패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실을 만회하고 군사들의 사기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배경 아래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격 전투가 설인귀군에 의해 기벌포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설인귀는 675년 9월에 백수성(白水城)을 공격하다가 김문훈(金文訓)이 지휘하는 신라군에게 참패를 당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었다. 그후로 설인귀군은 1년여 기간동안 전열을 정비한 다음 676년 11월에 서해안을 우회하여 금강(錦江) 하구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한강과 임진강 및 한탄강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빈번한 전투에서 모두 실패하여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해상으로 우회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신라가 지상전(地上戰)에 주력군을 배치하여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때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여(扶餘)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671년 8월에 백제 고토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소부리주(所夫里州)의 치소인 부여를 장악함으로써 신라 세력을 축출할 뿐만 아니라 신라 본토의 측면을 공략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구상이었다.

설인귀가 지휘하는 당군은 서해안을 초계하는 신라군의 감시를 피하여 금강 하구에 무사히 도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하구의

기벌포 전투 상황(676. 11)



기벌포(伎伐浦)에서 신라군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신라 수군은 사찬(沙漣) 김시득(金施得)의 지휘하에 당군을 공격하였으나 초전에서는 설인귀의 당군에게 패퇴하고 말았다. 그후로 신라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당군을 공격하였다. 신라군은 금강 입구에 해상을 봉쇄하여 설인귀의 병선을 포위하듯이 묶어 두고 공격대형을 자유자재로 변형하면서 공격할 수가 있었다. 유리한 위치에 있던 신라군의 끈질긴 선제 공격으로 기벌포에서는 무려 22회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그 결과 신라군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였고, 당군은 패전하여 4천여 명이 살상당하는 섬멸적인 타격을 입었다.⁴⁷⁾

이와 같이 수륙 양방면에서 크게 타격을 입은 당군은 이미 신라군과 접전할 수 있는 전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마저 저하되어 아예 접전을 회피하기는 지경이었다. 더 이상 신라군과 접전하기를 포기한 채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하여 전면적인 철군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신라는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부터 676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에 당군을 상대로 하여 수많은 전투를 전개하였다. 특히 기병을 위주로 하여 편성된 거란과 말갈군이 혼합된 당군을 성공적으로 격파하여 마지막 전투의 승리를 차지하였다. 결국 당은 670년 후반에 요동(遼東)으로 옮겨갔던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치소를 674년경에 평양에 옮겨 설치하였으나 676년에 또다시 요동으로 완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⁴⁸⁾

당군이 신라군의 끈질긴 공격 앞에 무릎을 꿇고 대동강(大同江) 이남의 영토를 포기한 채 그 이북으로 완전히 물러감으로써 대동강 이남 지역이 비로소 실질적인 신라의 영토로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즉 신라는 당의 방해 전략에도 불구하고 나·당 연합군을 결성할 당시에 약속하였던 대로 백제 고토와 고구려 영토의 대동강 이남 지역을 무력으로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2) 당의 주변정세 혼란

1) 대외 정책의 혼선

당은 650년에 고간(高侃)이 동돌궐(東突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비가한(車鼻可汗)을 생포한 이후로는 동서(東西) 돌궐족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국 초기와는 반대로 돌궐족에 대한

한족(漢族)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⁴⁹⁾ 이때 당은 동돌권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우(單于)도호부와 한해(瀚海)도호부를 설치하고 도호(都護)를 제외한 나머지 관원들을 모두 돌궐족 출신의 인사들로 임명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이제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당은 북방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압박해 오던 돌궐족의 침공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650년대부터 670년대에 이르는 약 30여 년 동안에는 당의 대외 관심을 동북방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신라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 및 고구려 왕조를 차례로 멸망시켰던 것이다.⁵⁰⁾ 그러나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독주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던 고종의 말년 무렵인 679년에 선우도호부의 통치 구역내에서 돌궐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면서 변방 지역의 전쟁이 재연되었다. 이 반란은 다른 돌궐족 추장들도 동조하여 가세함에 따라 돌궐족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때문에 당군이 출병하여 최초로 반란을 일으켰던 주도 세력을 집중 공격하여 주도자를 잡아 처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은 광범위한 변방 지역에 많은 군대를 투입하여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군사적으로는 물론 군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당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정세는 660년 말에 측천무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혼미를 거듭하기 시작하였다. 무후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661년 2월에 용삭(龍朔)으로 연호를 개칭하고, 이듬해(662) 2월에는 주요 관청과 관직의 명칭을 개칭하는 등 내부 개편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제인 고종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킨 무후의 정치적 실권은 더한층 공고해져 갔다. 관룡집단이 조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어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674년에는 황제를 천황(天皇)으로 호칭하고 황후를 천후(天后)로 호칭하도록 하였다. 상원(上元)으로 연호를 바꾸면서 12개 조항의 정치 방침(政治方針)을 공포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확산시켜 나갔다.⁵¹⁾

따라서 황제의 위상은 크게 떨어져 점차 유명무실한 지경이 되고 있었다. 황태자가 독살되거나 폐위되는 등의 사건이 속출하면서 당의 내부 상황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대외정책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북방 이민족의 침입

당의 서쪽 변경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토번족(吐蕃族)이 세력을 확장하여 당의 변경을 위협하자 당의 군사력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670년 4월에 토번이 군사를 일으켜 백주(白州) 등 18개 주를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다. 이에 당은 좌위장군 곽대봉(郭待封)으로 하여금 5만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물리치도록 하였다. 7월에 곽대봉을 비롯하여 신라에서 급히 귀국한 설인귀(薛仁貴) 등이 군사를 이끌고 토번을 공략하였으나 대비천(大非川) 전투에서 섬멸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후로 토번은 당의 변경을 매년 침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 이에 당은 조하(洮河)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고 있었다. 677년 9월에는 좌위대장

(左衛大將) 유심례(劉審禮) 등이 전열을 정비하여 대규모 침공을 단행하였으나 역시 패전함으로써 오히려 심대한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⁵²⁾

이와 같이 고종 말년에 가까워지면서 당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토번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자 안서(安西)도호부의 관할 구역이 이들의 빈번한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아라비아 반도의 대식국(大食國)마저 반기를 들고 대항할 태세를 갖추게 되자 서역 지역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따라서 당의 안정도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편 당은 서돌궐(西突厥)이 토번족의 휘하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71년에 그 추장(酋長)에게 관작을 부여하여 예속성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토번족의 세력이 강성하여 당의 변경을 침공할 태세를 갖추자 이에 자극을 받은 서돌궐이 토번과 연합하여 공동전선을 전개해 나갔다. 따라서 당은 토번과 돌궐을 비롯한 크고 작은 북방 이민족들의 침공에 대항하여 변경 지역에서의 토벌 전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토번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여 안서도호부 지역의 14진(鎭)을 빼앗기는 등의 영토적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세력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고종 때 상실한 이 14진은 중종(中宗) 때인 692년에 겨우 수복하여 당의 치하로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토번족과 돌궐족 등을 중심으로 한 변경 지역 이민족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자 당은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변방 지역에서 이민족과의 크고 작은 전투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전사자와 도망자가 속출하여 부병(府兵)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이민족

과의 전투에 투입되는 군사비는 당의 국가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부병이 아닌 상비군을 변경 지역에 배치하고 군사비도 절약하기 위한 모병제(募兵制)가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⁵³⁾

당의 변경 지역에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국내정세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국내정세의 변화는 다시 신라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나타났다. 즉 시중(侍中) 장문관(張文罐)이 677년에 죽음을 앞두고 고종에게 신라와의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건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장문관은 당의 변경으로 쳐들어오는 토번을 공략하는데 국력을 집중할 것을 역설하면서, 변경 지역을 스스로 침공하지 않고 있는 신라와의 전쟁을 확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즉 당이 신라를 침공하지 않으면 신라가 먼저 당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라와의 전쟁을 중지하고 토번을 공략하는데 국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한 것이다.⁵⁴⁾

제 5 장 나당 전쟁의 결과

1. 중국대륙의 영향력 약화

(1) 당의 국내정세 변화

당이 한반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켜 지배하려는 야욕은 660년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직후부터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부터는 이 같은 야욕을 더한층 노골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로 인하여 신라는 당의 야욕을 저지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군 사이에는 치열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당군을 축출하기 위해 무력 투쟁을 불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국익을 앞세운 유연한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당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손상을 초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신라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한 대외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당의 서북 변경으로 쳐들어온 토번족(吐蕃族)의 침공이었다. 따라서 당은 최대의 위협 세력인 토번을 먼저 축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신라를 자극하여 더 이상 전쟁을 확대시키거나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¹⁾ 토번의 침입에 위협을 느낀 당은 안동도호부의 설인귀 군을 불러들여 670년에 서역(西域)으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설인귀 군은 서역의 독특한 풍토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

여 병마에 시달리는 등의 요인 때문에 대비천(大非川)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관중(關中) 지역의 부대들도 참패를 거듭하였으므로 타림 분지(Tarim 盆地)의 대부분을 내어 주고 국경선을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10여 년 간에 걸친 대토번전(對吐蕃戰)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10여 년이 경과한 680년경에 이르러서는 북부 신장(新藏) 지역의 요충인 안중(安中)마저 빼앗기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²⁾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돌궐이 다시 고비 사막 이북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당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돌궐의 세력 범위는 서쪽으로 천산 산맥(天山山脈)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흥안령(興安嶺) 산맥을 넘어 만주 지역으로 뻗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변경 지역 상황이 위태롭게 급변함에 따라 당은 신라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신라를 적절히 견제할 수도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즉 고구려 유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당에 충성하도록 하면서 신라와는 대립하도록 조장하려는 이이 제이(以夷制夷)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 고장(高藏)을 677년 2월에 요동주도독(遼東州都督) 조선왕(朝鮮王)으로 임명하였다. 그에게는 요동에 주재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통치하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고구려인들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 조치는 안동도호부의 치소(治所)를 요동에서 신성(新城)으로 이동시키는 후속 방안이 강구됨으로써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즉 보장왕이 요동으로 돌아오자 고구려 유민들이 그의 휘하에 모여들어 새로운 세력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당은 백제의 왕자 부여융(扶餘隆)을 웅진도독(熊津都督) 대방왕(帶方王)으로 임명하여 백제 유민들을 통치하도록 하였다.³⁾

그러나 보장왕은 부임한 후부터는 당의 의도와는 달리 요동지역 인근에 산재한 말갈 부족들과 연합하여 당에 정면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실행 직전에 노출되자 당은 크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보장왕의 직위를 모두 해제하고 긴급히 소환하였다. 그는 공주(邙州)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고 보장왕의 휘하에서 반당투쟁(反唐鬪爭)을 준비하던 고구려 유민들은 모두 분산시켜 하남주(河南州)·용우주(隴右州) 등과 같이 당의 내륙 깊숙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후환에 대비하였다.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옛 고구려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면서 신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한 당의 이이제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때 당의 내륙으로 끌려가지 않은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이나 돌궐족과 합류하여 활로를 모색하게 됨으로써 장차 새로운 국가로의 탄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⁴⁾

당은 677년 5월에 부주(扶州)의 임하진(臨河鎭)이 토번의 공격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크고 작은 토번과의 전쟁에 국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토번족과의 빈번한 전쟁은 당의 대외정책을 수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정국의 변화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번 정벌 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정권을 농단하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683년 12월에 고종의 죽음을 기회로 하여 684년부터 정권을 완전히 독점한 것이다.⁵⁾

중종(中宗)이 즉위한 직후인 684년 1월에 그의 장인 위현정(偉玄貞)을 시중(侍中)으로 중용하려고 하다가 측천무후의 견제를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종은 황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여릉왕(廬陵王)으로 강등되었으며, 그 대신에 예종(睿宗)이

즉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후의 정치적 독단으로 황제가 되었으므로 예종은 황제로서의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별전(別殿)에 거처하였고 모든 정사는 무후가 황제를 대신하여 주관하였다.

이와 같이 무후가 황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하여 무후의 인척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무후의 조카인 무승사(武承嗣)와 무삼사(武三思)가 무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대내외의 주요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무씨 일당은 무후의 5대조에서 부모에 이르는 5대 선조를 왕으로 추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여 귀족 세력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⁶⁾

무후를 중심으로 하여 무씨 일파가 정권을 독점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 집단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미주 자사(眉州刺史) 이경업(李敬業)과 그의 아우 이경유(李敬猷)가 주동이 되고, 장안 주부(長安主簿) 낙빈왕(駱賓王) 등을 중심으로 하여 684년에 양주(揚州)에서 반란 세력이 봉기하였다. 이경업은 과거 고종이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씨를 황후로 즉위시키려 할 때 고종의 입장을 옹호했던 이적(李勣)의 손자이기도 했다. 그는 조정의 요직을 거치다가 현직에서 축출되자 무후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경업 등은 앞서 무후에 의해 여릉왕으로 강등당한 채 폐위된 중종을 복위시키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세력을 끌어 모았다. 이들이 무후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자 불과 10여 일 만에 10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양주(揚州)와 연주(潤州)를 점령하는 등 악화된 민심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막강한 세력 집단을 형성하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무후는 좌옥검위 대장군(左玉鈐衛大將軍) 이효일(李孝逸)을 양주도 대총관(揚州道大總管)으로 삼고 장군 이지십(李知十)과 마경신(馬敬臣)을 부장으로 하여 30만 대군을 이끌고 토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경업의 반란군은 이효일의 토벌군을 맞이하여 도양산(都梁山) 전투에서 패전한 결과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좌옹양대장군(左鷹揚大將軍) 흑치상지(黑齒常之)가 강남도 대총관(江南道大總管)에 임명되어 반란군 토벌에 합류하였다. 흑치상지는 백제 출신의 장수로서 부흥군 세력을 지휘하다가 당군에 투항하였는데, 장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당에 입국한 후로는 당의 장수로서 당군을 지휘하게 되었다.⁷⁾

이와 같이 토벌군이 증강되어 열세에 처한 반란군은 패전을 거듭하는 등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지도층의 의견 대립으로 내분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경업 휘하의 장수인 왕나상(王那相)이 이경업과 그 아우 이경유, 낙빈왕의 목을 베어 투항함으로써 불과 3개월 만에 모두 평정되고 말았다.⁸⁾

이로부터 무후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들 상호간에 감시하면서 밀고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공포정치를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정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모함과 밀고가 빈발하자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그 결과 조정의 분위기는 크게 경직되었다. 예컨대 재상 배염(裴炎)과 좌무위 대장군 정무정(程務挺)은 이경업의 반란 세력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밀고되어 684년 12월에 처형되었다.⁹⁾ 이러한 조정 내부의 혼란을 틈타 돌궐의 침략이 재개되었다. 685년 2월부터 시작된 돌궐의 침공은 4월에 혼주(忻州) 전투에서 5천여 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자 일시적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갔다.¹⁰⁾ 그러나 그후로 돌궐의 침입이 계속되자 변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조야가 모두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자 전국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686) 겨울에는 돌궐의 침입이 시작되었고 앞서 반란군 토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흑치상지가 당군을 이끌고 나가 물리쳤다. 뿐만 아니라 흑치상지의 활약으로 687년 2월에는 창평(昌平)에서 돌궐군을 격파하고 가을에는 삭주(朔州)로 쳐들어온 돌궐군마저 물리침으로써 일단 위기를 넘겼다.¹¹⁾

그런데 이듬해인 688년 가을에는 국내에서 무후를 축출하기 위한 세력이 봉기하여 정국을 다시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다. 즉 고조의 손자인 강주자사(絳州刺史) 이원가(李元嘉)와 그 아들 이선(李譔), 청주자사(靑州刺史) 이원궤(李元軌)와 그 아들 이서(李緒) 등이 주동이 되어 여룡왕으로 축출된 중종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실의 여러 왕들에게 무후를 토벌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촉발된 종실 세력의 반란이었다.¹²⁾ 이 사건은 무후파 세력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종실 인물들이 처형당하였으므로 대내외적으로 미친 파장은 매우 컸다. 그후로 무후의 종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자 무후의 전횡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종친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처형당하여 제거되었다. 백제 부흥군을 지휘하다가 당군에 투항하여 당에 귀화한 후로 반란군과 특히 돌궐족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흑치상지도 이 무렵에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아 689년 10월에 처형당하였다.¹³⁾

돌궐과 함께 토번도 변경 지역을 빈번하게 침공하여 당의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측천무후가 정권을 독점하여 황제처럼 군림하던 시기에 무력 침공이 한층 빈번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692년 10월에는 토번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토번족의 강점과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던 왕효걸(王孝傑)을 무위군(武衛軍) 총관에 임명하여 토번족의 주력을 선제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두어 앞서 고종대에 빼앗겼던 구자(龜茲)·우전(于闐)·소록(疏勒)·쇄엽(碎葉)의 4개 진(鎭)을 모두 수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구자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이후 토번은 먼저 4진에 진주한 당군을 철수시킨 다음 함께 서돌궐을 침공하여 그 영토를 분할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당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당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렵에 토번 국내에 내분이 발생하여 당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변경 지역의 긴장도 완화되어 진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¹⁵⁾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변경 지역의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측천무후는 7세기 후반의 당제국을 공포 정치로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측천무후는 이미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던 시기부터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관룡군사집단(關龍軍事集團)을 정계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에게 가장 큰 정적인 관룡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었으므로 당 조정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보통 지주(地主)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무후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이들이 대신(大臣)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관료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황제가 아닌 무후에게 경쟁적으로 충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의 기강은 크게 와해되었다. 특히 관동·강남의 보통 지주들 중에서 문사(文事)에 능통한 인재들을 북문학사(北門學士)라는 이름으로 선

발한 후 궁중에 주재하면서 정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재상의 권한을 분산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주들을 옹호하여 그들이 불법으로 획득한 위훈(僞勳)을 공인해 주는가 하면 특히 하급 관리들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승진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측천무후는 보통 지주들과 하급관리들을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두게 되었고, 이로써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력 집단을 배경으로 하여 황태자(皇太子)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폐위시키는 등의 전횡을 자행하였다.¹⁶⁾ 그리고 690년 7월에는 심복들에게 자신을 미륵불(彌勒佛)로 지칭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는가 하면 9월에는 고대(古代)의 주(周)나라를 이상국가 체제로 설정하여 이를 본받는다는 뜻에서 국호를 ‘주(周)’로 개칭하였다. 또한 예종(睿宗)의 성을 무씨(武氏)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로서 무씨 왕조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¹⁷⁾

여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690년 9월에는 자신의 선조를 추존하는 무씨 7묘(廟)를 건립하고, 조카인 무승사를 위왕(魏王), 무삼사를 양왕(梁王), 무유령(武攸寧)을 건창왕(建昌王)으로 각각 책봉하였다. 이외에도 10명의 무씨 친족을 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자신의 주위에 강력한 친족 세력을 배치하여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¹⁸⁾ 그리고 여성 황제의 복장을 남성 황제의 복장으로 바꾸는가 하면 남첩(男妾)을 두는 후궁(後宮)제도를 도입하여 남성 황제와 동일한 체제를 갖추기도 하였다.¹⁹⁾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정적을 모함하여 제거하고 강력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황제 즉위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 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무황후가 되어 집권한 후로 30여 년 동안 그녀의 정적으

로 축출되었던 수많은 귀족 및 관료 집단의 반대가 완강하였다.²⁰⁾ 이는 새로운 혼란의 불씨가 되었고, 그후로 국내정세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측천무후가 죽은 후로 중종과 예종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현종(玄宗)이 즉위한 8세기 초반 이후로 이른바 ‘개원(開元)의 치(治)’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안정되어 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대외 정책도 많은 영향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신라와의 관계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2) 유민 정책의 완화

당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킨 후로 특히 수도인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2만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치안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지역을 당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고 이에 당의 관리를 파견하거나 친당적 고구려인을 발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배력을 행사하는 통치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당의 관리를 파견하면서 동시에 친당적 고구려인을 도독(都督)·자사(刺史) 등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주민들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배 형태는 당이 전통적으로 추진해 온 기미정책에 입각한 기미주(靑靡州)의 운영 체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미주를 운영해 오던 형태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통제 방식이었던 것이다.²¹⁾ 이와 동시에 당의 지배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반당적 성향이 강한 주민들을 당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른바 사민 정책(徙民政策)을 추진함으로써 당의 지배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의 부흥 투쟁과 이를 지원하는 신라의 대당

투쟁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의 당군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안동도호부의 치소(治所)를 요동으로 이동시키는 676년 이후로는 요동지역에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요동지역으로 세력권을 한정시킨 당은 일단 요동지역을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당의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과 변경 지역의 북방 민족 침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내우외환의 상황이 요동에서의 당의 활동을 크게 제약한 것이었다. 특히 토번은 676년 윤4월에 전주(鄆州)·곽주(廓州)·하주(河州)·방주(芳州)로 쳐들어와 당이 대대적인 토벌군을 출동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그 후로도 당의 변경 지역을 수시로 침공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²²⁾

요동지역의 안정적 지배는 당의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난 말갈족(靺鞨族)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말갈 부족의 대부분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후로는 특별한 통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당에 협력하여 당군이 고구려 부흥군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은 요동 일대의 고구려 유민은 물론 그 동안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대다수의 말갈 부족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요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종전의 고구려와 유사한 지배 체제가 존속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은 우선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옛고구려의 보장왕 고장(高藏)을 677년 2월에 요동도독(遼東都督)에 임명하여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당으로 이주시

킨 2만 8천여 호의 고구려 유민들도 다시 요동지방으로 이주시켜 조선왕에 임명된 고장의 지배를 받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때 당의 사농경(司農卿)으로 있던 백제의 왕자 부여융도 웅진도독에 임명되어 대방왕(帶方王)으로 책봉되면서 백제 유민들을 위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보장왕 고장이 조선왕으로 책봉되어 요동지역을 통치하게 되자 본래 요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도 함께 편입되었다. 따라서 비록 당의 통제를 받기는 하나 종전에 비해 다소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비교적 독립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당은 요동에 있던 안동도호부의 치소(治所)를 요동 동북쪽에 위치한 신성(新城)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보장왕 고장의 위상을 올려주고 고구려 유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²³⁾ 이로써 당은 변경을 접하고 있는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반당투쟁(反唐鬪爭)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도 무력 진압이 용이하게 되었다.

신라의 끈질긴 대당 투쟁과 동북아 대륙의 정세 변화에 따라 당은 대동강 이남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고구려 유민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 새로운 반당투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당은 예상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안동도호부에는 일찍이 당에 투항하였던 연개소문의 장자인 연남생(淵男生)이 보장왕 고장과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이를 당에 보고하는 당의 관료(官僚)로서의 임무를 띠고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고구려 사회의 실정에 매우 밝으면서 친당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으므로 당의 요동지배와 고장의 고구려 유민 통치에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조선왕 고장을 중심으로 하여 도독·자사·현령(縣令) 등에 임명된 고구려인 관리에 의한 자치적 행정 운영과 안동도호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관리에 의한 감시 감독 체제가 요동지역의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연남생이 비록 당의 관원(官員) 자격으로 안동도호부에 파견되기는 하였으나 당의 기본 정책이 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미정책(羈縻政策)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당의 간섭은 점차 약화되고 고구려 유민들의 자치권은 종전에 비해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⁴⁾ 즉 당은 연남생을 파견하여 요동에 주재시킴으로써 기미정책의 완화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3) 소고구려국의 탄생

요동도독에 임명되어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된 보장왕 고장(高藏)은 요동의 고구려인들이 거주하는 안동도호부 소속의 모든 주(州)를 다스리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옛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그는 요동으로 돌아오자 요동의 고구려인들과 손잡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은밀하게 반당투쟁(反唐鬪爭)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장은 고구려 유민들은 물론 이들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과거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친고구려계 말갈족인 속말말갈(粟末靺鞨)을 포섭하여 당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계획을 극비리에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장의 이러한 계획은 안동도호부에 파견된 당의 관리들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그들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안동도호부를 통하여 고장의 움직임을 감시해 오던 당은 고장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고구려 유민들을 당의 내륙지방으로 다시 이주시켰다. 그 결과 고장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들이 추구하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꿈은 준비 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따라서 고구려 유민을 위무하기 위해 당이 고장에게 상징적으로 내려 주었던 요동도독과 조선왕의 지위는 물수당하였으며, 조선왕의 직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고구려 유민은 물론 옛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말갈족마저 통합하여 세력화할 수 있는 존재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무렵 실제로 말갈의 7대 부족 중에서 속말말갈과 백산말갈(白山靺鞨)은 고구려 유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으로서는 그들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그리하여 조선왕의 지위를 상실한 요동도독에는 이미 당의 내륙 지역에 거주하면서 친당 세력으로 전향한 고구려 유민 중에서 발탁되었던 것이다.²⁶⁾

이때 당으로 소환된 보장왕 고장은 내륙 깊숙한 공주(邳州 : 사천성 공래 <郪縣>)지방으로 옮겨져 살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리고 나머지 고구려 유민들은 하남(河南)과 황하 상류의 농우(隴右 : 감숙성 선주 <鄯州>)지역과 안동(安東 : 북경)지역 등지에 분산하여 당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하였다.²⁷⁾ 따라서 보장왕 고장을 이용하여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을 무마하고 이들을 친당적 성향의 주민으로 전향시키려던 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결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은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였다. 당은 686년에 보장왕 고장의 손자인 고보원(高寶元)을 조선왕(朝鮮郡王)으로 책봉하여 요동지역에 상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당 조정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못하였기 때문에 중지되고 말았다. 그후 698년에도 고보원을 좌옹양대장군(左鷹揚大將軍)에 임명하고 충성국왕(忠誠國王)으로 책봉하여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을 통제하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당의 내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은 698년에 이르러서는 안동도호부를 폐지하고 이곳에 파견되어 있던 당의 관원들을 모두 소환함으로써 대고구려 유민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보장왕 고장의 아들 고덕무(高德武)를 699에 안동도독(安東都督)으로 임명하였다. 당은 고덕무에게 안동도호부의 소관사무를 인수한 후 요동지방에 상주하면서 현지 고구려 유민들을 위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이미 고구려 왕조가 멸망한 후로 30여 년이나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고구려 유민들은 모두 흩어졌고, 따라서 안동도호부가 지배할 수 있는 고구려 유민의 수도 크게 감소해 있어 반당 투쟁을 전개할 우려도 없어진 상태였다.²⁸⁾

당이 안동도호부를 폐지한 것은 같은 해인 698년에 고구려 유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발해(渤海)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로 등장한 것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결과였다. 안동도독으로 부임한 고덕무가 다스릴 요동지역에 고구려 유민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결정적인 이유도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의 영역 안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동도호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안동도독 고덕무를 정점으로 하는 안동도독부(安東都督府)의 자율권은 크게 강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장왕의 아들인 고덕무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위상은 그의 아들이며 보장왕의 손자인 고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덕무를 안동도독에 임명한 것은 결국 신생 국가인 발해를 견제하는 세력 집단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내포된 이이제이 정책의 일환이었다.

안동도독 고덕무는 당에서 파견된 도호부 관원들의 감시와 통제가 배제되었으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 환경에서 안동도독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는 비록 고구려 유민들의 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폭넓게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으므로 과거 안동도호부가 관할하던 요동지역에서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즉 안동도독부는 고구려 유민의 자치 정부로서 요동(遼東: 遼陽)을 수도로 하여 고구려 왕족인 고덕무가 통치하였으므로 앞서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소고구려국(小高句麗國)’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²⁹⁾

2. 통일왕조의 성립

(1) 백제 영토의 지배

신라는 660년에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 왕조를 멸망시키기는 하였으나 부흥 세력의 끈질긴 저항과 이들을 지원하는 왜(일본) 및 당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백제 영토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특히 당이 백제 영토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노출시킴에 따라 당초 신라의 끈질긴 청병 외교로 나당 연합군을 편성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목표마저 송두리째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신라가 전쟁의 목표로 삼은 것은 일차적으로 백제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반면에 당은 신라가 백제 영토를 지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대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고구려 영토의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영토 분할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나당간에 군사 동맹을 체결하던 그 당시의 기본 방침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라를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로 명명하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에 임명하여 당의 번국(藩國)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라의 위상을 크게 저락시켰다. 이에 신라는 대고구려 전쟁을 앞두고 당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대당 적개심을 억제하면서 백제 부흥군을 제압하여 백제 고토를 잠식해 들어갔다. 백제 부흥군과 당군을 대상으로 무력 항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나라 조정에 대하여 최대한 선린 외교를 추진하는 화전 양면(和戰兩面)의 실리 위주 정책을 구사하는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660년에 백제 왕조를 멸망시키고 1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한 671년 8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라가 설정하였던 전쟁 목표에 접근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과거 백제의 중심지 사비성(泗沘城 : 부여)에 신라의 새로운 행정구역인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고 아찬(阿飡) 김진왕(金眞王)을 도독으로 파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이 백제 고토를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웅진도독부는 이 소부리주의 설치와 동시에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해체되고, 백제의 고토는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³⁰⁾

웅진도독부를 해체하고 소부리주를 설치한 이듬해인 672년에 신라는 백제 주민들로 편성된 백금서당(白衿誓幢)을 설치하였다. 진평

왕대에 설치된 녹자색(綠紫色)으로 상징되는 녹금서당(綠衿誓幢 : 583)과 자록색(紫綠色)으로 상징되는 자금서당(紫衿誓幢 : 625)에 이어서 백청색(白靑色)으로 상징되는 세 번째 조직인 백금서당을 백제 주민들로 편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번째 서당인 청백색(靑白色)의 청금서당(靑衿誓幢)을 687년(신문왕 7)에 역시 백제 잔민(殘民)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함으로써 축차적으로 완성되는 중앙 군단인 9서당 중에서 2개 서당을 백제인으로 편성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 주민에 대한 통제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비로소 체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새로 확장된 영토를 국왕의 통치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곧 지방행정 조직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장악하는 문제로 직결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통일전쟁 이전부터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그곳에 주(州)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지방 통치 조직의 기본 단위로 하고 그 하위 행정 단위로 군(郡)과 현(縣)을 두었었다. 그리고 685년(신문왕 5)에 각종 조직과 기구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정치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전국을 9주(州)로 구획하였다. 삼국의 고토에 각각 3개 주를 둔다는 방침에 따라 옛 백제 땅에 3개 주를 설치하였다. 즉 광주(光州)를 치소로 하는 무진주(武珍州)와 전주(全州)를 치소로 하는 완산주(完山州), 그리고 공주(公州)를 치소로 하는 웅천주(熊川州)를 설치한 것이다.³¹⁾ 이들 3개 주는 교통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지방 행정이 편리하도록 획정되었다.

백제 고토의 가장 남쪽에 설치한 무진주에는 15개 군(郡)을 두고 그 산하에 43개 현(縣)을 설치하여 중앙의 행정조직 체계속으로 흡수하였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완산주에는 10군에 31개의 현을 설치하였으며, 차령(車嶺) 이남의 웅천주에는 13개 군에 29개 현을 설치하였다.³²⁾ 이와 같이 3개 주를 모두 38군 103현으로 세분함으

로써 백제 전역을 행정적으로 장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³³⁾ 따라서 소경(小京)을 포함하는 각 주(州)와 군(郡) 및 현(縣)에는 중앙의 상위급 관원들을 파견하여 현지의 하위 관원들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통제를 받는 하위급의 행정 관원들은 해당 지역의 현지 주민들 중에서 친신라적 성향이 강한 자를 선별하여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중앙에서 파견하는 상급 관원들에게는 중앙의 관등 체계에 의한 위계(位階)를 부여하였으나 하급의 행정 실무자들에게는 별도로 설정한 외위(外位)에 따라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백제 고토에 대한 중앙 정부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³⁴⁾

또한 통일 과정에서 확보된 점령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지배 계층을 신라의 지배 체제 속으로 흡수하는 문제도 해당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확고하게 장악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지배 계층의 향배(向背)는 하층 피지배 계층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라는 백제의 지배층들이 백제 왕조 아래서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관등(官等)을 673년(문무왕 13)에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신라의 신분체계속으로 흡수하여 재편성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제 멸망 초기에 신라로 투항한 장수들에게 6두품의 관등인 일길찬(一吉飡: 제7관등)을 주어 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밖에 귀족들은 5두품(頭品)에 속하는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를 정점으로 하여 이하의 신분으로 편입시켰다.³⁵⁾ 그리고 거주지역도 이동시켜 685년에 청주(淸州)에 설치한 서원소경(西原小京)과 남원(南原)에 설치한 남원소경(南原小京)에 옮겨 살도록 조치하였다.³⁶⁾ 완산주의 남원에 설치한 남원소경과 웅천주의 청주에 설치한 서원소경은 685년(신문왕 5)에 신라가 삼국 통일 전쟁을 끝내고 전반적

인 정치 조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신라는 이와 같이 주요 지역에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왕경인 경주(慶州)가 통일신라의 수도로서 전체 영토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진흥왕대인 557년에 충주에 중원소경이 설치된 이후로 원주의 북원소경(678), 김해의 금관소경(680)에 이어서 신문왕대에 서원 및 남원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130여 년 간에 걸쳐 5소경 체제를 비로소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³⁷⁾ 백제의 5방 중에서 남방에 속하는 남원과 삼국간 무력 충돌이 빈번하였던 군사 요충지인 충주에 각각 소경을 설치하여 군사 및 교통의 요지는 물론 문화와 문물이 교류하는 중심도시로 활용함으로써 백제 고토에 대한 통치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³⁸⁾

백제 고토에 주둔하여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군사 조직으로는 1개 주(州)에 1개 정(停)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방군(地方軍)인 10정(停) 중에서 3개 주에 3개 정을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수도에 주둔하는 중앙군(中央軍)인 9서당(誓幢)과 9개 주(州)에 분산 주둔하는 10정이 통일 후에 신라 군사력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제 고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무진주의 현웅현(玄雄縣: 나주 <羅州>)에는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을 설치하고 중앙에 위치한 완산주의 청웅현(靑雄縣: 임실 <任實>)에는 거사물정(居斯勿停)을 설치하였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웅천주의 청정현(靑正縣: 청양 <靑陽>)에는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을 설치하여 백제 고토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들 3개 정은 기병(騎兵)으로 편성하였으나 보병(步兵)으로 편성한 만보당(萬步幢)은 1개 주에 각각 2개 당씩 배치하였다. 따라서 백제 고토에는 6개 만보당을 조직하여 배치하였던 것이다.³⁹⁾ 이들 만보당을 비롯하여 여갑당(餘甲幢)과 같은

기타 군사 조직은 대체로 민병대적(民兵隊的)인 성향이 강한 조직이었으므로 지방의 치안유지 및 지역 방위를 위하여 활용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옛 백제의 영역을 3개 주로 분할한 다음 일반적인 지방행정과 군사 조직을 양대 축으로 하면서 2개 주에 다시 서원소경(溍州)과 남원소경(南原)을 각각 설치하여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남원소경은 금마저의 고구려 유민들을 분산하여 이주시킴으로써 유민 세력을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하로 끌어들이는데 활용되었다. 고안승과 같은 고위층 왕족을 왕경으로 불러 올려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킨 것과는 달리 나머지 지배층 세력들은 소경으로 이주시켜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회유와 통제 및 감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였다.⁴¹⁾

신라는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후 665년(문무왕 5) 무렵에 이미 백제 고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무진주 지역은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계속된 백제 부흥군의 저항과 당군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지방 통치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은 9주를 완비함으로써 가능하였다.⁴²⁾ 신라는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후로 25년이 경과한 685년에 이르러 백제 고토를 명실상부한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여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고구려 영토의 지배

신라는 당과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7세기 중반 무렵에 이미 동쪽으로 오늘날의 원산만(元山灣) 이남 지역을 장악하여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들 지역을 점령한 직후에 신라는 춘천(春川)을 치소(治所)로 하는 수약주(首若州)와 강릉(江陵)을 치소로 하는 하서주

(河西州)의 상단부에 편입시켜 행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당의 군사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벌인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결국 서쪽의 대동강(大同江) 하구에서부터 동쪽으로 원산만에 이르는 선의 이남 지역을 새로 확보하여 영토로 편입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신라는 통일 이전에 비하여 3배 정도나 넓어진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⁴³⁾

이에 신라는 통일 전쟁으로 장악한 새영토에도 전례에 따라 주(州)를 설치하고 이를 지방 통치의 기본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그 아래 군(郡)과 현(縣)을 세분하여 하급 행정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685년(신문왕 5)에 각종 조직과 기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전국을 9주(州)로 구분하였는데, 백제 고토와 같이 고구려 고토에도 서쪽의 한산주와 동쪽의 하서주, 그리고 그 중앙에 위치한 수약주로 확정하였다. 이들 3개 주는 교통상의 편의는 물론 지방 행정이 편리하도록 구획한 것이었다. 이들 행정 구역은 동서의 길이보다 남북으로 길게 구획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의 서쪽으로 대동강 이남 지역과 북쪽의 원산에서 남으로 춘천과 연결되는 선의 이서 지역에 설치한 한산주(漢山州)는 광주(廣州)를 치소로 하여 남쪽으로 충주(忠州)에 설치한 중원소경(中原小京)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 한산주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임진강 이북 지역은 신라가 칠중성 전투를 비롯하여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당군을 몰아내고 승리한 대가로 차지한 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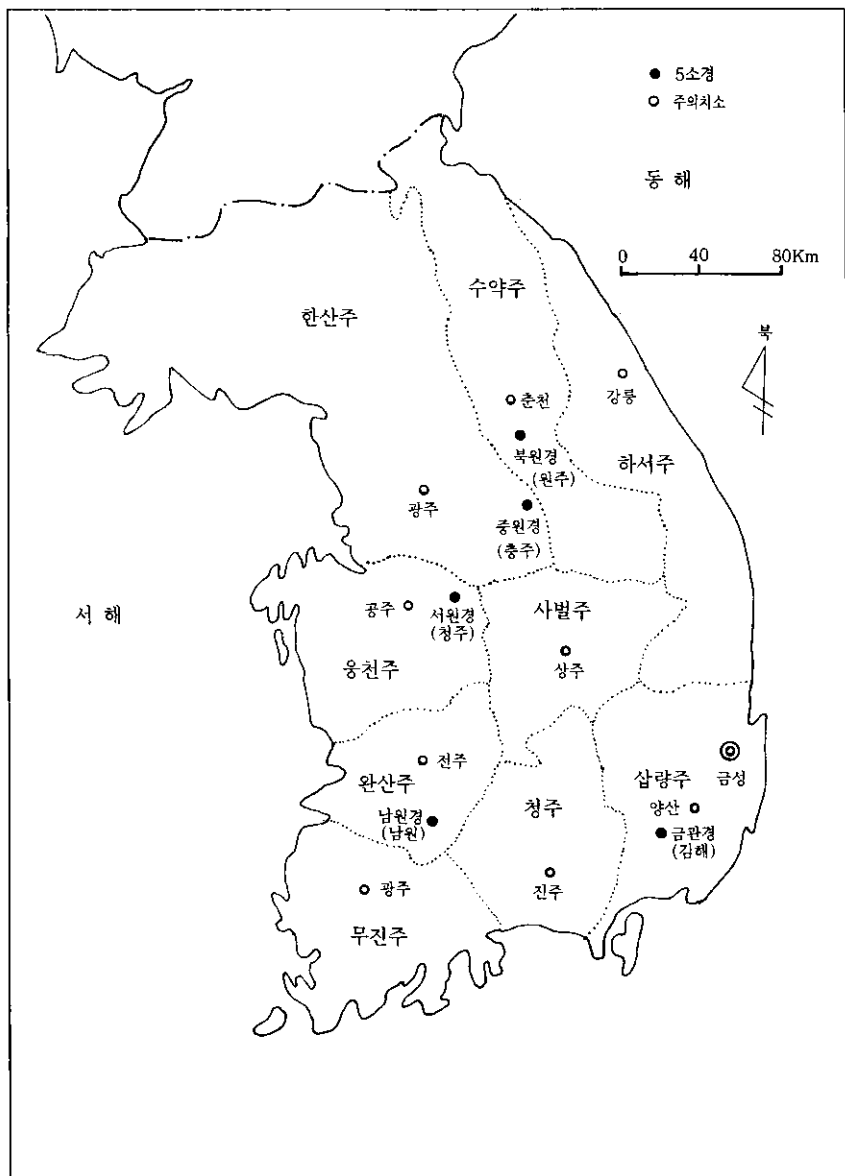
이같이 광범위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신라는 각종 행정 체계나 군사 제도 등을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고구려 고토의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한산주에는 9개 주(州) 중에서도 가장 많은 28개 군(郡)을 설치하였다. 주의 규모가 가장 광

범위하였으므로 그 산하에는 역시 가장 많은 49개의 현(縣)을 두는 개편 작업을 단행하였다.⁴⁴⁾ 그리고 동해안을 접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구획된 하서주는 다시 9개 군(郡)으로 구분되고 그 휘하에는 26개로 세분된 현(縣)을 두고 있었다. 하서주와 한산주의 중간에 역시 남북으로 길게 구획된 수약주는 12개 군과 26개 현으로 개편하였다.⁴⁵⁾ 이와 같이 3개 주를 49개 군과 101개 현으로 구획함으로써 그 동안 신라가 당과 싸워서 장악한 고구려 고토를 명실상부한 신라 영토로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산주의 중원소경과 수약주의 북원소경을 포함하는 주(州)와 군(郡) 및 현(縣)에는 백제 고토에서의 경우와 같이 중앙의 상위직 관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통제를 받는 하위급의 행정 관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친신라적 성향이 강한 주민들을 선발하여 임용하였다. 따라서 상급 관원들에게는 중앙의 관등을 부여하고 하급의 실무자들에게는 역시 별도의 외위(外位)를 설정하여 위계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라 중앙 정부는 고구려 고토를 행정적으로 장악하여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⁴⁶⁾

그리고 통일 후에 고구려의 지배 계층의 향배(向背)가 하층 피지배 계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구려 멸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이나 관등(官等)을 686년(신분왕 6)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신라의 신분체계 속으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고안승과 같은 왕족은 대체로 신라의 진골(眞骨)로 편입시켜 왕경인 경주에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지배층들은 6두품에 해당하는 제7관등인 일길찬(一吉漣) 이하의 신분으로 편입하여 557년에 충주(忠州)에 설치한 중원소경(中原小京)이나 원주(原州)에 설치한 북원소경(北原小京)으로 이주시켰다. 신라는

통일신라의 9주 5소경(685)



고구려 유민들을 우대하여 백제 유민들의 최고 관등인 제10관보다 3개 관등이 높은 제7관등까지 임용함으로써 차등을 두기도 하였다.⁴⁷⁾

신라는 백제 고토의 서원소경이나 남원소경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고토의 3개 주에 2개의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경주(慶州)가 수도로서 영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지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 고토에 2개 소경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김해에 금관소경(680), 청주에 서원소경(685), 남원에 남원소경(685)을 각각 설치하여 확장된 영토에 5소경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백제 고토는 물론 고구려 고토에 대해서도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통일 후에 신라는 수도에 주둔하는 중앙군(中央軍)인 9서당(誓幢)과 지방군(地方軍)인 10정을 9개 주(州)에 주둔시켜 군사력의 근간으로 삼았다. 중앙의 고구려계 주민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9서당의 편제를 이용하였는데, 683년(신문왕 3)에 고구려 유민들로 황적색(黃赤色)의 황금서당(黃衿誓幢)을 편성하고 친고구려계 말갈족인 흑수말갈로는 흑적색(黑赤色)의 흑금서당(黑衿誓幢)을 함께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고안승을 따르던 고구려 부흥군 계통의 유민들로 벽황색(碧黃色)의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흑색(赤黑色)의 적금서당(赤衿誓幢)을 686년(신문왕 6)에 함께 설치하였다. 신문왕 3년(683)부터 7년(687)에 이르는 5년 동안에 5개의 서당을 설치하여 9서당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백제와 고구려계 주민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고구려 고토의 치안과 방위를 위해 3개 주(州)의 중심지인 치소(治所)와 가까운 곳에 4개 정(停)을 편성하여 배치하였다. 지방군의 배치에 있어서도 한산주(한주)에는 1개 주에 1개 정을 설치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2개 정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9개 주에

10개 정이 설치된 것이다. 한산주는 대동강 이남과 아산만(牙山灣) 이북의 서해안쪽 한강 하류 평야 지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상의 요지이기도 한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천(利川)의 황무현(黃武縣)에 남천정(南川停)을 설치하고 여주(驪州)의 황효현(黃驍縣)에 골내근정(骨乃斤停)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수악주(歙州)에는 홍천(洪川)의 녹효현(綠驍縣)에 벌력천정(伐力川停)을 설치하고, 하서주(溟州)에는 청송(靑松)의 녹무현(綠武縣)에 이화혜현(伊火兮縣)을 설치함으로써 대동강 이남 지역인 고구려 고토의 남서부를 군사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장악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고토인 3개 주에는 10정 이외에 5주서(州誓)를 설치하였다. 가야 고토인 진주(晋州)에 청주서(靑州誓)를 설치하고 백제 고토 전주(全州)에 완산서(完山誓)를 설치하였으나, 고구려 고토에는 광주(廣州)에 한산주서(漢山州誓), 춘천(春川)에 우수주서(牛首州誓), 강릉(江陵)에 하서주서(河西州誓) 등 3개 주서를 설치하였다.⁴⁸⁾ 이는 5주서 중에서 3주서를 배치한 것으로서 특히 3개 주에 대한 중앙 정부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한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보병인 만보당(萬步幢)을 9개 주에 각각 2개 당씩 배치함으로써, 고구려 고토의 3개 주에는 모두 6개의 만보당을 설치하였다.

한산주의 북단이 변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동쪽의 수악주(首若州)가 원산만쪽 일부 지역을 담당하였으므로 4개의 만보당으로 북쪽 변경 지역을 전담하도록 하여 방위력을 제고시켰다. 또한 국경 지역에 해당하는 한산주와 수악주는 물론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하서주에는 별도의 부대로 삼변수당(三邊守幢)을 배치하여 국경 수비를 전담하도록 하였다.⁴⁹⁾ 이와 같이 신라는 한산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에 여러 종류의 군사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고구려 고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3. 통일왕조의 민족의식 형성

(1) 자주의식의 성장

신라는 대당 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 다음 백제 왕조를 멸망시킴으로써 국가의 숙원을 제거한 무열왕 김춘추는 661년 6월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김춘추를 신라 중흥의 위대한 국왕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당의 영웅적 군주로 추앙되던 이세민(李世民)과 동일한 묘호(廟號)를 사용하여 ‘태종(太宗)’으로 명명하였다. 즉 당의 태종 이세민과 대등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군주라는 자주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려진 묘호였다.

그러나 이 묘호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인 692년(신문왕 12)에 당 태종의 손자인 중종(中宗)으로부터 사용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항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당의 중종은 사신을 통해 보낸 서신에서 먼저 당 태종 이세민의 탁월한 공로를 찬양하면서 이 때문에 ‘태종’을 묘호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므로 김춘추의 묘호를 이세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질책하면서, 즉시 개칭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역시 태종 무열왕의 손자인 신문왕은 다음과 같이 조부 김춘추의 위업을 찬양하면서 태종으로 묘호를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⁵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선왕도 어질고 덕망이 있었으며, 더욱이 생전에는 김유신(金庾信)이라는 충직한 신하를 얻어 함께 국사에 힘써 삼한(三韓)을 통일하였은즉 그의 공로와 업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던 때에 모든 백성이 추모하여 묘호를 추존한 것이다.”

신라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춘추의 업적이 당 태종 이세민의 업적과 대등하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묘호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는 당의 사신에게 이 내용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복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당의 압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묘호 문제는 그후로 더 이상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당의 중종도 신라의 확고한 신념에 공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나당 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삼국(三國)의 동질성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동류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즉 이는 동류의 세 집단이던 한(韓)의 비로소 하나로 통합하였다는 이른바 ‘삼한일통(三韓一統)’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삼한 천하를 통합하여 9주를 완성한 군주의 위대한 업적을 당의 태종과 비견하여 손색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무열왕의 묘호를 ‘태종(太宗)’으로 선정하기도 한 것이었다.⁵¹⁾

또한 신라는 삼국의 통일을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단일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백제와 고구려 및 말갈의 주민들까지도 포용하는 제반 의식을 자주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였다. 나당 연합군을 편성하기 이전의 신라 영토와 백제 고토 전역을 각각 3개 주로 나누고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고토 남단부를 역시 3개 주로 구획함으로써 9주를 통일신라의 천하로 인식하여 9주의 자연신(自然神)에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내도록 제도화하였다. 9주의 주요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을 지정한 다음 그 규모에 따라 대사

(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하여 차등을 둔 것이다.⁵²⁾

대사를 지내는 삼산(三山)은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한 신라 수호신의 산악이며, 중사는 오악(五岳)·사진(四鎭)·사해(四海)·사독(四瀆)·기타 6개소의 자연신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사는 24개의 산악에 지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중사와 소사를 지내는 장소는 신라 영토 전국에 분포하였으며, 특히 중사에 해당하는 오악은 통일 이전에 경주를 중심으로 존재하던 전통적인 오악의 개념을 통일 이후로 당의 세력을 축출하면서 전국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동악인 토함산(吐含山)을 비롯하여 가야 고토에는 남악인 지리산(智異山), 백제 고토에는 서악인 계룡산(鷄龍山), 고구려 고토에는 북악인 태백산(太白山)을 오악으로 지정하고 그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올렸다.⁵³⁾ 이와 같이 중사인 오악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앙 대상의 동일성과 지역적 일체감을 강조하여 내부적 단결을 공고히 하였다. 즉 이민족인 당과의 차별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삼한인(三韓人)으로서의 자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라는 국내에서 당군과 전투를 벌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당의 조정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실리 위주의 외교에 주력하였다. 이미 동남아 지역은 물론 서역의 여러 나라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대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당의 수준 높은 선진 문화를 도입하여 국내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당의 국내에서도 신라에 대한 감정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다.

신라의 대당 외교를 측면에서 크게 지원한 집단은 유학생들이었

다. 이들 대당 유학생들은 당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교(佛敎)나 유학(儒學)을 배우고 이를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신라의 문화 수준을 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학하는 동안 당의 고승(高僧) 및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사제지간(師弟之間)이나 동문수학생(同門修學生)으로서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양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선린 외교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유학생 중에서 당의 과거(科擧)에 합격하고 벼슬을 받아 활약하는 경우도 있어 신라의 대외적 위상을 크게 높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하여 통일신라는 당의 문화 수준에 손색이 없는 선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질서 속에 뚜렷한 존재로 부각되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2) 동족의식의 성장

신라는 7세기 중반까지 백제나 고구려를 상대로 하여 군사적으로 대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린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민족 동질성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당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부터 삼국간에 공통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삼국민들과는 전혀 이질적인 당군을 상대로 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이 참전한 가운데 신라가 중심이 되어 당군 축출 전쟁을 전개하면서부터 동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⁵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왕조를 멸망시킨 이후로 악화된 삼국민 간의 대립 감정을 당군 축출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고구려 및 백제 유민들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敵對感)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당에 대항하는 집단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동족(同族)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당군을 축출하고 백제의 전토와 고구려 남쪽의 일부 지방을 장악하여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고, 특히 이민족(異民族)인 당군을 몰아내고 자주권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민족적 자긍심이 더한층 고양되었던 것이다.

제 6 장 나당 전쟁의 영향

1. 신라의 정치·군사에 미친 영향

(1) 국왕 전제권의 강화

1) 왕권 강화의 배경

신라의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당군과의 전쟁을 주도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세력은 진골(眞骨) 출신의 태종 무열왕과 가야계(加耶系)의 후손으로서 역시 진골 출신인 김유신(金庾信)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집단이었다. 특히 문무왕은 김춘추계와 김유신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나당 연합군에 의한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하여 왕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무열·문무·신문왕으로 이어지는 무열왕계의 왕위 계승이 고착되면서 종래의 전통적인 귀족 연합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던 정치체제는 점차 붕괴되어 갔다. 따라서 국왕의 전제권이 강화되면서 관료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¹⁾

신라는 왕권의 전제화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유교적 정치 이념을 도입하여 이를 정착시켜 나갔다. 예컨대 종래의 불교식(佛敎式) 시호(諡號)를 사용하지 않고 무열(武烈)·문무(文武)·신문왕(神文王) 등의 유교식(儒敎式) 시호를 사용한 것은 그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는 중국의 황제(皇帝)가 가지는 전제주의적 성격을 도입함

으로써 왕권의 전제화에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중국 중심의 유교적 정치 질서에 동참함으로써 진골 귀족 세력이 가진 토착적 기반을 약화 내지 분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²⁾

그 결과 전통적인 화백 회의(和白會議)도 그 기능이 약화되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화백 회의 의장으로서 귀족 세력의 대변자적인 위치에 있던 상대등(上大等)의 세력보다 왕명에 따라 실제 정부를 처리하는 집사부(執事部)가 최고의 행정부서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책임자인 중시(中侍)의 권한도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전통적으로 국왕의 동생이 임명되어 국왕에 준하는 지위를 누렸던 갈문왕(葛文王) 제도도 소멸되어 점차 집사부의 우두머리인 중시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³⁾ 그로 인하여 국왕은 제2인자인 갈문왕을 집사부의 중시로 임명하여 행정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전제적 권위를 강화시켜 나갔다. 즉 국왕과 혈연적으로 측근인 인물을 행정 기구의 요직인 집사부의 중시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왕권 수호의 방파제(防波堤) 내지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왕권 강화의 동반자로 삼았다. 이들은 왕권의 성장에 편승하여 새롭게 등장한 귀족 집단으로서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⁴⁾

진골 귀족 출신인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업적으로 국왕의 위상이 크게 고양되자 문무왕을 계승하여 7세기 말경에 즉위한 신문왕(神文王: 681~692)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전제 왕권을 더한층 강화하려고 하였다. 통일 과업을 완수한 문무왕이 681년 7월에 죽고 그 뒤를 계승하여 신문왕이 즉위한 후로는 내부의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에 더한층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데는 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신문왕이 즉위하던 681년 8월에 일어난 김흠돌(金欽突)의 반란 사건이었다.

소판(蘇判) 김흠돌은 문무왕대에는 태자비(太子妃)의 아버지로서 진골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문무왕대부터 추진되어 오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른 불만 세력들과 결탁하여 신문왕이 즉위하던 그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나당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등 통일 왕국의 국왕으로서 활약하던 문무왕이 죽고 태자인 신문왕이 즉위한 지 불과 1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왕권 교체로 인한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당시 상대등(上大等)에서 밀려나 불만에 차 있던 김군관(金軍官) 등과 공모하여 봉기하였던 것이다.

김군관은 문무왕대의 장군으로서 통일 전쟁에 참전하여 활약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군사 관련 최고 관직인 병부령(兵部令)에 올랐고, 680년(문무왕 20)에는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그는 상대등에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신문왕이 즉위하자 곧바로 관직에서 축출되었으므로 재기의 기회를 엿보다가 반란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이밖에 김흠돌의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도 대부분 문무왕과 신문왕대에 연속적으로 추진되던 왕권 강화 정책에 희생되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가던 반무열왕계의 진골 귀족들이었다.⁵⁾

2) 왕권 강화의 방향

진골 귀족 세력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즉위한 무열왕계가 왕권 강

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문무왕대에 이르러서였다. 전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된 왕권 강화의 방향은 반무열왕계 진골 귀족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사회를 재편성하여 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⁶⁾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극형에 처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진골 귀족 세력을 제거하여 발본색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할 세력으로 신문왕과 제휴한 것이 6두품 중심의 관료 세력이었다. 신문왕은 이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통일 왕조 시대에 걸맞는 국왕의 전제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정치 및 군사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보완하였다. 전왕인 문무왕대에 추구하던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은 곧 진골 귀족들이 가진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박탈하기 위한 군사 제도의 개편에 주안을 두고 추진되었던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다시 이들 국가를 재건하려는 부흥 세력을 진압하고 또다시 나당 전쟁을 치러야 했던 신라는 장기간 계속된 전쟁의 와중에 성장한 귀족들의 군사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귀족들의 군사력은 곧 왕권 강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 장애 요인을 제거하려는 국왕의 개혁 정책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 김흠돌을 중심으로 하는 진골 귀족 집단이었다.

따라서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혁도 군사 제도의 정비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직후인 그해 10월에 당장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하는 군사 조직인 시위부(侍

衛府)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시위부는 국왕을 측근에서 경호 내지 시위하던 전통적 군사 집단을 624년(진평왕 46)에 대감(大監) 6명을 최고 지휘부로 하는 친위군 조직으로 재편성한 것인데⁷⁾ 그후로 30여 년이 경과한 651년(진덕여왕 5)에는 대감 6명·대두(隊頭) 15명·항(項) 36명·군사 117명을 3개 제대(梯隊)로 나누어 확대 개편되었다.⁸⁾ 이와 같이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적인 면에서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執事部)를 같은 해에 함께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⁹⁾

그런데 시위부의 시위감(侍衛監)을 681년 10월에 혁파하고 6명의 장군을 6명의 대감보다 상위직에 설치함으로써 시위부를 강화하는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¹⁰⁾ 즉 시위부의 고위직에 6명의 장군(將軍)이 새로 임명되어 국왕의 전제권 강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주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시위부가 6명의 장군을 포함하여 총원 180명에 불과하여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으므로 귀족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왕을 보호하고 전제권을 옹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

이와 아울러 수도권에 주둔하는 중앙군도 신설하거나 새로이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국왕의 전제권을 옹위하는 군사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귀족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던 중앙의 6정(停)을 개편하여 전제 왕권을 옹호하는 9서당(誓幢)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왕경(王京)을 방위하는 기능을 가진 9서당의 황금서당(黃衿誓幢)과 흑금서당(黑衿誓幢)을 683년(신문왕 3)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686년에 백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설치하고 이듬해(687)에 청금서당(靑衿誓幢)을 설치함으로써 9개 중에서 5개 서당을 채워중에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들 서당은 왕경에 주둔한 다른 부대들보다 대규모 조직으로 편성되었으

며, 통일 이전에 조직된 부대들이 가졌던 귀족적 전통이 제거되고 국왕에게 직속되어 충성하는 부대 조직의 성격을 띠고 문무왕대의 정비 과정을 거쳐 신문왕대에 이르러 실질적인 완성을 보게 된 것이었다.¹²⁾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는 진골 귀족 세력의 무력 기반을 붕괴시키고, 국왕을 호위하는 부대와 국왕에게 충성하는 중앙군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방향으로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해 나갔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관료제도(官僚制度)를 개혁하여 진골 귀족들의 귀족적 성향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에 관료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전제 왕권 중심으로 재편성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료 세력은 특히 문무왕대의 왕권 강화 정책에 편승하여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 이때 두각을 나타낸 집단은 진골보다 하위 골품인 6두품 계층이었다. 이 같은 6두품 계층의 관료로서의 정치적 성장에 대하여 진골 귀족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고, 양대 세력간에는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문무왕 재위 21년 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중앙 정부의 관제 정비 작업은 신문왕대에도 계승되었다. 우선 신문왕은 관료제를 발전시키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화부(位和府)를 개편하고 국학(國學)을 설치하였다.¹³⁾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이듬해(682) 4월에 관료의 선발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위화부령(令) 2명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관료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임무를 수행할 부서로 국학을 세우고 경(卿) 1명을 두어 주관하게 하였다.¹⁴⁾ 686년(신문왕 6)에 예작부(例作府)의 설치를 끝으로 하여 중앙 통치 조직의 정비를 일단락지었다. 신문왕대의 예작부 설치를 마지막으로 하여 정비된 중앙 통치 조직은 이후 통일왕조 중앙 통치 체제의 골간이 되었다.¹⁵⁾

이미 왕권을 크게 신장시킨 신문왕은 토지제도(土地制度)의 개편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관료 세력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687년(신문왕 7)에 관직을 기준으로 하여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689년에는 녹읍(祿邑)을 혁파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 개혁의 성과를 심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골 귀족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6두품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된 관료 세력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⁶⁾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들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던 합좌기관인 화백 회의(和白會議)는 크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부터 이미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귀족 회의 의장으로서의 상대등(上大等)의 지위도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 후의 신라는 화백 회의를 대신하여 집사부(執事部)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를 최고의 관부(官府)로 발전시켜 나갔다. 651년(진덕여왕 5)에 품주(稟主)를 모체로 하여 개편된 집사부는 위로 국왕을 받들고 아래로는 일반 행정 관부를 통제하여 국왕과 관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그 수장인 중시(中侍)가 곧 행정 관부의 수반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왕은 중시를 통하여 왕권을 더한층 전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그리고 집사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 관부에 소속되어 실무를 집행하는 관원의 수를 증가시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병부(兵部)·조부(調部)·창부(倉部)·예부(禮部)·승부(乘府)·사정부(司正府)·예작부(例作府)·선부(船府)·영객부(領客府)·위화부(位和府)·좌우지방부(左右理方府) 등의 부서에 관원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

른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신문왕은 685년에 제4관직인 사지(舍知)를 집사부에 2명, 조부에 1명을 설치함으로써 5단계 관직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다른 부(部)와 부(府)로 확산되어 통일 신라의 관직 체계가 발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⁸⁾

한편 중앙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 제도의 개선과 지방 세력의 통제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갔다. 특히 고구려 유민 집단을 이끌고 있던 고안승(高安承)을 683년 10월에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켜 김씨(金氏) 성을 하사하고 왕경(王京)인 경주에 와서 살도록 함으로써 반신라적 지방 세력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고안승은 고구려 유민 집단의 지도자로서 670년(문무왕 10)에 ‘고구려왕(高句麗王)’에 책봉되고 674년에는 보덕왕(報德王)에 임명되었다. 680년(문무왕 20)에는 혼인 정책에 따라 문무왕의 질녀와 혼인함으로써 신라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¹⁹⁾

신문왕의 이 같은 의도는 고구려 유민 집단을 분산시키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구려 유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²⁰⁾ 684년 11월에 고대문(高大文)이 금마저(金馬渚)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선동하여 신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반란을 모의하는 단계에서 적발하여 고대문을 처형하기는 하였으나 금마저를 점령하고 대항하는 유민 세력들과 격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 토벌군은 금마저를 함락한 후 고구려 유민들을 모두 통제와 감시가 용이한 남쪽 내륙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이는 당이 고구려 유민들의 부흥 운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중국 대륙의 깊숙한 오지로 사민시켰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국왕은 왕권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통적 진골 귀족 집단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

다. 그리하여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체제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점차 행정 실무자로 전락시켰다. 즉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전제왕권이 뿌리를 내리고 관료 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8세기 초인 성덕왕(聖德王 : 702~737)대에 이르러서는 다방면에 걸쳐 전례가 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2) 군사력의 재편성

1) 중앙 군제의 재편성

신라는 나당 전쟁이 끝나면서 특히 군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의 부대가 재편되어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통일기에 국왕을 호위하고 수도 왕경을 방위하는 임무를 띤 시위부와 가장 규모가 큰 9서당을 중앙군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삼무당(三武幢)·경오종당(京五種幢)·이절말당(二節末幢)·개지극당(皆知戟幢)·계금당(闕衿幢) 등을 이른바 중앙군단으로 편성하였다.²¹⁾ 특히 국왕을 근접 경호하는 시위부의 경우는 신문왕 즉위초에 일어난 김흠돌(金欽突)의 반란 사건을 확대 개편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즉 681년 10월에 시위감(侍衛監)을 혁파하고 장군(將軍)을 6명의 대감보다 상위직에 설치함으로써 위상을 크게 강화하였던 것이다.²²⁾

그리하여 장군 6명·대감 6명·대두(隊頭) 15명·항(項) 36명·군사 117명으로 총 180명의 시위부를 재편성하여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는 군사적 배경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시위부 요원들을 비교적 높은 신분층으로 편성하였는데, 상위직인 장군의 경우는 제9

관등인 급찬(給飡)에서 제6관등인 아찬(阿飡)을 임명함으로써 6두품 출신이 담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하위직인 군사의 경우도 제17관등인 조위(造位)에서 제12관등인 대사(大舍)를 임명하여 최소한 4두품 출신으로 구성하였다.²³⁾

이와 같이 국왕의 호위나 경호를 위한 시위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통일신라 중앙군의 주력으로 9서당(誓幢)을 편성하였다. 이미 진평왕대인 583년에 설치된 서당(誓幢)을 녹금서당(綠衿誓幢)으로 재편하면서 672년에 백제 유민으로 백금서당(白衿誓幢)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역시 진평왕대인 625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낭당(郎幢)을 677년에 자금서당(紫衿誓幢)으로 재편함으로써 문무왕 재위중에 신라인으로 조직된 2개 서당을 재편하고 1개 서당을 신설하였다.

그후 신문왕대에 5개 서당을 신설함으로써 8서당으로 조직을 크게 확대하였다. 신문왕은 683년에 고구려 유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황금서당(黃衿誓幢)과 말갈인들로 구성된 흑금서당(黑衿誓幢)을 설치하고, 686년에는 고안승이 이끌던 유민인 이른바 보덕성민(報德城民)들로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설치하였다. 이듬해(687)에는 백제 유민들로 청금서당(靑衿誓幢)을 설치함으로써 5개 서당을 재위중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문무왕대인 672년에 신라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한 장창당(長槍幢)을 693년(효소왕 2)에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 개편함으로써 비로소 9서당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중앙군의 주력인 9서당을 지휘하기 위하여 각 서당마다 60여 명의 군관을 배치하였다. 각 서당은 대부분이 장군(將軍) 2명-대관대감(大官大監) 4명-대대감(隊大監) 5명(領步兵 2명, 領騎兵 3명)-제감(弟監) 4명-감사지(監舍知) 1명-소감(少監) 23명(屬大官 13, 領步兵 4, 領騎兵 6)-화척(火尺) 23명(屬大官 13, 領步兵 4, 領騎兵 6)인

62명의 군관으로 구성되었다. 신라인 각각 59명으로 구성된 녹금·자금서당과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는 신라인 57명으로 구성되는 비금서당을 제외한 문무왕대의 백금서당과 신문왕대에 백제·고구려·말갈민으로 구성한 황금·흑금·벽금·적금·청금서당은 각각 62명으로 편성하였다.²⁴⁾

신라인이 구성원인 녹금·자금·비금서당은 장군 이하로 병졸에 이르기까지 전제 구성원을 신라인으로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백제인·고구려인·보덕성민·말갈인을 구성원으로 한 서당에는 하급 병졸은 모두 비신라인으로 하면서 복수인 상급 군관층의 주요 관직에는 신라인을 함께 임명하여 신라인 중심의 지휘 체제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나당 전쟁이 끝난 신문왕대 이후로 9서당은 국왕의 직속부대로서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²⁵⁾ 그러나 30여 년이 경과한 701년(효소왕 10)에는 구성원이 보충되지 않음으로써 비신라인들로 구성된 서당들이 대부분 소멸하고 말았다.²⁶⁾

이러한 9서당의 비신라인 서당과 같이 역시 비신라인으로 삼무당(三武幢)을 편성하였다. 9서당을 편성한 후에 나머지 비신라인 군관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였으므로 각각 당주(幢主) 16명과 감사지(監舍知) 1명, 화척(火尺) 8명이 되어 상급 군관들이 더 많이 편성된 특징이 있었다. 문무왕 15년(675)에 백제 유민으로 백금무당(白衿武幢)을 편성하고 신문왕 7년(687)에 보덕국인으로 적금무당(赤衿武幢), 9년(689)에 고구려 유민으로 황금무당(黃衿武幢)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삼무당주(三武幢主)보다도 각 삼무당에 배치한 군사당주(軍師幢主) 각 1명과 보기당주(步騎幢主) 각 2명의 관등을 높게 부여하였다. 군사 및 보기당주를 신라인으로 임명하여 삼무당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9서당과 마찬가지로

로 비신라인의 구성원이 소멸하는 효소왕 10년(701년)에는 역시 함께 소멸하였다.²⁷⁾

이밖에 군복의 빛깔에 따라 부대를 구분하여 경오종당(京五種幢)을 편성하였다. 도끼와 방패를 주무기로 하는 보병 부대로 청록(靑綠)·적자(赤紫)·황백(黃白)·백흑(白黑)·흑청(黑靑)의 5색 부대를 편성하여 각 부대에 만보당주(萬步幢主) 3명씩을 배치하였다. 이절말당(二節末幢)도 역시 만보당주 2명씩이 구성한 2개의 절말당이므로 도끼와 방패를 주무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병(騎兵)에 대적하기 위해 갈구리를 주력 무기로 무장한 개지극당(皆知戟幢)을 690년(신문왕 10)에 창설하고, 태종 무열왕대인 654년에 설치한 기병 부대인 계금당(鬬衿幢)도 중앙군으로 존속하였다. 그밖에도 사천당(四千幢)·사설당(四設幢)·경여갑당(京餘甲幢)·사자금당(師子衿幢)·노당(弩幢)·백관당(百官幢) 등도 중앙군으로 설치하여 수도 왕정에 배치함으로써 전제 왕권을 옹위하고 수도권을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²⁸⁾

2) 지방 군제의 재편성

신라 통일 전쟁기의 지방군 주력부대는 6정(六停)이었다. 6정은 544년(진흥왕 5)에 경주 부근 지역에서 자백(紫白)을 군복색으로 하는 대당(大幢)을 편성한 후로 새로운 점령지에 주를 설치하면서 함께 설치되었다. 552년(진흥왕 13)에 군복색을 청적(靑赤)으로 하는 상주정(尙州停)을 상주에 설치하고, 더욱 북상하여 604년(진흥왕 26)에는 황청(黃靑) 빛깔의 군복을 입는 한산정(漢山停)을 광주(廣州)에 설치하여 3개 정을 모두 진흥왕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658년(무열왕 5)에 녹색(綠白) 군복의 하서정(河西停)을

강릉에 설치하고 673년(문무왕 13)에 역시 같은 녹색의 우수정(牛首停)을 춘천에 설치하여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에 대비하였다. 나당 전쟁이 끝나자 683년(신문왕 3)에는 백자색(白紫色) 군복의 완산정(完山停)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6정의 설치를 마무리지었다.

이러한 6정은 비교적 신라의 수도와 가까운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나당 전쟁이 종식되면서부터 광범위해진 영토를 방위하기 곤란한 점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예 6정을 해체하고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신라 통일기에는 지방군을 10정 이외에 5주서(州誓)·저금기당(著衿騎幢)·비금당(緋衿幢)·만보당(萬步幢)·사자금당(師子衿幢)·삼변수당(三邊守幢)·이계당(二鬪幢)·법당군단(法幢軍團) 등으로 편성하였다.

전쟁이 전개되면서 영토가 확장되자 그에 따라 행정구역을 9주로 재편성하고 여기에 맞추어 기병 부대가 주력인 10정을 배치하였다. 각 주에 1개 정을 설치하고 한주(漢州)에만 2개 정을 설치하여 주의 치안과 국토 방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10정은 대대감(隊大監) 1명-소감(少監) 2명-화척(火尺) 2명으로 지휘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복색에 따라 청색(靑色) 3개 주, 현색(玄色) 3개 주, 황색(黃色) 2개 주, 녹색(綠色) 2개 주로 구분하여 한반도 남부의 6주에는 청색과 현색을 배치하고, 중부의 한주·명주(溟洲)·삭주(朔州)에는 황색과 녹색을 배치함으로써 군복의 빛깔로 차별화하였다.²⁹⁾

그리고 각주에 10정과 같이 5개 주를 단위로하여 보기(步騎) 합동 부대인 5주서를 편성하였다. 청주서(靑州誓)·완산주서(完山州誓)·한산주서(漢山州誓)·우수주서(牛首州誓)·하서주서(河西州誓)는 문무왕 12년(672)부터 신문왕 5년(685)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대감(隊大監) 1명(領騎兵)-소감 12명(領步兵 9, 領騎兵 3)-화척 2명(領騎兵)으로 지휘 부서를 구성하였다.³⁰⁾

9주의 치소(治所)를 중심으로 10정을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금당(緋衿幢)·만보당(萬步幢)·사자금당(師子衿幢)을 함께 배치하였다. 비금당은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보병으로 하여금 장창을 휴대하도록 한 장창당(長槍幢)으로서, 신문왕 5년(685) 이후에 창설한 것이다.³¹⁾ 사벌주·삼랑주·청주에 각각 3명, 우수주·하서주에 각각 6명의 당주(幢主)를 배치하고 한산주 2명, 웅천주 5명, 완산주 4명, 무진주 8명을 배치함으로써 총 40명의 당주를 9주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지휘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여 비금당주-비금감(緋衿監)으로 편성하였는데, 영당(領幢)을 담당한 비금감은 당주와 동일하게 2내지 8명이었으나 영마병(領馬兵)을 담당한 비금감은 무진주(武珍州)에만 8명을 배치하였다.³²⁾

역시 9주의 치소에 배치된 지방군인 만보당은 도끼와 방패로 무장한 보병 부대로서 각 주에 2개 부대씩 총 18개 부대를 편성하여 배치하였으며, 각각 다른 군복색으로 구분하였다. 이밖에 각주의 치소에 지방군으로 사자금당을 배치하였다. 10개 부대를 편성하여 9주의 치소와 왕경에 각각 배치하였는데, 각 주에는 당주(幢主 3명)-감(監 3명)-법당화척(法幢火尺 2명)의 지휘 체계를 구축하였다. 비교적 정예병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자대(獅子隊)라는 별칭으로 당에까지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³³⁾

북방 변경 지역에는 국경 수비를 전담하는 보병과 기병 부대를 편성하여 함께 배치하였다.³⁴⁾ 효율적인 국경 수비를 위하여 한산변(漢山邊)·우수변(牛首邊)·하서변(河西邊)의 3변에는 보병 부대인 삼변수당(三邊守幢)을 배치하고, 이계당(二關幢)인 한산주계당(漢山州關幢)과 우수주계당(牛首州關幢)을 기병으로 배치한 것이다.³⁵⁾

이같이 9주에 지방군을 배치하면서 5소경에는 법당주-법당감-법당화척의 지휘 체계를 갖춘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과 법당두상(法幢頭上)-법당벽주(法幢辟主)의 지휘 체계를 갖추고, 쇠뇌로 무장한 노당(弩幢)을 배치하였다. 9주의 치소에도 노당을 배치하였는데, 휘하에는 지방민을 병졸로 편성하였다.

9주의 군현(郡縣)에는 외여갑당(外餘甲幢)·여갑당(餘甲幢)·외법당(外法幢)을 편성하여 지방관인 태수(太守)·소수(少守)·현령(縣令)을 지휘관으로 하고 그 휘하에 농민 장정들을 군사로 편성하였다.³⁶⁾

3) 해양 군사력의 제고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 해안에 위치하여 해안선이 선박의 활동에 불리하였으므로 해상으로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동쪽 해안 지역이 수심이 깊고 파고가 높아서 당시의 소형 선박이 근해를 항해하거나 접안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한데 원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남동쪽으로 왜(倭: 일본)가 있기는 하나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만한 교역 상대국이 아니었으므로 자연히 왕래가 빈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선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하는 백제나 고구려의 해상 활동에 비해 신라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 수군(水軍)의 군사력도 열세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553년(진흥왕 14)에 한강 하류 지역을 백제로부터 탈취한 후 중국과 해상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실시하면서 해상 교

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과 교류하는 통로는 서해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였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백제나 고구려를 견제하는 것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해상 교통로가 확보되자 사신이나 유학생 같은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자 대형 선박 건조술과 대양 항해술이 종래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는 나당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 건조 기술과 항해술 등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분야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종 기술은 전쟁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통일신라의 해양 전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군사 문제를 전담하던 부서인 병부(兵府)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 등이 관장한 선박 문제를 독립시켜, 678년(문무왕 18)에 설치한 선부(船府)가 전담하도록 하였다.³⁷⁾

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무력으로 축출하기는 하였으나 정치·외교적인 노력으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였으므로 적극적인 교류를 전개해 나갔다. 당시 당은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 인근의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곳에 국제항이 개발되어 다양한 교역품을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여 동서양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따른 인적인 교류도 증가하는 등 해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자 통일신라의 항해술은 크게 발달하였다.³⁸⁾

이러한 해양 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에 힘입어 통일신라의 수군도 통일 이전 수군의 전력에 비하여 크게 발전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

다. 그러나 점차 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수군의 군사력 유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어 군선(軍船)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수취나 상업 활동을 위한 일반 선박의 보유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다시 쇠퇴하게 되었다.³⁹⁾

2. 신라의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

(1) 신분 질서의 재편

1) 신분 질서 재편의 배경

신라는 건국 직후부터 정복 활동을 통하여 합병된 성읍국가나 연맹왕국의 지배 계층을 신라의 지배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면서 등급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골품제도(骨品制度)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사로국(斯盧國)을 구성하였던 6개 씨족이 주축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왕족의 골제(骨制)와 왕경에 사는 일반 귀족의 두품제(頭品制)가 구별되었다. 그러나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할 무렵에 이미 단일 체제로 법제화되어, 2개 골제와 6개 두품으로 모두 8개층의 골품(骨品)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혈통(血統)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는 골품으로 정치적 출세, 혼인, 가옥 규모, 복색(服色)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특권과 제약을 가하였다.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이 왕족으로서 지배층이 되어 중요 관직을 독점하고, 6두품(六頭品) 이하의 신분 계층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성골이 7세기 중엽 선덕여왕을 끝으로 소멸하자 같은 김씨인 진골(眞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진골에는 김씨를 포함하여 박씨

족과 본가야(本加耶)의 김씨족, 고구려의 고안승과 그 일족이 신라로부터 받은 김씨족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진골 아래의 두품은 하급 귀족층인 6두품·5두품·4두품과 3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평민층으로 양분되었다. 그후 최상급의 성골이 없어지고 하급 두품이 평민층(백성)으로 통칭되면서 진골-6두품-5두품-4두품-백성으로 대별되었다.⁴⁰⁾

진골은 왕족으로서 제17관등(官等)에서 제1관등의 고위직에 이르는 모든 관직을 제약없이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왕족이 아닌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飡)을 상한으로 하며, 5관등인 대아찬(大阿飡)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진골-6두품-5두품-4두품의 구분에 따라 자복(紫服)-비복(緋服)-청복(靑服)-황복(黃服)으로 관복(官服)의 빛깔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그런데 특히 6두품 세력은 학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오를 수가 없었으므로, 나당 전쟁이 끝나가면서도래한 사회 전반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세력을 더한층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당 전쟁이 막을 내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던 국왕과 이해가 일치되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제휴하게 되었다.

국왕은 중간 관료층인 6두품들의 학문적 소양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이들을 측근에 두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왕권을 전제화하는데 이용하였다. 그 결과 특히 나당 전쟁 이후로 진골 출신의 문무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이른바 중대(中代: 645~779)에는 6두품 출신 중에서 국왕의 총애를 받아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다수 배출되기도 하였다.⁴¹⁾

그밖에 5두품과 4두품 계층은 비록 지배 계층에 소속되었으나 6

두품보다 하위 계층으로서 3두품 이하의 평민 계층과는 구별되는 행정 실무를 담당한 최하위 지배 계층이었다. 이들은 주로 통일신라기에 각종 기술직에 종사하는 장인(匠人)들로서 신분제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골품제를 기본으로 하는 폐쇄적인 신분 질서가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으로 인한 변혁기를 맞이하면서 재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 왕족이 아닌 6두품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도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중위제도(重位制度)라는 특진제도였던 것이다.

2) 신분 질서의 재편성

나당 전쟁기 이후로 태종 무열왕계가 왕권의 전제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신분 질서상의 변화는 권력의 중심부인 왕족 김씨의 위상의 변화였다. 특히 국왕에 버금가는 정치·사회적 위상을 누리고 있던 국왕의 아우에게 부여된 수평적 호칭인 갈문왕(葛文王)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집사부(執事部)의 중시(中侍)와 같은 행정직에 기용되어 수직적 관계로 재편된 것이다. 그러나 김씨 왕족들은 비록 수직적 관계이나 중시와 같은 행정상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여전히 국왕의 측근자로 잔류하였다.

그러나 같은 진골 귀족인 박씨족의 경우는 왕비(王妃)를 배출하고 갈문왕으로 임명되어 국왕과 수평적 지위를 누렸으나 무열왕계의 왕권 전제화 작업에 직면해서는 김씨족과는 달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박씨족은 김씨족에게 왕비를 배출하는 지위를 빼앗기고 그 하위 신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박씨족의 관등

은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행정상의 요직에서도 밀려나 주로 학자나 기술자의 신분층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밖에 고구려 보장왕의 서왕자인 고안승과 그 후손의 경우에도 신라에 망명하여 김씨성을 하사받고 진골로 편입되었으나 왕권의 전제화 과정이 심화되자 점차 소외되어 새로운 신분 질서 속으로 재편되어 갔다. 이에 반발한 고구려 왕족 고대문(高大文)은 신문왕 4년(684)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왕족인 무열왕계를 중심으로 하는 진골 귀족의 정치·사회적 재편성과 아울러 중간 귀족층으로서 관료군을 형성한 6두품에서 4두품에 이르는 두품 계층도 재편성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즉 통일 전쟁 후로 제도에 의해 관료층의 신분 질서를 재편성한 것은 중위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위 제도는 6두품의 경우에 종래의 골품제도 속에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 아찬(阿飡)에 그쳤으나, 별도의 중위(重位)를 설정함으로써 4중 아찬(四重阿飡)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5두품의 경우는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가 상한 관등이었으나 9중대나마(九重奈麻)까지 설정하였다. 4두품의 경우는 12관등인 대사(大舍)가 최고 상한 관등이었으므로 대사에 중위가 설정되어야 하나 특별히 제11관등인 나마(奈麻)에 중위가 설정되어 7중나마(七重奈麻)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급 귀족으로서의 최하위 두품에 과격적인 특전을 부여하기도 하였다.⁴²⁾

특히 통일 전쟁 후에 고구려의 주요 귀족들을 받아들인 6두품 계층은 관료적 전문성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보다 상급 관료층인 진골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진골 귀족층의 반발을 억누르고 왕권을 전제화하려는 국왕과 제휴하여 활발한 정치 활동으로 진골 귀족을 견제하면서 중위 제도로 골품제의 경직성을 극복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갔다. 또한 원광(圓光)·원효(元曉) 등과 같이 불교 지도자로 진출하거나 설총(薛聰)·강수(强首) 등과 같이 학자로 변신하여 활약함으로써 6두품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두품 귀족 중에서 하위층인 5두품과 4두품은 평민층인 3두품 이하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6두품 귀족과도 차별되는 신분층이었다. 백제의 귀족 유민층을 주로 받아들인 5두품의 경우와 4두품은 기술직과 같은 전문직에 진출하거나 중위제도에 의해 골품제의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통일신라의 새로운 신분 질서 속에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평민 내지 백성으로 분류되는 3두품 이하의 계층은 왕경(王京)이라는 특수 지역에 거주한다는 특권만으로 지배 집단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기를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격히 몰락함으로써 일반 하층민과 같은 피지배층으로 재편성되어 갔다.⁴³⁾ 또한 피지배층의 주류를 이루는 평민이면서 농민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행정 조직에 편입되어 지배를 받았다. 이 당시 농민의 촌락을 지배하는 지방 조직으로는 영주(領州)·주(州)의 영현(領縣)·영현이 없는 군(郡)·군치(郡治)로서의 군·소경(小京)·향(鄕)과 부곡(部曲)이 있었다.⁴⁴⁾

중앙에서 촌락(村落)을 단위로 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 후의 농민층은 촌락의 실태가 중앙에 철저히 파악되었으므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생활 수준도 저하되어 갔다. 이들의 생활 수준이 극도로 저하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천민인 노비로 전락하여 항상 더 많은 노비를 필요로 하는 부농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는 촌락 사회 내부의 계층이 분화하여 재편성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노비 공급원의 하나로

기능하기도 하였다.⁴⁵⁾

이들 농민들보다 하위 신분층으로 편입된 노비와 같은 천민의 경우는 소수의 인원이 촌락에 예속되어 보조적 노동력으로 존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예속성이 강한 솔거노비(率居奴婢)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왕경에서 진골 귀족들에게 소속된 천민들의 역할은 촌락에서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신라 문화의 번성

1) 불교 사상의 발달

신라의 불교 수용은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왕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족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쳐 순조롭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전륜성왕(轉輪聖王) 사상이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귀족 세력의 반대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통을 겪으면서 신라의 국교(國敎)로 받아들여진 이후로 불교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사상 체계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불교를 순조롭게 수용하였던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서보다도 신라의 경우에 더한층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왕실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발전한 불교는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호국 불교(護國佛敎)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 갔다. 따라서 불교는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신라가 통일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게 하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⁶⁾

그런가 하면 삼국간의 치열한 전쟁과 나당 전쟁기를 거치면서 불교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삼국민(三國民) 모두에게 널리 전파되었다. 윤회를 통해 현세의 낮은 신분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화되어 갔던 것이다.⁴⁷⁾

신라가 나당 전쟁을 끝내고 이른바 삼국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도 불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위상을 유지하였다.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함께 신봉하는 종교로서, 신라인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인들도 신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통일신라의 불교는 나당 전쟁 후로 점령한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불교는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안정적 지배 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신라 국교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제도적으로는 이미 통일 이전부터 존속해 오던 승관제도(僧官制度)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중앙에는 국사(國師)나 왕사(王師)를 두어 국가나 왕실의 중대사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대국통(大國統)·국통(國統)·승통(僧統) 등과 같은 승관을 임명하여 전국에 산재한 주요 사찰과 교단의 활동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승관 제도가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통일 후로 재편된 전국 9주(州)에 각각 1명의 주통(州統)을 설치하여 모두 9명의 주통을 두고, 군(郡)에는 주요 군을 중심으로 모두 18명의 군통(郡統)을 임명하였다. 군통의 휘하에는 군승정(郡僧正)을 두어 군통을 보좌하게 하였다.⁴⁸⁾

신라의 국교로서의 불교의 위상이 통일 전쟁 후에 새롭게 정립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사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

구를 설치하였다. 즉 성전사원(成典寺院)에 승정(僧政)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불교계를 통제하게 한 것이다. 성전사원은 나당 전쟁이 끝난 후에 신라의 집권 체제를 국왕 중심으로 강화해 가던 신문왕이 684년에 사천왕사(四天王寺)·봉성사(奉聖寺)·감은사(感恩寺)·봉덕사(奉德寺)·봉은사(奉恩寺)·영묘사(靈妙寺)·영흥사(永興寺) 등지에 설치하여 사찰의 경제와 운영을 제도적으로 관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사원성전의 장관에는 진골 출신의 고위 관료가 임명되고, 이로 인하여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⁴⁹⁾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한편으로 불교는 통일신라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상 체계로서 기여하게 되었다. 백제 및 고구려와의 전쟁은 물론 중국 대륙의 강대국 당을 상대로 하는 나당 전쟁을 치르는 장기간의 전쟁 상황과 그 이후로 야기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이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신라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장기간의 전쟁에 충력을 기울인 만큼 극도로 피폐된 국가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새로 편입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신라의 국민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었다.⁵⁰⁾

뿐만 아니라 정쟁이 끝난 후에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잡아 가는 유교 사상의 확산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새로운 사상의 확산에 따른 불교계 자체의 변화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당 전쟁이 끝나면서 당과의 정상적인 선린 관계가 회복되자 승려와 학자를 비롯하여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유교에 바탕을 둔 당의 선진 문물이 다양하게 유입되면서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국왕의 시호(諡

號)도 당이 사용하는 유교식 시호로 바뀌어 갔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불교는 통일 이후의 삼국민을 포용하는 대중 종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던 것이다.⁵¹⁾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통일신라에는 당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승려의 수가 증가하면서 당에서 성립된 여러 종류의 종파(宗派)가 소개되었다. 신라 사회에 널리 전파된 종파 중에서 열반종(涅槃宗)·계율종(戒律宗)·법성종(法性宗)·화엄종(華嚴宗)·법상종(法相宗)의 5교가 종파로 성립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화엄종은 화엄사상(華嚴思想)이 중심이 된 이론 불교(理論佛敎)로서 통일신라 귀족 사회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유행하였다. 이 화엄학은 당에서 유학한 의상(義湘)이 주도하였는데, 그는 중국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智嚴)의 제자로서 중국의 화엄종을 유입하여 신라에 화엄종을 개창하였던 것이다. 그는 귀국 후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화엄사상을 전파하였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원칙적인 하나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일즉다(一卽多)요 다즉일(多卽一)의 원융사상(圓融思想)이며, 일심(一心)에 의하여 만물을 총섭(總攝)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전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지향하는 집단의 이념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 귀족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⁵²⁾

당에 유학을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신라에서 수련하여 높은 경지에까지 이른 원효(元曉)는 여러 종파의 대립 의식을 배격하면서 종파간의 모순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융화 통일(融和統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통일신라의 전제주의(專制主義)가 내포하는 사회적 모순을 사상적으로 융화시키는데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원효는 통일신라 일반 대중 사회에 환영을 받던 이론

바 정토신앙(淨土信仰)을 널리 확산시켜 나갔다.

정토교(淨土敎)는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학식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서방정토(西方淨土)인 이른바 극락(極樂)에 왕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동원되어 많은 살생을 저지르고도 사찰을 건립하거나 탑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없었던 통일 후 삼국민 모두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 장기간의 전란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피지배층들에게 내세(來世)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는 사상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즉 삼국민의 유대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구현하는 중심 사상으로서 통일신라 사회의 저변에 확산되어 나갔다. 이와 함께 현세 구복적(現世求福的)인 관음신앙(觀音信仰)도 일반 대중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신앙 형태로서 통일 전후기에 새롭게 수용되었다.⁵³⁾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법상종(法相宗)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열등한 근기의 인간이라도 자기에겐 알맞은 불법이나 수행을 통하여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상종 사상은 신라 사회 중류 이하의 지식인인 6두품이나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수용되었다. 따라서 법상종의 승려들 중에는 6두품 이하의 신분이나 몰락한 귀족 등과 같은 당시 중류층 이하의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에 의해 전국으로 폭넓게 확산되어 나갔다.⁵⁴⁾

특히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장차 미륵불(彌勒佛)이 나타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기 좋은 이상 사회로 바꾸어 줄 것으로 믿는 미륵신앙을 중심 사상으로 한 법상종이 유행하였다. 사후의 왕생극락보다는 현실에 극락정토를 구현하겠다는 현실

긍정적인 풍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귀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신라 사회의 하층민인 피지배 계층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에게까지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는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⁵⁵⁾

2) 과학 기술의 발달

신라의 금속 기술의 수준은 대체로 불상(佛像)과 범종(梵鐘)의 제작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불상 제작 기술은 574년(진흥왕 35)에 무게 3만 5천7근(斤)의 규모에 황금 1만 198푼(分)을 사용하여 도금을 할 정도의 거대한 장육존상(丈六尊像)을 조성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철 1만 2천근과 황금 1만 136푼으로 두 개의 보살상을 조성하여 황룡사(皇龍寺)에 안치할 수 있는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⁵⁶⁾ 이러한 수준은 신라가 통일 전쟁을 끝낸 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철(鐵)을 비롯한 금속류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자 더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원석을 채광하는 기술과 금속으로 제련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고 이를 가공하는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노천광(露天鑛)을 개발하는 정도의 전통적 기술에서 진일보하여 통일 이후로는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파내는 기술을 발달시켜 나갔다. 즉 수직 갱도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이른바 수갱법(豎坑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의 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련 기술도 더한층 발전하여 도가니와 풀무를 이용한 제련법으로 통일 이전에 비해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금속을 제련할 수 있었다.

철제 낫을 비롯한 농기구와 철제 화살촉과 같은 무기류들은 대부

분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주조한 백주철(白鑄鐵)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제작 기술은 통일 이후에 수준 높은 불상(佛像)과 범종(梵鐘)이 대량으로 제작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⁵⁷⁾ 특히 대규모의 범종과 철제 불상 및 다양한 종류의 금동불상이 제작 가능하게 됨으로써 통일신라 시기에 불교문화와 금속 관련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신라는 통일기에 축적된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하여 각종 과학 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우수한 범종을 제작하였다. 성덕왕 24년(725)에는 놋쇠 3,300정(錠)을 녹여서 높이 5.5척(1.67m), 구경 3척(0.91m), 무게 2,150근(1,290kg)의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범종을 제작하고, 경덕왕 13년(754)에는 높이 1장(丈) 3촌(寸), 좌우폭 9촌, 무게 약 50만근의 거대한 황룡사 범종을 조성하였다.⁵⁹⁾ 그리고 혜공왕 7년(771)에는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聖德大王神鐘)을 황동(黃銅) 12만근으로 제작하여 봉덕사(奉德寺)에 안치하였다.⁶⁰⁾ 높이 11척(3.33m), 구경(口徑) 7.5척(2.27m), 무게 4만 7천5백근(28.5t)의 거대한 이 범종을 제작한 기술자로 주종대박사(鑄鍾大博士) 대나마(大奈麻: 제10관등) 박종일(朴從鎰), 차박사(次博士) 나마(奈麻: 제11관등) 박빈내(朴賓奈)·박한미(朴韓味), 대사(大舍: 제12관등) 박부부(朴負缶)의 벼슬과 이름을 기록하였다.⁶¹⁾

불상의 경우도 경덕왕(景德王)대인 755년에는 180여 년 전 진흥왕대에 조성한 황룡사 장유존상 보다는 열 배의 크기인 분황사 약사 동상(藥師銅像)을 구리 3만 5천7근과 황금 1만 198푼을 투입하여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축적하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약사 동상은 무게가 30만 6,700근으로 전해지며, 본피부(本彼部) 소속의 기술자인 강고내미(強古乃未)가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기술 수준과 제작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한 해 앞선 경덕왕 13년(754)에 이미 중량이 50만근으로 전해 오는 황룡사 범종을 제작한 것은 신라의 제철 제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⁶²⁾

이밖에도 주로 금동으로 제작된 사리함(舍利函)은 소규모에 비해 매우 정교하여 통일신라 기술 수준을 상징하는 것이다. 불교의 발달과 함께 그와 관련된 금속 공예품의 수요가 증가하자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3) 예술의 발달

통일 이후로 신라의 예술은 삼국시대에 추구하던 내성적(內省的)이며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 풍조와는 달리 외향적(外向的)이면서 동시에 세련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⁶³⁾ 특히 불교와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통일 이후의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당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가운데 대체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따라서 회화를 비롯한 서예·조각·건축 등 특히 불교와 관련된 예술 분야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술거(率居)가 그린 황룡사의 노송 벽화는 각종 조류들이 실물 소나무로 착각하고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서 유명하며, 당대를 대표할 만큼 채색과 사실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김충의(金忠義)와 같이 신라의 무인 출신이면서 당에 건너가 8세기 후반에 작품 활동을 하여 통일신라의 높은 예술 수준을 국제무대에 알린 특이한 인물도 있었다.⁶⁴⁾

서예 분야는 특히 당과의 사이에 왕래하는 외교문서를 통하여 당나라 초기의 해서체(楷書體) 서풍(書風)이 유입되어 신라 기존의 서

풍에 영향을 주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나당 전쟁이 막을 내릴 때까지 신라와 당은 특히 중요한 외교 서신을 수차례 교환하였다. 이때 당의 3대가로 유명한 구양순(歐陽詢)·우세남(虞世南)·저수량(褚遂良)의 서체(書體)가 유입되어 당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많이 이용되자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당의 서체는 통일신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이와 함께 왕희지(王羲之)의 행서체(行書體)도 유입되어 크게 유행함으로써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서체가 유입되어 발달하였는데 특히 8세기 이후로 더욱 발달함으로써 해서·행서·초서(草書)에서 개성있는 서풍으로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찬사를 받는 김생(金生)과 같은 당대의 명필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⁶⁵⁾

불교를 국교로 하는 신라에 있어서 조각 예술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불상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 이후로는 신라의 토착적 양식에 백제와 고구려의 양식이 가미되는 가운데 당의 영향이 미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나당 전쟁 이후로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이른바 입당 구법승(入唐求法僧)의 영향이 매우 컸다. 유학승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중에는 특히 인도(印度)를 여행하고 돌아와 인도풍의 기법을 전수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불상 조각을 비롯한 통일신라의 불교미술은 당시 당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동불(金銅佛)과 석불(石佛)이 주종을 이루며, 8세기 말부터는 대형 불상들 중에 철불(鐵佛)이 조각되기도 하였다.⁶⁶⁾ 특히 8세기 후반에 조성된 석굴암(石窟庵)의 다양한 조각품들은 석조 미술의 극치로 인정되고 있다.⁶⁷⁾

그리고 불상의 조각과 함께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8세기 중

엽의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대표되는 신라탑(新羅塔)으로서의 특징을 갖춘 석탑(石塔), 부도(浮屠)와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탑비(塔碑)·석연지(石蓮池)·석연대(石蓮臺) 등이 불교 관련 조각물로서 많이 제작되었다.⁶⁸⁾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건립은 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면서 방형(方形)의 평면에 상하 2층기단을 축조하고 그 위에 탑신을 올려놓은 다음 노반(露盤) 위에 상륜부(相輪部)를 장식하는 신라탑의 정형을 갖추었다.⁶⁹⁾

한편 대형 능묘(陵墓)를 중심으로 세워진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문무인석(文武人石)·석수(石獸) 등과 같이 불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각들도 당시의 수준 높은 조각 기법이 반영되어 많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나당 전쟁 이후로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의 조각 미술은 사실적인 묘사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입체감과 생동감을 풍부하게 표현한 특징이 있었다.⁷⁰⁾

통일신라의 건축은 사찰 건축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집약한 것이었다. 나당 전쟁 이후로 정국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사찰 건립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나, 사찰의 규모는 오히려 통일 이전에 비하여 축소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유학승의 증가로 당의 다양한 종파가 전래되면서 그 유형에 따라 사찰도 분화되어 규모는 축소되고 수적으로는 증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산지(山地)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 건립된 산지 사찰은 지형의 한계로 인하여 크기면에서 평지(平地) 사찰에 비해 소규모로 건립된 특징이 있었다.⁷¹⁾

사찰 배치 양식에서도 통일 이전에는 1금당(金堂)에 1탑식(塔式)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통일신라 이후로는 1금당에 2탑식(쌍탑식)의

배치 양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금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동서로 대칭을 이루며 마주보는 형식을 갖추고 4면을 회랑으로 연결시켜 직각각형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전형은 나당 전쟁 중에 축조된 사천왕사(四天王寺)와 7세기 말인 신문왕대에 완성된 감은사(感恩寺)와 망덕사(望德寺), 8세기 중엽의 불국사(佛國寺)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불국사는 평지 사찰과는 달리 산록의 자연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남북과 동서의 고저에 맞추어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통일신라 사찰 건축의 전형이 되었다.⁷²⁾

이밖에도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획득한 막대한 재화(財貨)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왕성을 보수하거나 증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나갔다. 문무왕은 14년(674)에 반월성(半月城)과 가까운 곳에 인공의 호수인 안압지(雁鴨池)를 조성하여 호화롭게 단장하였다. 그리고 19년(679)에는 궁성을 대대적으로 증수하고, 이어 안압지 주변에 동궁(東宮)을 건축하였다. 이러한 공사는 대체로 8세기 후반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져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모습을 일신시켰다.⁷³⁾

3.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성

(1) 신라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

중국의 통일 제국인 수·당은 통일 후로 안정을 회복하면서 고구려는 물론 신라가 통일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곧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국은 백제와 고

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기미주(鞫糜州)를 설치하여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나당 전쟁에서 신라의 끈질긴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군사를 돌려 퇴각함으로써 기미주를 설치하려던 당초의 지배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삼국 통일 후의 동아시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⁷⁴⁾

당은 신라의 끈질긴 저항과 자국내의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삼국의 영역을 지배하려던 야욕을 포기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친 측천무후(則天武后 : 685~704)의 직접 통치 기간과 그를 전후한 시기의 간접 통치 기간을 통하여 국내의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자 신라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결코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692년(신문왕 12) 봄에 당은 신라 태종 무열왕의 ‘태종(太宗)’이 당의 태종과 중복된다고 하여 이를 개칭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신라가 이를 해명하자 양국의 선린 관계를 고려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후 702년에는 신라 효소왕(孝昭王 : 692~701)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틀간이나 조회(朝會)를 중지하고 조문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당의 신라에 대한 예우는 파격적인 조치로서 나당 전쟁으로 인한 종전의 불편한 관계를 일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⁷⁵⁾

(2) 발해 왕조의 탄생

고구려 왕조가 멸망한 직후에 2만 8천2백여 호(戶)의 주민들이

당으로 강제 이주당하여⁷⁶⁾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 대륙에 산재해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옛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大祚榮)을 구심체로 하여 새로운 왕조인 발해(渤海)를 건국하였다.

당의 사민 정책(徙民政策)에 따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요서 지방의 영주(營州 : 조양 <朝陽>)에 이주하여 기미주(羈縻州) 형태로 편제되어 당에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7세기 이후로 당에 흡수된 여러 종족들이 거주하였으므로 민족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주변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역사적으로 친연관계(親緣關係)에 있던 말갈족과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⁷⁷⁾

그후 696년 5월에 거란족 이진충(李盡忠)이 돌궐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봉기하여 스스로를 무상가한(無上可汗)이라 명명하고 영주도독부의 치소인 영주(營州)를 집중 공략하였다. 이 때문에 영주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고구려 유민의 일부는 당군에 협조하면서 현지에 잔류하였으나 다른 일부는 대조영의 지휘하에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이끄는 말갈족(靺鞨族)과 함께 연주성(燕郡城 : 요녕성 의현)-여라수착(汝羅守捉 : 칠리하 부근)을 거쳐 요하를 건너 요동지역으로 이동하였다.⁷⁸⁾

당과 거란의 이진충 군이 접전을 벌이는 동안 대조영의 고구려 유민 집단은 말갈족을 비롯한 주변 여러 민족을 흡수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갔다.⁷⁹⁾ 그후 당은 돌궐을 회유하여 거란을 협공한 결과 697년 6월에 진압하고 영주 지역을 회복하게 되자, 대조영의 고구려 유민과 걸사비우의 말갈족에 관심을 돌려 이들을 다시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이에 당은 대조영의 아버지로 알려진 걸걸중상(乞乞仲象)에게 진국공(震國

公)이라는 작위를 부여하고 말갈 추장 걸사비우에게는 허국공(許國公)의 작위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당의 저의를 간파하고 이를 묵살하자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당은 거란 출신의 이해고(李楷固)의 군대로 침공하였고, 697년 후반에 있는 초기 전투에서는 말갈 추장 걸사비우가 전사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 이때 고구려 유민을 이끌던 걸걸중상이 병사하였으므로 대조영이 유민 집단을 이끌게 되자 당군과의 정면 충돌을 회피하여 말갈 세력과 함께 동진하였다. 당군의 추격이 계속되자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은 697년 6월 경에 천문령(天門嶺)에서 당군을 요격하여 대승을 거두어 이들을 물리쳤다. 이 전투 이후로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은 목단강(牧丹江) 유역의 서고성자(西古城子: 돈화 동모산〈東牟山〉)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정착하기 시작하였다.⁸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당은 요동지역의 통치를 위해 699년에 보장왕의 아들인 고덕무(高德武)를 안동도독(安東都督)으로 임명하여 친당세력으로서의 ‘소고구려국’을 성립시켜 698년에 출범한 발해(渤海)와의 사이에 완충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⁸¹⁾

당과 통일신라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발해는 ‘고구려’를 부흥시킨다는 각오로 영토 확장에 주력하여 옛 부여(夫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중심이 된 왕조였으나 대외적으로는 ‘고려국(高麗國)’이라 호칭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의 긍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후로 발해는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삼아 과거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와 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무력대결

도 불사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는 대동강-원산만 이남의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경 지대에 장성(長城)을 축조하여 대비하였으며, 당은 산둥반도의 등주(登州)지방이 발해 수군(水軍)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발해는 고왕(高王) 대조영을 계승한 무왕(武王) 대무예(大武藝) 시대인 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전성기를 이루어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옛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3) 발해와 당의 관계 정립

발해와 당과의 관계는 당이 발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유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당은 705년에 측천무후가 죽고 중종(中宗)이 복위하자 사신을 보내어 회유하려고 하였다. 이에 발해도 대조영의 둘째 왕자인 대문예(大門藝)를 파견하여 당의 유화적인 자세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712년에 당은 요서지역에서 해족(奚族)과 접전하여 대패하자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 따라서 장차 예상되는 주변의 여러 이민족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여 발해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당은 713년에 낭장 최흔(崔忻)을 발해에 파견하여 대조영을 ‘발해군왕 흘한주도독(渤海郡王 忽汗州都督)’에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정책으로 주변 민족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대조영은 발해를 정식 국호로 사용하면서, 당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당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714년 4월에 당이 거란과 전투를 벌일 때는 당군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을

지킴으로써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⁸²⁾

발해의 국력이 신장되는 가운데 당과 대립 관계에 있던 거란족과 해족이 715년부터 돌궐의 세력권에서 빠져나와 당의 휘하로 들어가 자 각 민족간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716년(현종 개원 4년)에 돌궐족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자 당은 이 해에 영주(營州) 유성현(柳城縣)에 영주도독부를 다시 설치하고 인근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⁸³⁾ 이 무렵부터 발해는 당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견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당은 726년에 흑수말갈에서 사신을 보내 온 것을 계기로 하여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고 당의 관리가 파견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당의 대말갈 정책을 통하여 당이 노리는 저의를 간파한 발해는 흑수말갈을 공격하여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⁸⁴⁾

이로 인하여 발해와 당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흑수말갈을 공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당과의 전쟁을 우려하는 발해 내부의 반전 여론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특히 무왕의 아우인 대문예(大門藝)는 당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이미 친당적 인물로 변질되어 있었으므로 적극적인 반대 여론을 주도하였다. 무왕은 726년에 대문예에게 원정군을 지휘하게 하였다가 침공 직전에 교체하여 새 사령관으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령관직에서 해임된 대문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귀국 명령을 묵살하고 달아나 730년에 당으로 망명하였다. 이때 발해 원정군이 승리하여 흑수말갈과 당과의 결속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발해 내부의 분열과 대당 관계의 악화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르렀다.⁸⁵⁾

한편 당과 흑수말갈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어 흑수말갈의 추장에

게 728년에 과격적으로 당의 이씨(李氏) 성과 헌성(獻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면서 운휘장군(雲麾將軍) 겸 흑수경략사(黑水經略使)를 제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⁸⁶⁾ 이는 발해를 위협하는 군사적 압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발해의 대당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대문예가 당으로 망명한 사건은 그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는 발해와 이를 기화로 발해의 내분을 심화시키려는 당의 분열 정책이 맞물려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급기야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로 치닫게 된 것이다. 즉 발해와 친교를 유지해오던 거란(契丹)이 732년 3월에 당군에 대패한 것에 자극을 받아 그해 9월에 장문휴(張文休) 군을 해상으로 급파하여 요동반도의 요지인 등주(登州)를 선제 공격하게 하였다.⁸⁷⁾ 이 전투에서 발해의 장문휴 군은 등주자사 위준(韋俊)을 살해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⁸⁸⁾

이로 인해 733년 1월에 당군의 보복적 침공을 받았으나 발해군의 선전으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해는 그 해 윤3월에는 거란군에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당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당은 크게 타격을 입고 위협을 느끼게 되자 신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 남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한 신라군이 도중에 폭설을 만나 태반이 동사하는 병력 손실을 입고 퇴각함으로써 발해군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⁸⁹⁾ 그후 발해는 당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⁹⁰⁾

그리하여 발해는 특히 737년에 문왕이 즉위한 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당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그 동안 남쪽으로 통일신라와

의 사이에 고조되고 있던 긴장도 완화되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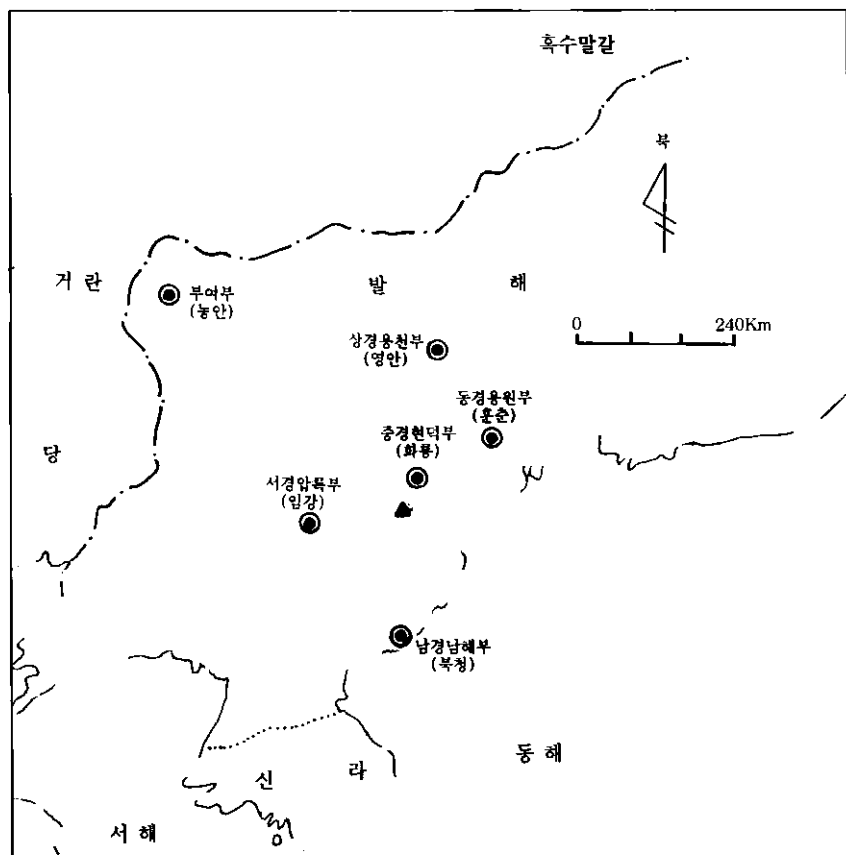
(4) 남북국 시대의 전개

신라는 나당 전쟁이 끝난 이후로 옛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만주 지역의 광활한 영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로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만주 지역과 연해주(沿海州) 지역을 장악하고 발해 왕국을 출범시키자 신라와의 관계 정립이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는 발해가 개국하던 초기에 있어서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되었다. 발해는 700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새 왕조가 개창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양국간에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돌궐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는 당과의 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친당 국가인 통일신라를 우방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당을 견제하여 발해에 대한 강경 정책을 완화시키려 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돌궐과의 친화 정책도 역시 당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⁹¹⁾

이와 같은 발해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지속되었다. 그러나 732년 9월에 발해의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신라가 당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참전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⁹²⁾ 이후로 신라는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발해와의 관계에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나·당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 비례하여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⁹³⁾

발해의 강역과 5경



이러한 상황에서 737년에 무왕이 죽고 둘째 왕자인 대흥무(大欽茂)가 문왕으로 즉위하여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통일신라를 침공하려는 야욕을 나타내었다. 이때 일본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여 측면 지원을 요청하였고, 발해는 이를 수용하여 협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양국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과 발해, 그리고 당의 국내 반란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자 그 영향으로 중지되었으므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⁹⁴⁾

한편 당은 발해의 존재를 인정하여 762년(문왕 26)에는 ‘발해 국왕(渤海國王)’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는 유화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발해와 당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라와의 대립 상황도 약화되어 원만한 관계로 개선되었다.⁹⁵⁾

그러나 통일신라와 당은 발해가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와 당은 이러한 발해를 견제하기 위하여 내면적으로는 더한층 긴밀하게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통일신라로서는 발해의 남진 정책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발해의 경우도 당과 일본을 교역 대상국으로 삼아 장기적 교류를 전개한 것과는 달리 신라와의 교류를 단절하다시피 하였다.⁹⁶⁾

결국 8세기 전반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북쪽의 발해를 주축으로 하여 돌궐·거란이 남쪽의 일본과 결속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동쪽의 통일신라와 서쪽의 당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여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6세기 말 이래로 형성되었던 고구려와 백제가 제후한 남북세력(南北勢力)과 수·당과 신라가 결속한 동서세력(東西勢力)이 대립하였던 이론바 ‘남북국 시대(南北國時代)’ 양상이 재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⁹⁷⁾

결 론

1. 나당 전쟁의 승리 요인

(1) 정치·외교적 요인

신라는 내물왕(奈勿王)이 죽은 후로 5세기 중반까지 왕위 계승과 관련한 정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안정을 되찾게 된 계기는 눌지왕대에 이르러서였다.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서부터 내부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고구려가 427년에 대동강(大同江) 유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자 신라 눌지왕은 433년에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가다듬었다. 동시에 왕위의 부자상속 제도를 정착시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는 6세기부터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 체제를 갖추고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곧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온 신라는 6세기 전반인 법흥왕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병부(兵部)’는 법흥왕 즉위 직후에 설치되어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전담 관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신라는 법흥왕대에 가야(加耶)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522년

에 대가야 와 결혼동맹(結婚同盟)을 체결하고, 532년에는 김해의 금관가야(金官加耶, 本加耶)를 합병하여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왕의 대내외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흥왕대 이르러 더한층 고조되었다. 551년에 백제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당시 한강(漢江) 유역에 진출해 있던 고구려군을 몰아내고, 553년에는 백제가 분할 점령하고 있던 하류 지역마저 점령함으로써 한강 유역에 대한 신라의 독점적 지배권은 확고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신라는 서해안을 통해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중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달리 이를 시점으로 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부단한 공격을 받아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결국 신라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력 강화에 국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대중 청병 외교(請兵外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대안이 없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6세기 중반에 다시 가야를 공략하여 낙동강 유역을 점령한 것도 신라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백제와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565년 9월에 합천(陝川)에 설치한 대야주(大耶州)는 가야 지역을 통치하는 중심지이자 백제와의 전쟁에 대비한 전략 도시로서 군사적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국왕이 친히 점령지나 전쟁 피해 지역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들을 위무하여 국민적 결속을 공고히 한 것도 전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따라서 국왕의 전제권도 한층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강력한 군령권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586년(진평왕 8)에 예부(禮部)를 설치하여 국민 대중에게 의례(儀禮)를 교육함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관제 정비를 통해 무형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651년(진덕여왕 5)에 품주를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발전시켜 국방(國防)과 재정(財政)을 전담하는 관서로 분리한 것은 유형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이같이 진평왕과 진덕여왕대에 추진된 관제(官制)정비 작업은 정부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국왕의 전제권과 강력한 군사력을 지탱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밀려드는 외압은 신라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국왕의 전제권마저 도전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제3세력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주도 세력인 김춘추(金春秋)와 김유신(金庾信)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결국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국왕으로 즉위하자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한 다음 대당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들 진골 출신의 집권 세력들은 대당 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를 통일 전쟁에 이용함으로써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굴복시키려던 국가적 숙원 과업을 완수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통일 전쟁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전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당을 상대로 하여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할 때 백제나 고

구려도 방관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신라의 경우 숙위외교(宿衛外交)로 일컬어지는 대당외교가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양국 관계가 신라의 계획대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차이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삼국 통일 전쟁을 마무리한 이후로는 오히려 당군을 축출하는 새로운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신라는 대당외교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대당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전통적인 선린 외교를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적극적인 무력 투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군사 외교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성공적인 실리 외교를 구축하였던 것이다.¹⁾

(2) 군사적 요인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신라와 백제를 중국의 한족(漢族)이나 이른바 북방 새외민족(塞外民族)의 남침을 막아 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신라의 군사적 약세는 화랑도(花郎徒)로 대표되는 상무적 기풍이 조성됨에 따라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부터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²⁾

신라는 당의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 조정의 정치 상황의 변화와 북방 민족의 남침 움직임을 나당 관계에 군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토번(吐蕃)·서돌궐(西突厥) 등이 당의 변경 지방을 침공하여 당의 정세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이 대외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

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에 불리한 주변 여건을 역이용하여 전황을 신라군에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반사 이익(反射利益)을 유발한 것은 승리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특히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 투쟁을 지원하면서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신라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크게 보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신라인의 투지를 자극함으로써 항전 역량을 제고시켜 무형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승전 요인일 것이다.

신라는 울산을 비롯한 경주·영천·영일·안동·합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철(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수한 농기구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강도 높고 예리한 철제 무기를 제작하여 군사들을 무장함으로써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따르는 잉여 농산물의 축적은 많은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 왕조를 정복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정예 군대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라군은 전통적인 칼·창·갑옷 등과 같은 개인 무기와 쇠뇌·충차를 비롯한 공용의 장거리 무기를 강철로 제작하여 무장함으로써 이른바 삼국 통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당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면서 당군의 무기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여 무장함으로써 더한층 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무기의 운용 전술도 한반도의 지형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무기의 개발과 전술의 발달은 동일한 무기를 보유한 당군과의 전투에서도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신라군이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당군에 비해 전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군이 당군과 장기간 접전을 전개한 지역이 주로 한강 및 임진강 일대의 한반도 중부 지방이었으므로 특히 고구려 유민 세력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작전을 전개한 것은 당군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지역은 특히 고구려가 장기간 지배하여 지형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군이 고구려 유민들과 공동 작전을 전개하기 유리한 곳이었다.

2. 나당 전쟁의 역사적 의의

(1) 민족사적 의의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의 삼국(三國)에 대해 그들의 혈통·언어·관습 등의 공통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하여 삼한(三韓)으로 통칭한 것은 삼국이 아닌 수(隋)·당(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삼국이 중국은 물론 북방 민족이나 왜(倭)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동일한 족속이며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국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³⁾ 따라서 ‘해동삼국(海東三國)’이라 하여 삼국민을 동류국가군(同類國家群)으로 인정한 것은 당시 삼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던 동류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⁴⁾

한편 내부적으로도 특히 백제의 경우는 이미 건국 시조의 전설을 통하여 스스로를 고구려와 함께 부여(扶餘)에서 출발한 계열로 인

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조왕(溫祚王)을 주몽(朱蒙)의 아들로 자처하고 시조 동명왕(東明王)을 제사함으로써 국민 의식의 저변에 고구려와 동족이라는 의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신라의 출발점도 백제와 같은 삼한 계열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종족 및 사회·문화적 방면에서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⁵⁾

그러나 삼국이 상쟁하던 시기인 7세기 중엽의 이른바 삼국시대 말기 이전에는 삼국 주민들 사이에 모두가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 의식(同族意識)’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빈번한 무력 충돌로 인하여 생존을 건 대립의식 속에서 적대감이 고조되어 상호 간의 동질성을 발견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질적인 정서를 확인하는 기회가 더 많았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말기부터 전쟁으로 인해 국경선이 변화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호 교류와 지역 이동이 빈번해지자 특히 일반 주민들 사이에 풍습, 제도, 복식 등의 생활 양상들이 점진적으로 동질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자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정서에는 각종 생활양식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동족 의식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신라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 왕조가 멸망하고 양국의 유민들이 통일신라 지배 체제 속으로 흡수되어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공동의 적대 세력인 당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나당 전쟁(羅唐戰爭)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동족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⁶⁾

통일 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신라와 당은 동맹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외형적으로 결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의 이면에는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당시부터 갈등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 수도를 침공할 때 신라군이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최고 사령관인 김유신을 처형하려 한 것이나, 사비성을 함락한 후에 김유신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에게 점령지를 식읍(食邑)으로 나누어주겠다고 제의한 것은 당의 야욕을 노출시킨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당으로 잡아갔던 백제 왕자 부여융(扶餘隆)을 돌려보내어 신라 국왕과 대등한 위치에서 화해를 맹서하도록 강요한 것에서도 역시 당의 야욕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 부흥 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저의도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 침공에 대비하여 자재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나당 연합군이 668년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공격하여 함락한 이듬해부터 표면화되어 심화될 기미를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670년 3월에는 신라군이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면서 2만여 명으로 연합하여 당군과 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백제 부흥 세력과 연합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⁸⁾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이미 멸망시킨 상황이었으므로 나당 연합군을 형성한 최초의 목적이 달성된 셈이었다. 따라서 이후로는 당과의 관계도 실리외교의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당이 나당 연합군을 형성할 때의 약속과는 달리 통일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노출시키게 되자 이에 반발한 신라의 대당 인식이 급격히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통일 전쟁 이전에는 당이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로는 오히려 신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일한 적대 세력으로 등장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삼국민 서로간에 내재되어 있던 대결 의식도 크게 약화되어 갔다. 즉 나당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쟁 상황으로 확산되자 삼국민이 당을 공동의 적

으로 하여 서로 결속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당과의 대립과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신라는 대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삼국민의 단결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종래의 삼국인(三國人)이 한(韓)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가진 삼한(三韓)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⁹⁾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를 장악하기 위한 신라와 당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이 신라의 내분을 조장하는가 하면 멸망한 두 왕조의 유민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신라를 자극하였다. 신라도 이에 맞서 삼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당과 대결하는 양립 구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를 위하여 신라는 고안승(高安承)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들에게 정착지를 마련해 주고 고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양국 유민들에게 신라의 관등을 부여하여 융화시키는 화합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⁰⁾

백제나 고구려의 왕족에게는 물론 지배층 유민들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신라의 통치 체제 속으로 흡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쪽으로 당(唐)과 국경을 접하게 될 고구려 유민들을 우대하여 남쪽의 백제 유민보다도 3등급이나 높은 제7관등의 일길찬(一吉潸)에 이르는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최고 6두품으로 흡수하는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

신라가 통일 전쟁의 연장선에서 당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자 특히 고구려 유민들은 나당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여 신라와 공동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신라군의 전력을 크게 보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군과의 동료 의식을 더한층 심화시키게 되었다. 예성강과 임진강 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당군을 축출하기 위해 전개한 전투로 인하여 신라와 고구려 유민의 관계는

오히려 크게 개선되어 상호간에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고구려 유민이 백제 유민에 비해 우대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나당 전쟁을 통하여 삼국민 사이에 형성되던 동족 의식은 전쟁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점차 정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통일 후에 신라가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각각 3개 주씩 분할하여 모두 9개 주를 설치한 것은 이른바 ‘일통삼한의식(一統三韓意識)’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¹¹⁾ 즉 신라는 685년(신문왕 5)에 이미 확보된 영토를 9개 주로 나누고 5개 소경(小京)에 이어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삼국민을 동일한 행정 체계 속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삼한으로 동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¹²⁾ 이와 같이 옛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일원적 행정 체계로 재편성하고 그 유민들을 중앙 및 지방의 관리로 채용하는 이외에도 중앙군의 주력인 9서당에 이들 유민들을 흡수하여 부대를 편성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추진한 민족 융화 정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내재한 나당 전쟁은 신라가 추진한 삼국 통일 전쟁의 연장선상이 있었던 마지막 단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고구려가 중국 대륙의 강대국인 수·당(隋唐)을 상대로 하여 전쟁을 전개하다가 멸망한 후로는 이를 신라가 계승한 의미를 가지는 한민족(韓民族)의 대이민족(對異民族) 전쟁이기도 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 통일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얻어진 결과이며,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대가를 지불한 결과이기도 한 것’¹³⁾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문화사적 의의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성립시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구려였다. 그리고 백제를 뒤따라 가장 늦게 고대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한반도의 동쪽에 치우쳐 있던 신라였다. 고구려가 북방에서 한반도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안 백제와 신라는 고대 국가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 특히 삼국 중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한 신라의 역사는 이 같은 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되었다.¹⁴⁾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 국가의 지배층들은 일반적으로 약탈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토지(土地)와 농민(農民)의 생산성(生産性)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무력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고대 국가로 삼국이 정립(鼎立)함에 따라 이들 사이의 전쟁은 특수한 지리적 역학 관계 때문에 장기적이며 국제전적(國際戰的)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총력전(總力戰) 내지 경제전(經濟戰)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삼국간의 전쟁은 농업(農業)의 발전, 행정조직(行政組織)의 정비, 사회적(社會的) 분화를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⁵⁾

한편 신라는 통일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로 고구려를 통하여 유입한 선진 고대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진흥왕 이래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전개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로 고구려에 의존해 오던 대중국 교통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비로소 신라 문화의 발전 방향이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고구려와 백제 문화가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모순점을 노출시키자 뒤늦게 고대 국가 발전 대열에 참여한

신라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발전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신라는 고구려·백제 문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이들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종합하면서 민족 문화의 윤곽을 새롭고 폭넓게 설정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다.¹⁶⁾ 백제와 고구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의 승리로 당의 군사력까지 몰아내고 난 후로 삼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통일신라의 문화를 꽃피우게 된 것이었다.

사상적으로는 전반적인 문화 역량의 향상에 힘입어 종래의 왕실 불교(王室佛敎) 내지는 귀족불교(貴族佛敎)의 성향에서 탈피하여 대중불교(大衆佛敎)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계통면에서도 소승불교(小乘佛敎)에서 대승불교(大乘佛敎)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불교 사상이 심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은 기타 분야에도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유교(儒敎)나 도교(道敎)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학(經學)이나 한문학(漢文學)을 비롯하여 각종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신라 시대 문화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¹⁷⁾

사상적으로는 통치자(統治者) 우위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불교, 유교 등이 국가적 사상으로 정착되어 갔다. 따라서 보다 조직적이며 논리적인 사상 체계로 권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삼국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을 최고위층에서 이끌어 간 집단은 신라의 귀족층인 진골 계층이었다. 그러나 정치·군사·경제·사상 등 각 분야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육두품(六頭品) 계층의 인물들과 젊은 화랑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승려

계층이 전쟁을 최후의 승리로 장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주도 세력이었다.¹⁹⁾ 이들 육두품과 승려 계층은 나당 전쟁에 이르는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로 진골 귀족 집단과 아래로 일반 평민들을 연결시키고 초부족적 규범들을 실천하는 생활을 통하여 성장해 나갔다. 이와 같이 성장한 육두품과 승려 계층의 눈부신 활약은 나당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족 문화가 형성·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²⁰⁾

이들 육두품이나 승려 계층보다 하위층을 형성하고 있던 서민층은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삼국 통일 전쟁과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초석이 되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의 과업을 이룩함으로써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주로 일반 서민층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삼국 중에서 승전국인 신라를 제외한 백제와 고구려의 수많은 귀족들이 지배층의 지위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일반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피지배층은 삼국시대 일반 주민들에 비해 보다 향상된 여건 속에서 사회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²¹⁾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종래에 지배층 위주로 전개되어 오던 문화의 폭을 일반 서민층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를 흡수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민족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신라의 삼국 통일을 민족 내부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반민족적 행위라는 부정적 입장의 시

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신라의 통일이 고구려 고토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불완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정치·경제·문화·언어 등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광로의 역할을 한 최초의 민족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²²⁾ 이러한 의의를 지닌 신라의 삼국 통일은 나당 전쟁을 통하여 당의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비로소 이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로 신라의 전통 문화를 저변에 깔고 그 바탕 위에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문화의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위에 당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착시킴으로써 통일신라 문화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반면에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생활 무대가 한반도로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광활한 만주 대륙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북방 문화의 통로를 상실하게 되어 문화의 양과 질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국 일변도의 문화편중(文化偏重)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²³⁾

주 기

〈서 론〉

- 1)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재판) pp. 51~53
- 2)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58
- 3) 「新羅의 風土와 그 歷史의 特性」(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pp. 6~7

〈제 1 장 나당 전쟁의 정치·경제적 배경〉

- 1) 「三國의 發展과 貴族國家의 形成」(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一潮閣 1983 중판) pp. 150~151
- 2) 「三國의 發展과 貴族國家의 形成」(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52
- 3)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53
- 4) 「新羅 初期 佛教와 貴族勢力」(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97 중판) pp. 76~77
- 5)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82
- 6) 「新羅의 國家의 完成과 專制王權의 確立」(申滄植 『新羅史』 이화여대 출판부 1988) p. 109
- 7) 「三國間의 對立과 그 樣相」(李龍範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p. 238
- 8)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53
- 9) 「新羅의 國家의 完成과 專制王權의 確立」(申滄植 『新羅史』) p. 110
- 10)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申滄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6 중판) p. 299
- 11)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申滄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 302

-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90 중판) p. 86
- 12) 「新羅 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朱甫墩 『韓國史研究』 23 1979) pp. 26~27.
- 13)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86
- 14)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李鼎淑 『新羅文化』 제16집 1999) p. 16
- 15)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p. 187~188
- 16) 「新羅兵部令考」(申滢植 『歷史學報』 제61집 1974) p. 196
- 17) 「新羅兵部令考」(申滢植 『歷史學報』 제61집) p. 99
- 18) 「稟主考」(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0 중판) pp. 140~144
- 19)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李基東 『韓國史講座』-古代篇) p. 186
- 20)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p. 251
- 21)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1995) p. 58
- 22) 「新羅貴族勢力的 基盤」(金哲堉 『人文科學』 7 서울대 1962) p. 277
- 23)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제편」(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1995) p. 86
- 24) 「6世紀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朱甫墩 『韓國古代社會의 地方支配』 韓國古代史研究會 1997) p. 121, 123
- 25)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 201, 203
- 26)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 198, 203
- 2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智證麻立干 6년(505) 2월
- 28)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 208
- 29)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p. 227~228
- 30)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李鍾旭 『歷史學報』 제64집 1974) p. 68
- 31)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김두진 『韓國古代史論』 8 한길사 1988) p. 192

- 32) 「6世紀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朱甫墩 『韓國古代社會의 地方支配』 p. 129
- 33) 「신라 중고기 州의 構造와 性格」(李銖勳 『釜山史學』 12 1988) p. 19
- 34) 「6世紀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朱甫墩 『韓國古代社會의 地方支配』 pp. 136~141
- 35)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p. 211~212
- 36) 「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p. 215
- 37) 「三國間的 對立과 그 樣相」(李用範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p. 238~239
- 38)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p. 250~252
- 39)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 254
- 40)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李晶淑 『新羅文化』 제16집) p. 15
- 41)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申滢植 『新羅文化』 제2집 1985) p. 9
- 42)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pp. 258~259
- 43)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善德王 12년(643) 9월
- 4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善德王 14년(645)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 194
- 45) 「統一外交의 成立-金春秋」(李萬烈 『講座 三國時代史』 지식산업사 1976) p. 228
- 46)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pp. 261~262
- 47)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眞德王 2년(648)
- 48) 신라의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진덕여왕대의 정치적 변혁과 관련한 연구로는 「新羅 眞德女王代の 政治改革」(任慶彬 국민대 석사논문 1983)이 참고된다.
- 49)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 267
- 50)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14년(655)조에는 2월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소정방도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으로 되었다. 그러나 여

기서는 新羅 本紀 제5 太宗武烈王 2년(655)의 내용과 『舊唐書』 本紀 제4 高宗 永徽 6년 3월의 내용에 따랐다.

- 51)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高宗 顯慶3(658) <6309>
契苾何力은 ‘계필하력’으로도 발음되고 있으나 중국 연구서들을 참고하여 국역한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1984) p. 126, pp. 133~134의 내용에 따라 ‘설필하력’으로 발음하였다.
- 52)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p. 50~52
- 53)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55
- 54)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45
- 55)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57
- 56)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47
- 57) 「전기신라의 광업」(리태영 『조선광업사』 1 백산자료원 1998) p. 143
- 58) 「각종 수공업기술의 발달」(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p. 66
- 59)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1990) p. 18
- 60) 「전기신라의 광업」(리태영 『조선광업사』 1) p. 145
「전기신라의 농업」(장국중 『조선농업사』 1 백산자료원 1998) p. 58
- 61)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p. 22~23
- 62)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19
- 63)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28
- 64) 「신라 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이인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94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28
- 65)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제3 訥祗麻立干 13년(429)
- 66)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法興王 18년(531)
- 67)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체편」(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5) p. 71, pp. 75~76

- 68)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p. 100
- 69) 「삼국시대의 조(租)·조(調)」(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p. 77
- 70) 「전기신라의 농업」(장국중 『조선농업사』 1) p. 57
- 71)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p. 30~31
- 72)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p. 59
- 73) 「전기신라의 농업」(장국중 『조선농업사』 1) p. 58
- 74)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p. 101
- 75)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김두진 『韓國古代史論』 8) pp. 191~192
- 76)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31
「수공업의 전개와 신라사회」(朴南守 『新羅手工業史』) p. 322
- 7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智證王 10년(509)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31
- 78) 「4~6세기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32
- 7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제3 訥祗麻立干 22년(438) 여름 4월
- 80)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제3 炤知麻立干 9년(487) 3월
- 8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제4 智證王 6년(505) 11월
- 82) 「三國間の 對立과 그 樣相」(李龍範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 235
- 83)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 경영형태」(朴南守 『新羅手工業史』) p. 53
- 84)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이인재 『역사와 현실』 제4호) p. 98 · 101
- 85) 「삼국시대의 조(租)·조(調)」(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p. 66
- 86) 「삼국시대의 조(租)·조(調)」(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p. 73

- 87) 「신라 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이인제 『역사와 현실』 제4호) pp. 112 ~113
- 88) 「稟主考」(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 141 ~144

〈제 2 장 나당 전쟁의 군사·외교적 배경〉

- 1) 「新羅貴族勢力의 基盤」(金哲堧 『人文科學』 7 서울대 1962) pp. 278~279
- 2) 「6~7世紀의 武器·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李仁哲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pp. 19~20
- 3) 「新羅三國統一의 一要因」(李宇泰 『韓國古代史研究』 5 지식산업사 1992) p. 122
- 4)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지식산업사 1992) p. 264~265
- 5)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p. 265 ~268
- 6)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p. 268 ~269
- 7)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p. 270 ~272
- 8)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 278
- 9)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p. 280 ~281
- 「新羅의 軍官職과 軍事組織의 編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p. 360
- 10)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 283
- 11)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p. 287 ~288
- 「新羅 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56~357
- 12)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盧瑾錫 『韓國古代史研究』 5) p. 292
- 13) 「6~7世紀의 武器·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李仁哲 『韓國古代史論叢』 제7

- 집) p. 21
- 14)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 제5 武王 6 · 12 · 17 · 24 · 25 · 27 · 28 · 29 · 33 · 34 · 37년(636)
 - 15) 「6~7世紀의 武器 · 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李仁哲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p. 39
 - 16) 「6~7世紀의 武器 · 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李仁哲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p. 53
 - 17)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 김법민의 현대적 해석」(노태돈 『月刊 중앙 WIN』 1998. 12. 부록) pp. 182~183
 - 18) 「정치력과 외교력, 그 엇갈린 선택-연개소문과 김춘추」(여호규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 푸른역사 1999) pp. 15~19
 - 19)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3년(643)
 - 20)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11년(651)
 - 21)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15년(655)
 - 22)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79) pp. 192~193
 - 23)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김두진 『韓國古代史論』 8 한길사 1988) pp. 181~182
 - 24)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97 중판) pp. 48~49
 - 25) 「新羅時代의 佛教과 國家」(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p. 263~264
 - 26) 「異次頓說話에 對한 新考察」(崔光植 『韓國傳統文化研究』 1 효성여대 1985) p. 231
 - 27) 「新羅 初期 佛教과 貴族勢力」(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p. 76~79
 - 28)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김두진 『韓國古代史論』 8) pp. 181~184
 - 29) 「三國間의 對立과 그 樣相」(李龍範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p. 236
 - 30)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p. 49~50
 - 31) 「新羅 初期 佛教과 貴族勢力」(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p. 93~94
 - 32) 「淨土信仰과 新羅社會」(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p. 188~189

- 33)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43
- 34) 백제에 대야성을 빼앗긴 이듬해(643)에 호국의 상징인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시작한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文武王의 佛教政策」(金福順 『新羅文化』 제16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9) p. 21
- 35)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39
- 36)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35
- 37)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40
- 38)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李晶淑 『新羅文化』 제16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9) p. 15
- 39) 「三國間의 對立과 그 樣相」(李龍範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 237
- 40)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36
- 41)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1995) p. 58
- 42) 「한국 고대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84 재판) p. 72
- 43) 황룡사의 건립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黃龍寺九層塔考」(金相鉉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가 참고된다.
- 44) 「三國時代 佛教 受用과 그 社會的 意義」(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p. 41 · 37
- 45)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金相鉉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7집 1996) pp. 126~133, 139~144
「新羅 中代の 入唐求法僧 研究」(呂聖九 國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 51~52
「新羅 四天王信仰의 受用과 展開」(沈曉燮 『東國史學』 제30집 東國史學會 1996) pp. 125~129
- 46) 「당 전기 중앙집권 정치제도의 강화와 사회경제의 번영」(郭伯贊 편, 이진복 · 김진옥 옮김 『中國全史』 上 學民社 1990) pp. 390~391
- 47) 「唐」(宮崎市定 著 · 曹秉漢 譯 『中國史』 學民社 1984) pp. 206~207
- 48) 관룡집단 중에서 무후를 지지하는 세력만 살아남아 등용되었다. 「則天武后의 權力集中策」(孫敏佐 『慶北史學』 제6집 1983) pp. 119~120, p. 127
- 49) 「唐 官僚制의 成立과 그 展開」(李啓命 『隋唐官僚制의 成立과 展開』 전남대

- 출판부 1995) pp. 186~195, 201~202
- 「唐 前期의 支配層」(柳元迪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1989) p. 235
- 「則天武后의 權力集中策」(孫敏佐 『講座 中國史』 II) p. 151
- 50) 「唐 前期의 支配層」(柳元迪 『講座 中國史』 II) pp. 245~249
- 51) 「唐의 制度」(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宇鍾社 1974) pp. 552~553
- 52) 「唐 前期의 支配層」(柳元迪 『講座 中國史』 II) p. 244
- 53) 「律令制」(布目潮瀧・栗原益男 著 『中國の歴史』 4 講談社 1974) p. 179
- 54) 「隋唐五代政治制度」(呂思勉 『隋唐五代史』 下 上海古籍出版社 1984) pp. 1207~1208
- 55) 「통일제국의 부흥-수·당대 전기」(中國史研究室 編역 『中國歷史』 上 신서원 1993) pp. 396~397
- 56)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p. 43~44
- 57) 「통일제국의 부흥-수·당대 전기」(中國史研究室 編역 『中國歷史』 上) pp. 395~397
- 58)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 468・490
- 59)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 469
- 60) 「당 전기 중앙집권 정치제도의 강화와 사회경제의 번영」(翦伯贊 編, 이진복・김진옥 옮김 『中國全史』 上) pp. 388
-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 472
- 61)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 478・481
- 62)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p. 474~476
- 63) 「盛唐時代의 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pp. 487~488

〈제 3 장 나당 전쟁의 원인〉

- 1) 「新羅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許重權 한국교원대학교 박사논문 1995) p. 74・79
- 2) 당의 고구려 침공 원인을 당의 국내 문제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즉 연개소문이 군주를 시해한 책임을 추궁하여 태종 자신이 지목한 후계자가 황제가 되지 못하고 연약한 인물이 황제가 되

었을 경우에 일어날 변란을 ‘응징’함으로써 본보기로 삼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첫째 이유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수대 이래의 숙원인 고구려 멸망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성망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황태자 책립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다른 전쟁과 달리 친정(親政)을 고집한 것은 단순히 대고구려 전쟁의 중대성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一考察』(朴漢濟 『東洋史學研究』 제43집 1993) pp. 37~39

- 3) 『統一 外交의 成立-金春秋』(李萬烈 『講座 三國時代史』 지식산업사 1976) p. 228
- 4) 나·당 전쟁의 원인 부분은 필자의 「나·당 전쟁의 배경」과 「나·당 전쟁의 원인」(『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을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 5) 『三國史記』, 『東國兵鑑』 등 우리측 자료에는 13만 군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中國歷代戰爭史』 第8冊(三軍大學 編著 여명문화사업공사 <대만> 1981 수정 2판) 등의 중국측 기록에는 모두 10만 대군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13만 대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신라 국왕을 우이도(嵎夷道)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였는데, 『唐書』 本紀 高宗 上에 우(禹)이도로 되어 있으나 기타 기록에는 모두 우(嵎)로 되어 있기에 이를 따랐다.
- 6)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9월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2 1984) p. 113과 「百濟의 滅亡」(李萬烈 『講座 三國時代史』) p. 261에서는 왕과 태자 효·왕자인 태·용·인과 대신 및 장군 88명과 일반 백성 1만 2천8백7명을 당으로 데려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三國史記』 권42, 列傳 제2 金庾信 中에 의하면 백제 왕과 신하 93인과 군사 2만 인을 포로로 하여 9월 3일에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다고 함으로써, 인원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신라 본기의 기사에 따랐다.
- 7)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9월
- 8)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20년(661)
- 9)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高宗 龍朔 元年(661) <6324>

- 「隋唐五代政治制度」(呂思勉『隋唐五代史』下) p. 1226
- 10)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上 元年(661)
 - 11)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高宗 龍朔 元年(661) 기사에는 ‘秋 7月’이라 하였으나,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20년(661) 기사에는 8월의 사실로 기록하였으므로 삼국사기의 기사를 따랐다.
 - 12)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20년(661) 9월
 - 13) 「盛唐時代の武功」(傅樂成 著, 辛勝夏 譯『中國通史』宇鍾社 1974) p. 475
 - 14) 『舊唐書』 권4, 本紀 제4 高宗 上 龍朔 2년(662) 3월
 - 15) 『舊唐書』 권4, 本紀 제4 高宗 上 龍朔 3년(663) 2월
 - 16) 연개소문의 사망시기는 대체로 신채호(申采浩)의 657년 설과 『唐書』 및 『三國史記』의 666년 설이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66년을 택하였다.
 - 17)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乾封 元年(666)
 - 18)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6년(666) 12월
 - 19)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乾封 2년(667) · 總章 元年(668)
 - 20)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668)
 - 21)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史學研究』 제50호) p. 56
 - 22) 『資治通鑑』 권200, 唐紀 16 高宗 顯慶 5년(660) 8월 <6321>
『國譯 三國史記』(李內燾 을유문화사) p. 427의 주 5) 참조
 - 23)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p. 114 보주 참조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229 이때 신라군은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김인태가 지휘하는 7천명이 사비성에 잔류하였다.
 - 24) 5방(方)에 대해 문정창은 중방: 고사성(古沙城) · 동방: 득안성(得安城) · 남방: 구지하성(久知下城) · 서방: 도선성(刀先城) · 북부: 웅진성(熊津城) 등으로 설정하였다. 『百濟史』(文定昌 인간사 1988) pp. 76~81
「三國統一과 그 意義」(林炳泰 李熙德『韓國史大系』 3) p. 38
『國譯 三國史記』(李內燾 譯註 을유문화사) p. 427의 주기 7 참조
 - 25) 「新羅의 半島 統一과 渤海의 建國」(李基白『韓國史講座』-古代篇 일조각) p. 292 · 298
「羅 · 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史學研究』 제40호) p. 147에서는 51현이

라 하였다.

- 26) 『百濟史』 (文定鼎 인간사) pp.305~306의 주 2 참조
- 2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1년(671) 7월 26일 설인귀의 항의 서신에 대한 문무왕의 답신
- 28)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93
- 29) 「新羅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許重權 한국고원대학교 박사논문) p. 136의 주 50
- 3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9월 23일
- 31)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龍朔3 <6337>에는 2백여 성이라 하고, 「百濟의 滅亡」(李萬烈 『講座 三國時代史』 지식산업사) p. 264에서는 백제 멸망 초기에 사비성 남령을 비롯하여 20여 성에서 활약하였다고 하였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國譯 三國史記』(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p. 94에서는 서천군 한산 건지산성(乾止山城)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학성산성·태봉산성·소구니산성 등과의 지리적 관계를 분석한 정순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에 따랐다.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과 백제와 夫餘豐 행적을 따라」(정순태,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地方勢力 形成의 諸要因」(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신서원 1993 증보판) pp. 37~38 주 39
- 32)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 33) 『國譯 三國史記』(李內燾 譯註 을유문화사) p. 427 주 10 참조
- 34) 『舊唐書』 권199 상, 列傳 제149 상, 東夷 百濟傳 <5333>
- 35)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 김법민의 현대적 해석」(신형식 좌담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 36) 「三國統合 成就」(李晔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p. 229
- 3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3년(663)
- 38)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원년 12월~2년 9월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 김법민의 현대적 해석」(노태돈 좌담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국제 전쟁의 양상과 파장」(卞麟錫 『月刊중앙

WIN』 11월호)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관계』(卞麟錫 한울역사학강좌 1994) 참조 ; 백강구의 위치에 대하여 금강 하류나 동진강 하류로 추정하는 일본인 학자의 주장도 있으나,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변인석과 정순태(『反외세 통일 의 군주 文武王-문무왕과 백제왕 夫餘豐 행적을 따라』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가 당진군 석문면 백석(白石) 해안이라고 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이에 따랐다.

- 3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3년(663) 기사에 의하면 문무왕의 신라군이 10월 21일부터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11월 4일에 철수하였다고 한다.

- 40)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 41) 『舊唐書』 권109 列傳 제59 黑齒常之 <3295>

- 42) 『舊唐書』 권84 列傳 제34, 劉仁軌 <2793>

- 43) 「신라의 반도 통일과 발해의 건국」(李基白 『韓國史講座』-古代篇) pp. 294~295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호) p. 147 주23 ; 백제 부흥군의 저항이 막을 내리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663년이라고 하나 664년 3월에 사비산성(부소산성 <扶蘇山城>)을 점령하고 있는 부흥군을 공격한 기사로 볼 때 적어도 이때까지는 부흥군의 활동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월부터 웅진 지역의 군대를 고구려 돌사성(突沙城) 공격에 동원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부흥군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44)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4년(664) 8월

- 45) 『國譯 三國史記』(李丙燾 역주 을유문화사) p. 94의 664년 3월 기사에 웅진 도독을 부여융이라고 주기하고, p. 95의 주 5에서 부여융이 환국시에 당주로부터 피명되었다고 하였다.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5년(665) 8월에 「勅使劉仁願 熊津都督扶餘隆」의 기사가 있으나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麟德 元年(664) 10월 <6340> 기사에 「檢校熊津都督劉仁軌」와 <6342> 에 「부여융으로 웅진 도위를 삼았다」는 기사와 차이가 있다. 호삼성(胡三省)의 주에 「부여융이 웅진 도위의 자격으로 신라 김법민과 회

맹한 것'이라 하여 웅진 도독이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閔德植은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史學研究』 제40호) p. 147의 주 3에서 '百濟扶餘隆墓誌銘'을 이용하여 당은 664년에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삼았고, '百濟郡公'으로 봉작되어 '熊津道總管' 겸 '馬韓道安撫大使'까지 겸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664년 10월까지의 유인케가 웅진도독이었으며, 『資治通鑑』 권201의 <6344>에 의하면 문무왕과 회맹하던 665년 7월에도 부여용은 웅진도위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2년 <6382~6383>에 의하면 677년 2월에 '司農卿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삼고 帶方王에 봉하여 백제 유민들을 위무하도록 하였다'고 한 것에 따르면 이때 웅진도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

- 46)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麟德 2년 <6344>
- 4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5년(665)
- 48) 「삼국통일 과정」(李昊榮 『한국사』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 44~45
- 4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0년(670) 정월조에 의하면 당 고종은 신라가 백제의 영토와 그 유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신라 사신을 감금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라는 당의 야욕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 50)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집) p. 148
- 51) 「三國統合 成就」(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pp. 230~231
- 52)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8년(668) 9월 기사에 보장왕과 왕자·대신 등 20여만 구(口)를 거느리고 당으로 돌아 간 것으로 되어 있다.
- 53) 『舊唐書』 本紀 제5 高宗 下 總章 元年(669) 9월 계사조 및 列傳 第149 上 高麗傳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6356>
- 54)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6356>
- 55)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 50
- 56)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李丙熹 『韓國古代史研究』 박영

사 1976) pp. 456~457

- 57)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2년(669) 4월 기사 <6359> 에는 3만 8천 2백 호라고 하였으나, 『舊唐書』 本紀 제5, 高宗 下 總章 元年(669) 5월 경자 기사에는 2만 8천 2백 호에 수레 1,080승·소 3,300두·말 2,900필·낙타 60두를 당의 내륙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구당서의 기록에 따른다.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池内宏『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pp. 420~421 내용과 주1 참조
- 58)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史叢』 제46호) p. 51
- 59)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 김법민의 현대적 해석」(노태돈 좌담,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 60)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0년(670)
- 61)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盧泰敦『軍史』 제34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 7
- 62)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下, 咸亨 2(671)
- 63)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下, 咸亨 3(672)
- 64)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 寶藏王 下, 儀鳳 2(677) ; 보장왕은 요동으로 돌아온 후 고구려 유민과 말갈 세력을 규합하여 대당투쟁을 계획하다가 도중에 발각되어 681년에 공주(邳州)로 소환되었다.
- 65)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즉위·원년 ; 이때 참전한 신라군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0여만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66)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2년(662)
- 6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3년(663)
- 68) 부여융은 665년 7월에 당 고종이 신라 국왕과 회맹하도록 명령할 때도 ‘웅진도위’였으나, 『舊唐書』 列傳 第149 上 百濟傳에 있는 회맹문에 비로소 ‘전백제 태자사가정경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前百濟太子司稼正卿扶餘隆爲熊津都督)’라고 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에 승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 당 고종은 신라 문무왕의 위신을 고려하여 그와 회맹하는 부여융을 ‘도독’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 6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7년(667)
- 70) 『三國史記』 권42, 列傳 제2 金庾信 中
- 71) 『三國史記』 권42, 列傳 제2 金庾信 中에 의하면 소정방이 귀국하여 당 고종에게 복명할 때 ‘어찌하여 곧바로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는가’라는 고종의 질문에 ‘신라는 인군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들이 웃사람 섬기기를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으나 쉽사리 공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72)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4년(664)
- 7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1년(671) 7월 26일자 설인귀의 편지에 대한 문무왕의 답서 내용
- 74)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 김법민의 현대적 해석(노태돈 좌담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 75)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申潁植 『新羅文化』 제2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5) p. 15
- 76)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52
- 77)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p. 47~48
- 78)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p. 229~230에는 『三國史記』 권5, 太宗武烈王 8년 4월 19일의 ‘…백제군을 만나 싸우다가 패퇴하여 사자가 비록 적었으나 치중 병기를 상실함이 매우 많았다.’라고 한 기사를 ‘내막적으로는 신라가 당나라 강점군이 곤경에 빠지도록 정세를 조정하려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그러면서도 당나라 침략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라가 많은 무력을 출동시킨 사실은 백제 유민들의 항전 세력과 당나라 강점군 사이에서 신라가 취한 양면 전술을 잘 보여 준다’고 하였다.
- 79)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 8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10월 30일
- 81)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7년(660) 11월 22일
- 8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제5 太宗武烈王 8년(661)
- 83)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229
- 84)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元年. 신라는 661년 6월에 태종 무열

왕의 국상(國喪)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하는 고구려 침공부대를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85)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9년(669)·10년(670)
- 86)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對唐 7년전쟁」(李昊榮 『月刊중앙 WIN』 11월 호 1996)
- 8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0년(670)
- 88) 「新羅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許重權 한국고원대학교 박사논문) p. 115
- 8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1년(671)
- 90)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對唐 7년전쟁」(李昊榮 『月刊중앙 WIN』 11월 호 1996)
- 91) 『三國史記』 권37, 雜志 제6 地理 4
- 92)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0년(670)
- 93)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 36
- 94)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p. 50~51
- 95)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10년(670)
- 9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1년(671) 7월 26일자 설인귀의 편지에 대한 문무왕의 답서 내용

〈제 4 장 나당 전쟁의 경과〉

- 1) 당은 이미 신라에 대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 영토를 할양하여 신라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고구려 고토에 당의 행정부서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신라를 극도로 자극하였다.
- 2)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盧泰敦 『軍史』 제34호 1997) p. 10
- 3) 문무왕은 668년(문무왕 8) 9월에 대외외교를 복원한 이후로 681년 7월까지

- 13년간에 걸쳐 12회나 사절을 파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8세기의 신羅와 日本의 關係」(金恩淑 『國史館論叢』 제29집 1991) p. 104
- 4)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盧泰敦 『軍史』 제34호) pp. 9~11
- 5)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盧泰敦 『軍史』 제34호) pp. 12~13
- 6) 신라는 683년 10월에 보덕왕 안승에게 소판(蘇判: 진골의 품계로 제3 관등) 벼슬과 김씨 성을 하사하고 경주에 정착하도록 하였다. 이듬해(684) 11월에는 안승의 족자(族子)인 장군 고대문(高大文)의 모반계획을 적발하고 그 일당을 처형하였다. 이때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고대문의 처형에 반발하여 신라의 관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난동을 일으켰다. 신라는 토벌과정에서 당주(幢主) 김필실(金逋實)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들을 제압한 후에는 모두 신라 남쪽 내륙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금마군(金馬郡)'으로 개칭하였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제8 神文王 3·4년) 이해에 신라는 고구려 유민들로 황금서당(黃衿蟹幢), 말갈유민들로 흑금서당을 편성하여 국왕의 직속부대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686년에도 고구려 유민들로 백금서당과 적금서당을 편성하고 그 이듬해에는 백제 유민으로 청금서당을 편성하였다. 「新羅と小高句麗國」(村上四男 『朝鮮學報』 제37·38집 1966) pp. 68~70
- 7)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의 p. 236과 243에는 재령의 장수산성을 최초의 거점으로 보고 금마저는 그보다 뒤에 옮겨진 지역으로 보았다. 당시 금마저는 당군의 치하에 있었으므로 고구려 유민이 거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 8) 백제 고토에서의 전투는 필자의 「나·당 전쟁의 경과」(『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를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 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제6 文武王 上(670)
- 10)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집) p. 158
- 1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1년(671)
- 12) 설인귀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669년 말에 본국으로 소환되어 토번족(吐蕃

- 族: 티베트족) 반격작전에 참전하였다. 행군총관으로서 정벌군을 지휘하였으나 청해성(靑海省) 대비천(大非川) 전투에 대패하였다. 이때 과면당하는 처벌을 받았으나 나·당 전쟁이 심화되자 재기용되어 대신라전에 참전하였다.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1984) p. 152 보주
- 13)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盧泰敦 『軍史』 제34호) p. 11
- 1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2년(672)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p. 160
- 15)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咸亨 元年(670) <6363~6364>
- 16) 고구려 고토에서의 전투는 필자의 「나·당 전쟁의 경과」(『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을 중심으로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 1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2년(672)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집) p. 162
- 18)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2년(672)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p. 159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집) p. 163
- 19) 『三國史記』 권43, 列傳 제3 金庾信 下
- 20)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閔德植 『史學研究』 제40집) p. 164
- 2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2년(672)
『東國兵鑑』(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군사문헌집 2) p. 160
- 22)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4) pp. 78~88
- 23)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咸亨 4 <6371> 과 『新唐書』 권220, 列傳 제145 高句麗傳 <6198> 에 의하면 이 무렵의 전투에 이근행(李謹行)의 처(妻)인 유씨(劉氏)도 벌노성(伐奴城)에 주둔하고 있던 중 고구려 부흥군과 공방전을 벌였다고 한다. 벌노성의 위치는 알 수 없으며, 고구려 부흥군이 말갈군을 동원하여 함께 공격을 가하자 이근행의 처가 군사를 지휘하여 공격부대를 물리침으로써 수성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 기사는 『三國史記』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 2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3년(673)
- 25)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3년(673)
- 26)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p. 242에 의하면 대양성을 강원도 양구(楊口)부근으로 비정하였다. 이병도의 『國譯 三國史記』 p. 121에 의하면 '위치미상'이라 하였다.
- 2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4년(674)
- 28) 「新羅 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權憲永 『韓國史研究』 50·51 1985) p. 85
- 29)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4년(674)
- 30)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p. 35~40
- 3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5년(675) 기사에 의하면 신라군의 패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전사』 4-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244에 의하면 '신라군의 완강한 방어로 수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격퇴되었다'고 하였다.
- 32) 『三國史記』 권47, 列傳 제7 素那傳 ; 한편 新羅本紀 제7 文武王 下에는 675년 9월의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素那傳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어서 이에 따랐다.
- 33)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p. 44~47
- 34) 『新唐書』 권220, 列傳 제145 新羅傳
- 35) 김진주는 신라의 대당총관(大幢總管)으로서 662년 8월에 남천주총관(南川州總管) 김진흠(金眞欽)과 함께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던 중에 임무태만죄로 처형되고 그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다.
- 36) 『國譯 三國史記』(李內融 譯註 울유문화사) p. 123 주기 3참조
- 3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5년(675)
- 38) 「買肖城 研究」(安國承 『京畿郷土史學』 제2집 1997) p. 267, pp. 276~277
- 39)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pp. 82~101
- 40) 「매조성 전투」(『한민족 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의 필자李晷榮은 『三國史記』에는 20만명이라 하였지만 중국측 사서를 참작하면 4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호영은 '20만명은 엄청난 과장'이라고 전제하고 고간의 2만명과 이근행의 2만명을 합쳐도 4만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사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도 의문을 품었다. 『新羅三國統
습과 麗·濟敗亡原因研究』(이호영 서경문화사 1997) p. 255의 주48에 의하
면 買蘇城으로 호칭하며, 경기도 연천군 靑山面 大田 1리 大田里山城에 비
정한 崔根泳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對唐 7년
전쟁」(李昊榮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 「地方勢力形成의 諸問題」
(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신서원 1993 증보판) p. 47 주기
90

- 41)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5년(675) ;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對唐 7년전쟁」(李昊榮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에 의하면 신라의 9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근행군을 매소성 일대로 유도한 다음 남을 향해 배수진을 치자 철통같이 포위한 후 대파하였다고 한다.
- 42)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p. 101~104
- 43)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5년(675)
- 4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1년(671)
- 45)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2년(672)
- 4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5년(675)
- 4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6년(676)
「反외세 통일의 군주 文武王-문무왕과 백제와 夫餘豐 행적을 따라」(정순태 『月刊중앙 WIN』 11월호 1996)
- 48)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p. 51~52
- 49) 『遊牧民族帝國史』(록 판텐 저·宋基中 역) pp. 67~68
- 50)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梁炳龍 『史叢』 제46호) pp. 40~41
- 51) 「唐中期の政治と社會」(礪波 護 『世界歴史 5』-岩波講座 5 1970) p. 449
- 52)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申滢植 『新羅文化』 제2집) p. 11
- 53) 「통일제국의 부흥-수(隋)·당대(唐代)전기」(中國歷史研究室 편역 『中國歷

史』上 신서원 1993) p. 399

- 54) 「羅唐同盟의 瓦解」(존·씨·제미슨 『歷史學報』 제44집 1969) p. 10

〈제 5 장 나당 전쟁의 결과〉

- 1) 「盛唐時代の 武功」(傅樂成 저 辛勝夏 역 『中國通史』 宇鍾社, 1974) p. 487
- 2)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徐榮教 『慶州史學』 제17집 慶州史學會 1998) pp. 41~42
- 3)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2년(677) <6382~6383>
- 4)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2년(677) <6382~6383>
- 5)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高宗 弘道 元年(683) <6416~6418>
- 6)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則天后 光宅 元年(684) <6422>
- 7)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宋基豪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pp. 554~568에 의하면, 1929년 10월에 중국 하남성 낙양에서 흑치상지와 그 아들 흑치준(黑齒俊)의 묘지명이 함께 발견되었다. 흑치상지는 663년에 유인케에게 항복한 후 부여읍과 함께 입당하여 만년현(萬年縣)에 편입되었다. 664년에 절충장군을 제수받고 부여읍과 함께 귀국하여 웅진성을 고수하다가 665년에 다시 부여읍과 함께 입당하였다.
- 8)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則天后 光宅 元年 <6422~6431>
- 9)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則天后 光宅 元年 <6432>, 垂拱 2년(686) <6438>
- 10)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則天后 垂拱 元年(685) <6433~6434>
- 11) 『資治通鑑』 권203, 唐紀19 則天后 垂拱 2년 <6442>; 권204, 唐紀20 則天后 垂拱 3년 <6443>, <6445>
- 12)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天后 垂拱 4년 <6449>
- 13)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天后 永昌 元年(689) <6461>; 조희절(趙懷節)의 모반에 연루되었다는 주흥(周興) 등의 모함을 받아 60세에 처형되었다. 10여년 후인 698년에 복권되어 좌옥검위대장군(左玉鈐衛大將軍)으로 추증되었고 이듬해 2월 17일에 낙양 망산(邙山)의 남쪽, 관도(官道)의 북쪽에 이장되었다. 그 아들 흑치준은 676년 당에서 태어나 695년경에 토번의 침공을 물리치는 전쟁에 무후의 조카이며 막강한 세력가인 양왕(梁王) 무삼

- 사(武三思)의 부하 장수로 참전하여 군공을 세움으로써 유격 장군(遊擊將軍)의 벼슬을 받았다(『譯註 韓國古代金石文』, pp. 554~576). 그리고 「百濟黑齒常之 父子의 墓地銘檢討」(李文基 『韓國學報』 64, 1991)도 참고된다.
- 14) 『資治通鑑』 권205, 唐紀21 則天后 長壽 元年(692)~2년 <6487~6488>
 - 15) 「盛唐時代의 武功」(博樂成 저 辛勝夏 역 『中國通史』) p. 481
 - 16) 「당(唐) 전기 중앙집권 정치제도의 강화와 사회경제의 변영」(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中國全史』 上) p. 390
 - 17) 「唐全盛期の 內政」(博樂成 저 辛勝夏 역 『中國通史』) p. 448
 - 18)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天后 天授 元年(690) <6467~6468>
 - 19) 「唐全盛期の 內政」(博樂成 저 辛勝夏 역 『中國通史』) p. 448
 - 20) 「당(唐) 전기 중앙집권 정치제도의 강화와 사회경제의 변영」(翦伯贊 편, 이진복·김진옥 옮김 『中國全史』 上) p. 390
 - 21) 「高句麗 遺民史 研究」(盧泰敦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p. 82
 - 22)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元年(676) <6380>
 - 23)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2년(677) <6382~6383> 이때 보장왕 고장은 당으로부터 공부상서(工部尙書)의 벼슬을 받고 있었다.
 - 24) 「高句麗 遺民史 研究」(盧泰敦 『韓祐勳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p. 83
 - 25) 「小高句麗의 建國」(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 三一書房 1984) pp. 82~83
 - 26) 「高句麗 遺民史 研究」(盧泰敦 『韓祐勳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p. 83
 - 27) 『舊唐書』 권199 상, 列傳 149 상 高麗傳 <5328>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2년(677) <6382~6383>
 - 28) 『舊唐書』 권199 상, 列傳 149 상 高麗傳 <5328>
 - 29) 「小高句麗의 建國」(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이 주요 논문으로 참고된다.
 - 30)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盧重國 『韓國古代史研究』 1 지식산업사 1988) p. 117
 - 31) 「新羅と小高句麗國」(村上四男 『朝鮮學報』 제37·38집) pp. 68~70
 - 32) 『三國史記』 권36, 雜志 제5 地理 3
 - 3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제9 景德王 16년(757) 12월 기사에는 무진주에

14개 군과 44개 현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4) 「新羅의 政治와 社會」(林炳泰 李熙德 公저 『韓國史大系』 3) p. 47
- 35) 「新羅 文武王代の 對服屬民 政策」(金壽泰 『新羅文化』 제16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9) pp. 14~15
- 36) 「地方勢力形成의 諸要因」(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pp. 58~60
- 37)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32~333
- 38) 「地方勢力形成의 諸要因」(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p. 67
- 39) 이러한 정이 설치된 곳은 해당 주의 정치·경제적 중심도시인 치소(治所)로부터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여 군사거점 도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각 주의 정은 해당지역의 국방은 물론 치안을 담당함으로써 국토의 동남부에 치우친 수도의 결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43~344
- 40) 「新羅의 政治와 社會」(林炳泰 李熙德 公저 『韓國史大系』 3) p. 49
- 41) 「新羅小京考」(林炳泰 『歷史學報』 제35·36합집 1967) pp. 91~92
- 42) 「新羅 統一期の 地方統治體系」(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 志社 1993) p. 198
- 43) 백제 및 고구려 고토의 정치·군사적 지배에 대하여는 필자의 「나·당 전쟁의 결과」(『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를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 44)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제9 景德王 16년(757) 12월 기사에는 한산주에 1주(州)·1소경(小京)에 27개 군과 46개 현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43~344
- 45) 『三國史記』 권35, 雜志 제4, 地理 2
- 46) 「新羅의 政治와 社會」(林炳泰 李熙德 公저 『韓國史大系』 3) p. 47
- 47) 「地方勢力形成의 諸要因」(崔根泳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pp. 61~62
- 48) 「新羅의 政治와 社會」(林炳泰 李熙德 公저 『韓國史大系』 3) p. 50
- 49) 삼변은 한산주와 수약주를 포함하여 하서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서주의 경우는 북쪽 변경을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약주의 우측에서 동해안을 접하고 있으므로 3개주를 국경주(國境州)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수당(守幢)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 50)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제8 神文王 12년(692)
- 51)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盧泰敦 『韓國史研究』 38) p. 138
- 52)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재판) pp. 83~85
- 53)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90 중판) pp. 206~207
- 54) 「新羅의 唐勢力 逐出」(金世圭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p. 391

〈제 6 장 나당 전쟁의 영향〉

- 1) 나·당 전쟁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하여는 필자의 「나·당 전쟁의 영향」(『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을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 2)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164
- 3) 「統一新羅의 社會」(李基白 李基東 공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13~314
- 4) 「新羅 執事部の 成立」(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 164~168
- 5) 「무열왕계의 왕권 확립」(金壽泰 『한국사』 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 83~89
- 6) 「專制王權의 확립과 金欽突亂」(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1996) p. 16
- 7)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일조각 1997) pp. 151~152
- 8)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p. 162
- 9)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李基東 공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 340
- 10)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p. 158에 대감직을 과하

고 장군직을 설치한 것이 아니며, 시위부 최고의 관직인 ‘시위감(侍衛監)’ 대신에 장군직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 11)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p. 163
- 12)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李基東 공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 342
- 13) 「專制王權의 확립과 金欽突亂」(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pp. 27~28
- 14)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제8 神文王 2년(682)
- 15) 「중앙통치조직의 정비」(申滢植 『한국사』 9-통일신라) pp. 112~113
- 16) 「專制王權의 확립과 金欽突亂」(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pp. 30~32
- 17)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李基東 공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27~328
- 18) 『三國史記』 권38, 雜志 제7 職官 上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李基東 공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29~330
- 19)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上
『國譯 三國史記』(李內燾 譯註 을유문화사) p. 125
- 20) 「무열왕제의 왕권확립」(金壽泰 『한국사』 9-통일신라) p. 92
- 21)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45~351
- 22)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p. 158
- 23)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p. 162
- 24)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 346
- 25)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 137
- 26)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 347
- 27)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48~349
- 28)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49~351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 138
- 29)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 139
- 30)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 351
- 31)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徐榮敎 『東國史學』 제17집 慶州史學會 1998)
- 32)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 353
- 33)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p. 354~355

- 34) 「統一新羅의 統治組織」(李基白 李基東 公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 344
- 35) 「新羅骨品制社會의 兵制」(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p. 356
- 36) 「지방 · 군사제도의 재편성」(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p. 142~143
- 3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제7, 文武王 18년(678)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의 발전」(朴南守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p. 78
- 38) 「해상활동」(金文經 『한국사』 9-통일신라) p. 298 · 303
- 39) 「궁중 · 관영 수공업의 발전」(朴南守 『新羅手工業史』) p. 159
- 40) 「貴族國家의 政治와 社會」(李基白 李基東 公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211~215
- 41) 「統一新羅의 社會」(李基白 李基東 公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 317
- 42) 「貴族國家의 政治와 社會」(李基白 李基東 公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220~221
- 43) 「統一新羅의 社會」(李基白 李基東 公저 『韓國史講座』-古代篇) pp. 316~320
- 44) 「농민의 생활」(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 226
- 45) 「농민의 생활」(李仁哲 『한국사』 9-통일신라) p. 239
- 46) 「新羅 中古期 佛教思想의 國家社會의 寄與」(金炯佑 『統一期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pp. 297~299
- 47)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김영미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pp. 30~31
- 48) 「統一新羅의 文化」(林炳泰 李熙德 公저 『韓國史大系』 3) p. 91
- 49) 「불교철학의 확립」(鄭炳三 『한국사』 9-통일신라) p. 361
- 50) 「新羅의 歷史와 思想」(金相鉉 『韓國思想史大系』 2) p. 111
- 51) 「불교철학의 확립」(鄭炳三 『한국사』 9-통일신라) p. 360
- 52) 『韓國史新論』(李基白 著 일조각 1991 新修重版) p. 116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pp. 178~179
- 53)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김영미 『역사와 현실』 제14호) pp. 18~19
- 54)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pp. 184~185
- 55) 『韓國史新論』(李基白 著) pp. 117~118
「불교철학의 확립」(鄭炳三 『한국사』 9-통일신라) pp. 402~403

- 56)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皇龍寺丈六
- 57)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의 발전」(朴南守 『新羅手工業史』) pp. 66~67
- 58)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의 발전」(朴南守 『新羅手工業史』) pp. 62~64
- 59)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皇龍寺鐘
「예술(공예)」(李滄官 『한국사』 9-통일신라) pp. 527~528 상원사 범종은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으로 알려져 있다. 황룡사 종은 기록에 49만 7581근으로만 전해오므로 실제 무게인지 알 수 없다.
- 60)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奉德寺鐘
- 61) 「과학과 기술의 발달」(朴星來 『한국사』 9-통일신라) pp. 432~433
「예술(공예)」(李滄官 『한국사』 9-통일신라) p. 528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신라2·발해편(南東信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p. 389
- 62)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芬皇寺樂師
「과학과 기술의 발달」(朴星來 『한국사』 9-통일신라) p. 434
- 63) 『韓國美術史』(金元龍 삼성문화문고 22 1973) p. 97
- 64) 「예술(회화)」(安輝濤 『한국사』 9-통일신라) pp. 478~484
- 65) 「예술(서예)」(李完雨 『한국사』 9-통일신라) pp. 484~490
- 66) 「예술(조각)」(李理那 『한국사』 9-통일신라) pp. 495~496
- 67) 『韓國美術小史』(金元龍 삼성문화문고 22) pp. 119~120
- 68) 『韓國美術小史』(金元龍 삼성문화문고 22) p. 105
「예술(식조건축)」(鄭永鎬 『한국사』 9-통일신라) pp. 548~549
- 69) 『석탑』(鄭永鎬 빛깔있는 책들 47 대원사 1995) p. 85
- 70) 「예술(조각)」(李理那 『한국사』 9-통일신라) p. 520
- 71) 「예술(사원건축)」(金東賢 『한국사』 9-통일신라) p. 538
- 72) 『韓國美術小史』(김원룡 삼성문화문고 22) pp. 98~103
「예술(사원건축)」(金東賢 『한국사』 9-통일신라) pp. 539~541
- 73) 「예술(사원건축)」(金東賢 『한국사』 9-통일신라) pp. 543~544
- 74) 「新羅 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p. 269
- 75)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 제8 孝昭王 11년(702)
- 76) 「高句麗 遺民史 研究」(盧泰敦 『韓沽勳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p. 81

- 77) 「발해의 건국」(盧泰敦 『한국사』 10-발해) p. 23
- 78) 「渤海의 支配勢力 研究」(林相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7) p. 35
- 79) 「8世紀 前半 新羅와 渤海의 對立關係와 그 要因」(趙二玉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p. 273
- 80) 『舊唐書』 列傳 제149 下, 北狄(渤海靺鞨)
「발해의 건국」(盧泰敦 『한국사』 10-발해) pp. 24~25, p. 28
- 81) 「渤海建國과 南北國의 形成」(韓圭哲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p. 160
- 82) 「발해의 발전」(盧泰敦 『한국사』 10-발해) pp. 29~30
- 83) 『舊唐書』 志 제19, 地理2 營州上都督府
- 84) 『舊唐書』 列傳 제149 下, 北狄(渤海靺鞨)
『資治通鑑』 권213, 唐紀 29 玄宗 開元 14년(726)
- 85)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1994) pp. 181~183
「발해의 발전」(盧泰敦 『한국사』 10-발해) pp. 31~32
- 86) 『舊唐書』 列傳 제149 下, 北狄(靺鞨)
- 87)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李成市 지음 김창석 옮김 청년사 1999) pp. 146~147
- 88) 『資治通鑑』 권213, 唐紀 29 玄宗 開元 20년(732)
- 89) 『資治通鑑』 권213, 唐紀 29 玄宗 開元 21년(733)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李成市 지음 김창석 옮김) p. 147
- 90) 「발해의 발전」(盧泰敦 『한국사』 10-발해) p. 33
- 91) 「발해의 대외관계」(韓圭哲 『한국사』 10-발해) p. 100
- 92)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p. 191
- 93) 「발해의 대외관계」(韓圭哲 『한국사』 10-발해) p. 103
- 94)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 pp. 197~211
- 95) 「발해의 대외관계」(韓圭哲 『한국사』 10-발해) p. 105
- 96)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李成市 지음 김창석 옮김) p. 163
- 97) 나·당 전쟁의 영향에 대하여는 「나·당 전쟁의 영향」백제 및 고구려 고토의 정치·군사적 지배에 대하여는 필자의 「나·당 전쟁의 결과」(『韓民族

戰爭通史』-古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4)를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므로 일일이 주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결 론〉

- 1)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申滢植 『新羅文化』 제2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5) pp. 17~18
- 2) 「韓國古代史의 發展」(金哲堉 『韓國文化史論』 지식산업사 1976) p. 101
- 3)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盧泰敦 『韓國史研究』 38 1982) p. 133
- 4)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民族史의 意味」(邊太燮 『韓國史 市民講座』 제5집 일조각 1989) pp. 6~7
- 5) 「三國統一의 民族史의 意味」(邊太燮 『新羅文化』 제2집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5) pp. 2~3
- 6) 「韓國민족 형성시기론」(노태돈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신서 159 1998) p. 40
- 7)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金哲堉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90) p. 16
- 8) 「淵蓋蘇文과 金春秋」(盧泰敦 『韓國史 市民講座』 제5집 일조각 1989) p. 36
- 9) 「韓國민족 형성시기론」(노태돈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신서 159) p. 40
- 10)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盧泰敦 『韓國史研究』 38) pp. 134~135
- 11) 「淵蓋蘇文과 金春秋」(盧泰敦 『韓國史 市民講座』 제5집) p. 37
- 12) 「三國統一의 民族史의 意味」(邊太燮 『新羅文化』 제2집) p. 6
- 13)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재판) p. 58
- 14)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61
- 15) 「보론-삼국간 전쟁의 사회경제적 의미」(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p. 232
- 16)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63
- 17)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73

- 18) 「보론-삼국간 전쟁의 사회경제적 의미」(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p. 232
- 19)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58
- 20) 「한국 고대 문화의 성장」(김철준 『한국전통문화론』) p. 59
- 21) 「보론-삼국간 전쟁의 사회경제적 의미」(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p. 233
- 22) 「唐에서 바라본 新羅의 三國統一」(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p. 49
- 23) 「韓國文化에 나타난 各時代의 限界性」(金哲堉 『韓國文化史論』 지식산업사 1976) pp. 47~48

연 표

〈302. 9. ~ 771.〉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302	9.	· 고구려, 3만 군사로 현도성(玄菟城)을 공격… 8천명 생포함.
311	8.	· 고구려, 요동의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함.
313	8.	· 고구려, 낙랑군(樂浪郡)을 공격함. 〈B.C 108~〉
314	9.	· 고구려, 대방군(帶方郡)을 공격함. 〈205~〉
315	2.	· 고구려, 현도성을 격파함.
316	11.	· 흉노, 서진(西晉)을 멸함…5호16국 시대가 시작됨.
319	12.	· 진(晉)의 평주자사(平州刺史) 최비(崔毖), 선비의 단씨(段氏)·우문씨(宇文氏)와 함께 모용씨를 공격하다 실패…고구려로 망명함.
320	12.	· 고구려, 요동을 공격…모용인(慕容仁)에게 패퇴함.
333	5.	· 요동공 모용외(慕容廆)가 죽고 아들 모용황(慕容皝)이 계승함.
334	8.	· 고구려, 평양성을 증축함.
335	1.	· 고구려, 북쪽 변경에 신성(新城)을 축조함.
339	9.	· 모용황, 고구려의 신성 침입…화의성립으로 철수함.
342	2.	· 고구려, 환도성(丸都城)을 수리하고 국내성(國內城) 쌓음.
	11.	· 고구려, 환도성이 연군(燕軍)의 침입으로 함락…미천왕의 시신과 고국원왕의 왕모(王母)를 포로로하여 철수함.
343	2.	· 고구려, 미천왕의 시신을 연으로 부터 돌려 받음.
345	10.	· 고구려, 남소성(南蘇城)을 모용각(慕容恪)군에게 빼앗김.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355	12.	· 전연(前燕), 미친왕비를 고구려로 돌려보냄.
364	4.	· 신라, 왜(倭)의 침공을 물리침.
365	2.	· 전연, 낙양(洛陽)을 점령함.
369	9.	· 고구려, 백제의 치양성(稚壤城)을 공격하다가 실패함.
	12.	· 전진(前秦), 낙양을 점령함.
370	11.	· 전연, 전진에 멸망함.
371	10.	· 백제, 3만 군사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시킴.
374	7.	· 고구려, 백제의 수곡성(水谷城)을 침공함.
375	7.	· 고구려, 백제의 수곡성을 함락함.
376	11.	· 고구려,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공함.
377	10.	· 백제 근구수왕, 3만 군사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함.
	11.	· 고구려, 백제를 공격함.
385	6.	· 고구려 고국양왕, 후연(後燕)의 요동·현도군을 함락…1만을 생포함.
	11.	· 고구려, 후연의 모용농(慕容農)에게 요동, 현도군을 빼앗김.
386	8.	· 고구려, 백제를 공격함.
389	9.	· 백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략함.
390	9.	· 백제, 고구려의 도압성(都押城)을 함락…2백명을 생포함.
391	5.	·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즉위함.
392	7.	· 고구려, 4만 군사로 백제를 침공…10성을 함락함.
	9.	· 고구려, 거란을 공격…주민 5백여 명을 생포함.
	10.	· 고구려, 임진강구에 위치한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20여 일간 공격하여 함락함.
393	8.	· 백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다가 패퇴함.
394	7.	· 백제,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하다가 패퇴함.
	8.	· 고구려, 남쪽 국경지역에 7성을 축조하여 대비함.
395	8.	· 고구려, 패수(湞水)에서 백제군 8천여 명을 생포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402	5.	· 고구려, 후연의 숙군성(宿軍城)을 공격함…평주자사 모용귀(慕容歸)가 패주함.
403	7.	· 백제, 신라의 변경을 침입함.
404	11.	· 고구려, 후연을 공격함. · 고구려, 대방지역에 침입한 백제와 왜의 연합군을 전멸 시킴.
410		· 고구려, 동부여(東夫餘)를 공격하여 60여 성을 점령함.
427		· 고구려, 수도를 압록강(鴨綠江) 이북 국내성(國內城)에서 대동강(大同江) 유역으로 옮김…본격적인 남하 정책 추진함.
433	7.	· 신라 눌지왕, 백제와 군사 동맹 체계를 구축…고구려의 남진에 일단계 대비책 마련함. < ~553>
433		· 부자 상속제도(父子相續制度) 확립…왕위 계승에 따른 분쟁 종식시킴.
438		· 신라, 우마(牛馬)의 수레인 우거(牛車)의 사용을 장려함.
454	7.	· 고구려,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함.
468	2.	· 고구려, 말갈군 1만으로 신라 실직주성(悉直州城)을 점령함.
469	8.	· 백제,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침공함.
475	9.	· 고구려 장수왕, 3만군을 이끌고 백제의 한성(漢城)을 점령…개로왕(蓋鹵王)을 죽임. 백제, 한성에서 웅진(熊津 : 공주)으로 천도함.
487	3.	· 신라,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우역제(郵驛制) 도입…각종 생산물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통로 확충함.
489	9.	· 고구려, 신라의 호산성(狐山城)을 함락함.
490		· 신라 소지왕, 수도 경주에 시장(시사 <市肆>)개설…상품유통 장려함.
493	3.	· 신라 소지왕, 백제 동성왕과 결혼동맹…고구려의 남침에 공동 대응함.

연도	일 일	사 건 내 용
494	2.	· 고구려, 부여의 투항을 받아들임.
	7.	· 고구려, 신라의 살수원(薩水原 : 피산)을 공격하다가 백제군이 신라를 지원하자 퇴각함.
495	8.	· 고구려, 백제의 치양성(稚穰城)을 공격하다가 신라군이 백제를 지원하자 퇴각함.
497	8.	· 고구려, 신라의 우산성(牛山城)을 공함함.
501	11.	· 백제, 5천 군사로 고구려의 수곡성을 공격함.
502	3.	· 신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농업(農業) 장려…우경제(牛耕制) 채택으로 농업 생산성 증가함.
	3.	· 신라, 순장 제도(殉葬制度)의 폐지 공포…노동력 확보 용이함.
	11.	· 백제, 고구려의 수곡성을 공격함.
505	2.	· 신라 지증왕, 삼척을 거점으로 하는 실직주(悉直州) 설치…이사부(異斯夫)를 군주(軍主)로 파견함.(최초로 군주 파견)
505		· 신라 지증왕, 해상과 하천(河川)의 수상 교통 체계 정비…수륙 양면의 교통망 정비로 유통체계가 크게 발전함.
506	11.	· 고구려, 백제를 공격하려다 폭설을 만나 회군함.
507	5.	· 고구려와 말갈군, 백제의 한성을 공격…실패하고 퇴각함.
509	1.	· 신라 지증왕, 동시(東市) 개설…시장 확대, 시전(市典) 설치함.
512	6.	· 신라,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 우산국(于山國 : 울릉도)을 정복함.
	9.	· 고구려, 백제의 2성을 공격하여 1천명을 사로잡음.
516		· 신라 법흥왕, 병부령(兵部令) 설치함.
517	4.	· 신라 법흥왕, 병부(兵部) 설치함.
518	2.	· 신라, 주산성(株山城)을 축조함.
520	1.	· 법흥왕, 백관(百官)의 관복(官服) 및 관등(官等) · 골품제도(骨品制度)등에 관하여 규정한 율령(律令) 공포…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확립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521		· 신라,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 나라에 사신 파견…외교 노선의 다변화를 추진, 문화 수준이 향상됨.
522	3.	· 신라, 고령(高靈) 지역 대가야(大加耶)의 혼인 요청을 수용…이찬(伊漣) 비조부(比助夫)의 여동생을 시집보내어 결혼 동맹 체결함.
523	2.	· 백제,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함.
	8.	· 고구려, 백제를 공격함.
525	2.	· 신라, 상주(尙州)에 상주(上州 : 沙伐州) 설치…북쪽 영토 확장의 전초 기지로 이용함.
526	10.	· 백제, 웅진성(熊津城)을 수축함.
527		· 법흥왕, 흥륜사(興輪寺) 창건 책임자인 이차돈(異次頓) 처형함.
529	10.	· 고구려, 오곡성(五谷城)에서 백제군 2천여 명을 살상.
532		· 법흥왕, 금관가야(金官加耶, 本加耶) 합병, 김해(金海)의 금관국왕(金官國王) 구해(仇亥) 투항…낙동강 이서의 평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함.
535		· 신라 법흥왕, 진골(眞骨)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불교를 국교(國敎)로 공인…왕권 신장의 사상적 기반 마련함.
536		· 신라, 건원(建元)을 연호로 최초 사용함.
538		· 신라, 함안(咸安)의 아라가야(阿羅加耶)를 멸함.
540	9.	· 백제,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함…백제군이 패퇴함.
544		· 신라, 자백색(紫白色) 군복의 대당(大幢)을 경주 부근에 설치 신라, 수도에 대당(大幢) 설치, 보병 군단 6정과 기병 군단 10정(倂)을 설치…보기(步騎) 협동의 작전 효율성 제고 신라, 사정부(司正府) 설치…귀족 관료층을 규찰함.
547	7.	· 고구려, 백암성(白巖城)과 신성(新城)을 수리함.
550	1.	· 백제, 1만 군사로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점령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551	1.	· 신라 진흥왕, 백제와 연합군 편성하여 한강 유역(漢江流域) 일대를 탈환…주로 산악 지역인 한강 상류의 10군(郡) 점령함.
	9.	· 고구려, 돌궐(突厥)군을 백암성에서 물리침.
552		· 신라, 지방 군단인 상주정(上州停)과 신주정(新州停)을 설치함.
553	7.	· 신라, 백제군을 몰아내고 한강 유역 독점…신주(新州) 설치, 김무력(金武力)을 군주(軍主)로 임명함.
554	7.	· 백제 성왕(聖王), 신라에 보복 공격…옥천(沃川)의 관산성(管山城)에서 신라군과 공방전 전개…성왕 전사함.
	11.	· 고구려, 백제의 웅천성(熊川城)을 공격하다가 실패함.
555	1.	· 신라 진흥왕, 창녕에 하주(下州: 完山州) 설치함.
556	7.	· 신라 진흥왕, 북쪽 동해안 안변에 비열홀주(比列忽州) 설치…지방 제도 정비함.
557		· 신라 진흥왕, 충주에 중원소경 설치함.
562	1.	· 신라, 고령(高靈)의 대가야(大加耶)를 정복함.
	7.	· 백제, 신라의 변경을 침입함.
	9.	· 신라, 고령의 대가야(大加耶) 합병…낙동강 유역의 대부분을 장악함.
565	2.	· 진흥왕, 북제로부터 ‘사지절동이교위 낙랑군공 신라왕(使指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이라는 상징적인 작위를 받음.
	9.	· 진흥왕, 창녕의 왕산주를 폐하고 합천에 대야주(大耶州) 설치…전략도시로 군사력 강화함.
565		· 진흥왕, 품주(稟主) 설치…국가의 공적(公的)인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을 함께 관장함.
572	1.	· 진흥왕, ‘홍제(鴻濟)’로 연호를 개칭…왕권과 신장된 국력을 과시함.
574		· 신라, 장육존상(丈六尊像)을 조성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577	10.	· 백제군, 신라의 서쪽 변경 지역인 일선(一善 : 선산)을 공격...실패함.
578		· 신라, 알야산성(闕也山城)에서 백제에 패함.
579	2.	· 백제, 웅현성(熊峴城) · 송술성(松述城)을 축성함.
581	1.	· 신라, 위화부(位和府) 설치...인사(人事) 문제를 전담함.
	2.	· 북주(北周)의 양견(楊堅)이 수(隋)를 건국함. < ~618>
583	3.	· 수, 대흥(大興 : 장안)으로 천도함.
	4.	· 수, 돌궐(突厥)을 공격함.
583		· 진평왕, 서당(誓幢)을 설치함.
584	2.	· 돌궐, 수에 항복함.
	3.	· 진평왕, 조부(調府) 설치...공부(貢賦)에 관한 업무를 분리 전담함.
	6.	· 수, 운하인 광통거(廣通渠)를 개통함.
585	5.	· 수, 의창(義倉)을 처음으로 설치함.
586	1.	· 진평왕, 예부(禮部) 설치...의례(儀禮)와 교육(敎育)을 관장, 통치 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함.
586		· 고구려, 도읍을 평양의 안학궁(安鶴宮 : 大城山)에서 평양의 장안성(長安城)으로 옮김.
589	1.	· 수 문제(文帝), 진(陳)을 멸하고 중국을 통일함.
590		· 고구려 온달(溫達), 신라와 싸우다 아차성(阿且城)에서 전사함.
591	7.	· 신라, 경주에 남산성(南山城)을 축성함.
591		· 진평왕, 사천당(四千幢) 설치함.
593	7.	· 신라, 명활산성(明活山城)과 서형산성(西兄山城)을 개축함.
598	2.	· 고구려, 말갈병 1만 명으로 요서지방의 영주를 침공함.
		· 수 문제, 대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하도록 명함.
	6.	· 대고구려 원정군, 탁군에 집결을 완료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599	6.	· 수 문제 아들 양량(楊諒)과 왕세적(王世積) 등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침공을 개시함.
	7.	· 수의 원정군, 요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타격을 입고 퇴각함
	10.	· 수 문제, 의성공주(義成公主)를 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에게 출가시킴…결혼정책으로 평화관계를 유지함.
602	8.	· 백제 무왕, 신라의 아막산성(阿莫山城 : 운봉<雲峰>)을 침공함.
603	8.	· 고구려군,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 공격…실패함.
604	7.	· 수의 태자 양광(楊廣), 즉위하여 양제(楊帝)가 됨.
	8.	· 수의 한왕(漢王) 양량(楊諒)이 반란…양소(楊素)가 진압함.
604	11.	· 수 양제, 장안에서 낙양(洛陽)으로 천도함.
		· 신라, 황청색(黃靑色) 군복의 한산정(漢山停)을 광주(廣州)에 설치함.
		· 신라 진평왕, 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을 설치함.
		· 신라 진평왕, 군사당(軍師幢) 설치함.
605	2.	· 백제, 각산성(角山城)을 축조함.
	3.	· 수 양제, 통제거(通濟渠)를 개통함.
	8.	· 신라, 백제의 동쪽변경을 공격함.
605		· 수 양제, 강도(江都)로 순행을 떠남.
		· 신라 진평왕, 급당(急幢)을 설치함.
607	3.	· 백제, 수에 고구려 원정을 요청함.
	5.	· 고구려, 백제의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함.
	8.	· 고구려 사신, 돌궐 추장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처소에 서 순행중이던 수 양제와 조우함.
		· 수 양제, 신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도록 명함.
608	10.	· 수 양제, 배구(裴矩)를 파견하여 서역(西域)을 경략함.
	1.	· 신라, 수에 고구려 원정을 요청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08	1.	· 수 양제, 운하 영제거(永濟渠)를 개통함.
	4.	· 고구려, 신라의 우명산성(牛鳴山城)을 점령함.
	7.	· 수군, 토욕혼(吐谷渾)에 대한 침공을 개시함. < ~ 609>
609		· 신라 원광(圓光), 왕명에 따라 수(隋)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어 수에 보냄…화랑인 귀산(貴山)과 취항(籌項)에게 세속오개(世俗五戒)…화랑도의 근본 사상으로 자리잡음.
610	1.	· 수 양제, 민간인의 무기 휴대를 금지시킴.
611		· 백제, 송산성(松山城), 석두성(石頭城)을 축조함.
		· 신라, 우명산성을 증축함.
612	12.	· 수 양제, 전국에 고구려 원정을 위한 동원령을 하달함.
	2.	· 수 양제, 탁군(북경)으로 거처를 옮겨 전쟁준비 상황을 직접 감독함. · 수 양제, 유주총관 원홍사(元弘嗣)에게 전선 3백척을 건조하고 양자강·회하 이남지역 군사 1만명을 탁군에 집결시키도록 명함.
	8.	· 백제, 적압성(赤堞城)을 축조함.
	10.	· 백제, 신라의 가잠성(假岑城)을 점령함.
612	1.	· 수 양제, 고구려 원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조서 반포…전국에 동원령 하달함. · 수의 원정군, 탁군에 집결 완료함. <1백 13만3천8백 명> · 수의 수로군 7개 부대, 산둥반도의 동래로 이동함. · 서둘렐, 내분이 일어나 분열됨.
	3. 중	· 수군 선두부대, 요하서안의 회원진(懷遠鎮)에서 고구려군과 대치함.
	3. 하	· 고구려군, 요하에서 수군을 저지하여 20여 일 간 대치함.
	4. 중	· 고구려군, 요하 방어선에서 패퇴…수군, 요하를 도하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13	4. 하	· 고구려군, 요동성(遼東城)에서 동·서·남 삼면으로 포위당함.
	5. 초	· 수군, 요동성 공격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함.
	6. 초	· 수군, 요동성을 포위한채 고구려군과 대치함. <4월 하순~>
	7. 초	· 수군 별동부대 30만, 우문술·우중문의 지휘하에 평양 근교까지 진출...고구려군과 대치함.
	7. 하	· 수군 별동부대, 평양에서 철수하여 살수(청천강)을 도하하기 시작함...고구려군의 수공(水攻)으로 섬멸적 타격을 입음. · 고구려군, 수의 수로군을 평양 근교에서 대파함.
	8. 중	· 수의 수로군, 살수 전투의 전황보고와 퇴각 명령을 전달받음...대동강 어귀에서 퇴각함.
	8. 25	· 수 양제, 전군에 철군 명령을 하달함.
	9.	· 수 양제, 주요 장수들의 관직을 삭탈...위무사 유사룡은 처형당함.
	1.	· 수 양제, 정예 부병 30만의 북경집결을 명함. 요동지방에 군량을 비축하도록 명함.
	2.	· 수 양제, 우문술 등을 재기용하여 군사 지휘권을 부여함.
	3. 초	· 수 양제, 동도(東都)인 낙양을 출발함. 양현감(楊玄感)에게 군량수송 책임을 부여함.
	4.	· 수 양제,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고구려 변경지역으로 진입함.
	5. 중	· 수의 왕인공(王仁恭)군, 신성(新城) 공격태세를 갖추.
	5.	· 고구려군, 요동성에서 수군 주공부대에게 포위당함. · 고구려군, 신성에서 왕인공군에 포위되어 고착됨.
	6. 초	· 예부상서 양현감, 여양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킴. · 요동성 고구려군, 20여일 간 공격을 저지함. <5월 중순~>
	6.	· 수 양제, 어량대도(魚梁大道)와 팔륜누거(八輪樓車)의 설치를 명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14	6.	· 병부시랑 곡사정(斛斯政), 양현감의 반란소식을 접하고 고구려 진영으로 망명함.
	6. 28	· 수 양제, 곡사정이 망명하자 퇴각을 결정함.
	6.	· 당국공(唐國公) 이연(李淵), 홍화 유수(弘化留守)로 부임함.
	8. 초	· 수 양제, 양현감의 반란세력을 완전히 제압함.
	2. 초	· 수 양제, 조서를 내려 고구려 침공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함.
	2. 하	· 수 양제, 고구려 원정을 독단으로 결정…조서를 내려 반포함.
	3.	· 수 양제, 전국에 동원령을 하달함.
	3. 중	· 수의 원정군, 고양을 떠나 북경으로 진출함.
	4. 하	· 수 양제, 북평에 도착함…후방에서 반란세력이 재봉기하기 시작함. 도망병의 속출로 출정이 지연됨.
	7. 초	· 수의 수로군, 동래항에서 비사성(卑沙城)을 향하여 출항함.
	7. 중	· 수의 수로군, 비사성 앞바다에 도착하여 공격태세를 갖추.
	7. 하	· 고구려, 곡사정을 포박하여 회원진으로 압송함.
	8.	· 수의 원정군, 곡사정의 함거(檻車)를 앞세우고 철군을 개시함.
	8. 중	· 수의 수로군, 비사성에서 동래항으로 귀항함.
615	8.	· 동돌궐, 수의 변경지역을 침공하여 실지회복을 기도함…이세민군이 제압함.
616	7.	· 수 양제, 강도(江都)에 내려감.
617	12.	· 당국공 이연, 태원 유수(太原留守)로 부임함.
	5.	· 당국공 이연, 산서 태원(太原)에서 기병함.
	7.	· 이연의 3만 군, 관중지역으로 진출함.
	10.	· 이연의 10만 군, 수도 대흥(장안)으로 진출함.
	11.	· 이연의 20만 군, 대흥을 점령하여 양유를 공제로 추대함…이연은 대승상으로서 당왕의 작위를 받고 실권 장악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18		· 당(唐), 중국의 새로운 통일 국가로 등장함.
618	3.	· 수 양제,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宇文化及) · 우문지급(宇文智及) 등에 살해됨.
	4.	· 이연, 양제의 피살 소식을 듣고 양유(楊侑)로부터 선위 받음.
	5.	· 이연, 수제국을 멸하고 당제국을 개창하여 고조(高祖)가 됨.
	9.	· 고구려 영양왕이 사망하고 아우 고건무(高建武)가 계승함. <영류왕>
619	2.	· 고구려,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의 건국과 고조의 즉위를 축하하고 영류왕의 즉위사실을 통보함.
624	2.	· 당 고조, 고구려에 도사(道使)를 파견하여 천존상(天尊像 : 神仙像)을 전하고 도덕경을 강설하도록 함.
	2.	· 형부상서 심숙안(沈叔安)으로 하여금 영류왕에게 ‘상주국요동군왕 고구려국왕’의 칭호를 수여함.
625	4.	· 당 고조, 서돌궐(西突厥)의 청혼을 허락함. · 고구려, 불교와 도교(道教)의 승려를 당에 파견하여 교법을 배움.
625		· 신라 진평왕, 낭당(郎幢)을 설치…중앙군 전력을 강화함.
626		· 백제 무왕, 고구려의 대당 교통로 차단을 당에 호소함. · 당 고조, 산기시랑(散騎侍郎) 주자사(朱子奢)를 삼국에 보내어 화합 할 것을 종용함.
	6.	· 이세민(李世民), 태자 이건성(李建成)을 살해하고 집권함.
626	8.	· 당 이세민, 태종으로 즉위…친형 이건성을 죽이고 차자로서 황태자가 되었다가 아버지 이연(李淵)을 퇴위시키고 즉위함.
627		· 당, 백제에 신라 침공 중지를 종용함.
628	4.	· 당, 반대세력을 진압하고 통일을 이룩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29	9.	· 고구려 영류왕, 당에 고구려 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전달하고 우호정책을 추진함.
	8.	· 신라, 고구려 낭비성(狼臂城)을 점령함.
630	11.	· 당의 이정(李靖), 10만 대군으로 동돌궐을 침공함.
	2.	· 당의 이정, 동돌궐의 추장 힐리가한(頡利可汗)을 생포함. · 동돌궐, 당에 대대적인 침공 감행함.
631	2.	· 고구려, 천리장성 축조에 착수함. (부여성~비사성) 〈 ~647〉
633	8.	· 광주사마 장손사(張孫師), 수군(隋軍) 전몰장병의 위령제를 지내고 경관(京觀)을 훼손함.
	8.	· 백제, 신라의 서곡성(西谷城)을 공격함.
635	5.	· 당의 이정, 돌궐을 대파함. · 당 고조, 사망함.
636	1.	· 돌궐 추장 아사나사이(阿史那社爾), 당에 투항함.
638	5.	· 백제, 신라의 독산성(獨山城)을 공격함.
	7.	· 당의 후군집(侯君集)군, 서쪽 변경으로 침입한 토번(吐蕃)을 송주(松州) 전투에서 격파함.
639	10.	· 고구려, 신라의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함.
	11.	· 신라, 칠중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함.
640	8.	· 당 태종, 서돌궐의 내분을 이용하여 군사적 압박을 가함.
	12.	· 당 태종, 신강(新疆) 동부지역 소국들을 공략하고 서역 경영의 기반을 구축함.
641	2.	· 고구려 영류왕, 세자 고환권(高桓權)을 당에 보내어 태종에게 예물을 전달함.
641	8.	· 당의 후군집(侯君集), 서역의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킴.
	1.	· 당 태종, 문성공주(文成公主)를 토번(吐蕃)에 출가시킴. · 당 태종, 직방낭중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42	12.	· 당의 이세적(李世積), 설연타(薛延陀)에 대패함.
	7.	· 무왕을 이어 즉위한 의자왕, 신라 국경 침공을 계속 함…국경지역의 40여 성을 점령함.
	8.	· 고구려와 백제 연합군이 신라 침공을 본격화함…서해 안의 당항성(黨項城)이 함락 위기에 처함.
		· 백제군 1만 여명, 합천(陝川) 대야성(大耶城) 점령…김 춘추(金春秋)의 사위인 품석(品釋)이 일가족과 함께 모 두 전사, 주민 1천여 명이 포로가 됨.
642	9.	· 당군, 변경에 침입한 서돌궐에 결정적 타격을 입힘.
	10.	· 동부대인 연개소문(淵蓋蘇文), 영류왕과 대신 1백여 명 을 살해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킴…자신은 대막리지에 취임함.
	11.	· 신라, 김춘추를 당에 파견하여 원병을 요청…김춘추는 자신의 사위가 대야성에서 백제군을 물리치지 못한 것 에 정치적인 부담을 가짐.
642		· 서돌궐, 당의 변경 지역 침공 실패…당의 적수가 되지 못함.
643	3.	· 연개소문, 보장왕에게 도교(道敎) 진흥책을 건의함.
윤6.		· 당 태종, 장손무기(長孫無忌)에게 고구려 침공 야욕을 노 출…보장왕에게 '상주국요동군공고구려왕'의 칭호를 보냄.
644.	9.	· 신라, 당에 사신을 보내 삼국의 정세를 설명하고 원병 을 요청함.
	11.	· 백제, 고구려에도 사신을 파견함.
	1.	· 진하사(進賀使) 파견…신라의 위기 상황을 설명함.
644.		· 당 태종, 사농승 상리현장(相里玄獎)을 고구려에 보내 어 신라 침공을 자제하도록 요청함.
		· 당 태종, 상리현장으로부터 고구려 정황을 보고받음.
	7. 23	· 당 태종, 장작대장 엄립덕(嚴立德)에게 홍주·요주·강 주에서 전선 4백 척을 건조하게 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45	7. 26	· 당 태종, 영주도독 장검(張儉)을 보내어 유주·여주의 군사와 거란·해·말갈군을 거느리고 먼저 요동을 공격하게 함. · 당 태종, 태상경 위정(韋挺)을 궤운사로, 민부시랑 최인사를 부사로 임명하여 하북지방의 군량을 조달하게 함.
	7. 하	· 영주도독 장검, 요동으로 진출함.
	9.	· 연개소문, 당 태종에게 백금(白金)을 보내고 관원을 파견하여 숙위를 제의…태종의 거절로 실패함.
	10. 중	· 당 태종, 태자태부 방현령(房玄齡)을 수도방위 책임자로 임명…태종은 낙양으로 거동함.
	11. 초	· 당 태종, 진 의주자사 정원숙(鄭元壽)과 대고구려 원정에 대해 논의함.
	11.	· 당 태종, 영주도독 장검을 낙양으로 소환하여 지연 경위를 문책함.
	11. 하	· 당 태종, 원정군 부서를 확정하여 반포함.
	12. 초	· 당의 원정군, 유주(幽州:북경)에 집결 완료함.
	12. 14	· 당 태종, 원정군 전부대와 신라·백제·해·거란에 공격명령을 하달함.
	1. 28	· 당 태종, 궤운사(饋運使) 위정을 해임하고 장작소감(將作少監) 이도유(李道裕)를 임명함.
	2. 12	· 당 태종, 소우(蕭瑀)를 낙양유수로 삼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정주로 향발함.
	2. 17	· 당 태종, 태자에게 국정을 위임함.
	2. 하	· 육로군, 이세적의 지휘하에 유주에서 전열을 정비함. · 수로군, 장량(張亮)의 지휘하에 유주에서 전열을 정비함.
	3. 초	· 수로군, 유주를 떠나 내주항에 집결함.
	3. 9	· 당 태종, 정주에 도착함.
	3. 중	· 수로군, 내주항에서 요동반도 남단으로 항진함.
	3. 19	· 당 태종, 정주에서 중신회의를 소집…자신의 결의를 내타넌.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3. 24	· 당 태종, 정주를 출발함.
	4. 1	· 이세적 육로군, 통정진(通定鎭)에서 무순(撫順)으로 진출함.
	4. 초	· 이도종군, 신성 포위태세 강화함.
	4. 15	· 이도종군, 신성에서 개모성으로 진출함.
	4. 26	· 고구려 개모성 실패...고구려인 2만여 명이 포로가 되고, 10만 섬의 곡식을 빼앗김.
	4. 말	· 이세적 육로군, 요동성 동쪽 교외에 집결함.
	5. 2	· 장랑, 정명진에게 비사성(卑沙城) 공격을 명함...고구려 비사성 실패...8천 명 포로가 됨.
	5. 3	· 당 태종의 원정군 주력부대, 요택(遼澤) 도하작전 개시함...도하장비를 소각함. < ~5.10>
	5. 8	· 고구려 증원군, 4만여 명이 요동성 서쪽 교외에 도착...포위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함.
	5. 17	· 당 태종, 요동성에 화공(火攻)을 가함...고구려 요동성 실패, 1만여명 전사, 군사 1만여 명 및 주민 4만여 명이 포로가 됨.
	5. 28	· 당군 주력부대, 백암성(白巖城) 외곽에서 포위태세를 강화함.
	5. 29	· 백암성의 고구려군, 당군 선봉부대의 공격을 격퇴시킴...우위대장군 이사마(李思摩)에게 부상을 입힘.
	5. 하	· 당태종, 백암성의 항복을 접수함...고구려인 1만 명이 포로가 됨. 성주인 손벌음(孫伐音)을 암주(巖州) 자사로 임명함.
	5.	· 신라, 3만의 지상군 출동, 당군을 지원함.
	6. 11	· 당군, 안시성(安市城)을 지향하여 요동성을 출발함.
	6. 20	· 당군, 안시성 교외에 도착하여 포위태세를 갖추.
	6. 21	· 고연수(高延壽) · 고혜진(高惠眞), 고구려군과 말갈병을 포함한 15만 대군을 이끌고 안시성 근교에 도착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 21	· 당 태종,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지형정찰을 실시함…야간에 작전명령을 하달함.
	6. 22	· 고구려 증원군, 이세적(李世勣)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당군의 공격을 받아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함.
	6. 23	· 고구려 증원군, 3만 6천 8백여 명이 당군에 투항함…3천 5백 명은 당의 벼슬을 받고 중국대륙으로 이동, 말갈병 3천 3백 명이 생매장 당함.
	7. 5	· 당 태종, 부대를 안시성 동쪽 고개로 이동시켜 안시성 공격 태세를 갖추.
	8. 10	· 당 태종, 주력부대 진영을 안시성 남쪽으로 이동함.
	9. 중	· 당군, 60여 일 간 연인원 50만을 동원하여 토산(土山)을 조성함. · 고구려군, 당군의 토산이 붕괴되자 이를 장악함. · 당군, 안시성을 3일 동안 집중 공격함.
	9. 18	· 당 태종, 안시성 공격을 포기하고 철군명령을 하달함.
	9. 20	· 당군 선발대, 요하 동안에 도착함.
	9. 21	· 당군 선발대, 요하 도하작전 개시함.
	10. 초	· 당군, 발착수(渤鰲水) 도하중에 한파를 만나 시대한 타격을 입음.
646	5.	· 고구려 보장왕,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무력충돌에 대한 유감을 표시함. · 고구려, 천리장성의 축조를 완성함. <631~ >
646		· 당군, 설연타(薛延陀)가 철록계열인 회홀(回紇)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멸망시킴…회홀(回紇 : 위구르) 등의 철록(鐵勒 : 투르크) 부족이 투항함.
647	1.	· 신라, 비담(毗曇)의 반란 발발…진압함.
	1.	· 선덕여왕(善德女王)이 죽고 진덕여왕(眞德女王 : 647~653)이 즉위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47	2.	· 당 태종, 중신회의를 소집하여 대고구려 침공계획을 논의함.
	5.	· 당의 육로군, 요하 상류지역의 제성(諸城)을 공략함. · 당의 수로군, 해상으로 이동하여 요동반도 남안에서 고구려군과 접전함.
	7.	· 당의 수로군, 해상으로 이동하여 요동반도의 석성을 공격함…고구려, 석성을 실패함.
	10.	· 신라, 무산(茂山)·감물(甘勿)·동잠(桐岑)의 3성을 침공한 백제군을 물리침. · 당, 연연(燕然)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 정책 추진함. · 신라 김춘추, 일본에 수개월간 체류…양국간에 군사 동맹을 체결함.
648	1. 25	· 당 태종, 제2단계 교란작전을 전개하도록 명함…설만철(薛萬徹)·배행방(裴行方)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내주항(萊州港)에서 압록강구로 진출함.
	2.	· 당 태종, 백제·고구려 멸망후 평양이남 토지를 신라에 줄 것을 약속함.
	4.	· 당의 설만철군, 압록강구의 박작성(泊灼城)을 공격…성주 소부손이 보기(步騎) 1만 명을 이끌고 항전함.
	6.	· 당의 설만철군, 압록강구에서 철군하여 귀향함.
648	7.	· 당 태종, 강위(强偉)를 강남지방에 파견하여 선박 건조를 지휘하게하고, 이도유(李道裕)에게 오호도(鳴湖島)에 군량과 병기를 비축하도록 함.
	8.	· 당 태종, 월주(越州) 도독부 동지에서 거함 1천 1백 척을 건조함.
		· 신라 진덕여왕, 이찬(伊飡) 김춘추와 그 아들 김문왕(金文王)을 당에 파견…적극적인 대당 외교를 전개함.
	정 월	· 신라, 중국식 의관(衣冠)을 착용…가시적 친당정책 추진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50	1.	· 신라, 중국식 의관착용...적극적 친당정책 추진함.
	5.	· 당 태종의 사망으로 고구려 침공준비를 전면중지함.
	1.	· 신라, 연호(太和)를 중지...당의 연호(永徽)를 사용함.
	6.	· 신라 진덕여왕, 태평송(太平頌)을 비단에 수 놓아 당 고종(高宗)에게 선물함.
650		· 당, 고간(高侃)이 동돌궐(東突厥)의 차비가한(車鼻可汗) 생포...선우(單于)도호부와 한해(瀚海, 安北)도호부 설치하여 기미 정책을 실시함.
651	2.	· 신라, 품주의 성격 양분...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로 발전, 국방(國防)과 재정(財政)을 분리함.
	6.	· 신라 진덕여왕, 오언시(五言詩)인 '태평송(太平頌)'을 지어 고종에게 선물함.
651		· 신라 진덕여왕, 품주를 창부(倉部)와 집사부(執事部)로 기능을 양분함.
652		· 신라,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 설치함.
654	3.	· 신라, 진덕여왕이 죽고 진골(眞骨)출신의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더 한층 적극적인 대당 외교 전개함.
655	1.	· 고구려군과 백제 · 말갈군,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공함.
	3.	· 당의 정명진(程明振) · 소정방(蘇定方), 고구려 서북변경을 침공함.
	8.	· 백제, 고구려 및 말갈군(靺鞨軍)과 연합하여 신라 북쪽 국경 지대에 위치한 30여 성 점령함.
657	11.	· 무소위가 고종의 황후로 책봉함.
		· 당, 이의부 중서령(中書令) 겸 검교어사대부(檢校御史大夫) 감수국 사(監修國史)에 임명...막강한 권력 장악, 정치적 혼란이 심화됨.
		· 당 소정방(蘇定方)군, 서돌궐의 사발라칸(沙鉢羅可汗)의 군대를 공격...서돌궐 지역에 몽지(濛池)도호부와 곤릉(崑陵)도호부를 설치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58	6.	· 당의 영주 도독 정명진, 설인귀(薛仁貴)를 파견하여 적 봉진(赤烽鎭 : 해성<海城>)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함. · 신라, 녹색색(綠白色) 군복의 하서정(河西倂)을 강릉에 설치함.
659	3.	· 당, 좌효위 대장군(左驍衛大將軍) 설필하력(契苾何力)이 요동 지역의 고구려군을 공격함.
660	3.	· 당 고종(高宗),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 소정방(蘇定方)을 신구도 행군대총관(神丘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총사령관으로 삼고, 신라 왕자 김인문(金仁問)을 부사령관으로 삼음…침공군을 13만으로 결정함.
	6.	· 당군, 산둥반도의 내주항(萊州港)에서 서해안으로 상륙…신라 태자 김법민(金法敏)이 군선 100척을 이끌고 덕물도(德物島 : 덕적도<德積島>)에서 영접함.
	7. 12	· 백제 의자왕, 수도 사비성(泗比城 : 부여)에서 태자 부여 효(扶餘孝)를 대동하고 웅진성(熊津城 : 공주)으로 탈출함.
	7. 18	· 국왕과 태자가 탈출한 상황에서 사비성은 나당 연합군에 투항함.
	9.	· 당 태종, 왕문도(王文度)를 웅진도독(熊津都督)에 임명함. · 당군,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의 1만 군사만 남기고 철군…백제의 왕족 및 귀족 관료 90여 명과 주민 1만2천여 명이 당으로 끌려감.
	9. 하	· 사비 · 웅진성 부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백제 부흥군이 봉기…나 · 당 연합군의 활동을 제약함.
	10. 9	· 태종 무열왕, 태자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이례성(爾禮城 : 연산<連山>)으로 진출…10여일 간 작전을 진두 지휘함.
	10. 18	· 신라군, 백제 부흥군의 (이례성 : 연산)을 점령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61	10. 30	· 신라군, 사비성 남쪽의 백제 부흥군 진지를 점령함.
	11. 22	· 전과에 따른 논공 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함.
	2.	· 당, 용삭(龍朔)으로 연호를 개칭함.
		· 신라군, 사비성 탈환을 노리는 부흥군 진압을 위해 재출병함.
		· 부흥군 복신, 진열을 정비하여 사비성을 정면 공격함.
	3. 5	· 신라군, 두량윤성(豆良尹城·豆陵尹城: 청양 정산) 남쪽에서 부흥군의 기습적인 출성공격을 받고 패주함.
	4. 19	· 신라군, 빈골양(賓骨壤: 고부<古阜>동쪽)에서 백제군의 매복 작전에 피해 입음.
	4.	· 당군, 임야상(任雅相)을 패강도 행군총관(溟江道行軍總管), 설필하력(契苾何力)을 요동도 행군총관(遼東道行軍總管), 소정방(蘇定方)을 평양도 행군총관(平壤道行軍總管)으로 침공군 재편성…35군 약 17만 5천여 명으로 수록 병진함.
	6.	· 신라, 무열왕 김춘추 죽음…묘호를 ‘태종(太宗)’으로 정함.
	7. 17	· 신라, 김유신을 대장군, 김인문·김진주(金眞珠)·김흠돌(金欽突)을 대당장군(大幢將軍)에 임명하여 침공군의 지휘부를 편성함.
661	12.	· 신라군, 두량윤성 공격에 실패하고 퇴각함. · 중국 대륙 서북지역에서 철록(鐵勒: 투르크) 부족의 일원인 회홀(回紇: 위구르)이 대규모 침공 감행함.
662	1.	· 좌효위장군백주자사(左驍衛將軍白州刺史) 옥저도 총관(沃沮道總管) 방효태(龐孝泰)가 지휘하는 대군이 연개소문의 고구려군과 사수(蛇水)에 접전하여 대패…방효태의 아들 13명도 모두 전사함. · 김유신 등 9명의 장수가 지휘하는 2천여 량(輛)의 수레에 쌀 4천석(石)과 버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성으로 출발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62	2. 6	· 평양성 외곽에서 포위 태세 강화…신라군, 당군 진영에 군량을 전달하고 복귀함.
	2.	· 패강도 행군총관 임아상(任雅相)이 진중에서 병사(病死)함.
	2.	· 당, 내부개편작업 착수…주요 관청과 관직의 명칭 개칭함.
	3.	· 소정방 부대, 혹한으로 고전하다가 신라군의 도움으로 반년만에 고구려 지역에서 철수함.
	8.	· 소정방군 수도 평양성 포위함.
662		· 신라 유학생 김풍훈(金風訓)의 부친 김진주(金眞珠), 백제 부흥군 토벌전을 태만히한 죄목으로 처형함.
	9.	·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淵南生), 당군의 퇴로 차단…설필하력군의 반격으로 고구려군 3만 여명이 살상, 나머지 포로가 됨.
662		· 일본(日本)에 있던 부여풍(扶餘豊) 귀국…일본 장수가 지휘하는 선박 170여척의 호위 받음, 부여풍을 중심으로 부흥군을 재편성함.
663	1.	· 당고종, 철록부족의 침공군을 제압…연연도호부(燕然都護府)를 한해도호부(瀚海都護府)로 개칭하면서 한해도호부는 운중도호부(雲中都護府)로 개칭하여 북방 이민족 지배 체제를 정비함.
	4.	· 당, 신라를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로 명명함.
	9.	· 나 · 당연합군, 주류성 함락(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백제재건투쟁이 종료됨.
663		· 신라 문무왕, 김유신 등 28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참전…두릉윤성(豆陵尹城 : 청양군 정산)과 주류성 등을 점령함.
	11.	· 후치상지의 당군, 임존산성(任存山城)을 점령…지수신은 고구려로 망명함.
664	1.	· 문무왕, 부녀자들도 중국식 복장을 착용하도록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2.	· 당은 의자왕의 아들 부여 용(扶餘隆)과 신라가 화친하도록 서맹(誓盟)할 것을 종용…김인문(金仁問) 등과 웅진에서 회맹하도록 강요함.
	4.	· 당군, 웅진도독부의 관리 30여명과 백제 유민 100여명 일본 사절단을 파견…양국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
	7.	· 신라 김인문, 고구려 돌사성(突沙城)을 점령함.
	10.	· 당, 부여 용을 웅진도위(熊津都尉)로 임명하여 백제 유민들을 위무하고 치안을 유지하도록 함…신라의 대당 감정이 악화됨.
665	7.	· 당 조정, 공식 사신과 백제 유민으로 구성된 250여명의 사절단을 일본에 특파…국교를 재개함.
	8.	· 신라 문무왕, 웅진 취리산(就利山)에 제단(祭壇)을 설치하고 유인궤가 작성한 서맹문에 따라 제차 서약함.
666	5.	· 고구려 태막리지 연개소문 사망함.
	6.	· 당, 우효위대장군 설필하력(契苾何力)을 요동도안무대사(遼東道安撫大使)로 임명하여 연남생을 지원함.
	8.	· 차남 연남전이 막리지 승재…내분이 고구려 수뇌부 전체로 파급됨.
	12.	·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 심복 부하 24명과 12개 읍성에 그 소속민 763호(戶)의 3,543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함. · 당, 이세적(李世勣)을 요동도 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고구려 침공 부대를 재편성, 고구려 침공을 재개함.
667	7.	· 신라 김지경(金智鏡)·김개원(金愷元), 내고구려 침공에 참전…당군의 철군으로 돌아옴.
	9.	· 당군, 고구려의 동북방 변경지역의 중요성을 점령함.
668	2.	· 고구려군, 부여성(扶餘城) 전투에서 실패한 후로 40여성을 빼앗김…압록강 이북 지역의 전력이 약화됨.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69	8.	· 고구려 평양성, 나 · 당 연합군에 포위당함.
	9.	· 문무왕, 일본에 공식 사절 파견…신라에 대한 의구심 해소, 문무왕과 김유신이 선박 1척씩을 예물로 받음. ·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연남산(淵男産)을 당군 진영에 보내어 항복(28왕 705년)…5부(部)에 걸쳐 176개의 성(城)과 69만 7천여 호(戶)의 인구 확보, 당은 9개 지역에 각각 도호부(都護府)를 설치, 그 휘하에 42개 주(州)와 1백개의 현(縣)을 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고구려의 옛 영역을 지배함.(9도독부 42주 100현 설치)
	11.	· 일본, 답례 사절을 신라에 파견…657년이래 10여 년 간 단절되었던 국교가 완전 회복됨.
670	5.	· 당은 2만 8천여 호의 고구려 유민들을 영주(營州)와 내주(萊州) 등지로 강제 이주함. · 신라, 각간(角干) 김흠순(金欽純)과 파진찬(波珍滄)인 김양도(金良鬲)를 당에 파견…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당의 양해를 구함.
	1.	· 대당 사신 김흠순은 석방되었으나 김양도는 억류된 채 병사(病死)함.
	4.	· 토번이 군사를 일으켜 백주(白州) 등 18개 주를 점령…곽대봉(郭待封) · 설인귀 등이 대비천(大非川) 전투에서 참패함. · 고구려의 대형(大兄) 김모잠(劍牟岑)도 수림성(水臨城)을 근거지로 삼아 부흥군을 일으킴. · 고구려 부흥군 내분…고안승이 김모잠을 살해함.
	4. 4	· 신라에 망명 중이던 고구려의 태대형(太대兄) 고연무(高延武)가 신라의 사찬(沙滄) 설오유(薛烏儒)와 함께 각각 1만명씩 2만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봉황성(鳳凰城) 지역으로 진출, 이근행(李謹行)의 말갈(靺鞨)군을 공격하여 대승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71	5.	· 좌감문대장군(左監門大將軍) 고간(高侃)을 동주도행군 총관(東州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함.
	6.	· 고구려 부흥군, 평양의 안동도호부 점령하고 당의 관인들을 처형...고간·이근행 등의 공격을 받고 평양성에서 퇴각함.
		· 신라, 고구려 유민들을 금마저(金馬渚 : 익산<益山>)로 이주시켜 집단 거주...고안승(高安勝)을 왕으로 추대함.
	7.	· 당, 백제 유민을 조종하여 신라의 대당 적대 정책을 분쇄할 계획 수립...신라는 대아찬(大阿飡) 김유돈(金儒敦)을 웅진도독부에 급파하여 화의(和議)를 요청함.
		· 신라, 백제 고토를 강점하기 위한 작전개시...무려 82개의 대소 성곽을 점령함으로써 백제 고토의 남부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보함.
	8. 1	· 신라 문무왕의 명의의 책명문(冊命文)을 고안승에게 보냄...고구려국왕에 책봉함.(군량미 2천 석과 비단 등을 선물)
	1.	· 신라, 고안승(高安勝)이 일본과 교류하는 것을 직간접으로 지원...683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함.
		· 신라군, 웅진도독부의 치소인 웅진(熊津 : 공주<公州>) 남쪽 근교에서 접전...당주(幢主)인 김부과(金夫果) 전사함.
	6.	· 신라군, 김죽지(金竹旨) 등이 웅진성 근교의 가림성(加林城 : 부여 임천<林川>) 일대 들판을 소각...출동한 당군과 석성(石城 : 임천 동쪽) 일대에서 접전. 5천 3백여명 살상하고 백제 장수 2명과 당군의 파의(果毅) 6명을 생포함.
	7. 26	· 문무왕, 당의 행군 총관(行軍總管) 설인귀로부터 항의서신 접수...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여 그 치소를 부여(扶餘)에 두고 통치력을 확산시킴.

연도	월 일	사 권 내 용
671	7.	· 안시성(安市城)이 고간(高侃) 군의 공격을 받고 함락함.
	10.	· 신라군, 예성강 어귀로 진입하던 보급선을 습격하여 70여 척을 노획…병선낭장(兵船郎將)인 겹이대후(鉗耳大倭)와 내주사마 왕예본(王藝本), 열주장사 왕익(王益) 등이 포함된 군사 1백여 명 생포함.
	11.	· 웅진도독부에 파견되어 있던 당의 관원과 백제 유민들, 2천여 명이 47척의 선박에 분승하여 일본으로 탈출함.
		· 당, 토번족 치하의 서돌궐(西突厥) 추장에게 관작 부여…서돌궐이 토번과 연합하여 공동전선 전개…특히 토번족과의 전투에 실패하여 안서도호부 소속 14진(鎭)을 빼앗김.
	672	1.
		· 당군을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포위 섬멸 작전 전개…사비성 외곽의 고성성(古省城)에서 승리함.
	2.	· 가림성(加林城)에 대한 공세를 강화함.
	7.	· 동주도 행군총관 고간, 당의 한족(漢族)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이근행(李謹行)의 거란(契丹) 및 말갈병 3만과 함께 평양에 진주함.
	8.	· 당군 본격적인 공격…먼저 평양성 서남쪽 근교에 위치한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공격함.
		· 한산주(漢山州 : 광주〈廣州〉)의 주장성(畫長城 : 남한산성〈南漢山城〉) 축조(주위 둘레 4천 3백 60보)…강북(江北)의 북한산성(北漢山城)과 함께 강남(江南)의 주요 방어 기지로 이용함.
	9.	· 문무왕, 급찬(給飡) 김원산(金原山)과 나마(奈麻) 김변산(金邊山) 등을 당에 파견하여 대당 관계 악화를 방지…내주사마(萊州司馬) 왕예본(王藝本), 열주장사(烈州長史) 왕익(王益), 웅주도독부사마 예군(裨軍), 증산사마(曾山司馬) 법충(法聰) 등을 비롯하여 군사 170명을 함께 돌려보냄.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72		· 신라, 백제 유민으로 백급서당(白衿蠶幢)을 조직함. · 신라, 신라인으로 장창당(長槍幢) 설치함.
	12.	· 고구려 부흥군, 백빙산(白水山) 혹은 白水山에서 패전...2천여 명이 포로가 되는 손실 입음.
673	5.	· 당군,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함. · 고구려 부흥군, 말갈족(靺鞨族) 출신의 연산도 총관(燕山道總管) 이근행(李謹行)이 지휘하는 당군의 침공을 받고 임진강의 요지인 호로하(紇廬河 : 적성 <積城>)에서 접전함.
	7.	· 김유신이 79세를 일기로 사망...문무왕은 김유신이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찬양, 후손들에게 채백(彩帛) 1천필(匹), 조(9租 : 세곡 <稅穀>) 1천석(石)을 하사. 특별히 군악대(軍樂隊) 1백명을 파견하여 융숭한 장례를 지원함.
	8.	· 사열산성(沙熱山城)을 증축을 시작으로 하여 9월에 국원성(國原城 : 충주) · 북형산성(北兄山城 : 경주) · 소문성(召文城 : 의성) · 이산성(耳山城 : 고령) · 주잠성(主岑城) · 거열주(居烈州 : 거창)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 삼랑주(歙良州 : 양산)의 골쟁현성(骨爭峴城) 등 을 축조. 수악주(首若州 : 춘천)의 주양성(走壤城 : 봉산 <鳳山>)을 요새화함으로써 한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함.
	9.	· 진국의 주요 지역에 성곽 신축 내지 증축, 대아찬(大阿飡) 김철천(金徹川) 등이 군선(軍船) 1백 척을 거느리고 서해안을 경계함.
	겨 울	· 당군, 예성강(禮成江) 중하류 지역의 우잠성(牛岑城 : 금천 <金川>)을 공격...고구려 부흥군은 대양성(大楊城) · 동자성(童子城 : 통진 <通津>) 등 서해안의 평야 지대 성곽들도 거란과 말갈군의 공격을 받고 함께 와해됨.
673		· 신라, 녹백색 군복의 우수정(牛首停)을 춘천에 설치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74	1.	· 당, 문무왕의 관작(官爵)을 취소, 신라 국왕의 지위 박탈한다는 교서(敎書) 반포…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金仁問)을 신라의 새로운 국왕으로 임명하여 귀국시킴.
	초.	· 계림도 대총관 유인궤(劉仁軌)를 총사령관으로 당군 편성함.
	8.	· 신라군 서형산(西兄山) 산록에서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 실시…신라군의 투지를 과시함.
	9.	·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 고안승(高安勝)을 보덕왕(報德王)으로 임명…고구려 유민들의 당에 대한 적개심과 항전 의지를 고취함.
		· 영묘사(靈廟寺)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 거행…아찬(阿飡) 설수진(薛秀眞)의 육진병법(六陣兵法 : 육화진법 <六花陣法>) 시범을 실시함.
674		· 신라, 반월성(半月城) 부근에 인공의 호수 안압지(雁鴨池)를 조성함.
		· 당, 황제를 천황(天皇), 황후를 천후(天后)로 호칭, 연호를 상원(上元)으로 정함.
675	2.	· 유인궤 귀국 후 부사령관 이근행이 안동진무대사로서 지휘권을 행사…매소성(買肖城 : 연천 전곡 <全谷>)을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에 주둔함.
		· 신라군. 칠중성(七重城 : 과주 적성)에서 당군의 공격을 받고 농성함.
	초.	· 당, 문무왕의 관작(官爵) 복구…김인문은 도중에 당으로 돌아가 다시 임해군공(臨海郡公)의 작위를 받음.
	초.	· 신라, 옛고구려의 남쪽 변경 지역까지 주(州)와 군(郡)을 설치함.
	9.	· 설인귀, 김풍훈을 길잡이로 삼아 대방(帶方) 지역의 백수성(白水城 : 백천 <白川>)을 공격…김문훈(金文訓) 군이 적 1천 4백여 명을 살상, 전마 1천필 노획, 수로군도 예성강 어귀에서 전선 40여 척을 포획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75	9.	· 하순까지 매소성을 중심으로 하여 부근 일대에 집결한 당의 대군과 신라군이 치열한 공방전 전개...치열한 접전으로 외곽 부대의 저항력을 약화시킴.
	9. 29	· 신라군, 당군 주력부대와 매소성 일대에서 격돌...전마(戰馬) 3만 4백여 필 노획함.
676	2.	· 신라, 백제 유민으로 백금무당(白衿武幢)을 편성함.
676	2.	· 당, 안동도호부를 요동, 웅진도독부를 건안(建安)으로 옮김.
	윤4.	· 토번, 선주(鄯州)·곽주(廓州)·하주(河州)·방주(芳州)로 침공...당이 대대적인 토벌군을 출동시킴.
676	11.	· 신라군, 금강하구 기벌포(伎伐浦)에서 설인귀군 격파함.
		· 설인귀군, 서해안을 우회하여 금강(錦江) 하구로 진입하려고 시도...신라군이 하구의 기벌포(伎伐浦)에서 포착, 사찬(沙飡) 김시득(金施得)의 신라군과 22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전개함...당군 4천여 명을 살상함.
677	2.	· 당, 요동성의 안동도호부를 신성(新城)으로 이동...보장왕과 고구려 유민들의 자치를 보장함.
677	2.	· 옛고구려의 보장왕 고창(高藏)을 요동도독에 임명, 조선왕(朝鮮王)으로 책봉...유민 2만 8천여 호를 요동지방으로 재이주, 반당투쟁을 준비하다가 안동도호부에 파견됨...보장왕 고창은 공주(邛州:사천성 공래<邛峽>)로 옮겨지고 유민들은 하남과 황하 상류의 농우(隴右:감숙성 선주<鄯州>)지역과 안동(安東:북경)지역 등지에 분산됨.
		· 당의 사농경(司農卿)으로 있던 부여용도 웅진도독에 임명되어 대방왕(帶方王)으로 책봉됨.
677		· 당, 안동도호부를 신성(新城)으로 이동함.
	5.	· 당, 부주(扶州)의 임하진(臨河鎭)이 토번의 공격을 받은 후로 빈번한 전쟁에 대외정책을 수정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77	9.	· 좌위대장(左衛大將) 유심례(劉審禮) 등의 대규모 공격도 실패 ...당의 안정이 크게 위협을 받음.
		· 당, 시중(侍中) 장문관(張文瓘)이 죽음을 앞두고 고종에게 신라와의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 것을 건의함.
678		· 신라, 낭당(郎幢)을 자금서당(紫衿髹幢)으로 재편함.
		· 신라, 선부(船府) 설치...병부(兵府)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 등이 관장한 선박 문제를 전담하게 함.
679		· 신라, 원주의 복원소경을 설치함.
		· 신라, 궁성을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안압지 주변에 동궁(東宮)을 건축...수도 경주의 모습을 일신시킴.
680		· 당, 토번(吐蕃)과의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시킴.
		· 신라, 고안승을 문무왕의 질녀와 혼인시킴.
680	3.	· 신라, 김해에 금관소경을 설치함.
681	7.	· 신라, 문무왕이 죽음...신문왕 즉위함.
	8.	· 신라, 김흠돌(金欽突)의 반란이 일어남.
682	10.	· 신라, 시위부의 시위감(侍衛監) 혁파...6명의 장군을 6명의 대감보다 상위직에 설치하여 시위부를 강화함.
	4.	· 신라, 위화부 령(令) 2명을 설치함.
683	6.	· 신라, 국학을 세우고 경(卿) 1명을 둠.
		· 신라, 백자색(白紫色) 군복의 완산정(完山停)을 전주에 설치함.
683		· 신라, 고구려 유민들로 황적색(黃赤色)의 황금서당(黃衿髹幢) 편성...흑수말갈로 흑적색(黑赤色)의 흑금서당(黑衿髹幢)을 함께 설치함.
	12.	· 당, 고종이 죽음...측천무후(則天武后)가 684부터 정권을 독점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84	1.	· 당 중종이 장인 위헌정(偉玄貞)을 시중(侍中)에 임용하려다가 측천무후의 견제로 실패…중종은 여릉왕(廬陵王)으로 강동됨.
684		· 당, 양주(揚州)에서 미주 자사(眉州刺史) 이경업(李敬業)과 그의 아우 이경유(李敬猷)가 주동이 되고, 장안주부(長安主簿) 낙빈왕(駱賓王) 등이 봉기…좌옥검위대장군(左玉鈐衛大將軍) 이효일(李孝逸)의 토벌군을 맞이하여 도양산(都梁山) 전투에서 패전함.
	11.	· 좌옹양대장군(左鷹揚大將軍) 흑치상지(黑齒常之)가 강남도 대총관(江南道大總管)에 임명되어 반란군 토벌…이경업 휘하의 왕나상(王那相)이 이경업과 그 아우 이경유, 낙빈왕의 목을 베어 투항함, 3개월만에 평정함. · 고대문(高大文)이 금마저(金馬渚)에서 반란모의…고구려 유민들을 남쪽 내륙 지역으로 이주시킴.
685	2.	· 돌궐,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함.
	4.	· 당, 혼주(忻州) 전투에서 5천여 명을 살상함.
685		· 신라, 각종 조직과 기구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전국을 9주(州)로 구획하고 무진주(武珍州 : 광주)와 완산주(完山州 : 전주) 웅천주(熊川州 : 공주)를 설치…백제 고토를 명실상부한 신라의 영토로 편입함.
685		· 신문왕, 제4관직인 사지(舍知)를 설치하여(집사부 2명, 조부 1명) 5단계 관직 제도를 마련…다른 부(部)와 부(府)로 확산되어 통일신라의 관직 체계가 발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함. · 신라, 청주에 서원소경을 설치함. · 신라, 남원에 남원소경을 설치함.
686		· 당, 보장왕 고장의 손자 고보원(高寶元)을 조선왕(朝鮮郡王)으로 책봉하여 요동지역에 상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움.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86		· 신라, 예작부(例作府) 설치...중앙 통치 조직의 준비를 일단락 지음. · 신라, 고안승의 보덕성민(報德城民)들로 벽금서당(碧衿誓幢)과 적금서당(赤衿誓幢)을 설치함.
687	2.	· 흑치상지, 창평(昌平)에서 돌궐군을 격파함.
687		· 신라, 백제 유민들로 청금서당(靑衿誓幢)을 설치함. · 신라, 보덕국인으로 적금무당(赤衿武幢)을 설치함. · 신라, 관직을 기준으로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하사함.
689		· 신라, 고구려 유민으로 황금무당(黃衿武幢) 편성함. · 신라, 녹읍(祿邑) 혁파 정책을 추진...정치 개혁의 성과를 심화시킴.
689	12.	· 흑치상지,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을 받아 처형됨.
690	7.	· 축천무후, 자신을 미륵불(彌勒佛)로 지칭함.
	9.	· 국호를 '주(周)'로 개칭...고대(古代)의 주(周)를 이상국로 설정하고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로서 무씨 왕조 탄생시킴, 자신의 선조를 추존하는 무씨 7묘(廟) 건립함.
690		· 신라, 갈구리를 주력 무기로하는 개지극당을 설치함.
692		· 신라, 당 태종의 손자인 중종(中宗)으로부터 태조의 묘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음.
692	10.	· 왕효걸(王孝傑)을 무위군(武衛軍) 총관에 임명하여 토번족의 주력을 선제 공격...고종대에 빼앗겼던 구자(龜茲)·우전(于闐)·소록(疏勒)·쇄엽(碎葉)의 4개 진(鎭)을 수복,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구자에 설치함.
693		· 신라, 장창당을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 개편...9서당 체제를 확립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696	5.	· 거란족 이진충(李盡忠)이 봉기하여 무상가한(無上可汗)이라 명명하고 영주(營州)를 집중 공략…고구려 유민 일부는 당군에 협조하여 잔류하고 다른 일부는 대조영의 지휘하에 절사비우(乞四比羽)의 말갈족(靺鞨族)과 함께 연주성(燕郡城 : 요녕성 의현)-여라수착(汝羅守捉 : 칠리하 부근)을 거쳐 요하를 건너 요동지역으로 이동함.
697	6.	·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 유민이 천문령(天門嶺)에서 당군을 요격…말갈족과 함께 목단강(牧丹江) 유역의 서고성자(西古城子 : 돈화 동모산 <東牟山>)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정착하기 시작…회유책으로 곁걸중상(乞乞仲象)에게 진국공(震國公), 절사비우에게 허국공(許國公)의 작위를 내림.
698		· 고보원을 좌옹양대장군(左鷹揚大將軍)에 임명하고 충성국왕(忠誠國王)으로 책봉하는 계획이 무산됨. · 당, 보장왕 고장의 아들 고덕무(高德武)를 안동도독(安東都督)으로 임명…고구려 유민을 위무하게 함. · 고구려 유민들, 발해(渤海)를 세움.
700		· 발해, 신라에 사신 파견…새왕조가 개창을 공식적으로 통보함.
705		· 당, 축천무후가 죽고 중종(中宗)이 복위…발해와 관계 개선함.
713		· 당, 낭장 최흔(崔忻)을 발해에 파견하여 대조영을 ‘발해군왕 흘한주도독(渤海郡王 忽汗州都督)’에 임명함.
714	4.	· 발해, 당이 거란과 전투를 벌일 때 중립을 지킴.
715		· 거란족과 해족이 돌궐의 세력권에서 빠져나와 당의 휘하로 편입됨.
716		· 당, 영주(營州) 유성현(柳城縣)에 영주도독부를 다시 설치함.

연도	월 일	사 건 내 용
725		· 신라,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범종을 제작…높이 3,300정(鎰)을 녹여서 높이 5.5척(1.67m), 구경 3척(0.91m), 무게 2,150근(1,290kg)
726		· 당, 흑수주(黑水州) 설치…발해와 당의 관계 냉각됨. · 발해, 대문예를 흑수말갈 침공 직전에 사령관직에서 해임함.
728		· 당, 흑수말갈 주장에게 이씨(李氏) 성과 헌성(獻誠)이라는 이름을 하사…운휘장군(雲麾將軍) 겸 흑수경략사(黑水經略使)를 제수함.
730		· 발해, 대문예가 당으로 망명함.
732	3.	· 거란(契丹)이 당군에 대패하자 9월에 발해의 장문휴(張文休) 군이 요동반도의 요지인 등주(登州)를 선제 공격…등주자사 위준(韋俊)이 살해됨.
733	1.	· 당군, 보복적 발해 침공 단행…발해는 윤3월에 거란군에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당군을 공격함.
735		· 신라, 대동강 이남을 영토로 인정하는 당의 공식 문서를 접수함.
737		· 발해, 무왕의 둘째 왕자인 대흥무(大興茂)가 문왕으로 즉위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당 외교 추진…당과의 관계를 개선함.
754		· 신라, 황룡사 범종을 조성…높이 1장(丈) 3촌(寸), 좌우 폭 9촌, 무게 약 50만근
755		· 신라, 분황사 약사 동상(藥師銅像) 주조…구리 3만 5천 7근과 황금 1만 198푼, 무게가 30만 6,700근
762		· 당, ‘발해 국왕(渤海國王)’으로 호칭을 격상시킴…발해와 당의 관계가 크게 개선, 신라와의 대립 상황도 약화됨.
771		· 신라,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聖德大王神鐘) 주조…황동(黃銅) 12만 근, 높이 11척(3.33m), 구경(口徑) 7.5척(2.27m), 무게 4만 7천 5백근(28.5t)

관계 자료 목록

▣ 原 典

- 舊唐書, 劉昫, 경인문화사, 1976
 新唐書, 歐陽修, 경인문화사, 1976
 資治通鑑, 司馬光, 홍씨출판사, 1974
 唐會要, 王溥, 중국목판본, 1884
 通典, 杜佑, 중국목판본
 三國史記, 金富軾, 경인문화사, 1972
 三國遺事, 一然, 민중서관,
 東國兵鑑, 조선사연구회, 1915
 歷代兵要, 규장각도서관
 二十五史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7
 東史綱目, 安鼎福, 경인문화사, 1970
 海東繹史, 韓致彛, 경인문화사, 1974
 新增東國輿地勝覽, 盧思愼, 조선사학회, 1930
 韓國古代金石文 (제1·3권),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日本書紀 下, 日本古典文學大系 68, 岩波書店, 1979

▣ 單 行 本

- 講座 三國時代史, 李萬烈, 知識産業社, 1976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1994
 高句麗簡史, 李殿福·孫玉良 공저, 姜仁求·金瑛洙 공역, 三省出版社, 1990
 高句麗の故地なはずね, 井上秀雄 外, 寧樂社, 1981
 高句麗 對隋·唐戰爭史, 徐仁漢,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1

- 高句麗對外關係資料의 整理, 朴性鳳, 韓國研究資料總刊, 1976
- 고구려사 연구, 노태돈 지음, 사계절, 1999
- 高句麗史研究 I (論文篇), 延世大 國學研究院 編, 1987
- 高句麗史研究 II (史料篇), 延世大 國學研究院 編, 1987
- 고구려역사, 이지린·강인숙 저, 논장신서10, 1988
- 高句麗 領域擴張史研究, 孔錫龜, 서경문화사, 1998
- 高句麗의 南進發展에 관한 研究, 朴性鳳, 慶熙大 大學院, 1979
-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三上次男, 吉川弘文館(重版), 1977
-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坂元義種, 吉川弘文館, 1978
-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下), 末松保和古稀紀念論集, 吉川弘文館, 1978
-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韓國史研究會, 三知院, 1987
- 古代韓中外交史, 權惠永, 一潮閣, 1997
- 國難克服史概觀, 金鐘權, 明文堂, 1984
- 國譯 三國史記, 李內燾 譯註, 乙酉文化社, 1977
- 唐 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金文經, 日新社, 1986
- 唐代社會文化史研究, 那波利貞, 創文社, 1977
- 唐代研究のしおり(2권), 平岡武夫·市原亨吉, 同朋社, 1977
- 唐代政治社會史研究, 礪波 護, 同朋社, 1986
- 唐·新羅·日本, 江上波夫, 平凡社, 1980
- 東國兵鑑,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軍事文獻集 2, 1984
-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李成市 지음 김창석 옮김, 청년사, 1999
- 渤海의 對外關係史, 韓圭哲, 신서원, 1994
- 渤海政治史研究, 宋基豪, 一潮閣, 1995
- 白江口戰爭과 百濟·倭 關係, 卞麟錫, 도서출판 한울, 1994
- 새로쓰는 百濟史, 李道學, 도서출판 푸른역사, 1997
- 百濟史研究, 今西龍, 圖書刊行會, 1970
- 百濟史의 研究, 坂元義種, 塙書房, 1978
- 百濟政治史研究, 盧重國, 一潮閣, 1988
- 北韓의 古代史研究, 歷史學會 編, 一潮閣, 1991
- 三國統合小考, 金成泰, 駕落義城宗親會, 1970

-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金基興, 역사비평사, 1991
- 석탑, 정영호, 빛깔있는 책들 47, 대원사, 1995
- 隋唐官僚制의 成立과 展開, 李啓命, 전남대출판부, 1995
- 隋唐史(上·下), 岑仲勉, 中華書局, 1980
- 隋唐史研究, 布目潮風, 同朋社, 1979
- 隋唐五代史(上·下), 呂思勉, 上海古籍出版社, 1984
-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唐代史研究會, 汲古書院, 1979
- 隋唐五代財政史, 蔡次薛,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0
- 隋唐帝國形成史論, 谷川道雄, 筑摩書房, 1986
- 新羅骨品社會와 花郎徒, 李基東, 韓國研究院, 1980
- 新羅佛教思想史研究, 金英美, 民族社, 1994
-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趙明基, 新太陽社, 1962
- 新羅兵制史研究, 李文基, 一潮閣, 1997
- 新羅史, 申滌植, 梨花女大出版部, 1985
- 新羅史基礎研究, 井上秀雄, 東出版, 1974
- 新羅思想史研究, 李基白, 一潮閣, 1986
- 新羅史研究, 今西龍, 圖書刊行會, 1933
- 新羅史研究, 文暻鉉, 慶北大出版部, 1983
- 新羅史の諸問題, 末松保和, 東洋文庫, 1954
-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李鍾旭, 嶺南大 出版部, 1980
- 新羅手工業史, 朴南守, 신서원, 1996
- 新羅時代의 國家佛教와 儒敎, 李基白, 韓國研究院, 1978
- 新羅政治史研究, 李明植, 螢雪出版社, 1992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李基白, 一潮閣, 1974
- 新羅政治制度史研究, 李仁哲, 一志社, 1993
- 新羅淨土思想史研究, 安啓賢, 亞細亞文化社, 1976
- 新羅中代政治史研究, 金壽泰, 一潮閣, 1996
-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朱甫墩, 신서원, 1998
- 新羅花郎の研究, 三品彰英, 平凡社, 1974
- 漣川 瓢蘆古壘,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연천군, 1999

-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研究, 崔永俊, 高麗大出版部, 1990
- 우리 배의 歷史, 金在瑾, 서울대出版部, 1989
- 義湘-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金杜珍, 민음社, 1995
- 任存城 百濟復興軍戰史, 禮山郷土史研究會 編, 1989
- 잊혀진 百濟 사라진 江, 金중규, 新亞出版社, 1998
- 朝鮮古代史研究, 村上四男, 開明書院, 1978
- 조선광업사 1, 리태영, 백산자료원, 1998
- 조선농업사 1, 장국중, 백산자료원, 1998
- 朝鮮佛敎史의研究, 江田俊雄, 圖書刊行會, 1978
- 조선전사, (제2·3·4·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북한), 1979
-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史, 西嶋定生, 東京大出版會, 1983
- 中國古代史, 楊楨·藏福亞·田培棟 主編, 光明日報出版社, 1988
- 中國古代史의 展開, 李春植, 신서원, 1992(중판)
- 中國史,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역민사, 1984
- 中國歷代戰爭史(제3·7·8권), 三軍大學 編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
- 中國歷史 상권, 中國史研究室, 신서원, 1993
- 中國歷史地理(上·下), 石璋如 等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 中國の歴史(四)-隋唐帝國-, 布目潮風·栗原益男, 講談社, 1979
- 中國全史 상, 翦伯贊 撰, 이진복·김진옥 옮김, 학민사, 1990
- 中國中世史, 宮崎市定 著, 任仲嬭·朴善姬 譯, 신서원, 1996
- 秦漢隋唐史의研究(上·下), 濱口重國, 東京大出版會, 1980
-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87
- 統一新羅史研究, 申滢植, 三知院, 1990
- 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研究, 崔根泳, 신서원, 1993
- 韓國古代史研究, 李丙燾, 博英社, 1976
- 韓國古代史研究, 金哲堧, 서울대출판부, 1990
-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申滢植, 一潮閣, 1984
- 韓國古代史의 研究, 李弘植, 新丘文化社, 1971
- 韓國古代社會研究, 金哲堧, 知識産業社, 1975
-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歷史學會 編, 一潮閣, 1987

- 韓國古代自然觀과 王道政治, 李熙德, 韓國學研究院, 1994
- 韓國武器發達史, 國防軍史研究所, 1994
- 韓國文化史論, 金哲峻, 知識產業社, 1976
- 한국문화전통론, 김철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3
- 韓國史(古代篇), 李丙燾・金載元, 震檀學會, 1959
- 한국사2-민족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1990
- 한국사3-민족의 통일-, 국사편찬위원회, 1990
- 한국사3-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한길사, 1994
- 한국사7-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사7-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사9-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 한국사10-발해, 국사편찬위원회, 1996
- 韓國史講座 I (古代篇), 李基白 李基東 共著, 一潮閣, 1983
- 한국사를 통해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노태돈, 풀빛, 1998
- 韓國城郭의 研究, 孫永植, 文化財管理局, 1987
- 韓國의 城郭, 반영환, 세종기념사업회, 1978
- 韓國海運史, 孫兌鉉, 韓國船員船舶研究所, 1982
- 韓民族의 國難克服史, 李瑄根, 微文出版社, 1978
- 韓民族의 大陸關係史, 白山資料院, 1987
- 韓民族戰爭史總論, 李宰 姜性文 外, 敎學研究社, 1988
- 韓民族戰爭通史-古代篇, 徐仁漢, 國防軍史研究所, 1994
- 洪州 周留城考, 朴性興, 洪州鄉土文化研究會, 1995
- 화랑도와 삼국 통일, 이선근, 교양국사총서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花郎文化의 新研究, 韓國鄉土史研究 全國協議會, 1995

論 文

- 高句麗 攻守の形勢, 末松保和, 靑丘學叢 5, 1931
-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上), 武田幸男, 韓國學報 85, 1978
-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下), 武田幸男, 韓國學報 86, 1978

- 高句麗攻守の形勢, 末松保和, 청구사학 5, 1931
-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 朴京哲, 白山學報 제35호, 1988
- 高句麗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朴京哲, 史學研究 제40집, 1989
- 高句麗軍事行動에 關한 一考察, 朴京哲,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985
- 高句麗の南北道と南蘇・木底, 今西春秋, 靑丘學叢 22, 1935
- 高句麗の山城, 田村晃一, 考古學ジャーナル 121,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71
- 高句麗の城, 今西春秋, 朝鮮學報 제59집, 1971
- 高句麗の遼東經路, 池內宏, 滿鮮史研究, 上世 제1책, 1951
- 高句麗對外關係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盧重國, 高句麗史研究 I(論文篇) 延世大, 1987
- 高句麗莫離支考, 請田正幸, 旗田巍記念朝鮮歷史論集 上, 1979
-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池內宏, 滿鮮史研究 上世 2책, 1960
-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關한 一考察, 盧泰敦, 大東文化研究 23,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9
- 高句麗 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金哲堧,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 高句麗・新羅의 漢江流域進出 研究, 李昊榮, 史學志 제18집, 1984
- 高句麗・百濟叛逆의 歷史的 性格, 姜聲媛, 白山學報 제30・31합호, 1985
-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對한 一考察, 盧重國, 東方學志, 제28집, 延世大 國學研究院, 1981
- 高句麗領土研究, 梁泰鎮, 軍史 제18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9
-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金貞培, 韓國史研究 61・62, 1988
- 高句麗國遺民反唐分子의 處置, 日野開三郎, 史淵 제64집, 1955
- 高句麗遺民史研究, 盧泰敦, 韓祐勛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高句麗遺民에 關한 一・二의 史料, 李弘植, 史叢 제10집, 1965
- 高句麗遺民의 東突厥亡命, 徐炳國, 關東史學 제1집, 1982
- 高句麗의 滅亡과 復興運動, 金甲周,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對한 研究, 孔錫龜, 忠南大 博士論文, 1991
-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對한 唐의 抽戶政策, 李丙燾, 震檀學報, 제25・26・27

合併號, 震檀學會, 1964

高句麗의 中期都城, 閔德植, 韓國史論 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高句麗의 敗亡原因論, 李昊榮, 中齋 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

高句麗의 漢水流域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盧泰敦, 韓國史研究 13, 1976

高句麗의 漢江流域進出과 意義, 朴性鳳, 郷土서울 42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4

高句麗의 後期都城, 閔德植, 韓國史論 19, 國史編纂委員會, 1989

高句麗戰役新羅進軍路考, 津田左右吉, 滿鮮歷史地理 1, 1913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 2책, 1960

高句麗 海洋交渉史研究, 尹明喆,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93

古代南朝鮮における韓人居住とその歴史的役割,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1977

古代史上의 大陸關係, 丁仲煥, 白山學報 제4호, 1968

古代思想의 特性, 申東河,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古代山城의 發生과 變遷, 全榮來, 馬韓·百濟文化研究 11, 圓光大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8

古代에 있어서의 海上交通, 孫兌鉉,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5, 1980

古代朝鮮文化의 諸問題,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1977

金庾信의 百濟攻擊路研究, 鄭永鎬, 史學志 제6집, 1972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朱甫敬, 韓國學論叢 20, 1993

羅唐間의 朝貢에 대하여, 申滢植, 歷史教育 10, 1967

羅唐同盟의 性格과 蘇定方의 被殺說, 李道學, 新羅文化 제2집, 1985

羅唐同盟의 瓦解, 존·씨·제미슨, 歷史學報 제44집, 1969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閔德植, 史學研究 제40호, 1989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 遺民의 對唐抗爭, 梁炳龍,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988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 遺民의 對唐抗爭, 梁炳龍, 史叢 제46호, 高麗大史學會, 1997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金秉柱, 韓國史研究 46, 1984

南山 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李鍾旭, 歷史學報 제64집,

1974

唐高宗の高句麗討滅の役と卑列道・多谷道・海谷道の稱,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2輯, 1960

唐代의 高句麗遺民 徙民策, 金文經, 唐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1986

唐の高句麗討滅と安東都護府,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 三一書房,
1984

唐の朝鮮經營と日本, 兆山康夫, 歷史研究 7・8, 大阪大學, 1971

唐代外民의 內徙策, 金文經, 崇田大論文集 제11집, 1981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 卞麟錫, 史叢 제11집, 1966

唐에서 바라 본 新羅의 三國統一, 卞麟錫, 史學研究 제50호, 1995

唐帝國の盛衰- 統一新羅・渤海の成立と唐, 栗原益男, 八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世界, 1980

唐初의 異民族政策 性格考, 宋台鎬, 慶北史學 제13호, 1990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盧泰敦, 軍史 제34호, 1997

大陸關係史 古代篇(上), 李龍範, 白山學報 제18호, 1975

大陸關係史 古代篇(下), 李龍範, 白山學報 제19호, 1975

The Sui Dynasty, Arthur F. Wright, New York, 1978

突厥毗伽可汗と唐・玄宗との對立と小高句麗國, 日野開三郎, 史淵 79, 1959

東아시아 國際關係속의 渤海와 新羅, 宋基豪, 韓國史市民講座 5, 1989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西嶋定生,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
出版會, 1983

賈肖城 研究, 安國承, 京畿郷土史學 제2집, 1997

文武王代의 美術, 崔應天, 新羅文化 제16집, 1999

文武王의 佛教政策, 金福順, 新羅文化 제16집, 1999

彌勒思想研究, 吳亨根, 佛教學報 21, 1984

彌勒仙花攷, 金煥泰, 佛教學報 3・4합집, 1966

미륵신앙과 화랑사상, 金知見, 정신문화연구 13-1, 1990

渤海建國과 南北國의 形成, 韓圭哲,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 古田徹, 朝鮮學報 제113집, 1984

- 渤海建國의 背景, 盧泰敦, 大丘史學 19, 1981
- 渤海考, 津田左右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1915
- 渤海에 대한 新羅의 兩面的 認識과 그 背景, 宋基豪, 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 渤海王國의 建設, 鳥山喜一, 渤海史上的 諸問題, 1968
- 渤海王國의 社會構成과 高句麗遺裔, 李龍範, 中世東北亞細亞史研究, 1976
- 渤海의 支配勢力 研究, 林相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8
- 白江考 及 炭峴考, 輕部慈恩, 百濟遺蹟의 研究, 1971
- 百濟故地に於ける唐の州縣考, 大原利武, 朝鮮 제159호, 1928
- 百濟末 黃山의 階伯將軍, 申鼎言,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
- 百濟滅亡後의 動亂及び唐・羅・日 三國의 關係 附說 白江及び炭峴について, 池內宏,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4, 1934
-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관한 研究, 沈正輔, 百濟研究 14, 1983
- 백제 부흥운동 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金恩淑, 日本學 15, 1996
- 百濟僧 道琛의 思想的 背景과 復興運動, 成周鐸, 호서사학 19・20합집, 1992
- 百濟戰役地理考,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1, 1913
- 百濟周留城考, 輕部慈恩, 日本大七十年記念論文集, 1960
- 百濟敗亡原因論, 李吳榮, 朴性鳳教授回甲紀念史學論叢, 1987
- 百濟 黑齒常之 父子의 墓地銘檢討, 李文基, 韓國學報 64, 1991
- 法興王代의 國家體制 強化, 盧重國,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1987
- 佛教信仰의 展開樣相과 生活世界, 金煥泰,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불교의 수용과 고대사회의 변화, 김두진, 韓國古代史論 8, 1988
- 佛教의 護國思想, 金東華, 李內燾華甲紀念論叢, 1956
- 悲運의 新羅 遣唐使, 權憲永,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 4~6세기 농업생산력의 發達과 社會변동, 전덕재, 역사와 현실 제4호, 1990
-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金相鉉, 新羅와 狼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7집, 1996

- 三國間 戰爭의 社會 經濟的 意味, 金基興,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1991
- 三國과 南北朝 交渉의 性格, 徐榮洙, 東洋學 제11집, 1981
- 삼국시대 刀劍에 대한 연구, 柳廷熹,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7
- 三國時代 山城研究, 李元根, 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75
-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 李賢惠, 한국상고사학보 8, 1991
- 三國時代의 武器小考, 金基雄, 韓國學報 5, 一志社, 1976
- 三國時代의 戰爭捕虜에 관하여, 金鍾瑢, 歷史學報 제136집, 1992
- 三國時代의 韓中關係研究, 徐榮洙, 檀國大 博士論文, 1981
-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 申滢植, 韓國史研究 43, 1983
-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展開와 性格, 徐榮洙,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韓國史研究會編, 1987
- 三國의 對立과 그 樣相, 李龍範,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三國의 鼎立과 新羅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邊太燮, 韓國史市民講座 5, 一潮閣, 1989
- 三國의 統一(上)·(中)·(下), 千寬宇, 新東亞 516·8월호, 1973
- 三國統一期の 指導者들, 李丙熹, 國土統一 11월호, 1973
- 三國統一에 寄與한 新羅佛敎의 精神, 李箕永, 國土統一 11월호, 1973
-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味, 邊太燮, 新羅文化 제2집, 1985
- 三國統一의 民族史的 意義와 韓民族 再結合의 理念, 崔昌圭, 國土統一 11월호, 1973
- 三國統一의 歷史的 性格, 申滢植, 韓國史研究 61·62 합집, 1988
- 三國統一의 精神的 基盤, 金相鉉,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三國統一戰爭과 百濟復興運動, 全榮來, 軍史 제4호, 1982
- 三國統一 前後 新羅의 對外關係, 申滢植, 新羅文化 제2집, 1985
- 三國統合과 新金氏家門, 文晳鉉, 軍史 제2호, 1984
-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盧泰敦, 韓國史研究 38, 1982
- 小高句麗의 建國,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 三一書房, 1984
- 小高句麗의 滅亡,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 三一書房, 1984
- 小高句麗의 領域と民族構成,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제8권, 三一書房,

1984

- 小白山脈地域の 交通路와 遺蹟, 朴相侁, 國史館論叢 제16집, 1990
- 隋唐代東아시아의 國際關係, 加敏一,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1979
- 隋唐文化の影響をうけた朝鮮諸國文化, 井上秀雄, 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1979
- 隋唐二朝高句麗 遠征の地理, 滿洲歷史地理 1, 1913
- 宿衛學生考, 申滢植, 歷史教育 11, 1967
-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原動力, 李瑄根, 國土統一 11월호, 1973
- 新羅官職 및 軍制의 研究, 辛兌鉉, 新興大 論文集 1-2, 1959
- 新羅官僚制度의 特性, 李基東,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981
- 新羅骨品貴族의 經濟的基盤, 윤한택, 변태섭정년논총, 1985
- 新羅九州五京攷, 藤田亮策, 朝鮮學報 제5집, 1953
- 新羅軍主考, 申滢植, 白山學報 제19호, 1975
-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金哲竣, 인문과학 7, 1962
- 新羅의 骨品制社會, 武田幸南, 歷史學研究 299, 1965
- 新羅의 骨品制と王統, 池內宏, 滿鮮史研究 上世 2책, 1960
- 新羅의 郡縣制, 末松保和, 學習院大學文學部 研究紀要 21, 1975
- 新羅의 花郎について, 池內宏, 滿鮮史研究 上世 2책, 1960
- 新羅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李俊善, 關東大論文集 8, 1980
- 新羅と小高句麗國, 村上四男, 朝鮮學報 제37・38집, 1966
- 新羅東北境의 變遷에 관한 考察, 白鴻基, 江陵教育大論文集, 1972
- 新羅文武大王의 民族統一 偉業, 李明植, 大邱史學 25, 1984
- 新羅 文武王代 對唐交涉述論, 拜根興(姜文皓 역), 新羅文化 제16집, 1999
- 新羅 文武王代 社會政策의 性格檢討, 趙法鍾, 新羅文化 제16집, 1999
- 新羅 文武王代의 對服屬民 政策, 金壽泰, 新羅文化 제16집, 1999
- 新羅文化의 特徵, 李丙燾, 史海 1, 1948
- 新羅 彌勒下生信仰의 研究, 韓相吉, 伽山理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1992
- 新羅法興軍團과 그 性格, 李仁哲, 韓國史研究 61・62, 1988
- 新羅法興王代 佛教受容과 그 主導勢力, 南希淑, 韓國史論 25, 1991
- 新羅兵部令考, 申滢植, 歷史學報 제61집, 1974
- 新羅私兵考, 李基白, 歷史學報 제9집, 1957

- 新羅 四天王信仰의 受用과 展開, 沈曉燮, 東國史學 제30집, 1996
- 新羅社會와 花郎徒, 李基東, 新羅文化 제1집, 1984
- 新羅社會의 年齡體系와 花郎制度, 全京秀, 學術院會報 26, 1985
- 新羅三國統一에 관한 再檢討, 李昊榮, 史學志 제15집, 단국대, 1981
- 신라삼국통일은 타당한가, 金瑛河, 역사비평 20, 1993
- 新羅三國統一의 軍事史的 考察, 李鍾學, 軍史 제8호, 1984
- 新羅三國統一의 歷史的 意義, 金相鉉,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新羅三國統一의 研究史的 評價, 申滢植,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新羅三國統一의 一要因, 李宇泰,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 新羅三國統合過程序說, 李昊榮, 史學志 제22집, 1989
- 新羅上古의 戰爭과 遊戲, 李基東, 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私學論叢, 1984
-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李泳鎬,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4집, 1993
- 新羅小京考, 林炳泰, 歷史學報 제35·36합집, 1967
- 新羅時代의 佛教思想, 金東華, 三國時代의 佛教思想, 民族文化社, 1987
- 新羅時代의 地方統治體制, 李明植, 新羅文化 제2집, 1985
- 新羅時代 華嚴信仰의 性格과 그 影響, 洪潤植, 新羅文化 제6집, 1989
- 新羅와 渤海의 交涉과 對立, 韓圭哲,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 新羅王京의 防備에 관한 考察, 閔德植, 史學研究 39, 韓國史學會, 1987
- 新羅王畿의 構成,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1974
- 新羅王都의 守備, 朴方龍, 新羅文化 제9집, 1992
- 新羅王位繼承考, 申滢植, 柳洪烈華甲紀念論叢, 1971
- 新羅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 權惠永, 한국사연구 50·51, 1985
- 新羅의 國家的 成長과 神宮, 鄭再教, 釜大史學 11, 1987
- 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對한 一考察, 申滢植, 歷史教育, 1966
- 新羅의 對唐戰爭 原因과 그 展開, 李昊榮, 檀國大學論文集 21, 1987
- 新羅의 發展段階와 戰爭, 金瑛河, 韓國古代史研究 4, 1991
- 新羅의 北進經路에 관한 新考察, 李道學, 慶州史學 제6집, 1987
-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金英하, 韓國古代史論 9, 1988
- 新羅의 三國統合過程 研究, 李昊榮, 慶熙大 博士論文, 1985

- 新羅의 宿衛外交, 申滌植,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1987
- 新羅의 歷史와 思想, 金相鉉,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新羅의 統一-外交政策 研究, 盧啓鉉, 國際法學論叢 9-1, 1964
- 新羅의 世俗五戒와 國家觀, 安啓賢, 韓國思想 3, 1960
- 신라의 정치제도 연구, 김수인, 논문집 11, 경북대학교, 1967
- 新羅의 村落構造와 그 變化, 朱甫墩, 國史館論叢 제35집, 1992
- 新羅의 花郎과 彌勒信仰의 관계에 관한 연구, 金惠婉, 成大史林 3, 1984
- 新羅의 花郎에 대한 新考察, 崔光植, 韓國의 社會와 歷史, 崔在錫教授停年 紀念, 1991
- 新羅人の武士の精神について,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 2책, 1960
- 新羅人の 統一意志와 時代社會的 氣風, 金相鉉,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 李鍾旭, 歷史學報 제86집, 1980
-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徐榮教, 慶州史學 제17집, 慶州史學會, 1998
- 新羅政治體制的變遷過程, 井上秀雄, 古代史講座 4, 1962
- 新羅中古期 軍事組織研究, 李文基, 慶北大 博士論文, 1991
- 新羅中古期 王京人の 軍事的運用, 李文基, 新羅文化 제5집, 1985
- 新羅 中古期の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盧瑯錫,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 新羅 中古期の 王權強化過程, 李明植,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 신라중고기의 6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 주보돈, 新羅文化 제3·4합집, 1987
- 新羅中古期の 中國認識, 金瑛河, 民族文化研究 15, 1980
-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金在弘, 韓國古代史論叢 제 7집, 1995
-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 金在弘, 韓國史研究 72, 1991
- 新羅 中古期の 花郎徒, 金炳坤, 東國史學 제30집, 1996
- 新羅中古時代의 彌勒信仰, 金杜珍, 韓國學論叢 제9집, 國民大, 1987
- 新羅中古時代의 聖骨, 李鍾旭, 震檀學報 제50호, 1980
- 新羅中古의 國王近侍集團, 李文基, 歷史教育論集 5, 1983
- 新羅中古의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朱甫墩, 韓國史研究 23, 1979

- 新羅中代の 官僚制와 骨品制, 李基東, 震檀學報 제50호, 1980
- 新羅中代の 彌勒信仰, 金惠婉, 閔丙河停年論叢, 1988
- 新羅中代の 入唐求法僧 研究, 呂聖九, 國民대 박사논문, 1997
-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眞骨貴族, 金壽泰, 西江大 박사논문, 1990
-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金相鉉, 동방학지 44, 1984
- 新羅 地方統治體制研究, 姜鳳龍, 서울대 박사논문, 1994
- 新羅職官 및 軍制의 研究, 辛兌鉉, 신흥대 논문집1-2, 1959
- 新羅 眞德女王代의 政治改革, 任慶彬, 北岳史論 第3輯, 國民大 國史學科, 1993
- 新羅眞平王代의 對中交涉, 李鼎淑, 釜山女大史學 10·11호 합집, 1993
- 新羅眞興大王의 信佛과 그 思想研究, 金煥泰, 불교학보 5, 1967
- 新羅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李文基, 大邱史學 21·22, 1982
- 新羅眞興王と其の時代, 村上四男, 朝鮮學報 제81집, 1976
- 신라통일기 불교계의 동향과 추이, 김영미,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 신라통일기의 경제제도, 안병우,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 新羅統一期의 軍事組織, 李明植,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 신라통일기의 사회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토론,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蔡尙植, 釜山史學 8, 1984
- 신라통일기의 지배체제, 강봉룡, 역사와 현실 제14호, 1994
- 新羅統一外交의 展開와 性格, 徐榮洙,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1987
-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 許重權,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5
- 新羅統一前後期 租稅制度의 變動, 이인재, 역사와 현실 제4호, 1990
- 新羅花郎의 性格につて, 金鍾瑢, 朝鮮學報 제82집, 1977
- 新羅花郎徒 연구의 現段階, 李基東, 李基白 古稀記念 韓國史學論叢(上), 일조각, 1994
- 新羅花郎徒의 敎政單體的 性格과 그 社會的 意義, 朴承吉, 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 新羅花郎徒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李基東, 歷史學報 제16집, 1976
- 新羅 花郎徒의 起源과 展開過程, 李道學, 精神文化研究 13-1, 1990
- 新羅花郎徒의 社會的 考察, 李基東, 歷史學報 제82집, 1979

- 新羅華嚴思想史研究, 金相鉉, 民族社, 1991
- 安東都護府考, 津田左右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1915
- 淵蓋蘇文과 金春秋, 盧泰敦, 韓國史 市民講座 제5집, 一潮閣, 1992 중판
-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盧泰敦, 東方學志 44집, 延世大 國學研究院, 1984
- 熊津都督府의 支配組織과 對日本政策, 李道學, 白山學報 제34호, 1987
- 熊津時代의 百濟의 貴族勢力, 李基白, 百濟研究 9, 1978
- 圓光法師, 李基白, 創作과 批評 3-2, 1968 여름
- 圓光法師와 三岐山金谷寺, 鄭永鎬, 史叢 제17·18합집, 1973
- 元曉, 安啓賢, 人物韓國史 1, 博友社, 1965
- 元曉가 본 佛教의 護國思想, 高翊晉, 東國史學 제12집, 1976
- 元曉思想의 獨創의 特性, 李箕永,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儒敎思想의 展開樣相과 生活世界, 郭信煥,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清原 飛中里 石佛, 徐榮一, 史學志 제30집, 1997
- 6世紀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 朱甫墩,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1997
- 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梁起錫,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 6世紀 後半 新羅와 倭國의 國交成立過程, 金恩淑,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 6·7세기 新羅兵制와 地方統治組織의 再編, 姜鳳龍, 역사와 현실 제4호, 1990
- 6~7世紀의 武器·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 李仁哲,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1995
- 義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과 百濟滅亡, 金周成, 百濟研究 19, 1988
- 異次頓說話에 對한 新考察, 崔光植, 韓國傳統文化研究 1, 1985
- 仁王般若經과 護國佛教, 李箕永, 東洋學 제5집, 1975
- 朝鮮古代國家의 軍事組織, 宋松保和, 古代史講座 5권, 學生社, 1962
- 朝鮮三國의 軍區組織, 山尾幸久,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 정치력과 외교력, 그 엇갈린 선택-연개소문과 김춘추, 여호규, 역사의 길목
에 선 31인의 선택, 푸른역사, 1999
- 淨土敎와 圓光世俗五戒의 考察, 申賢淑, 韓國史研究 61·62, 1988
- 周留城考, 今西龍, 百濟史研究, 1934
- 周留城·白江位置 比定에 관한 新研究, 全榮來,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羅北
道支部, 1976
- 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 武田幸男, 民族文化論叢 1, 嶺南大, 1981
- 中國人の 高句麗流亡과 遼東開墾, 徐炳國, 白山學報 제34호, 1987
- 眞平王代 王權強化와 帝釋信仰, 李晶淑, 新羅文化 제16집, 1999
- 辰韓의 鐵産과 新羅의 强盛, 文暻鉉, 大邱史學 7·8, 1973
- 眞興王의 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篇제2책
- 天智朝의 對外政策에 대한 一考察, 鄭孝雲, 韓國上古史學報 14, 1993
-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 關係, 古畑徹, 朝鮮學報 107, 1983
-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 經緯에 대한 一考察, 朴漢濟, 東洋史學研究
제43집, 1993
- 7世紀 前半期 東亞細亞情勢와 新羅, 李龍範·徐榮洙, 統一期の 新羅社會研
究, 1987
- 7世紀後半の國際政治史試論, 鬼頭清明, 古代の日本と朝鮮, 1974
- 7~8世紀에 있어서의 新羅와 日本과의 關係, 洪淳昶, 韓日古代文化交渉史
研究, 1974
- 炭峴考, 洪思俊, 歷史學報 제35·36합집, 1967
- 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 盧泰敦, 韓國사 3, 國史편찬위원회, 1978
- 統一期 三國間 國力比較, 李龍範, 國土統一 11월호, 1973
-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盧重國,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金壽泰, 歷史學報 제99·100합집,
1983
-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 金英美, 韓國史研究 50·51, 1985
- 統一新羅時代의 華嚴信仰, 金相鉉, 新羅文化 제2집, 1985
- 統一新羅의 對唐關係,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1984
- 統一新羅의 歷史와 思想, 金杜珍, 韓國思想史大系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統一新羅의 自由意識과 對唐抗爭, 李鉉淳, 國土統一 11월호, 1973
- 統一新羅 支配體制的 再整備, 金哲俊, 韓國사 3, 國家원찬위원회, 1978
- 統一意志와 元曉大師, 曹廣海, 政經文化 6월호, 1980
-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金恩淑, 國史館論叢 제29집, 1991
- 8世紀 前半 新羅와 渤海의 對立關係와 그 要因, 趙仁玉, 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15집, 1994
- 風流精神과 新羅文化, 金凡父, 韓國思想 3, 1960
-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申滄植, 國史館論叢 제2집, 1989
-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노태문, 韓國古代史論叢 1, 1991
-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李基白, 韓國學報 6, 1977
- 韓·中間의 古代陸上交通, 劉鳳榮, 自由學報 제20호, 1976
- 韓國·中國·日本 古代의 船舶과 航海術, 金在瑾, 東檀學報 제68호, 1989
- 花郎道와 世俗五戒, 金正坤, 정신문화연구 13-1, 1990
- 花郎徒의 教育思想에 관한 研究, 金基泰, 論文集 19, 仁川敎大, 1985
- 花郎徒의 全盛과 武士道 登場, 李基東, 統一期の 新羅社會研究, 1987
- 花郎徒 創設에 관한 小考, 金光永, 東國思想 1, 東國大 東國思想研究所, 1958
- 『花郎世紀』를 통하여 본 新羅 花郎徒의 起源과 設置, 李鍾旭, 花郎文化의 新研究, 1995
- 花郎의 彌勒信仰에 대하여, 金庠基, 李弘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69
- 花郎이 갖는 思想史的 意味, 尹天根, 정신문화연구 13-1, 1990
- 花郎精神의 思想的 脈絡에 관한 研究, 金棟喆, 國民倫理研究 20, 1984
- 黃龍寺九層塔考, 金相鉉, 申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
- 黃山の 階伯將軍, 申鼎言, 春秋 2권 8호, 朝鮮春秋社, 1941
- 玄宗의 平盧節度使育成と小高句麗國, 日野開三郎, 史淵 87・89, 1962

□ 執 筆

研究委員 徐 仁 漢

羅 唐 戰 爭 史

民族戰亂史 Ⅱ

1999年 12月 23日 印刷

1999年 12月 27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朴 淳 贊

印刷處 三 寶 社

〈非賣品〉

본 저작물의 복제, 복사 또는 인용시에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할 것